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사 학 위 논 문

‘있다/없다’ 의미 확장 양상의 인지 의미론적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김 미 영

지도교수 김 진 수

2020년 2월

‘있다/없다’ 의미 확장 양상의 인지의미론적 연구

지도교수 김 진 수

이 논문을 문학 박사학위
청 구 논 문 으 로 제 출 함

2019년 10월

충 남 대 학 교 대 학 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김 미 영

김미영의 문학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인준함

2019년 12월
논 문 심 사 위 원 회

위원장	<u>이 향 천</u>
위 원	<u>박 재 희</u>
위 원	<u>문 병 열</u>
위 원	<u>김 정 태</u>
위 원	<u>김 진 수</u>

충 남 대 학 교 대 학 원

목 차

1. 서론	1
1.1 연구 목적	1
1.2 연구 방법	3
1.3 연구사 개관	8
2. 이론적 배경	19
2.1 반의어 개념과 유형	19
2.2 인지의미론의 이론	25
2.2.1 인지의미론의 이론 도입 필요성	26
2.2.2 의미 확장의 방향 및 기제	33
3.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 양상	53
3.1 ‘있다/없다’의 중심 의미	53
3.2 고정반의어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	58
3.2.1 상보반의어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	58
3.2.2 정도반의어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	81
3.3 상황반의어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	99
3.3.1 상황반의어 ‘있다/없다’에 작용하는 기제	102
3.3.2 상황에 기반한 ‘있다/없다’의 확장 도식	104

4. ‘있다/없다’의 비대칭성	129
4.1 형태 층위	129
4.1.1 유표성	130
4.1.2 합성법	132
4.1.3 파생법	140
4.2 통사 층위	147
4.2.1 기능어	147
4.2.2 의문문	150
4.2.3 높임법	153
4.3 화용 층위	156
4.3.1 관용구	157
4.3.2 담화 표지	162
4.3.3 화제 표지	164
4.4 의미 층위	166
4.4.1 의미 확장 양상	166
4.4.2 빈도	168
5. 결론	178
참고문헌	183
ABSTRACT	195

표 목차

〈표 1-1〉	4
〈표 1-2〉	16
〈표 2-1〉	21
〈표 2-2〉	24
〈표 2-3〉	26
〈표 2-4〉	29
〈표 2-5〉	37
〈표 2-6〉	43
〈표 2-7〉	45
〈표 3-1〉	55
〈표 3-2〉	61
〈표 3-3〉	64
〈표 3-4〉	66
〈표 3-5〉	68
〈표 3-6〉	70
〈표 3-7〉	73
〈표 3-8〉	75
〈표 3-9〉	77
〈표 3-10〉	80
〈표 3-11〉	93
〈표 3-12〉	95
〈표 3-13〉	97
〈표 3-14〉	104
〈표 3-15〉	105
〈표 3-16〉	108
〈표 3-17〉	111
〈표 3-18〉	115
〈표 3-19〉	118
〈표 3-20〉	121
〈표 4-1〉	130

〈丑 4-2〉	132
〈丑 4-3〉	136
〈丑 4-4〉	140
〈丑 4-5〉	140
〈丑 4-6〉	144
〈丑 4-7〉	145
〈丑 4-8〉	153
〈丑 4-9〉	156
〈丑 4-10〉	157
〈丑 4-11〉	160
〈丑 4-12〉	164
〈丑 4-13〉	166
〈丑 4-14〉	168
〈丑 4-15〉	170
〈丑 4-16〉	173
〈丑 4-17〉	174

그림 목차

〈그림 2-1〉	39
〈그림 2-2〉	42
〈그림 2-3〉	47
〈그림 3-1〉	62
〈그림 3-2〉	79
〈그림 3-3〉	88
〈그림 3-4〉	88
〈그림 3-5〉	90
〈그림 3-6〉	92
〈그림 3-7〉	98
〈그림 3-8〉	110
〈그림 3-9〉	119
〈그림 3-10〉	122
〈그림 3-11〉	122
〈그림 3-12〉	127
〈그림 4-1〉	146
〈그림 4-2〉	171
〈그림 4-3〉	177

1. 서론

1.1 연구 목적

본고는 인지이미론적 관점에서 반의어 쌍의 맥락 의존적인 동적 의미와 의미·구조적 비대칭성에 주목하여 그 의미 확장 방향과 거기에 작용하는 기제 및 비대칭성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반의 관계에 있으면서 한국어 서술어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¹⁾ ‘있다/없다’로 한다.

‘있다/없다’는 다른 단어에 비해 고빈도로 출현되고, 또한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다양한 의미들 사이에 어떤 연계를 가지고 있고 그 의미를 파악함에 있어서 어떤 개념적 표상을 가지고 있는지는 다의어 연구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과제이다. 의미의 연계성과 개념적 표상들은 인간의 인지 능력과 깊은 상관성을 맺고 있다. 한 단어가 의미 확장 과정에서 새로운 상황에 직면할 때 항상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인간이 이미 겪었던 체험을 바탕으로 동일한 인지 과정의 작용 하에 서로 다른 영역이지만 같은 개념적 표상을 실현한다. 인간의 효율적인 인지 장치가 무한한 의미 확장을 방지하고, 의미 유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ㄱ. 그는 교실에 있다. (물리적 공간 개념)
- ㄴ. 엄마는 철도청에 있다. (사회적 공간 개념)
- ㄷ. 그가 내 가슴에 있다. (심리적 공간 개념)

1) 조남호(2002),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에서 빈도수 높은 순으로 10번까지 제시하면 “것(의존명사), 하다(동사), 있다(보조동사), 있다(형용사), 되다(동사), 수(의존명사), 나(대명사), 그(관형사), 없다(형용사)”이다.

예문 (1ㄱ)는 물리적 공간을 나타낸다. 단순히 '누가 어느 공간에 존재한다.'는 뜻이다. 예문 (1ㄴ)는 '누가 어떤 직장에 다닌다.'를 똑같이 '누가 어느 공간에 존재한다.'의 틀로 표현된 예이다. (1ㄷ)도 '나는 그를 그리워 한다.'를 똑같이 '누가 어느 공간에 존재한다.'의 틀로 표현한 예이다. 위의 세 예문의 틀이 바로 공간 개념의 표상이다. 똑같이 공간 개념을 이용한 것은 의미 유추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이다. 이처럼 '있다/없다'의 다양한 의미들은 어떤 개념적 표상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두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있다/없다'는 상보적 의미를 가지는 이원반의어로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 문맥에서는 정도반의어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문맥에 따라 다른 어휘와 반의어 쌍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 ㄱ. 그는 있는 집 자손이다.

ㄴ. 새 아기가 없는 살림 꾸려 나가느라 애 많이 쓰는구나.

(3) ㄱ. 입은 있으나 행동은 죽었다.

ㄴ. 윤명이 희명이 되는 경우 또한 비밀비재하다.

예문 (2ㄱ-ㄴ)는 '부유하다-가난하다'의 의미로 양적 정도성을 나타낸다. 예문 (3ㄱ)에서는 '있다'가 '없다'가 아닌 '죽다'와, 예문 (3ㄴ)에서는 '유'가 '무'가 아닌 '허'와 반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있다/없다'가 상보반의어 뿐만 아니라 정도반의어, 상황반의어로도 작용함을 시사한다.

'있다/없다'는 형태·통사·화용 등 층위에서 많은 비대칭성이 발견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4) ㄱ. *있어진다 -- 없어진다, *있애다 --없애다

ㄴ. *낮있다 -- 낮없다, *변함있다 -- 변함없다

ㄷ. -고 있다 -- *-고 없다, -어 있다 -- *-어 없다

ㄹ. *국물도 있다 -- 국물도 없다(관용구), 뼈대가 있다(관용구) -- *뼈대가 없다

예문 (4)와 같이 '있다/없다'는 여러 측면에서 비대칭적인 분포를 이룬다. 이

런 비대칭성이 초래되는 원인을 살펴보고 종합·정리하여 ‘있다/없다’의 형태·통사·화용·의미적 특징을 종합하는 것도 매우 유의미할 것이다.

위에서 기술한 개념적 표상, 정도성, 상황성 및 그 비대칭성을 바탕으로 ‘있다/없다’의 다양한 의미 확장의 양상을 밝히고 그 전체적인 의미망을 구축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위의 예문과 같은 양상을 인간의 인지와 연계시켜 그 원인과 작용하는 기제를 찾아 해석해 볼 수 있다. 인지언어학이 등장하면서 낱말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기존의 의미 자질 분석이 아닌, 인간의 인지와 연계 속에서 체험주의에 입각하여 의미를 큰 틀로 포괄하여 새롭게 해석한다.

앞선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본고는 한국어 반의어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 양상과 그 비대칭성을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구체적인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있다/없다’의 중심 의미를 찾아내어 확장 의미와 구분할 것이다.

둘째, ‘있다/없다’ 반의어 짝의 고정성 여부에 근거하여 유형화하고, 유형별 확장 양상을 밝히고 거기에 작용하는 기제를 분석할 것이다.

셋째, 유형별 확장 양상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그 의미적 관계를 반영하는 의미망을 구축할 것이다.

넷째, ‘있다/없다’의 형태·통사·화용·의미 층위의 비대칭성에 주목하여 여러 층위에서의 특징을 종합하고, 그 원인을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 해석을 가할 것이다.

1.2 연구 방법

반의어 연구 방법론에는 구조의미론, 말뭉치 접근법, 화용적 접근법, 인지의미론 등이 있다²⁾. 그 중 인지의미론은 열린 시각의 방법론으로, 개념화와 해석

2) ‘구조의미적 접근법’, ‘말뭉치 접근법’, ‘화용적 접근법’에 대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전문규2017:10-13)

‘구조의미적 접근법’은 구조주의 대립에 기제를 두고 있다. 구조주의에서 의미의 본질에 대한 기본 가정은 개별 언어를 고유의 관계적 체계로 보고, 이 체계에서 단어는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로부터 그 의미를 부여받기 때문에, 의미는 실질적인 것이 아니

의 관점, 상황성을 모두 고려한 구조의미론의 정적인 한계를 넘어선 보다 앞선 방법론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고는 위에서 제기한 여러 문제들을 인지의미론의 방법론으로 해석을 가하고자 한다. 우선 연구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있다/없다’의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1〉 『표준국어대사전』의 ‘있다/없다’ 의미와 예문

사전적 의미					예문
있 다	고 유 어	형 용 사	1	사람, 동물, 물체 따위가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이다.	나는 신이 있다고 믿는다.
			2	어떤 사실이나 현상이 현실로 존재하는 상태이다.	기회가 있다.
			3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벌어질 계획이다.	모임이 있다.
			4	(주로 '있는' 꼴로 쓰여)재물이 넉넉하거나 많다.	그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체한다.
			5	('ㄴ 수 있다' 꼴로 쓰여)어떤 일을 이루거나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이 가능함을 나타내는 말.	나는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다.
			6	(구어체에서, '있잖아', '있지' 꼴로 쓰여)어떤 대상이나 사실을 강조·확인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그 사람 있잖아 엄청난 부자래.
			7	사람이나 사물 또는 어떤 사실이나 현상 따위가 어떤 곳에 자리나 공간을 차지하고 존재하는 상태이다.	방 안에 사람이 있다.
			8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 머무르거나 사는 상태이다.	그는 서울에 있다.
			9	사람이 어떤 직장에 다니는 상태이다.	그는 철도청에 있다.
			10	어떤 처지나 상황, 수준, 단계에 놓이거	난처한 처지에 있다.

라 관계적인 것으로 본다.

‘말뭉치 접근법’은 말뭉치 자료를 통해 반의어 쌍을 확보하고 사용 양상을 살펴보는 관점이다. 말뭉치 자료는 반의어가 실제 언어 용법을 반영하므로 기술적 연구에 유용하며,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어 연구의 과학적 접근법으로 간주된다.

‘화용적 접근법’은 반의어를 공동체의 문화권을 중심으로 인간의 머릿속에서 그 사용 및 지위와 관련해서 고려하는 관점이다. 화용적 접근법은 의미관계의 엄격히 형식적이거나 기술적인 설명과 대조된다.

				나 처한 상태이다.	
			11	개인이나 물체의 일부분이 일정한 범위나 전체에 포함된 상태이다.	합격자 명단에는 내 이름도 있었다.
			12	어떤 물체를 소유하거나 자격이나 능력 따위를 가진 상태이다.	나에게 1000원이 있다.
			13	일정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존재하는 상태이다.	나에게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다.
			14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긴 상태이다.	만일 너에게 무슨 일이 있게 되면 바로 연락해라.
			15	앞에 오는 명사를 화제나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상태를 나타내는 말. 문어적 표현으로, ‘에’, ‘에게’, ‘에서’의 뜻을 나타낸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16	사람이 어떤 지위나 역할로 존재하는 상태이다.	그는 지금 대기업의 과장으로 있다.
			17	이유나 가능성 따위로 성립된 상태이다.	아이의 투정은 이유가 있었다.
		동사	1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다.	내가 갈 테니 너는 학교에 있어라.
			2	사람이 어떤 직장에 계속 다니다.	딴 데 한 눈 팔지 말고 그 직장에 그냥 있어라.
			3	((‘-게’ 대신에 ‘-이/히’ 부사 따위나 다른 부사어가 쓰이기도 한다)) 사람이나 동물이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떠들지 말고 얹전하게 있어라.
			4	얼마의 시간이 경과하다.	앞으로 사흘만 있으면 추석이다.
		보조동사	1	(주로 동사 뒤에서 ‘-어 있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변화가 끝난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말.	앉아 있다.
			2	(주로 동사 뒤에서 ‘-고 있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나 그 행동의 결과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말.	듣고 있다.
유	한자어	명사	1	있거나 존재함.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없다	고유어	형용사	1	사람, 동물, 물체 따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그는 귀신이 없다고 믿었다.
			2	어떤 사실이나 현상이 현실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이제 그런 기회는 없다.
			3	어떤 일이나 현상이나 증상 따위가 생겨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다.	범죄 없는 사회
			4	어떤 것이 많지 않은 상태이다.	찬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5	(주로 '없느' 꼴로 쓰여)재물이 넉넉하지 못하여 가난하다.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6	(주로 '-르(을) 수 없다' 꼴로 쓰여)어떤 일이 가능하지 않다.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다.
			7	사람이나 사물 또는 어떤 사실이나 현상 따위가 어떤 곳에 자리나 공간을 차지하고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다.
			8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 머무르거나 살지 않는 상태이다.	그 사람은 지금 이 집에 없습니다.
			9	매우 드물다.	그는 천하에 없는 효자로 소문이 자자하다.
			10	일정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상태이다.	합격자 명단에는 내 이름이 없었다.
			11	어떤 물체를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자격이나 능력 따위를 갖추지 않은 상태이다.	나에게는 지금 단돈 100원도 없다.
			12	일정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그 아이에게는 어떤 친척도 없다.
			13	어떤 사람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은 상태이다.	아직 며느리에게 태기가 없어서 걱정이다.
			14	(이유, 근거, 구실, 가능성 따위와 같은 단어와 함께 쓰여)이유나 가능성 따위로 성립될 수 없는 상태이다.	그의 반항은 이유가 없었다.
			15	상하, 좌우, 위계 따위가 구별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는 위아래가 없다.
무	한자어	명사	1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 상태.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위의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인지의미론의 개념화 방식을 받아 들여 ‘있다/없다’의 확장 양상을 기술함에 있어서 같은 틀의 확장을 동일한 개념으로 포괄하여 그 의미 양상을 기술할 것이다. 이를 실현하고자 위의 사전적 의미는 모두 본고의 연구 범위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언어 내적 또는 언어 자체의 문제보다는 언어의 외적, 맥락을 고려한 의미의 역동성을 고려하기에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일부 문어·구어적 표현의 양상도 연구범위에 포함시키겠다.

‘있다’와 ‘없다’는 반의어이다. 본고는 ‘있다’와 ‘없다’를 각각으로 논의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의 대립 쌍으로 보고 의미 확장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고찰하고 그 비대칭성에 주목하여 인지의미론적 관점으로 해석할 것이다³⁾ 각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2장에서는 우선 ‘있다/없다’ 반의어의 개념과 유형을 확정할 것이다. 다음 본고의 이론적 배경으로 작용하는 인지의미론의 이론을 논의할 것이다. 기존 학자들의 범언어적으로 존재하는 의미 확장 방향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 후 원형이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것인데 이는 ‘있다/없다’의 중심 의미를 확정하는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확장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나침반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주관화 이론과 영상 도식 이론을 구체적으로 살필 것인데 이런 이론들은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에서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3장에서는 2장에서 분류한 ‘있다/없다’ 반의어 유형에 따라 이론적 근거를 적용하면서 그 확장 양상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있다/없다’의 중심 의미를 확정하고, 다음 ‘있다/없다’를 고정반의어와 상황반의어의 유형에 따라 그 확장 양상과 거기에 작용하는 기제를 앞에서 소개에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다의어의 의미적 관계를 의미망으로 구축할 것이다.

4장에서는 ‘있다/없다’의 비대칭성을 형태·통사·화용·의미적 층위에서 인지의미론적 관점으로 해석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능어, 합성법, 유표성, 관용어, 파생법, 의문문, 화제 표지, 관용구, 담화 표지, 빈도, 의미 확장 등의 그 비대칭성의 양상인데 그것이 초래되는 원인을 밝히고 ‘있다/없다’의 대립 쌍도 일반 반의어와 마찬가지로 구조와 의미적 측면에서 대칭적이지 않음을 증명할 것이

3) 하지만 오늘날의 상이한 용법을 고찰하는 것이므로 현대 공시적인 접근만 논의 범위에 넣고 통시적 의미 변화 과정은 본고의 논의 범위에서 제외하겠다.

다. 또한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 양상과 그 비대칭성을 고려한 전반적인 의미망을 제시할 것이다.

1.3 연구사 개관

‘있다/없다’에 관한 연구에서 ‘있다’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그것은 ‘있다’가 ‘없다’에 비하여 더 생산적이고 의미가 더 다양하며 또한 본용언과 보조용언으로 나누어진 데다가 활용 체계와 의미특성으로 미루어 볼 때 형용사와 동사의 성격 모두 지니고 있음이 발견되기에 늘 논란의 대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없다’에 관한 연구도 많았지만 수량 상 ‘있다’에 비해서는 많이 적고, ‘있다/없다’를 반의어 대립 쌍으로 보고 그 대립의 차이를 연구한 논문도 많지 않고, 구조의미론적 관점에 의한 논의가 대부분이고 인지의미론적으로 해석을 가한 논문은 더욱이 적었다. 다음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관하여 ‘있다’에 관한 논의, ‘없다’에 관한 논의, ‘있다/없다’에 관한 논의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해 보겠다.

가. ‘있다’에 관한 논의

‘있다’에 관한 연구는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있다’의 품사 분류⁴⁾

둘째, ‘있다’의 어휘 의미 및 통사적 특징

-
- 4) 오늘날 동사와 형용사로 설정한 것과 달리 ‘존재사’라는 품사로 설정한 경우가 있는데 주로 박승빈(1931, 1935), 심의린(1936), 김근수(1947), 이희승(1955), 서정수(1994) 등이 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존재사를 승인하지 않고 동사와 형용사에 이를 포함시켰는데 대표적으로 최현배(1971), 허웅(1983), 유현경(1996), 임홍빈(2001) 등이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있다’를 동사로 쓰이는 경우와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 두 가지로 보는데 이는 송철의(1992, 2001), 배주채(2000), 서정수(1991)와 일치한다. 박종덕(2006)에서는 으뜸풀이씨 ‘있다’의 씨를 그림움직씨로 볼 수 있음을 주장하고 의미자질 분석 방법으로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셋째, '있다'의 보조 용언의 의미 및 통사적 특징⁵⁾

넷째, 통시적 측면에서의 '있다'의 형태·음운론적 변화 및 통사·의미적 특징⁶⁾

위의 네 가지 측면에서 본고의 논의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것은 두 번째 어휘의 의미·통사적 특징에 관한 논의이다. 아래 '있다'의 중심 의미로부터 논의

- 5) '-고 있다/-어 있다'만을 취급한 논의에는 장석진(1973), 임홍빈(1975), 이기동(1978), 김승곤(1978), 고영근(1980), 황병순(1982/1986), 김용석(1983), 홍종선(1986), 김종태(1986/1987), 김석득(1987), 이남순(1987), 이정택(1988), 정태구(1994), 손세모돌(1993), 한동완(2000) 등이 있다. 대부분 상적 기능과 '-어'와 '-고'의 쓰임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임홍빈(1975), 김종태(1986), 정태구(1994) 등에서는 '-고 있다', '-어 있다' 구성에서의 '있다'는 존재의 의미의 본용언에서 나온 보조용언임을 지적하였다. 권순구(2003)에서는 '있다'의 의미가 본용언과 보조용언에서의 의미 유연성을 찾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어 있다'와 '-고 있다'는 완료와 진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실상 그 의미들이 연결어미에 있을 개연성을 말한다는 것이다. '있다'가 문법화되어 완료와 진행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고 '-어'와 '-고'에 의해 의미가 구분됨으로써 '있다'의 의미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작용한다는 견해이다.

- '-수 있다'의 논의에는 김기혁(1999), 염재상(1999, 2003), 박재연(2003), 안주호(2004), 안정아(2005), 박혜란(2011), 조유진(2017) 등이 있는데 대부분 '-수 있다'의 구문 특징과 의미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그 중 조유진(2017)에서만 '-ㄴ/을 수 있다' 구문의 의미 범주를 일정한 범주 기준에 따라 나누고 텍스트 장르별로 말뭉치 자료를 분석하여 실제로 사용되는 양상을 관찰하여 장르별 차이를 밝혀냈다.
- 6) 정경재(2018)에서는 15세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있다'의 활용 패러다임 형태·음운론 변화를 자세히 살펴, 변화의 과정과 시기를 확인하였고 변화 동인을 고찰하였다. '있다'는 15세기에 '잇고, 이시니, 이셔'와 같은 변칙 활용이 발생되고, 근대에 이르러 '이시니>이쓰니', '이셔>이써'와 같이 자음의 변화 /ㅅ/ > /ㅍ/와 모음의 변화 /ㅣ/ > /ㅓ/를 겪어 정착 활용을 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18세기 문헌에 출현한 '있다'의 예를 전수 조사하여, 두 가지 변화 중 모음의 변화가 먼저 발생하였고 자음의 변화는 반의어 '없다'와의 '감염'에 의한 것으로, '있다'의 모음이 변화한 결과 '있다'와 '없다'의 활용형이 형태상 유사해진 것이 감염을 야기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모음의 변화 동인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이성우(2019)에서는 중세 한국어의 '있다' 구문에 대해 고찰하였다. 주로 '있다' 구문의 통사·의미적인 부분과 '있-'과 '-느-'의 결합 양상에 집중하였다. '있다' 구문의 체계를 신선경(2002)의 내용을 기반으로 물리 처소 구문, 인지 처소 구문, 소유 구문으로 나누어 통사·의미 적인 특징을 현대 한국어와 비교하여 논의한 결과 현대 한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고 또한 '있-'과 '-느-'의 결합양상을 살펴 중세 한국어의 '있다'가 동사로 파악하기 어렵고 형 용사에 가까울 가능성이 큼을 주장하였다.

하여 그 통사·의미적 특징을 밝힌 연구에 대해서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박양규(1975)에서는 '있다'의 의미를 '소유'와 '소재'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실례로 상세한 논의를 펼쳤는데 '소유'는 언어 외적 현실 논리에 의하여 생긴 의미이고, 언어화된 의미는 '존재'의 의미만 있다고 했다. 김차균(1982)에서는 '있다'의 기본 의미를 '존재 상태'로 보고 '있다' 구문에서의 존재 대상과 장소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추상적, 심리적, 정신적, 시간적인 것도 모두 '존재 상태'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가 조동사로 쓰일 경우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수련(1986)에서는 '있다'를 으뜸폴이씨와 도움폴이씨로 나누고 그 의미와 서로의 관련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으뜸폴이씨로서의 '있다'는 두 자리 폴이말로 서 두 명사 항 X와 Y의 의미 자질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X가 '존재하는 것'이고, Y가 '장소'일 때는 '장소'의 의미이고, X가 '존재하는 것'이고, Y가 '소유주'일 때는 '소유'의 의미이고, X가 '물리적 존재'이고, Y가 'X의 부분'일 때는 '전체-부분'의 의미이고, X가 '사건', Y가 '위치'일 때는 '사건 발생'의 의미라고 했다. 그 외에 으뜸폴이씨로서의 '있다'는 어휘적인 상으로서 [+상태, +지속], [+동작, +지속]으로서 '지속상'으로 보았고, 도움폴이씨로서의 '있다'도 [+동작, +지속], [+동작 완결 상태, +지속]으로서의 문법적인 상으로서 '지속상'으로 보았다. 따라서 '있다'가 공유하는 가장 추상적인 의미를 [지속]으로 추출하였다. 이수련(2003)에서는 '있다'는 '존재'라는 원형 의미에서 '장소, 소유, 시간'의 의미로 확장됨으로써 문법화 현상이 일어남을 주장하였다. 그 양상을 크게 거시적과 미시적 관점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거시적인 관점은 구체적인 근원영역에서 추상인 목표영역으로 전이가 일어나는 것으로써 은유라는 기제가 관여하고, 미시적인 관점은 환유, 비범주화와 다양화, 주관화의 기제가 관여한다고 하였다. 환유는 '있다'가 원형인 존재에서 장소, 소유로 확장되는 공간 인접성과 시간으로 확대되는 시간 인접성에 관여하고, 비범주화는 '있다'가 부사 '이따(가)'로 전이될 때와 본용언이 보조용언으로 문법화될 때 관여하는 기제로서 '존재, 장소, 소유'의 뜻은 고갈되고 시간개념만 남는 것에 관여하고, 주관화는 '-ㄴ 수 있다'가 가능성이라는 서법으로 확대될 때와 담화표지로서 화용적 기능만 남게 될 때 관여한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있다'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의 문법화가 어떻게 번져나갔는가 하는 양상을, 또한 어떤 원리에 의해서 번져나갔는가를 밝혔다.

김상대(1991)에서는 '있다'의 의미를 어휘적인 것과 문법적인 것으로 나누었

는데, 어휘적 의미를 종래의 많은 의미에서 '존재, 처함, 소유, 속성' 등 네 가지로 통합하였고, 문법적 의미는 '-어 있다'와 '-고 있다', '-수 있다'의 세 가지 형식으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김영미(1995)에서는 '있다'의 기본의미인 '존재하다'를 원형으로 하여 화자의 의식 속에서 생산적으로 쓰임에 유의하여, '있다'와 관련한 여러 유형의 의미들, 즉 '개체 존재, 명제 존재, 담화 상황 존재'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있다'의 본질적 의미를 논의하였다. 이로써 '있다'는 대상에 대한 존재 표현뿐만 아니라 명제의 보존 확정 양상과 담화 사실을 확신하여 공유하는 의지의 표현 수단으로도 두루 쓰이는 한국어의 대표적인 존재 표현 형식이라고 주장하였다.

양정석(1995), 신선경(1998)에서는 어휘개념구조 표상을 사용해 '있다'의 의미를 '소유'와 '소재/존재'로 구분하여 '있다'의 어휘개념구조를 제시하고 '있다'의 어휘개념구조의 기본 함수도 '상태'와 '사건'으로 나누었다. 이는 전통문법에서 '있다'를 동사적 쓰임과 형용사적 쓰임으로 나눈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어미 '-는다'나 명령형 어미와의 결합 가능성, 감탄형 어미와의 결합 제약, 양태 부사와의 결합 제약 등을 근거로 '있다'를 상태 함수와 사건 함수를 도입하였다.

신선경(1996)에서는 '있다' 구문의 한 하위 부류인 소유구문의 통사와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 '있다' 구문의 비대격성과 명사구들 사이의 의미관계를 고려하여 소유구문의 통사구조를, 소유구문의 명사구조와 함수 관계를 고려하여 소유구문의 의미조건을 정리하였다.

고석주(2007)에서는 '있다'의 의미를 '소재/존재'로 풀이한 고석주(1996)의 주장을 개념의미론의 어휘개념 구조 표상을 통해 보완하여 '있다'는 '소재'라는 단일한 의미로 파악될 수 있음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본용언 '있-'의 개념구조를 '공간 소재, 시간과 공간 소재, 소유 공간 소재, 공간과 양상/상태 소재'로 밝히고 보조용언의 '있-'의 개념구조를 공간과 양상/상태 소재, 시공간 소재임을 주장하였다.

구연상(2011)에서는 '있다'의 근본 의미를 '나타나다'와 '[사라짐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어나가다'라는 말로써 붙잡을 수 있어 '있음'의 근본 의미를 '나타남 이어나가기'로 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생겨난 때로부터 사라지지 않고 그것의 나타남을 이어나간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다.

황화상(2013)에서는 '있다'의 의미 특성을 본용언으로 쓰일 때와 보조용언으로 쓰일 때로 나누어 그 의미, 품사, 그리고 활용을 살펴보았다. 본용언으로서

의 ‘있다’는 형용사의 경우 ‘상태의 존재’의 의미특성을, 동사의 경우 ‘행위의 존재’의 의미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보조용언의 ‘-어 있다’와 ‘-고 있다’도 본용언과 마찬가지로 모두 ‘상태’의 뜻을 갖는 형용사와 ‘행위’의 뜻을 갖는 동사로 함께 쓰임을 고찰하였다.

이상희(2017)에서는 ‘있다’는 통사적으로 ‘주어+부사어+있다’의 구조를 가지는 존재동사 ‘있다1’과 ‘주어 목적어(보어)+있다’의 구조를 가지는 소유동사 ‘있다2’로 나뉠 수 있음을 제안하고 그 통사·의미적 특징을 비교하였다. ‘있다1’의 중심 의미를 ‘존재’로 보고 중심 의미에서 의미가 확장됨에 따라 문형이 변함으로써 ‘존재하다, 포함되다/속하다, 일어나다/이루어지다/발생하다, 위치하다, 머무르다’로의 확장 양상을 설명하였다. ‘있다2’는 중심 의미를 ‘소유’로 보고 ‘있다2’ 구문이 가지는 의미 특성이 소유의 의미 특성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정리하였다.

위의 ‘있다’에 관한 논의 중 인지의미론의 관점으로 의미 확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연구는 이수련(2003)과 이상희(2017)뿐이다. 나머지는 구조의미론의 관점에서 의미 자질 분석 방법으로 의미를 도출하여 논의를 진행한 것이다.

이수련(2003)에서는 ‘있다’의 문법화에 관하여 인지의미론의 관점으로 은유, 환유, 주관화 등 이론을 바탕으로 그 확장 양상과 거기에 작용하는 원리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하지만 여기서는 ‘있다’의 문법화에 관해서만, 그것도 부산 방언을 대상으로 한 논의일 뿐 ‘있다’의 전반적인 의미 확장 양상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못했다.

이상희(2017)에서는 ‘있다’의 중심 의미를 ‘존재’와 ‘소유’ 두 가지로 보고 그 확장 양상을 각각 논의하였다. 하지만 원형이론의 관점에서 의미들은 위계적이다. 더 중심적인 것과 덜 중심적인 것으로 나뉘는 바, 더 중심적인 것에서 덜 중심적인 것으로의 확장인 것이다. 즉 ‘있다’의 중심 의미는 하나라는 것이다. 하여 ‘있다’의 중심 의미를 두 가지로 유형화하여 확장을 논의하는 것은 인지의미론의 관점에서는 공감을 얻기 어렵다. 또한 의미 확장을 논의하였지만 작용되는 기제 설명, 맥락성, 상황성 및 비대칭성에 대한 설명은 더욱이 결여되어 있다.

나. ‘없다’에 관한 논의

‘없다’에 관해서는 품사에 대한 논란은 별로 없었다⁷⁾. ‘있다’와 ‘없다’가 반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있다’와 똑같이 ‘존재사’라는 특별한 품사로 정하자는 논의를 제외하면 ‘없다’는 만장일치로 형용사에 포함시켰다. ‘없다’에 관한 연구는 ‘있다’에 비하여 훨씬 적다. 이는 그 생산성 차이와 보조용언으로서의 쓰임의 결여로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없다’는 통시적인 형성과정에 관한 논의⁸⁾도 있었지만 어휘적 부정과 합성어 형성에 관한 논의가 많았다.

오숙화(1994), 이은섭(1996)에서는 ‘없다’의 어휘적 부정과 관련하여 부정극어와의 호응 양상을 논의하였다.

심재기(1980), 이익선·채완(1999)에서는 ‘없다’의 어간 부분을 파생접미사로 처리하고 ‘시름없-, 상없-, 객없-’와 ‘부질없다, 시름없다, 열없다, 하염없다’ 등을 그 파생어 예로 제시하였다.

우형식(2008)에서는 부정용언 ‘없다’가 실현되는 예를 구성상의 특징에 따라 구분하여 논의하고, 어휘에 의한 부정 표현의 형식과 기능을 기술하였다. 또한 ‘없다’의 합성어 비대칭성과 부정표현의 양상을 분석하고 통사적인 관점에서 ‘X+없다’ 구조 특성을 밝히고 ‘명사+조사+없다’의 구성에 치중점을 두고 논의하였다.

이승명(2003)에서는 ‘N+없다’를 ‘N+주격 표지 ‘-이/-가’ + 없다’ 통사적 구조에서 출발하여 그 결합이 견고해지면서 주격 표지가 생략되고 어휘화된 것으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X+없다’의 생산성에 관련하여 ‘있다’와 비대칭적 결합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선행 형태 지향성에 근거하여 ‘없다’의 선행 단어를 부정 지향 어휘로 제시하였다.

송혜란(2011)에서는 “‘없다’ 복합어의 문법론적 특징 및 의미론적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문법론적 특징에서는 ‘없다’ 복합어는 ‘명사 상당 어기+형용사 어기 ‘없다’ 구조의 복합 형용사라고 밝히고, 의미론적 특징에서는 ‘있다’와 ‘없다’가 대립 가능 경우와 대립 불가능 경우를 제시하고 ‘없다’ 복합어가 높은 생산성을

7) 임홍빈(2001)에서는 최근 편찬 사전 5종의 ‘있다’와 ‘없다’에 대한 처리법을 표로 정리하여 ‘없다’가 이들 사전에서 모두 형용사로 처리되었음을 밝혔다.

8) 허웅(1987), 최동주(1994), 박진호(1994) 등이 있지만 본고와의 관련성이 적기 때문에 연구사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

가지는 원인과 일부 복합어에서의 삭감 현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의미 대립이 가능한 경우는 ‘부유함/가난함’, ‘위계 따위의 구별’, ‘개체 속성의 소유/비소유’ 의미로 쓰일 때는 등급반의어 관계를 형성하고 그 외에는 상보반의어 관계를 형성한다.”고 밝혔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없다’에 관해서는 복합어 형성과 관련하여 ‘있다’와 비대칭성을 이루기에 이에 관련된 연구가 있었고, ‘없다’의 순수 어휘 자체의 의미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의 의미 체계, 확장 양상에 관한 연구는 더욱이 없었다. 구조의미론적으로 ‘없다’는 ‘있다’와 의미적 대칭을 이루기에 의미와 확장에 관한 연구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있다/없다’에 관한 논의

‘있다’는 보조용언과 본용언, 품사적 논란 등 원인으로, ‘없다’는 복합어의 생산성 등 원인으로 논의가 많이 진행된 데 비하여, ‘있다/없다’를 동시에 취급하여 논의한 연구는 별로 없었다. 주요하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첫째, ‘있다/없다’의 형태·의미·통사적 특징

둘째, ‘-수 있다/없다’의 의미·통사적 특징⁹⁾

9) 시정곤·김건희(2009)에서는 ‘-을 수 {있다/없다}’ 구문의 통사, 의미 특성을 양태표현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통사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을 수 {있다/없다}’ 구문은 양태를 나타내는 다른 의존명사 구문과는 여러 가지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주장했다. 다음으로 의미론적 특성과 관련해서 ‘-을 수 {있다/없다}’가 나타내는 다양한 의미는 양태가 아니라, 의존명사 ‘수’가 나타내는 어휘 의미(능력, 자격, 자질, 허가 등)으로 보았다. ‘수’의 기저의미를 ‘가능성’으로 상정하여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가 도출될 수 있다고 하고 인칭과 ‘-을 수 {있다/없다}’의 의미는 필연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다카치 토모나리(2014)는 현대 한국어의 양태 범주를 문법적 연어와 관련지어 논의하며 ‘-(으)르 수 {있/없}’의 의미구조의 원형적 의미를 ‘가능/불가능’으로 보고 확장된 의미를 ‘실재적/잠재적 가능성, 심정, 능력, 내부적/외부적 조건, 가능성 제시, 판단, 당위’ 등등으로 보았다.

본고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있다/없다’의 형태·의미·통사적 특징에 관한 논의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정언학(1995)에는 ‘있다’와 ‘없다’의 형태와 의미에 관련하여 ‘있다/없다/계시다’의 어휘 특성, ‘X+있-, X+없-’의 복합용언, ‘-어/고 있/계시-’의 보조용언에 대하여 논의를 펼쳤다. 복합어의 판별 기준에 관하여 ‘온데간데없다, 물샐틈없다’ 등을 조사 개입 여부와 구성 성분의 분리 여부를 근거로 관용어구로 간주하였다. 이는 이승명(2003)와 송혜란(2011)에서의 ‘X+없다’를 복합어로 간주한 것과 사뭇 다르다.

이안구(2001)에서는 ‘있다/없다’의 활용양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현대 한국어에서 ‘있다/없다’가 특징적인 활용양상을 보이는 것은 우선 ‘있다’가 동사와 형용사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고 또한 ‘있다/없다’의 통시적 변화 양상과 관련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있다’와 ‘없다’는 ‘-느-’와 결합한 활용형과 그렇지 않은 활용형이 의미 차이 없이 공존하고 있는데 유추적 평준화와 유추적 확대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느-’ 결합형으로 굳어지게 되었는데, 현대 한국어 ‘있느냐/없느냐’와 ‘있는/없는’은 모두 이러한 양상의 반영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안구(2002)에서는 ‘있다/없다’의 기본 의미를 ‘존재함/존재하지 않음’으로 보고 형태론적 특징과 통사·의미론적 특징을 고찰하였다. 형태론적 특징을 파악함에 있어서 중세·근대·현대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통사·의미론적 특징을 논의하면서 ‘있다’가 ‘존재 대상’, 곧 ‘무엇이 존재하는가’하는 것을 문제 삼을 경우 ‘없다’는 그 반대항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비대칭성과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제시하는 데만 그쳤다.

정자훈(2004)에서는 ‘있다/없다’에서 중심 의미와 파생 의미들을 통하여 파생의미들이 가지고 있는 유연성을 찾아냄으로써 이들이 다의 관계에 있음을 밝히고 양자 사이의 의미 대립관계의 형성범위와 그 분포 양상을 밝혔다. 하나의 단순한 의미나 추상화된 의미보다는 ‘있다/없다’가 각 문맥 속에서 각각 다르게 해석되며 형성되는 여러 가지 개별 의미에 주목하여 ‘있다/없다’의 다의 관계와 대립 관계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분석하였다.

위의 논의들의 문제점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정언학(1994)에서는 ‘있다/없다/계시다’의 어휘적 특징, ‘X+있-, X+없-’의 복합용언, ‘-어/고 있/계시-’의 보조용언을 살피고 있을 뿐 ‘있다/없다’의 의미적 체계, 대립 쌍의 비대칭성에 관하여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안구(2001)에

서는 현대 한국어에서 ‘있다’와 ‘없다’가 보이는 활용상 특이성의 원인을 품사적 측면, 통시적 측면에서 찾아 고찰하였고 ‘있다/없다’의 비대립성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형성원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경우를 제시하는 데만 그쳤다. 정자훈(2004)에서는 ‘있다’와 ‘없다’의 중심 의미와 파생적 의미들이 가지고 있는 유연성을 찾아냄으로써 이들이 다의관계에 있음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그 의미 확장 양상을 밝혔다. 하지만 정자훈(2004)에서는 확장 경로를 기술함에 있어서 Heine et al(1991: 48-49)의 개념화 이론에만 의지하였기에 넓은 외연의 다양한 양상을 다 밝혀내지 못하고, 또한 그러한 확장으로 초래되는 비대칭성을 구체적·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대립 불가능한 경우를 찾아내는 데만 그쳤다. 또한 ‘있다/없다’의 정도성, 맥락에 따른 상황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확장에 관련된 기제를 다루지 않은 것도 부족점이라 할 수 있겠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있다/없다’에 관한 연구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연구 양도 많으며 이런 연구들은 ‘있다/없다’의 품사 확정, 어휘적 의미와 구문론적 특성, 보조용언의 통시적 형성 과정, 의미와 구문 특징 등을 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는 현재 사전 편찬, 한국어 교육, 국어학 등 각 분야에 세분화되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의미·통사적 측면에서 학자 별 의견이 다양하고 구문론적 해석이나 다의성의 원인 등 면에서 공감을 얻지 못한 부분이 있고, 변화하는 시대와 더불어 변화하는 언어에 입각한, 좀 더 심도 깊은 설명력을 갖춘 논의는 아직 부족하다.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종합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1-2〉 ‘있다/없다’의 기존 연구의 문제점¹⁰⁾

기존 연구	문제점
‘있다’에 관한 논의	1. 구조의미론의 성분분석 방법론에 지나치게 의존. 2. 전형적인 구문에 관한 논의만 진행하고 언어의 창조성 무시. 3. 문법화와 같은 부분적 확장에 대해서만 취급하고 전반적인 확장에 대한 논의는 없음.
‘없다’에 관한 논의	1. 합성어를 이루는 면에서 생산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주로 연구가 진행되었음. 2. ‘있다’와의 비대칭성을 중심을 확장을 다룬 논의는 한 편도 없음.
	1. ‘있다/없다’의 대칭성과 비대칭성을 중심으로 의미 확장을 다

‘있다/없다’에 관한 논의	<p>론 논의는 매우 적음.</p> <p>2.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을 다름에 있어서도 작용하는 기제에 대한 논의는 없고 찾아내는 데만 그쳤음.</p> <p>3.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을 다름에 있어서 석사학위논문이 위주이다 보니 편면적이고 전형적 구문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임.</p>
----------------	---

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본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 중심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첫째, ‘있다/없다’는 형태·통사·화용·의미적 층위에서 항상 대칭적인 것이 아니다. 그 비대칭성을 정리하고, 그것이 형성된 원인을 기존의 구조의미론적 방법론이 아닌 인지의미론적 방법론으로 해석을 가할 것이다. 그 비대칭성의 의미 확장과 연관되어 있다. 이는 반의어 쌍의 확장의 외연이 다름을 시사한다. 따라서 비대칭성을 찾아내는 것은 본고의 연구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 중 하나이다.

둘째, ‘있다/없다’는 상보성 외에 정도성, 맥락 의존성의 특성도 갖는다. 즉 언제나 이원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이를 반의어의 유형에 따라 나누고, 유형별로 확장 양상을 분석하고 관련 기제를 찾아봄으로써 인지의미론의 핵심인 언어와 몸, 마음, 사회 문화적 배경과의 상관성으로 해석을 시도할 것이다.

셋째, ‘있다/없다’ 순수 어휘 자체의 의미와 통사·구문론적 특성만 논의되고 인지의미론적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미망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더욱이 이루어지지 않은 면에 비추어 ‘있다/없다’의 많은 의미는 어떤 개념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의미와 체험은 어떻게 동기화되고, 어떤 신체적 경험에서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넷째, ‘있다/없다’의 중심 의미¹¹⁾와 확장 의미를 중심으로 활성화 양상에 차이를 말뭉치를 이용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한 논의는 통사·의미론적 논의가 가치를 한계를 극복하는 면에서 의의가 있지만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 텍스트

10) ‘있다/없다’에 관한 의미·통사·구문론적 특징을 기술한 논의를 중심으로 종합한 것이다.

11) 본고는 ‘중심 의미’와 ‘확장 의미’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에 관하여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 ‘기본 의미’와 ‘파생의미·전이의미’, ‘원형 의미’와 ‘확장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트에서 '있다/없다'의 문장을 추출하여 사전적 의미에 기반한 의미별 빈도를 각각 계량화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제일 활성화되었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차이점을 찾아 볼 것이다.

본고에서는 위의 네 가지에 중점을 두고 반의어 '있다/없다'의 확장 양상을 살펴보고 아울러 그 분포의 비대칭성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 기제를 밝힐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 반의어 유형과 함께 맥락성·상황성을 고려하여 '있다/없다'를 다시 유형화하고 '있다/없다'의 중심 의미를 원형이론에 근거하여 확정할 것이다. 또한 '있다/없다'의 중심 의미와 확장 의미의 활성화 차이를 계량적으로 살펴 부족했던 기존 연구 부분을 다소 채우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단어 의미의 반의성은 사람들의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넓게 퍼져 있고 깊게 스며들어 있다. 하여 그 넓이와 깊이에 비추어 반의어는 오랜 시간 동안 언어 교육, 사전편찬, 언어학 특히 의미론 분야의 주요 연구대상이었다. 반의어 쌍의 의미 학장을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 고찰함에 있어서 반의어의 개념과 유형을 다시 확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반의어의 개념과 그 유형은 구조의미론의 관점으로 단어의 내적 의미를 바탕으로 하고 고정된 맥락에 따른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에만 근거하여 그 개념과 유형을 정하여 편면적이고 한정된 정황만 반영하기 때문이다.

외적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동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있다/없다'의 반의어의 개념과 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본 장에서 먼저 진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본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내용에 관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첫째, 반의어의 개념과 유형을 명확히 할 것이다. 주요 학자들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관점으로 반의어의 개념을 정립하고, 의미의 유동성에 비추어 '있다/없다'의 반의어 유형을 새롭게 밝히고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둘째, '있다/없다'의 유형별 확장에 관여될 인지의미론의 이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이다. 우선 인지의미론 이론의 필요성을 논하고, 다음 범언어적으로 잘 알려진 의미 확장의 방향과 기제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2.1 반의어의 개념 및 유형

많은 학자들은 반의어¹²⁾를 “동일한 범주 내에서 뜻이 상반 되는 관계를 지닌

12) 반의어는 대립어, 반대말, 상대어, 짝말, 맞섬말 등으로도 학자마다 달리 지칭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반의어'이다. 본고는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명칭을 '반의어'로 채택한다.

두 낱말”로 정의하였다¹³⁾. 하지만 여기서 ‘동일한 범주’의 개념은 너무 추상적이다. 낱말의 사전적 의미는 낱말의 전체적인 의미를 포함하지 못한다. 낱말은 문맥에서 유한한 수단의 무한한 활용을 수반한다. 따라서 의미의 활성화는 무한하고 그 의미 또한 문맥, 상황 의존적이다. 하여 ‘동일한 범주’라 함은 고정된 의미를 바탕으로 한 정의인 바, 문맥과 상황을 배제한 전제하에서만 가능한 정의라 하겠다. 이에 본고에서는 반의어를 뜻이 상반 되는 두 낱말로 정의하여 그 낱말의 문맥과 상황에 따른 의미 활성화를 고려한 무한한 의미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다.

반의어의 유형에 대한 논의에서 학자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학자로는 Lyons(1968)와 Cruse(1986)이다¹⁴⁾.

13) 기존 학자들의 반의어의 명칭과 개념에 관한 주요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자 (시간)	용어	개념 정의
임지룡 (1989)	대립어	대립 관계를 이루고 있는 두 항목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신태 (1992)	대립어	한 단어가 다른 단어와 의미 면에서 대립되는 단어인데, 이들은 동일한 유개념에 속하는 동위 개념으로 한 단어가 대립되는 다른 단어의 모든 함축을 부정하거나 무효화한다.
윤평현 (2008)	반의어	반의관계는 서로 반대되거나 대립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 사이의 의미관계이며, 반의관계는 두 단어가 의미상 여러 가지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만 하나의 개개 변수가 다름으로 해서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이광호 (2008)	대립어	둘 이상의 단어에서 의미가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하는 경우를 대립관계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대립어라고 부른다.
김지연 (2011)	반의어	동일한 분류 및 단계에 해당하는 서로 다른 두 단어가 반대 또는 대조적인 이질적 배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최호정 (2013)	반의어	동일한 범주 내에서 그 뜻이 서로 정반되는 관계를 지닌 말로 모든 의미자질이 동일하나 하나의 자질만이 이질적인 관계를 지닌 단어로 정의 내렸다
전문규 (2014)	반의어	그 뜻이 서로 정반 되는 관계에 있는 말로 의미상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으면서 단지 하나의 의미 요소가 다른 말로 정의하였다.
이사교 (2014)	반의어	문법 범주가 같다는 전제 하에 동일 의미 영역에 속하며, 배타적 또는 대칭적 성격을 갖는 한 쌍의 단어들을 반의어라 할 수 있다.
왕남남 (2017)	반의어	일반적으로 낱말들이 서로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있을 때, 반의 관계에 있다고 하며 반의 관계에 있는 낱말들을 ‘반의어’라고 한다.

14) 반의어에 대한 Lyons(1968)와 Cruse(1986)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임지룡(1989, 1992), 윤평현(2008)을 비롯한 많은 한국 내 학자들은 이들 분류 기준을 많이 참고하였다.

아래 한국 내 연구자들의 반의어 유형에 관한 분류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2-1〉 한국 내 연구자들의 반의어 분류 방식

연구자 (시간)	용어	시간	유형
이승명	상대어	1973	대립어 대칭어 반대어
		1978	대립어(관계 대립, 다원 대립) 대칭어 대조어 반대어
이석주	반의어	1975	이원적 반의어 다원적 반의어 대극적 반의어 상관적 반의어 계층적 반의어

연구자	유형		실례
Lyons (1968)	반의어(antonym: gradable opposition)		춥다-덥다, 길다-짧다
	상보어(complementarity: ungradable)		남자-여자, 기혼-미혼
	역관계어(converseness)		의사-환자, 사다-팔다
D.A.Cruse (1986)	상보어 (complementary)	상보어 (complementary)	참-거짓
	반의어 (antonym)	양극 반의어(polar)	크다-작다
		중첩 반의어 (superposition)	좋다-나쁘다
		등가반의어 (equivalent)	춥다-덥다
	방향 대립어 (directional opposite)	대척어(antipodal)	꼭대기-밑바닥
		대응어(counterpart)	볼록하다-오목하다
		역의어(converse)	의사-환자
		역동어(reversive)	오르다-내리다

			왕복적 반의어
강사민	반 의 어	1981	비교반의어 양분반의어 위치반의어
박선희	상 대 어	1984	양분적 다분적 양극적 역의적 계열적
정인수	반 의 어	1985	이원반의어 관계반의어 등급반의어
최재홍	대 립 어	1986	모순어 반대어 상관어 상대어
김주보	대 립 어	1989	이원적 의미 대립어(상보적 의미 대립어, 관계적 의미 대립어, 방향적 의미 대립어) 다원적 의미 대립어(정도적 의미 대립어, 평가적 의미 대립어)
고명균	반 의 어	1989	등급적 반의어 비등급적 반의어 방향적 반의어
임지룡	대 립 어	1989	상보대립어 반의대립어 정도상보대립어 방향대립어
		1992	상보대립어(순수상보어, 정도상보어) 반의대립어(척도반의어, 평가반의어, 정감반의어) 방향대립어(대척어, 대응어, 역동어, 역의어)
		2015	이항대립(반의어, 상보어, 방향대립어) 비이항대립(순환적 순서 집합, 연속적 순서 집합)
전수태	반 의 어	1995	상보반의어(단순 상보반의어, 종속 상보반의어) 관계반의어(상관 관계반의어, 역동 관계반의어, 위치 관계반의 어)
		1997	정도반의어(단순 정도반의어, 평가 정도반의어) 고정반의어(상보반의어, 관계반의어, 정도반의어) 상황반의어

윤평현	반 의 어	2008	상보반의어 등급반의어 관계반의어(역의관계, 역행관계, 대척관계, 대응관계)
이광호	대 립 어	2008	일향대립쌍(상보대립어, 반의대립어) 다향대립쌍(방향대립어)
왕파	반 의 어	2012	원형 의미에서 일원 확장(공동 속성 하나만 상실)된 반의어 원형 의미에서 이원 확장(공동 속성 2 개 상실)된 반의어 원형 의미에서 삼원 확장(공 동 속성 3 개 다 상실)된 반의어
이사교	반 의 어	2014	절대 반의어 상대 반의어 상관 반의어(관계반의어, 대응 반의어, 상황반의어)

이상으로 한국 내 여러 연구자들의 반의어 분류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비슷한 분류도 있는가 하면 용어 사용 차이와 분류 기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분류도 존재했다. 종합하면 논리학적 기준에 따라 3종 분류로 나뉜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3종 분류에서 ‘등급반의어, 상보반의어, 관계반의어’라는 명칭과 의미에 대한 일치된 견해가 가장 많다.

위의 여러 학자들의 반의어 유형은 각 낱말의 개념적 의미에 기초하고 있다. 김슬옹(1998:87)에서와 같이 “개념적 의미는 고정된 보편적 일반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는 의미작용의 구체성을 소거시킨 주류 담론에 의한 보편적 일반화”이다. 개념적 의미를 절대적 기준으로 반의 관계를 설정한 것은 다수의 주류 입장의 고정화를 지지해 주는 효과가 있다. 이런 반의어 분류의 고정성 지향은 대개 구조의미론의 방법론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전수태(1997:73)에서 “자극어와 반의어의 관계가 언제나 고정 불변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였고 따라서 그 준칙도 고정된 것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 경우 우리는 이들 반의어를 ‘고정반의어’라 부를 수 있다.”라고 자리매김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다. 구조의미론 방법론에서의 성분분석법(남자:[+male], 여자:[-male])은 반의 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흔히 쓰는 방법이다. 이런 방법론은 어휘 의미 관계의 유연성, 언어의 창조성, 예외성, 상황성, 맥락의존성, 비논리성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지 못하고 정적이고 전형적이고 고정적인 의미 관계만을 해결하고 있다¹⁵⁾. 어휘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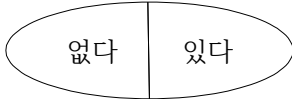
15)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장에서 구체적인 실례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계는 맥락에 따라 결정되는 유동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정적인 관계로 파악해 어휘 관계가 우리 삶속에서 일으키는 다양한 의미작용을 놓치게 된다.

하여 본고는 위의 분류방식의 폐단을 고려하고, 반의어 짝의 고정성 여부를 기준으로 고정반의어와 상황반의어¹⁶⁾로 나누어 인지의미론의 연구방법론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전수태(1997:73-80)에서도 반의어를 고정반의어와 상황반의어로 나누었는데 이는 본고의 입장과 일치하다. 하지만 전수태(1997)에서는 상황반의어를 고정반의어의 예외적인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일부 어휘들의 일부 현상으로¹⁷⁾ 보여주었는데 본고는 한 어휘가 고정반의어로도 상황반의어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있다/없다’ 단어로 보여줄 것이다.

‘있다/없다’의 반의어 유형을 ‘고정반의어’와 ‘상황반의어’로 나누고 상보반의어, 정도반의어를 ‘고정반의어’에 포함시켜 그 개념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표 2-2〉 ‘있다/없다’의 반의어 유형

단어	반의어 유형		정의	그림
	고정반의어	상보반의어	한 단어를 부정하게 되면 다른 단어는 긍정하게 되는 대립성이다. 상보반의어는 담화 영역을 두 개의 상보적인 집합으로 양분하기 때문에 중간 단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원적 분류를 형성한다.	

16) 상황반의어는 곧 비고정반의어이다. 본고의 심사위원 중 한 분께서는 ‘고정’과 ‘유동’의 이분적 대립을 고려하여 ‘유동반의어’를 제안하였는데 ‘상황반의어’의 명칭은 이미 전수태(1997), 심재기(1982), 김진해(2006), 이광호(2009), 전문규(2017)에서 언급이 되고, 의미적 일치성을 이루기에 본고에서도 ‘상황반의어’의 명칭을 채택한다. 상황반의어는 ‘비고정반의어’, ‘임시반의어’로 불리기도 한다.

17) 전수태(1997:260)에서 다음과 같은 예로 설명한다.

1. 고양이 앞의 견.
2. 날면 기는 것이 능하지 못하다.
3. 얇은 양반보다 빔어먹는 거지가 낫다.
4. 하룻 강아지 벌 무서운 줄 모른다.
5.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6. 승냥이는 양으로 변하지 않는다.

있다 없다	정 도 반 의 어	한 단어의 긍정이 반드시 다른 단어의 부정을 함의하는 것이 아닌 대립성이다. 이런 반의어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이런 반의어는 일반적으로 상대적이다. 다음, 반의어 쌍에서 특정한 단어가 더 기본적인이다. 마지막으로, 두 반의어 사이에 등급이 있기 때문에 두 반의어 사이에서 중간 단어들을 발견할 수 있다.	
	상황반 의어	실제 담화 상황 속에서 수시로 활성화되는 반의어를 상황적 반의어로 설정한다.	

단어의 의미는 역동적이다. 외적 환경에 따라, 화자에 따라, 예외적인 사례에 따라 의미는 수시로 바뀌거나 확장된다. ‘있다/없다’도 마찬가지다. 개념적 의미에 의해, 화자에 의해, 맥락과 상황에 의해 때로는 상보반의어로, 때로는 정도반의어로, 또한 상황에 따라 기타 단어와 반의 관계를 맺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동적 현상에 근거하여 ‘있다/없다’를 고정반의어와 상황반의어로 나누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인지 의미론에서의 단어의 역동적 상황과도 어울려 ‘있다/없다’는 단어의 맥락과 상황을 고려한 우리의 동적인 시선으로서의 분석이 절실한 상황이다.

2.2 인지의미론의 이론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인지의미론의 이론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인지의미론 이론의 필요성과 더불어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 양상을 고찰하기 위하여 범언어적으로 존재하는 기존 확장 방향에 관하여 알아보고,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에 관여되는 인지의미론의 기제에 대해 살펴보겠다.

중심 의미와 확장 의미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원형 이론, ‘있다/없다’의 비상보적 관계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주관화 이론, 구체적 체험과 추상적 체험이 공유하는 도식적 패턴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영상도식 이론이 바로 그 기제들이다.

우선, 구조의미론 관점 및 방법론과의 비교를 통하여 구조의미론의 한계를 제기하여 인지의미론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다음 본고의 전체적 의미 확장 양상의 기반이 되는 Heine et al(1991)와 임지룡(1996)에서의 의미 확장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의 기제로 작용하는 원형이론, 주관화 이론, 영상도식 이론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와 더불어 그 정의와 특징, 관점을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2.2.1 인지의미론 이론 도입의 필요성

의미의 반의 관계를 형성하는 어휘, 즉 반의어는 언어학, 특히 의미론의 발전과 더불어 그 해석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구체적으로 구조의미론, 말뭉치 언어학, 화용론, 그리고 인지의미론의 관점에 따라 반의어 연구의 전망이 크게 바뀌고 심화 확장되었다. 초기의 반의어의 연구에서는 구조의미론의 연구방법론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는 그 주요 성과를 발전적으로 수용한 인지의미론과는 그 관점과 방법론 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표2-3〉 구조의미론과 인지의미론의 관점과 방법론

	구조의미론	인지의미론
관점	1. 한 단어의 의미 값은 독립적으로 기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고 서로 인접한 다른 단어들과의 차이성에 의하여 구별된다. 2. 단어의 의미 변화는 언어 외적인 실재와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 구조 내의 변화로 새로이 정의된다.	언어와 인지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체험주의에 입각하여 인간의 일반 인지 능력이라는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언어의 의미를 포착한다.
연구	1. 계열장 이론 ¹⁸⁾	1. 개념화 ¹⁹⁾

방법	2. 성분 분석법	2. 해석의 관점
----	-----------	-----------

위의 구조의미론의 관점과 방법론으로 반의어 쌍의 모든 양상을 설명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 면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구조의미론에서는 반의어의 이항 대립에 초점을 두고 상보반의어를 설정하고 일부 단어를 여기에 고정시켰다. 예를 들면 ‘살다-죽다, 있다-없다, 남-여’ 등과 같은 단어들이다. 구조의미론의 계열장 이론이나 성분 분석법으로는 이와 같은 단어들은 그 고정성을 바탕으로 상보성의 관계로만 해석이 된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의 언어적 발화에 의하면 이런 단어들도 이원적으로만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영역이 존재함을 발견하게 된다. 구체적인 언어 현상으로 보여주면 다음과 같다.

〈살다-죽다〉의 중간 영역

- (1) ㄱ. 최근 의학계에서는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이 커지고 있으나, 종교인과 윤리 학자들은 인간의 생명을 기계적으로 판정할 수는 없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 ㄴ. 어떤 사람은 죽음에 즈음하여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신음하다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어려운 지경에 내몰리기도 한다.
- ㄷ. 그 일이 있은 후 그의 성격은 많이 죽었다. (정도성)

〈남-여〉의 중간 영역

- (2) ㄱ. 나는 수년 전 여성도 남성도 아닌 성별로 정체화한 사람이다.
- ㄴ. 성소수자 -- 보편적인 성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이 이에 속한다.
- ㄷ. 그가 나보다 더 여자다. (정도성)

위에서 보다시피 위의 ‘살다-죽다’, ‘남-여’는 상보적인 관계로만 해석할 수

-
- 18) 단어와 단어 사이의 계층적 성격에 초점을 둔 것인데 상위어, 하위어가 여기에 속한다.
 - 19) ‘개념화’는 객관적, 보편적,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행위자의 주관적, 개별적, 구체적인 의미 파악을 일컫는다. ‘개념 작용’ 또는 ‘개념 작용화’라고도 한다.

있는 단어가 아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구조의미론의 언어 내적인 체계에 근거하여 위의 단어들의 관계를 상보적 관계로 해석하고 있다²⁰⁾. 이는 언어 외적인 체계 속에서의 반의어의 사회적 의미 작용을 무시하고, 반의어의 역동적인 의미 작용이나 관계를 왜곡한 결과이다. 즉 의미 관계는 맥락에 따라 결정되는 유동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정적인 관계로 파악해 우리 삶속에서 일으키는 다양한 의미작용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고정적인 의미의 설정은 대부분 구조주의의 성분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구조주의 방법론을 따른 데서 생긴 편면적 관점이다. 즉, 맥락과 상황을 배제한 채 [±생명], [±남성]의 이분적 의미자질만 고려하여 내린 결론이다.

다음은 반의어의 상황성이다. 즉, 반의어의 짝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구조의미론에서는 반의어의 정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그 반의어 쌍을 고정적인 것으로 취급한다. 곧 자연 언어에 대한 의미 분석은 방법론적으로 자립적인 측면에서, 즉 언어 내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여 많은 다양한 언어적 역동성을 간과하여 언어의 창조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의 비논리적인 발화를 더욱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 예문은 다음과 같다.

20) 반의어 쌍 ‘살다-죽다’, ‘있다-없다’, ‘남-여’를 상보적 관계(모순관계)로 해석한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	상보 반의어(모순관계)
이승명(1973)	있다-없다, 살다-죽다
강사민(1981)	남-여
박선희(1984)	남-여
장웅칠(1984)	남-여,
양태식(1984)	남-여
이익환(1984)	남-여
박선희(1984)	남-여, 살다-죽다
정인수(1985)	남-여
최재홍(1986)	남-여
김주보(1988)	남-여
이석주(1989)	있다-없다, 살다-죽다
고명균(1989)	남-여
이신태(1992)	남-여
유재복(1992)	죽다-살다, 있다-없다
김영선(1986/1994)	죽다-살다
전수태(1995/1997)	남-여, 죽다-살다
이사교(2014)	남-여

- (3) ㄱ. 우리 아이는 이제 제법 어른이야.
 ㄴ. 그 남자는 여자가 되어 버렸네.

위의 예문 중 밑줄 그은 단어의 의미자질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2-4〉 ‘아이들/어른’, ‘남자/여자’의 의미자질

단어	의미자질
아이들	[+유생물], [+인간], [-성인]
어른	[+유생물], [+인간], [+성인]
남자	[+유생물], [+인간], [-여성]
여자	[+유생물], [+인간], [+여성]

(3ㄱ)에서 ‘아이’와 ‘어른’은 [-성인], [+성인]의 의미자질을 갖고 있기에 반의관계를 이루지만 이런 반의 관계의 의미자질로만 분석할 때 그 발화는 주어와 서술어의 논리적 호응이 모순적이다. (3ㄴ)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여성]와 [+여성]이라는 의미자질을 갖고 있기에 반의관계를 이루지만 이러한 상반된 의미자질로 그 발화 역시 변칙적이고 비논리적이다. 하지만 이런 발화들은 언중들이 흔히 사용하는 극히 정상적인 표현들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구조의미론의 성분분석으로는 비논리적이지만 자연스러운 언어 표현들을 설명할 수가 없다. 이는 언어 외적인 상황과 맥락을 소홀히 한 결과이다.

언어의 외적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면 반의어의 맥락, 상황에 따라 대응되는 짝도 다르다²¹⁾. 하지만 비논리적이지만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언어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구조의미론의 방법론으로는 그 상황성과 맥락성에 따른 반의어의 짝을 모두 해석할 수 없다. 다음 예문을 보도록 하자.

21) 예를 들면 ‘좋다’의 반의어는 ‘나쁘다’도 될 수 있고, ‘싫다’도 될 수 있고, ‘고모’의 반의어가 ‘이모’가 될 수도 있고 ‘고모부’가 될 수도 있다. 반의어로 되는 짝이 이처럼 꼭 하나만이 아닌 것은 반의어가 맥락, 상황에 매우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산토끼’의 반의어는 무엇인가? 산에서 사는 토끼로 연상하는 사람에게 그 반의어는 ‘집토끼, 들토끼’가 되고, ‘사다/살다’의 변형으로서 연상되는 산토끼의 반대말은 각각 ‘판 토끼/죽은 토끼’가 된다. 또한 ‘산’을 화학용어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산(酸)토끼’ ‘산’은 산성 물질을 가리키는 바, 그 반의어는 ‘염기토끼’(알칼리)가 있다. 또한 ‘산 넘고 물(바다)건너’, ‘산 설고 물 설다’ 등의 관용구로부터 출발하여, ‘산’의 반의어를 ‘물’로 보는 경우, ‘물토끼’도 ‘산토끼’의 반대말로 볼 수도 있다.

- (4) ㄱ. 백금에 보석 놓은 왕관을 준다 해도/ 흙냄새 땀에 젖은 배적삼만 못 하더라.
 ㄴ. 돈이라는 글자에 받침 하나 바꾸면/ 돌이 되어버리는 인생사.

예문 (4ㄱ)에서 ‘왕관-배적삼’은 글의 맥락을 바탕으로 ‘화려한 것-남루한 것’을 대변하므로 문장 속에서 반의 관계를 형성한다. (4ㄴ)에서 ‘돈-돌’도 맥락을 바탕으로 ‘가치 있는 것-가치 없는 것’을 대변하므로 문장 속에서 반의 관계를 이룬다. 하지만 이러한 반의어 쌍은 고정적이지 않고 상황과 맥락에 따라 임시 구성되는 것으로 상황과 맥락에 의존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하여 언어의 외적 환경을 무시한 채 성분분석의 방법으로만 반의어의 짝은 찾는 것은 일상 발화의 창조성과 사회적 작용을 간과한 제한된 범위의 반의어 짝만 설명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구조의미론에서는 반의어 쌍에 대하여 구조·의미적 측면에서 대칭적으로 간주한다. 해당 단어의 의미자질로만 분석하기에 당연히 그 의미자질의 유무로 반의 관계를 이루어 대칭적일 수밖에 없다. 보편적인 의미자질을 바탕으로 하고 단어의 외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단어가 지시하는 실제 대상에 대한 고려도 부족하여 의미자질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간주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언중들의 실제 발화에서 반의어 쌍의 비대칭성은 그 형태·통사·화용·의미 등 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비대칭성을 조성하는 중요한 원인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중화현상과 유표성 원리이다(이사교 2014:190). 중화현상이란 특정된 환경에서 반의어 쌍 중의 한 쪽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유표성 원리란 특별한 설명이 필요한 특정적인 항에 일정한 표시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중화현상과 유표성 원리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5) ㄱ. 길이/*짧이, 높이/*낮이, 넓이/*좁이
 ㄴ. 작가/여류작가, 간호사/남자간호사, 대통령/여자대통령

위의 예문 (5ㄱ)에서 ‘길다/짧다’, ‘높다/낮다’, ‘넓다/좁다’의 단어들이 그 ‘척도’를 표현하는 명사형으로 나타날 때는 긍정적인 면에서 중화현상이 발생되어 비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길이’는 길고 짧은 정도에 대하여, ‘높이’는 높고

낮은 정도에 대하여, ‘넓이’는 넓고 좁은 정도에 대하여 중화된 가치를 지니게 된다. 예문 (5ㄴ)은 무표향과 유표향에 대한 반영이다. ‘남-녀’의 대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이고 특별하지 않은 향에서 무표향으로 나타나 비대칭성이 초래된다. 즉 남자 작가, 여자 간호사, 남자 대통령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어서 이런 향에다 굳이 그 특성을 표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구조의미론의 방법론으로는 이와 같은 비대칭성의 원인을 밝혀내기 어렵다. 단어의 내적 자질에만 의존하고 외적 환경을 무시하고, 고정적이고 객관적인 상황에만 비추어 논의하고, 해석의 관점이 아닌 단어와 단어 간의 관계에만 의존하여 결론을 도출할 때 이런 반의어 쌍의 비대칭성의 본질을 밝혀낼 수가 없다.

위에서 상술한 문제로부터 구조의미론의 많은 한계를 도출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의미론은 반의어의 의미를 언어내적 관계의 망인 정적 체계로 파악함으로써 실제 언어 상황에서 반의어가 사용되는 어휘적 유연성을 설명해 내지 못한다.

둘째, 반의어가 실제로 사용되는 경험적 자료의 결핍으로, 하나의 문장이나 문맥 속에 공존하는 대립 쌍에 관심을 두지 못한다.

셋째, 구조의미론에서 각 유형에 속한 반의어의 용례가 제한되므로, 소수의 관습적이고 규범적인 반의어가 해당 유형을 대표하게 되었으며, 불명확하거나 예외적인 사례는 무시된다.

넷째, 반의어 쌍의 정도성, 상황성에 주목하지 않는다.

구조의미론의 위의 한계로 말미암아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학적 방법론이 대두되고 있다. 인지의미론은 구조의미론의 한계와 모순을 극복하면서 이런 반의어 쌍의 다의성, 비대칭성을 설명하는 데 유력한 기제를 제공한다. 인지의미론에서는 특히 언어 외적인 환경과 맥락에 중심을 두고 의미의 역동성을 바탕으로 논의한다.

임지룡(1997b: 15~17, 2006: 902~905, 2010: 20~23)에서는 인지의미론과 구조의미론의 동적과 정적인 측면, 대칭성과 비대칭성에 관하여 “반의관계에 대한 시각으로서, 구조의미론에서는 대립어의 정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반의어 내적 맥락에서 고정된 대조로 취급한 반면, 인지의미론에서는 반의어의 동적 성질에 주목하며 그 의미를 언어외적 환경과 맥락에 기초를 둔

것으로 보고, 반의 관계의 대칭성에 대한 시각으로서, 구조의미론에서는 대칭성을 포착하고 기술한 반면, 인지의미론에서는 외적 맥락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비대칭성을 이룬다고 보며 이를 인간의 인지적, 경험적 요인에 동기화된 것으로 본다.”고 기술하였다. 반의어 연구에서 인지의미론은 구조의미론의 자율적이고 정적인 체계의 한계를 넘어서, 반의어를 개념화와 해석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열린 시각의 방법론으로 주목된다.

Hamawand(2016:73-80)에서는 인지의미론의 다섯 가지 ‘기본적 가정’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 ㄱ. 의미는 신체화²²⁾되어 있다. 즉, 개념적 조직의 본질은 신체적 경험에서 발생된다.
- ㄴ. 의미는 동기화²³⁾되어 있다. 즉, 언어 형태의 선택은 화자가 전달하려고 의도하는 의미에 의해 동기화된다.
- ㄷ. 의미는 역동적이다. 즉, 어떤 언어 표현의 의미도 화자들이 삶에서 마주치는 새로운 경험에 대처하기 위해 바뀌거나 확장된다.
- ㄹ. 의미는 백과사전적²⁴⁾이다. 즉, 한 언어표현의 의미적 내용은 광범위하며, 언어적 및 비언어적 지식을 포함한다.
- ㅁ. 의미는 개념화이다. 즉, 한 언어 표현의 의미 구조는 개념적 내용²⁵⁾과 그 내용을 개념화하는 특정한 방식을 포함한다.

위 다섯 가지 ‘기본적 가정’은 반의어의 대립 쌍에서도 적용된다. 이는 위에서

-
- 22) 언어에 반영된 현실의 구조는 인간 마음과 인간 신체화의 산물이다. 한 언어 표현의 의미는 우리 신체의 본질에 의해 크게 결정된다. 예하면 “분위기가 들떴다/무겁다”와 같은 표현에서 ‘위’는 긍정적, ‘아래’는 부정적 평가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대조적인 평가는 우리의 신체적 경험과 연관된다.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몸이 가볍하고 치솟는 반면, 병들고 마음이 우울할 때 몸이 무겁거나 자리에 눕게 된다.
 - 23) 언어 형태와 의미 사이에 지각 가능한 유사성이 있음을 뜻한다. 예를 들면 ‘마음에 있다/없다’는 마음을 공간화함으로써 ‘실체가 어떤 공간에 있다’의 형태와 ‘무엇을 하고 싶거나 가지고 싶다’는 의미를 지각적 유사성으로 동기화한 결과이다.
 - 24) 특정한 개념과 관련 있는 방대한 지식의 창고임을 뜻한다. 즉 언어의 의미는 ‘세계 지식’과 얽혀 있다. 예를 들면 ‘내 마음은 금부처’, ‘내 마음은 남산 위의 둥근달’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금부처’, ‘남산’, ‘둥근달’에 대한 백과사전적 지식이 필요하다.
 - 25) 어떤 상황의 고유한 특성 개념적 내용은 한 표현과 관습적으로 관련된 의미이다. 예를 들면 ‘전-후’는 공간 개념이다. 하지만 ‘3년 전’에서는 시간 개념으로 인지된다.

기술한 구조의미론의 한계를 극복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이론적 근거로 작용한다. 즉, 반의어 의미의 작용 방식에는 인간의 몸과 마음, 사회 문화적 배경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언어의 원리는 세상사의 원리와 상통한다는 것이다.

2.2.2 의미 확장의 방향과 기제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낱말의 의미 확장 방향에 관한 기존 연구와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과 관련되는 원형이론, 주관화이론, 영상도식에 관한 기본 이론 소개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의미 확장 방향과 관련하여 Heine et al(1991)와 임지룡(1996)의 방향을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원형이론과 관련하여 고전적 범주화 이론의 폐단으로부터 원형이론의 타당성을 증명하고, 원형이론에 관한 기존 연구를 기술하여 다의어의 의미 확장에 있어서 원형이론의 중요성을 증명할 것이다.

주관화 이론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와 더불어 그 정의와 특징을 기술하고 주관적 해석 중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에 기여하는 ‘전경-배경’ 원리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영상도식 이론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와 더불어 그 정의와 특징을 기술하고, 영상도식 이론의 ‘그릇도식’, ‘방향도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2.2.1 의미 확장의 방향

Heine,et.al(1991:48)에서는 언어 표현이 신체의 경험과 그에 의한 영상도식을 토대로 하는 체험주의 입장을 취하는데 여러 언어의 어휘의 의미 변화를 관찰하면서 은유가 발생하기 이전의 어휘들이 신체나 사물, 혹은 공간과 관련이 깊음을 발견하였다(임지룡·김동환 2008:759). 하여 다음과 같이 개념 영역의 일반적인 확장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PERSON > OBJECT > ACTIVITY > SPACE > TIME > QUALITY

(사람 > 사물> 행위 > 공간> 시간> 질)

이 확장 방향을 충분히 보여준 사례로는 'back'을 예로 들 수 있다(김동환 2013:389).

(6) ㄱ. His back is cold. (사물)

ㄴ. He stays back. (공간)

ㄷ. We met him three years back.(시간)

ㄹ. He remains back. (질)

'back'는 (6ㄱ)에서 사람의 신체부위인 사물을 나타내고, (6ㄴ)에서는 공간을 나타내고, (6ㄷ)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며, (6ㄹ)에서는 정신적으로 후퇴했음 즉, 질을 나타낸다. 이는 'back'의 사물 개념이 공간 개념으로 확장되고, 공간 개념에서 다시 시간 개념으로 확장되며, 시간 개념에서 질 개념으로 확장됨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확장 방향을 토대로 임지룡(1996:250-251)에서는 한국어 단어의 의미의 확장 방향을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사람→ 동물→ 식물→ 무생물'의 확장 경로이다.

	의미 확장	실례	사전적 의미
먹다	사람의 먹는 행위	아이가 밥을 먹었다.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보내다.
	동물의 먹는 행위	사과에 벌레가 많이 먹었다.	벌레, 균 따위가 파 들어가거나 퍼지다.
	식물의 먹는 행위	물기를 머금은 풀잎.	나무나 풀 따위가 빗물이나 이슬 같은 물기를 지니다.
	무생물의 먹는 행위	기름·풀 먹은 종이.	바르는 물질이 배어들거나 고루 퍼지다.

둘째, ‘공간→ 시간→ 추상’의 확장 경로이다.

깊 다	의미 확장	실례	사전적 의미
	공간의 깊음	계곡이 깊다.	길에서 속까지의 거리가 멀다.
	시간의 깊음	밤이 깊다.	시간이 오래다.
	관계의 깊음	인연이 깊다.	수준이 높거나 정도가 심하다.

셋째, ‘물리적 위치→ 사회적 위치→ 심리적 위치’의 확장 경로이다.

-에 있 다	의미 확장	실례	사전적 의미
	물리적 위치	그는 방에 있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어떤 사실이나 현상 따위가 어떤 곳에 자리나 공간을 차지하고 존재하는 상태이다.
	사회적 위치	그는 회사에 있다.	사람이 어떤 직장에 다니는 상태이다.
	심리적 위치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다.	어떤 처지나 상황, 수준, 단계에 놓이거나 처한 상태이다.

넷째, ‘문자성→ 비유성→ 관용성’의 확장 경로이다.

짧 다	의미 확장	실례	사전적 의미
	문자적 짧음	토끼는 앞발이 짧다.	잇닿아 있는 공간이나 물체의 두 끝의 사이가 가깝다.
	비유적 짧음	그는 외국어 실력이 짧다.	자본이나 생각, 실력 따위가 어느 정도나 수준에 미치지 못한 상태이다.
	관용적 짧음	우리 집 양반은 입이 짧다.	음식을 심하게 가리거나 적게 먹다.

다섯째, ‘내용어→ 기능어’의 확장 경로이다.

주 다	의미 확장	실례	사전적 의미
	동사	닭에게 모이를 주다	물건 따위를 남에게 건네어 가지거나 누리게 하다.
	보조동사	그의 등을 두들겨 주었다.	앞 동사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미침을 나타내는 말.

위에서 기술한 의미 확장의 방향은 한국어에서 흔히 보이는 현상들이다. 그 의미 확장은 그 낱말의 사전적 의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타 낱말 의미 확장 방향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Heine et al(1991)와 임지룡(1996)의 의미 확장 방향은 이미 많은 낱말에서 그 합리성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확장 방향을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 양상에 적용시켜 비슷한 패턴인지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혹 비일치성이 있다면 그 새로운 확장 양상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증명해 보겠다.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에 있어서 사전적 의미에만 의존하지 않고 맥락과 상황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살펴 그 외연을 모두 찾아 의미 확장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고찰해 보겠다.

2.2.2.2 의미 확장의 기제

여기서는 ‘있다/없다’가 어떤 방향으로 확장되는지를 해석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인지의미론의 여러 기제들에 대해 살펴보겠다. 구체적으로 원형 이론, 주관화 이론, 영상도식 이론이다. 기존 학자들의 성과를 검토해보고 그 이론적 방법을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에도 적용해 보겠다.

2.2.2.2.1 원형 이론

이 이론은 ‘있다/없다’의 중심 의미를 확정함에 있어서 매우 필요하다. 중심 의미는 의미 확장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줄 수 있는 ‘나침반적 역할’을 한다. 중심 의미를 잘 잡아야 그 확장 방향도 쉽게 보이고, 그 정확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형 이론의 개념과 관점을 명확히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형 이론은 범주화의 고전 이론²⁶⁾을 반증하는 범주화의 또 다른 이론이다.

26) Talor(1989/1995:23-24)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기초해서 고전이론의 기본 가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김동환(2013:83)에서 재인용.

첫째, 범주는 필요충분조건에 의해 정의된다.

원형 이론에서 범주는 필요충분조건이 아닌, 원형과 기타 구성원들 간의 가깝음 관계에 의해 정의된다. 원형 이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심리학자 Rosch에서 시작되었다. Rosch(1973, 1975)는 단어와 지시물의 관계에 대한 고전 이론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범주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자질들을 모두 포함해야 그 범주 내의 존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범주 내의 구성원은 동등한 위상을 갖는 것이 아니고 더 전형적인 구성원과 덜 전형적인 구성원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Rosch(1973, 1975)에서 어떤 종류의 실체가 어느 정도까지 범주의 좋은 보기로 간주되는지 판단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에서 범주의 구성원은 원형과 완전히 일치할 필요가 없고 유사하면 그 범주의 구성원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형은 그 범주를 대표할만한 가장 전형적이고 중심적이며 이상적인 보기를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즉 원형적 보기가 중심적 보기이고, 비원형적 보기가 주변적 보기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Rosch(1973:229-233)의 실험에 나타난 각 범주의 원형적 보기, 보통의 보기, 비원형적 보기를 두 개씩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²⁷⁾.

〈표2-5〉 Rosch(1973)의 범주 보기

의미 범주	원형적 보기	보통의 보기	비원형적 보기
가구	의자, 소파	벤치, 식기선반	선풍기, 전화기
과일	오렌지, 사과	라임, 탄젤로	피틀, 스쿼시
차	자동차, 스테이션왜건	왜건, 지하철	서프보드, 엘리베이터
무기	통, 피스톨	채찍, 아이스픽	잔, 구두
채소	완두콩, 홍당무	양파, 감자	땅콩, 쌀
목수연장	톱, 망치	판재, 설계도	가위, 기중기
새	출새, 참새	까마귀, 황금방울새	펭귄, 박쥐
운동	축구, 야구	수상스키, 스케이팅	카드놀이, 일광욕
장난감	인형, 팽이	퍼즐, 소방차	테니스라켓, 책
의류	바지, 와이셔츠	구두, 텍시도	팔찌, 지팡이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이 인지하는 의미 범주에는 등급이 존재한

둘째, 자질은 두 가지 값만 있다는 점에서 이원적이다.

셋째, 범주의 경계는 명확하다.

넷째, 범주의 모든 구성원은 동등한 위상을 갖는다.

27) 김동환(2013:91)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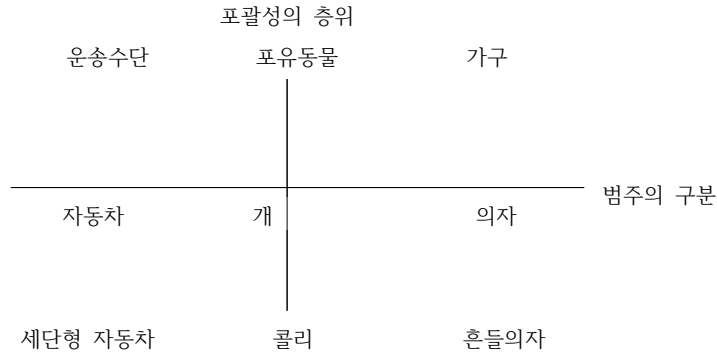
다고 가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위의 표에서 ‘의자, 소파’는 ‘가구’의 가장 원형적 보기이고 ‘벤치, 식기선반’은 보통의 보기이고, ‘선풍기, 전화기’는 가구의 비원형적 보기를 이루는 것처럼 전형적 보기에서 가까운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원형’, ‘보통’, ‘비원형’의 체계가 형성된다. 즉, 범주 구성원 사이에 더 전형적인 것과 덜 전형적인 것의 등급이 매겨지는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 Rosch는 ‘원형’을 범주에서 가장 중심적인 항목으로 재정의했다. 원형은 비원형과 비교할 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원형 효과’라고 한다. 임지룡(1997a:77)에서는 “원형 효과란 범주 구성원들 사이의 비대칭성으로서, 원형적인 보기가 비원형적인 보기에 대하여 특권적, 우월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전형적인 구성원 즉 원형 구성원은 많은 구성원과 많은 속성을 공유하지만 덜 전형적인 구성원 즉 비원형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과 많은 구성원을 공유하지 않는다. 이는 수평 차원에서 인지되는 범주화의 일부 체계이다.

수직 차원에서 원형 효과로 전형적인 구성원이 속해있는 층위가 기본 층위로 인지된다. Rosch(1976)는 “기본 층위를 가장 높은 유효 단서를 가진 층위”로 정의하였다. 기능적으로 기본 층위 범주는 최대한 많은 속성을 공유하는 정보성 범주인 동시에 다른 범주와의 엮음이 가장 적은 층위이다. 김동환(2013:100)에서 “기본 층위에 있는 보기가 원형적 보기이고 이 층위에 있는 범주는 기본층위 범주, 수직축에서 상세하지 않은 것을 제공하는 상위의 범주는 상위층위 범주, 더욱 상세한 것을 제공하는 하위의 범주는 하위 층위 범주”로 정의하였다.

원형 효과로 실현되는 수평 차원과 수직 차원을 가진 범주화 체계가 이로부터 발생된다. 그것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1〉 범주화 체계



위의 그림(2-1)과 같이 수직 차원은 특정 범주의 포괄성 층위와 관련이 있는 바, 특정 범주는 수직축 상에서 더 상위에 있을수록 더 포괄적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수평 차원은 동일한 포괄성 층위에서 범주의 구분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기본 층위의 원형적 보기, 그 상위 보기, 하위 보기 그리고 서로 다른 범주와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원형 이론이 갖는 효과이다.

원형이론은 전통 고전 범주화 논리에서의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의 정의를 철저히 타파하고 범주가 외연과 내포의 집합론적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고전이론의 어휘의 개념적 자질 정의를 반대했다. 예를 들어, ‘새’는 그의 의미자질인 [+깃], [+부리], [+비행]의 세 가지 개념적 자질을 모두 만족해야 ‘새’로 정의되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²⁸⁾. 구성원 요건은 등급성이 존재하고 일부 구성원의 어떤 자질은 구성원 요건에 항상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 원형이론은 고전이론의 부적절성의 반증이다.

원형이론은 또한 범주 구성원들 간의 가족 닮음과 범주 경계의 불분명성에서 그 타당성이 증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게임의 범주²⁹⁾에는 많은 구성원들이 있는데 숨바꼭질, 카드 게임, 구기 운동, 올림픽 운동 등은 모두 게임의 범주에 속한다. 그들 사이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들 사이에는 꼭 어떤 공통점이 존

28) 예를 들어 ‘펭귄’은 [+깃], [+부리], [+비행]의 세 가지 개념적 자질을 모두 만족하지 않지만 새의 범주에 속한다.

29) Ludwig Wittgenstein(1953)에서 게임의 범주를 논의했다. 김동환(2013:86) 참조.

재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게임이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다. 결과 모두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공통점은 찾기가 쉽지 않지만 서로 유사성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숨바꼭질에는 즐거움은 있지만 경쟁심은 없고, 카드게임에는 즐거움, 전략은 있지만 육체적 기술은 없고, 구기게임에는 즐거움, 전략, 육체적 기술, 경쟁심의 특징이 다 있지만 올림픽 운동에는 즐거움은 없다. 게임의 구성원들은 많은 공통점이 남아있지만 다른 점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어떤 경우에서도 게임의 모든 실례를 특징짓는 단 하나의 본질적 자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대신 유사성의 가족 닮음의 관계라는 것이다. 또한 이런 게임은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오늘날 다양한 인터넷 게임, 핸드폰 게임이 그 예이다. 이는 범주의 경계는 명확하고 엄격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함으로써 창조적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경계는 모호하고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하여 Geeraerts(1997:11)³⁰⁾는 원형성을 가진 범주, 즉 원형 범주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첫째. 원형 범주는 구성원 요건의 정도를 보인다. 이것은 범주의 모든 구성원이 동일하게 그 범주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들보다 그 범주를 더 잘 대표한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 원형 범주는 가족닮음 구조를 보여준다. 이것은 범주의 의미 구조가 겹치고 교차하는 유사성의 복잡한 망의 형태를 지님을 뜻한다.

셋째. 원형 범주는 가장자리가 흐릿하다.

넷째. 원형 범주는 기준 속성인 필요충분조건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

위에서 기술한 이런 원형에 관한 연구 결과는 인지언어학에 즉각 채택되었다. 특히 어휘의 다의성 연구에서 그 타당성이 많이 입증되었다. Lakoff(1987:416)는 다의성을 “하나의 어휘 항목이 관련된 의미들의 가족을 가지는 경우”라고 말한다. Taylor(1989:99)는 “언어의 한 형태에 둘이나 그 이상의 의미를 연상시키는 것으로 다의성”을 정의한다.

한국에서 최초로 원형이론으로 어휘의 의미에 관하여 원형적 설명을 진행한 연구는 임지룡(1992)이다. 임지룡(1992:211)에서 “하나의 어휘소에 유연성을

30) 김동환(2013:93)에서 재인용.

지닌 둘 이상의 복합적 의미관계”로 다의성을 정의한다. 임지룡(1996)에서 원형 의미는 “다의적 범주를 대표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의미”로, 확장 의미는 “파생적이고 전이된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위의 다의성에 관한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원형 이론은 어휘의 여러 의미들의 유연성을 연구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휘의 다의성을 중심이 되는 의미와 그렇지 않은 의미로 범주화하여 서로 닮은 관계를 그 의미 확장과 연관 지어 해석할 수 있다. 다의어에서 중심 의미와 비중심 의미로 그 복잡한 다의어 범주를 타당하게 정의하는 것은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단일어에서 다의어로 확장된 계기는 ‘가족 닮음’의 연쇄과정이다. 다의어의 의미는 의미 연결망 구조를 지닌 인지 범주 안에서 구성되고 그 범주의 중심에는 가장 많은 속성을 안은 중심적 원소와 그 중심과 가족 닮음의 관계가 있는 비중심적 원소가 배치되어 있다. 하여 많은 인지언어학자들은 원형 이론을 다의어의 범주에 적용시킨 것이다. 본고에서도 ‘있다/없다’의 중심 의미를 찾아내어 비중심 의미와의 가족 닮음 관계를 인지의미론적 관점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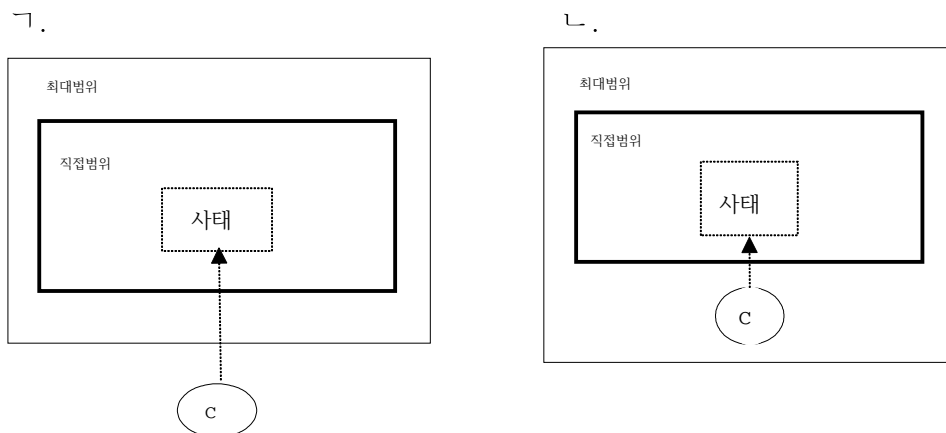
2.2.2.2 주관화 이론

앞에서 단어는 문맥과 상황에 따라 정도성을 가질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정도성은 사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관점의 개입과 연관된다. 즉, 어휘의 의미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수도 있고, 주관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주관화는 발화 행위자가 언어 행위에 참여함으로써 언어의 개념적 구조가 변화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인지적 방식이다. Lyons(1982:102)는 주관성을 “자연언어가 그 구조나 보통의 작용 방식으로 발화 행위자와 그의 태도나 신념에 대한 표현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규정하였다. Lyons(1982:104)는 화자가 자아를 발화에 표현하는 것이 “명제에 대한 단언”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기동(1989)에서는 “주관화는 어떤 낱말이 의미 기술에 있어서 원래는 화자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어느 시점에서 화자가 포함되는 경우”로 정의하고 Langacker(1999:297)은 “주관화란 어떤 실체에 대한 상대적인 객관적인 해

석에서 더 주관적인 해석으로의 전이”라고 주장하고 김동환(2013:334)에서는 “주관화는 해석의 한 차원에 속하며, 해석의 한 차원인 심적주사가 언어 표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지과정이며, 객관적 축에서 주관적 축으로 재정렬이나 대치되는 불연속적인 과정이 아니라, 객관적 해석에서부터 주관적 해석으로 전이하는 연속적 과정이다.”라고 했다. 궁극적으로 주관화란 개념화자³¹⁾가 사태 해석 참여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주관화’의 범주에는 개념화자와 사태가 있고, 그 사태에는 주관적 관점과 객관적 관점이 있다. ‘주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개념 화자의 사태에 대한 주관적 관점이 초점화되어 맥락이 이어짐을 뜻한다. 이를 그림으로 보여주면 다음과 같다.

〈그림2-2〉 무대모형: 관찰대상과 화자의 관계



그림〈2-2〉에서 c는 개념화자이다. 그림〈2-2〉은 개념화자와 관찰대상인 사태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ㄱ)은 화자가 무대 밖에서 사태를 바라보고 의미 해석에 참여하지 않는 최대범위에 있는 상황이고 그림(ㄴ)은 화자가 직접 범위 안에서 해석에 관여하는 상황이다. 하여 그림(ㄱ)은 화자의 관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객관적 사태에 대한 발화이고 그림(ㄴ)은 화자의 관점이 포함된 주관적 사태에 대한 발화이다.

언어는 사태를 객관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사태 속에 개념화자의 주관적

31) 사태를 바라보면서 전체적 개념을 형성시키는 화자를 ‘개념화자’라고 하는데 문장에서 문장 주어와 달리하기 위하여 ‘화자 주어’라고도 한다.

관점을 투사하여 개념화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이에 사람에 따라 동일한 사태를 서로 다르게 바라보고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 ‘해석’이란 ‘발화 과정에서 지각된 사태를 분절하여 의미 있는 것으로 구축하는 창조적 활동’을 말한다. 언어 표현의 구조나 체계는 궁극적으로 ‘지각된 사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개념주의의 의미관이다.(이수련 2010:33)

Traugott&Dasher(2002:21)는 ‘주관성’은 “화자의 시점을 부호화한 것으로, 예를 들면 직시·양상·담화전략 등의 표시가 있으며, 화자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Traugott&Dasher(2002:22)는 주관적인 표현과 객관적인 표현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표2-6〉 Traugott&Dasher의 주관적인 표현과 객관적인 표현

	가장 주관적인 표현의 특징	가장 객관적인 표현의 특징
1	명시적인 공간과 시간 직시들	양상에 대해 최소로 유효적임
2	말한 것에 관한 화자 태도(명제에 대한 인식적 태도를 포함)의 명확한 표지	모든 참여자들이 표면구조에서 모두 표현됨
3	담화 구조에 대한 화자의 명확한 표지	어휘적 아이탬들이 최소로 화자의 시각에 관련됨
4	관련 원리 ³²⁾	양 원리 ³³⁾

요컨대 위의 표에서 주관적 표현의 주관성은 인지적 태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화자와 청자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언어의 자질이기도 하며, 또한 주관성을 표시하는 명시적 표현의 존재와 상관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7) ㄱ. 그는 돈이 있다. (추상적 재산)

ㄴ. 그에게 돈 2만원이 있다.

32) 관련 원리(R)는 화자에 토대를 둔 원리로서 언어 형식의 최소화 원리(최소 노력의 원리에 해당)로, ‘당신의 기여가 필요하도록 하라. 당신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지 말라’이다(조경환2008:94).

33) 양 원리(Q)는 대화자에 토대를 둔 원리로서 정보 내용의 최대화 원리로, ‘당신의 기여가 충분하도록 하라. 당신이 할 수 있을 만큼 말하라’에 해당한다(조경환 2004:94-95).

(7ㄱ)는 추상적 개념의 돈으로 ‘돈이 많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바, 이는 의미가 상대적이라는 데서 화자의 주관적 관점이고, 언어 형식의 최소화 원리로 담화구조에서 화자의 태도를 표출시켰다. (7ㄴ)는 ‘2만원’으로 유표적이고, 정보 내용의 최대화 원리로 화자가 아는 정보가 언어 표면 구조에 최대한 노출되어 있다. 하여 (7ㄱ)는 주관화가 이루어진 언어적 발화이고 (7ㄴ)는 객관적 관점에서 진행된 발화이다.

김동환(2013:307-313)에서 주관적 해석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원으로 나누었다.

- ㄱ. 상세성
- ㄴ. 규모/범위
- ㄷ. 배경가정과 기대치
- ㄹ. 전경-배경
- ㅁ. 원근법
- ㅂ. 주사³⁴⁾

본 장에서는 위의 해석의 차원 중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에 적용되는 전경-배경 해석 이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는 시각적 지각에서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을 나누어서 인지하는데 그 중 중요한 부분은 전경이고, 덜 중요한 부분을 배경이다³⁵⁾. 이런 시각적 인지의 해석은 어휘적 의미를 인지하는 데도 적용된다. 즉 어휘가 표현하는 의미도 전경 의미와 배경 의미로 구별된다. 전경은 초점 의미로 지각되고 나머지는 배경 의미로 대조를 이룬다. 한 단어는 여러 의미 성분을 가진다. 이런 의미 성분들은 그 해당 어휘의 의미를 인식하는 데 위계적으로 작용한다. 즉 초점화³⁶⁾되는 의미와 그렇지 않는 의미들이 있다는 것이다. 박재연(2007:79)에서는 다음의 예로 한국어 어휘 항목의 전경 의미와 배경 의미를 제시하였다.

(8) ㄱ. 총각 [+인간, +남성, +어른, +미혼]

34) 주사(scanning)는 관찰자가 장면을 구조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35) 주위의 사물을 파악할 때 ‘배경’(ground)에서 두드러진 부분, 곧 지각적으로 현저한 ‘전경’(figure)을 선택한다

36) 한 표현에서 다른 부분보다 특정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신적 활동

ㄴ. 저 사람은 (처녀가 아니라) 총각 같은데?

(8ㄱ)에서 전경으로 기능하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미혼]이다. “그는 총각이다/그는 총각이 아니다”에서 작용하는 성분은 [+미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8ㄴ)에서는 [+남성] 의미가 전경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전경과 배경은 맥락에 기초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Talmy(2000)³⁷⁾는 전경과 배경을 다음과 같이 특징 짓는다.

〈표2-7〉 전경과 배경의 특징

전경	배경
작음	큼
동적임	정적임
간단한 구조	복잡한 구조
현저함	배경화됨
최근에 인식됨	장면/기억상 이전의 것
덜 알려진 위치	더 알려진 위치

위의 표에서 전경과 배경은 비일치적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사태 속 개념화자의 개입 하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나누어 인지하는 행위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전경 의미로 개념화되고 덜 중요한 것은 배경 의미로 개념화된다. 맥락에 따라서, 개념 화자에 따라서 전경 의미는 달라지지만 배경 의미는 고정된 정적의 의미로 전체 의미에 관여된다. 전경 의미와 배경 의미는 정도반의어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을 고찰하고 거기에 관여하는 기제인 주관화를 해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관화는 결국 개념화자에 맞춰진 해석의 한 가지 차원이고, 개념화자의 심적주사가 언어 표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지과정이다. 이에 사람에 따라서 다른 주관적 해석이 뒤따르고, 의미는 정적이 아니라 동적임을 주관화 이론에서 잘 보여진다.

2.2.2.2.3 영상도식 이론

37) 김동환(2013:310) 재인용.

다의어의 여러 의미들이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의미 확장을 연구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영상도식이란 한 개념에 대한 우리의 신체적, 물리적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구조이다. 여러 의미들이 어떤 공통된 영상도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들이 서로 연관되는데 이런 영상도식의 구조와 틀을 찾아내는 것이 본고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인지 언어학은 의미에 대해 체험주의 입장을 취한다. 체험주의에서는 의미란 사람의 생물학적 능력 및 사람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신체적·사회적 경험에 기초해서 묘사된다. 이처럼 의미 연구에 신체의 모습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인지모형이 바로 영상도식이다. '영상도식'에서 '영상'이라는 용어는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법과 동일한데, 심리학에서 영상적 경험은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관련이 있고 그것으로부터 도출된다. '영상도식'에서 '도식'이라는 용어는 영상도식이 풍부하거나 상세한 개념이 아니라, 신체화된 경험³⁸⁾의 반복되는 실례들로부터 발생하는 패턴으로 이루어진 추상적 개념임을 뜻한다.(김동환 2013:115-117)

Johnson(1987:xiv)에서는 “영상도식을 우리의 지각적 상호작용과 운동근육 프로그램의 반복적이고 동적인 패턴으로, 그것은 우리의 경험에 일관성과 구조를 제공하고, 또한 신체화된 경험을 통해 개념적 체계 내에서 영상도식이 발생한다.”고 제안했다. 우리가 세계와 상호작용하고 세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영상도식은 감·지각 경험, 신체적 경험으로부터 도출된다는 것이다.

Johnson(1987)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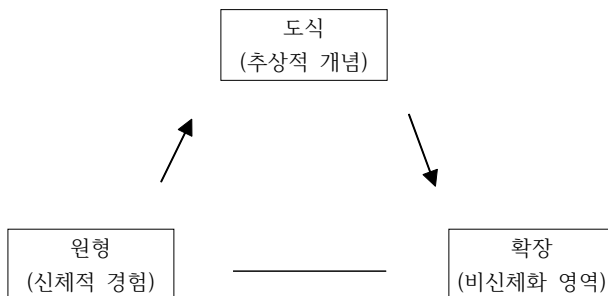
- ㄱ. 영상도식은 우리의 경험을 개념 형성 이전, 선개념적 경험으로 구조화한다.
- ㄴ. 이에 대응되는 영상도식적 개념이 존재한다.
- ㄷ. 은유는 신체적 경험에 의해 동기화된 것이다.
- ㄹ. 영상도식은 다른 은유의 개념적 기반이 된다.

영상도식은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영역에서 은유적인 투사를 통하여 추상적인

38) '신체적 경험'이란 인간의 신체를 통해 직접적으로 중재되고 구조화되는 세계에 대한 체험을 말한다(임지룡 외 옮김 2008 : 49). '신체화(embodiment)'란 우리의 경험이 어떤 대상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기초가 된다는 것으로, 의미 확장의 근원이며 새롭고 추상적인 대상을 이해하는 준 것이다(임지룡 2008 : 40).

영역으로의 개념을 발생시킨다³⁹⁾. 다시 말해 영상도식은 본질적으로 신체성 혹은 내·외부의 신체적 경험에 바탕을 둔 영상이라는 ‘추상적 도식’이다. 이에 관하여 Johnson(1987)은 범주 삼각형을 통해 다음 그림과 같은 구조를 제시하였다.

〈그림2-3〉 Johnson(1987)의 범주 삼각형 개념



원형은 신체적 경험에서 발생한다. 원형에서 비롯되는 경험들은 그 유사성으로 추상적 개념의 영상도식을 확립하게 된다. 서로 상이한 경험을 같은 개념의 실례로 통합한다.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균형과 불균형의 원초적 경험을 바탕으로 추상적 개념의 ‘도식’을 형성하게 된다. 하여 도식은 서로 상이한 경험들의 유사성의 추상화이다. 이런 도식의 개념이 인간의 인지 능력의 작용 하에 비신체적 영역으로의 확장을 이룩한다. 여기서 인지 능력은 바로 인간의 ‘은유적 사상’이다. 영상도식은 많은 추상적 개념을 통합할 수 있다. 신체화에서 시작되는 계속되는 경험들은 영상도식에 의해 직접적 경험인 물리적 개념과, 간접적 비신체적 개념인 추상적 개념을 발생시키는데 추상적 개념도 결국은 신체적 경험에서 발생된 것이다. 임지룡(1997:147)에 따르면 “영상도식의 일차적 근원은 사람의 몸이다. 우리는 신체를 통하여 ‘부분-전체’, ‘중심-주변’, ‘연결-분리’, ‘안-밖’, ‘균형’, ‘방향’을 지각하며, 이 원초적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과 부정의 가치를 부여한다.” 따라서 영상도식의 근본적인 근원은 우리의 몸이다.

김동환(2013:118)에서 영상도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9) Kövecses(2002:59)는 “영상도식 이론은 영상도식 은유라고도 불리며 또 다른 종류의 개념적 은유”라고 하였다.

첫째, 영상도식은 본래 선개념적이다. 영상도식은 개념에 대한 우리의 신체적·물리적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구조로서, 가장 기본적인 신체적·물리적 경험은 우리의 몸이다.

둘째, 영상도식은 내적으로 복합적이다. 즉, 영상도식은 따로따로 분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양상들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영상도식이 우리의 경험과 인지에서 일관적이며, 의미심장하며, 통일된 전체라는 게슈탈트 구조의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셋째, 영상도식은 신체화된 경험으로부터 도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부터 도출된다. 예컨대, 힘 도식은 우리가 다른 실체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아서 이동 에너지의 전달을 유발하는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발생한다.

넷째, 영상도식은 조직화 활동의 연속적 구조이다. 즉, 영상도식은 고정되고 정적인 패턴이 아니라 동적인 패턴이다. 먼저, 영상도식은 우리의 경험을 조직화하는 활동 구조이다. 영상도식은 경험이 담겨 있는 수동적인 그릇이 아니라, 우리에게 질서를 구성하도록 해주는 핵심 수단이다. 다음으로 영상도식은 다양한 문맥에서 상세한 실례들을 명시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하다.

다섯째, 영상도식은 은유적 사상의 근원이 된다. 즉, 영상도식은 은유적 사상에 의해서 확장되고 정교화 된다. 은유적 사상은 구체적 의미에서 추상적 의미로 행해지며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방향적이다. 추상적 의미는 우리의 신체적·물리적 경험에서 도출된 영상도식에 의존한다.

여섯째, 영상도식은 추상적이다. 영상도식의 추상성에 대해 Langacker(1993:3)는 “영상도식이 자신에게 부여된 일, 즉 은유적 확장에서 불변성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은유의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에 공통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추상적이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영상도식은 은유적 사상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추상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일곱째, 영상도식은 변형될 수 있다. 영상도식은 신체화된 경험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한 영상도식에서 또 다른 영상도식으로 변형을 겪을 수 있다.

이로부터 영상도식은 우리의 반복적인 신체적 기능에서 발생하는 가장 원시적인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영상도식은 공통된 인간 경험에 기반하여 언어 이전의 인지적 구조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신체화된 도식으로부터 형성된 새로운 경험과 상황이 은유적 표현 하에 이해되고 표현된다. 따라서 몸은 비신체적 경

험에 체험적인 지각적 구조를 부여한다. 실체와 사태의 신체화된 도식은 추상적인 현상과 사건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Evans & Green(2006)은 기본 영역과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영상도식을 구분하였는데, “영상도식은 ‘그릇’, ‘경로’, ‘연결’, ‘부분-전체’, ‘위-아래’, ‘앞-뒤’, ‘중심-주변’ 등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물리적 영역에서 형성된 기본 의미를 바탕으로 추상적 영역으로 의미를 확장해간다.”고 하였다. 아래 본고의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과 관련이 있는 ‘그릇도식’, ‘위-아래’도식, ‘앞-뒤’도식에 대해 알아보겠다.

가. 그릇도식

그릇도식은 영상도식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개념이다. ‘그릇 영상도식’은 ‘그릇’의 영상에 대하여 정신적 그림을 제공한다. 이 경우 ‘그릇’은 이른바 ‘용기’인바, 그 크기와 유형에 대하여 유연성 있는 해석을 가해야 한다. ‘그릇’의 전형적인 보기는 식기류, 술, 물통과 같은 ‘물리적 그릇’인데, 이는 ‘내부, 경계, 외부’의 구조를 가진 물체이다. 이와 같은 구체적 그릇에서 생긴 인지가 추상적인 영역으로의 인지로 전화됨으로써 내부, 경계, 외부의 인식을 가진 ‘그릇’으로의 추상적인 정신적 그림이 완성된다. 언어적 인지 구조도 구체적인 물리적 도식의 경험 하에 이루어지는데 그릇도식이 바로 우리 언어적 생활에서 쉽게 발견되는 인지 구조 중 하나이다. 그릇도식이 적용되는 ‘있다/없다’의 실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9) ㄱ. 이 작업은 같이 해주겠다는 동네 새마을지도자 후배가 모든 것을 도맡아 했으니 어찌면 나는 공먹은 셈이다.
ㄴ. 오늘은 쉽게 돈 5만원을 주머니에 넣을 수 있게 되니 공연은 기분이 들었다.

위의 예문 중 ‘공먹다’와 ‘공연다’는 ‘공+’형 단어로 공통된 의미자질을 공유하고 있다. ‘공-’은 ‘비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두 단어 모두 [-노력]이라는 의미적 자질을 포함하고 있다. 즉, ‘노력의 그릇이 비다’라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노력을 그릇화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사람들이 체험한 인지를 추상적인 사

물에 적용하여 통일된 인지 도식으로 이해를 도왔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구체적 사물의 인지적 과정은 추상적 사물에도 똑같이 인지되고 추상적 사물을 구체적 사물로 가시적이고 구체화하여 그것의 실제 함의를 표현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어떤 물건들(음식, 물, 공기)을 집어넣고, 다른 것들(음식물 찌꺼기, 공기, 액 등)을 유출하는 삼차원의 그릇이라는 사실을 친숙하게 알고 있다. Langacker(1991)도 “인간은 개념화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인 영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은유를 통한 개념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지체계에서 영상도식이 발휘된다고 할 수 있다.

나. 위-아래 도식

우리 몸의 규범적 형태는 ‘위’로 향한다. 몸의 해부도는 구인 게시판 앞에 서 있듯이 똑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서 있을 때 우리 눈은 15도 위쪽을 향한다. 실제로, ‘위’는 ‘아래’보다 정보처리에 있어서 시간이 덜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람은 태어나서 기어 다니다가 말을 배우면서 직립한 뒤 위로 자란다. 이러한 신체적 경험은 ‘위’ 방향을 긍정적 의미로 인지하는 계기가 된다.

‘위’의 긍정적 가치는 사회 문화적인 경험에 의해서 강화된다. 곧 우리가 건강하고 기분 좋을 때는 머리와 얼굴을 위로 한 채 직립하며, 손님을 환영해 맞이하거나 그 환영에 답례할 때 손을 위로 치켜든다. 범문화적으로, 위로 향한 엄지손가락은 상황이 좋다는 표시이다. 흔히, 기분이 좋을 때 우리는 ‘떨 듯이 기쁘다’고 하며, 승리한 선수는 팔을 치켜들고 경기장을 돌며 그를 응원하던 관중은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 춤을 춘다. 또한 우리는 신체의 위쪽 부분에 위치한 입을 통하여 생명을 지탱하는 영양분을 섭취하는데, 이 경우 ‘위’의 방향은 그릇 도식에서 ‘안’ 방향의 긍정적인 값에 의하여 강화된다.

반대로 우리가 아프거나 죽을 때는 땅으로 구부러지며, 죽은 뒤 땅 속에 묻혀 영원히 휴식한다. 우리는 신체 아랫 부분의 구멍을 통하여 배설하고 불순물을 처리한다. 따라서 ‘아래’의 방향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위’와 대조적으로 ‘아래’로 향한 엄지 손가락은 상황이 나쁘다는 표시이다. 또한 슬픔, 패배감, 비참함을 느낄 때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파묻고 운다. ‘위와 아래’의 가치는 얼굴 표정에서 볼 수 있는데, 기쁨과 행복의 표시로서 미소를

지를 때는 입의 가장자리가 위로 약간 올라가며, 고통과 슬픔의 표현으로서 얼굴을 찡그리거나 울 때는 입술이 밑으로 처지게 된다. 요컨대, 방향의 위와 아래는 각각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로 인지되는 것은 우리의 신체적 경험에서 동기화된 것이다(임지룡1997a:204-205).

다. 앞-뒤 도식

‘앞-뒤’방향의 도식은 사람의 신체 구조에 의해서 ‘위-아래’ 도식과 관련되어 있다. 사람의 체형은 진화과정에서 직립의 위치를 갖게 되었는데, 앞쪽을 향한 머리 부분은 직립한 다음에도 위가 되었으며, 또한 뒷부분은 밑이 되었다.

‘앞’은 우리 신체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인 얼굴이 위치해 있는 방향이므로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다. Lakoff&Johnson(1980:37)이 지적했듯이, 우리는 종종 환유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사진이나 초상화 속의 전체 모습과 동일시한다. 얼굴은 사람의 몸을 대표하는 부분이므로, 화장이나 성형수술의 중심 부위는 얼굴이 된다. 또한 목표를 향한 이동을 할 때 우리는 눈앞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따라서 얼굴이 위치한 앞은 자연히 긍정적인 값을 띠게 된다(임지룡 1997a:205-206).

이러한 신체화된 경험에 바탕을 둔 긍정적인 가치는 많은 사회 문화적 인습에 의해 뒷받침된다. 건물의 앞부분은 뒷부분과 대조적으로 더 좋고 장식적이며 조명을 많이 받는다. 새 차의 모델은 앞 쪽과 측면에서부터 나타나며, 결코 차의 뒤쪽을 갖고 전시하지는 않는다. 또한 공연장의 앞좌석은 가장 좋은 자리로 여기며, 다양한 경주 대회에서 앞선 사람은 우승자가 된다.

상대적으로, ‘뒤’의 부정적인 값은 동일하게 우리의 신체적 경험에서 동기화된 것이다. 우리 몸의 뒷부분은 앞부분에 비하여 특징적이지 않으며, 몸의 아래 쪽과 뒷부분은 덮여 있고 감추어져 있다. 또한 권투 시합이나 소싸움에서 등을 보이는 행위는 패배를 뜻하며, 고양이든 화가 나면 등을 구부린다. 요컨대, 방향의 앞과 뒤는 사람 신체의 경험적이 도식에 의하여 긍정적인 가치와 부정적인 가치로 개념화 된다.

인지언어학은 인간의 언어, 마음, 물리적·사회적 체험 간의 관계로부터 패턴을 찾아내어 언어 구조를 연구하는 언어학의 이론이다. 본고도 여기에 입각하

여 원형 이론, 주관화 이론, 영상도식 이론을 바탕으로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과 반의어 쌍의 비대칭성에 관한 논의를 펼칠 것이다. 언어는 인간의 다양한 인지 능력의 용법과 동일한 원리로 작용한 결과이다. 체험을 통한 여러 마음의 양상이 언어에서 반영된다. 의미는 신체화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인간의 사고와 의미도 체험의 틀에 근거하여 구조화된 것이다. 언어의 핵심은 형태가 아니라 의미와 개념화이다.

체험의 틀을 찾아내고, 그 틀에 따라 구조화된 형식을 이해하는 것이 의미 확장의 방향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인간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체험이 언어 창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의미의 창조에 우리의 모든 일상 자원이 활용되는 법칙을 파악하여 의미 구성의 방식을 확인하고, 우리의 체험과 그 체험에서 비롯된 사고, 체험의 패턴으로 창조되는 언어의 법칙을 추론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의미 있는 연구이다.

3.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

반의어에 관한 인지의미론적 접근법은 구조의미론의 체계성, 말뭉치접근법의 용법 기반성, 화용적 접근법의 유연성을 포용하고, 인지의미론 본유의 역동성을 포함하여 보다 열린 시각으로서의 방법론으로 주목 받고 있고, 반의어 쌍의 의미 확장을 분석함에 있어서 강력한 기제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2장에서 분류한 ‘있다/없다’의 반의어 유형과 인지의미론의 이론을 바탕으로 ‘있다/없다’의 전체적인 의미 확장 양상을 구현해 볼 것이다. 단어는 그 범주를 대표하는 중심 의미와 다양한 확장 의미로 구성되어 있다. ‘있다/없다’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있다/없다’의 확장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첫째, 원형이론을 바탕으로 반의어 ‘있다/없다’의 중심 의미를 확정할 것이다.

둘째, 상보반의어로서의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 양상을 다양한 실례로 살펴볼 것이다.

셋째, 정도반의어로서의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 양상을 인지의미론의 주관화 이론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다.

넷째, 상황반의어로서의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 양상을 인지의미론의 영상도식 이론으로 주로 활성화되는 도식적 양상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의미적 관계가 복잡하고 확장 영역도 넓지만 상보적 관계로만 여겨왔던 ‘있다/없다’가 정도성과 상황성을 가지고 있고, 확장이 진행됨에 따라 비대칭적 양상을 지닌 것은 일상 대화나 문맥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이것을 인지의미론 관점으로 논하여 의미의 체계성, 역동성, 창조성, 의미적 유연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의미 확장으로 초래된 ‘있다/없다’의 전체적인 의미망을 새롭게 구축해 보기로 한다.

3.1 ‘있다/없다’의 중심 의미

원형이론에서 어휘의 다의성은 중심이 되는 의미와 그렇지 않은 의미로 범주화되고 그 의미들 사이는 서로 가족 닮음의 관계를 형성한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중심 의미⁴⁰⁾는 그 다의적 범주를 대표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이며 전형적인 의미이고, 분류 층위에서 가장 기본적인 층위에 속하는 의미이다. 어휘는 이 기본 층위로부터 의미가 확장되어 다의성을 가진다. 이런 다의성 즉, 여러 의미들은 체계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의미적 연결망을 형성한다. 어휘의 범주화 관계는 중심 의미로부터 확장하는 바, 더 정교하고 상세한 의미로 확장되는가하면 덜 정교하고 덜 상세한 의미로도 확장된다. 따라서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 양상을 논함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중심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그럼 이 중심 의미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의미 확장 양상 연구에서 그 중심 의미는 그 어휘의 다의적 범주와 연결되는 것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 의미는 반드시 최초의 의미일 필요는 없다. 또한 현재 가장 널리 그리고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인 의미라 할지라도 그 어휘의 다의적 범주와 연결되지 못하면 중심 의미라 할 수 없다. 의미 확장을 논함에 있어서 통시적으로 가장 최초에 사용된 의미와 현재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의미는 중심 의미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될 수는 있으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되지는 않는다. 본고에서 말하는 '중심 의미'는 확장된 의미와 인지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하여 확장된 의미와의 연결성이 중심 의미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확장된 의미와의 연결성을 가진 의미는 인간의 두뇌 속에서 어휘의 의미들 간을 인지적으로 연결할 때 그 연결고리를 가장 편하게 연상시킬 것이다(우청민 2014:27-33).

임지룡·김동환(2008:367)에서는 “중심 의미를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의 의미를 암시하는 실질적인 증거를 형성하며, 그 하나의 의미로부터 다른 의미가 확장되어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가. 가장 초기에 입증된 의미
- 나. 의미 연결망에서의 우월성
- 다. 의미 확장 예측의 용이함

40) 낱말의 의미 확장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중심 의미, 기본 의미, 원형 의미를 동일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도 별개의 의미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 개념으로 보겠다.

그럼 아래 이 각각의 기준을 ‘있다’의 다의적 의미에 적용하여 검토해 보도록 한다.

첫째, 가장 초기에 입증된 의미를 놓고 볼 때, 1장에서 <표1-1>에서 ‘있다’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대체로 ‘존재하는 상태’를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서동은(2010:190)은 Heidegger(1993)와 신선경(2002)의 ‘있다’ 구문의 분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3-1〉 Heidegger(1993)와 신선경(2002)의 ‘있다’ 구문의 분류(서동은 2010:190)

존재/ 소유	‘있다’의 의미 유형	신선경의 분류 사례	Heidegger의 분류 사례
존재	존재론적 존재	신은 분명히 있다.	신은 있다. 땅이 있다.
	유형론적 존재	학교의 성원으로는 선생님과 학생이 있다.	그 잔은 은으로 되어 있다.
	사건적 존재	아이들이 오늘은 집에만 있다	강연이 강당에서 있다.
	처소적 존재	책들이 책상위에 있다	농부는 들판에 있다.
소유	양도성 소유	1. 김선생에게 돈이 있다 (소유권). 2. 민수에게 내 책이 있다 (임시 관리권).	그 책은 나에게 있다.
	비양도성 소유	새에게 모이 주머니가 있다	그 잔은 은으로 되어 있다.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Heidegger(1993)’와 ‘신선경(2002)’ 모두 ‘존재론적 존재’를 ‘있다’ 구문의 첫 번째 의미 유형으로 정하였다. 이는 ‘있다’의 첫 번째 의미인 ‘존재론적 존재’가 가장 초기의 의미로 통함을 의미한다. 또한 ‘존재’의 의미에서 4개 유형 즉 ‘존재론적 존재’, ‘유형론적 존재’, ‘사건적 존재’, ‘처소적 존재’로 나뉘어 논한 것에서 ‘존재’가 바탕적 의미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있다’의 중심적이고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의미가 ‘존재’이고 그의 다의성은 ‘존재’의 의미로부터 확장되어 다양한 의미를 구성함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여 ‘존재’가 기타 주변 의미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 ‘존재’를 떠나서는 다른 의미를 운운할 수가 없다. Heidegger(1993)는 존재가 바탕이 되어 인간의 사유가 생겨나고 이 사유를 통해 언어가 흘러나온다고 통찰하였다. 존

제가 바탕이 되어야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의미가 새로이 생겨날 수 있고, 다른 것도 논할 수 있는 것이다. 하여 Heidegger(1993)와 신선경(2002)과 같이 '존재론적 존재'가 '있다'의 초기의 의미가 되겠다.

둘째, 의미 연결망에서의 우월성에서 볼 때, Heidegger(1993)와 신선경(2002)은 '있다' 구문을 '존재'와 '소유' 구문으로 나누었는데, '소유' 구문은 소유자의 입장에서 기술한 의미이고, 사물의 입장에서 기술하면 '소유 공간적 존재'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소유'와 '존재'는 의미 연결망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존재'의 의미는 '소유' 의미에 비하여 다른 개별 의미에 더 빈번하게 관여된다. '존재론적 존재', '유형론적 존재', '사건적 존재', '처소적 존재'가 그 예이다. 따라서 '존재'를 중심 의미로 다른 주변의미와 연결망을 형성하는 것이 '소재'를 중심 의미로 하는 것보다 더 쉽게 확장을 설명할 수 있다.

셋째, 의미 확장 예측의 용이함은 중심 의미로부터 의미 확장이 얼마나 쉽게 예측될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 즉, 예측이 쉬울수록 그 의미는 더 중심적이다. 다의어의 의미 범주에는 가장 많은 속성을 공유한 중심적 의미와 그와 가족다운 관계를 이루는 주변적 의미가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중심 의미는 가장 많은 속성을 안은 의미여야 한다. 이로부터 그 가족다운 관계의 기타 의미를 찾고 범주 안에 적용시켜 하나의 연결망을 형성시키는 것이 '중심 의미'가 맡은 역할이다. <표3-1>에서 범주 내에서 가장 많은 속성을 안은 의미는 '존재'뿐이다. 그리고 <표1-1>의 '있다'의 사전적 의미도 '존재'를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따라서 예측성 용이함을 기준으로 잡을 때도 '있다'의 중심 의미는 '존재'로 확정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위에서 상술한 3가지 기준을 모두 적용하여 중심 의미를 판단할 때 '있다'의 중심 의미로는 '존재'가 가장 타당하다. 이에 대한 더 확고한 답을 위하여 기존 학자들의 관점을 보도록 하자.

심의린(1935), 김근수(1947), 이희승(1955, 1956), 서정수(1994)에서는 '있다'의 품사를 독립된 품사인 존재사로 설정한 데서도 '있다'는 '존재'의 의미와 불가분리적인 관계임을 알 수 있다. 김차균(1982)에서는 '있다'의 중심 의미를 '존재 상태'로 정하고 존재 대상과 장소는 물리적인 면, 추상적인 면, 심리적, 정신적, 시간적인 면도 다 포함한다고 논의하였다. 김상대(1991)에서 "'있다'의 어휘적 의미 중 기본적 혹은 핵심적 의미는 존재를 나타내는 것임은 이론의 여

지가 없을 듯하다. ‘있다’의 품사를 존재사라 명명하는 입장은 의미적 측면에서만 보면 지극히 정당하다. ‘존재’는 말하자면 ‘있다’의 대표적 의미“라고 했다. 이수련(2002)에서는 “‘있다’는 ‘존재’라는 원형에서 ‘장소, 소유, 시간’ 따위로 그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 보았다. 정자훈(2004)에서는 “‘있다’의 ‘존재’의 의미는 다른 모든 의미를 포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의미”라고 했다.

임지룡·김동환(2008)의 중심 의미 판단 기준과 기존 학자들의 관점을 종합하면 ‘있다’의 중심 의미는 ‘존재임’이 더 확실해진다. 그럼 같은 맥락으로 ‘없다’의 중심 의미는 ‘비존재’로 확정할 수 있다. 여기서 ‘있다/없다’의 ‘존재/비존재’의 대상을 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있다/없다’의 중심 의미를 ‘존재/비존재’로만 하기에는 그 개념적 의미가 너무 크고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의 예문을 보자.

(1) ㄱ. 나는 신이 있다고 믿는다. <--> 없다⁴¹⁾.

ㄴ. 날지 못하는 새가 있다. <--> 없다.

(2) ㄱ. 눈이 셋인 사람은 없다. <--> 있다.

ㄴ. 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 <--> 있다.

예문 (1-2)의 ‘있다/없다’는 각각 ‘사람, 동물, 물체 따위가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와 ‘사람, 동물, 물체 따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있다/없다’의 사전적 의미에서 첫 번째 의미이다. 한 어휘의 여러 의미들이 구체적인 근원적 의미와 추상적인 인식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 두 의미는 신체적·물리적 경험에서 발생한 동일한 영상도식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관련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의미가 중심 의미이고, 추상적인 의미는 확장 의미이며, 모든 의미는 가족담음과 같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 의미는 은유과정에 의해 추상적 의미로 확장된다(김동환, 2013:180).

41) 본고는 문장의 전체 의미보다는 문맥 속의 ‘있다/없다’의 단어 의미에 중심을 두겠다. 하여 밑줄 친 부분에서 ‘있다/없다’의 대치 여부를 판단하고, 이어 의미 대립 여부를 판단하겠다. 즉, 밑줄 친 부분에서 대치 가능하여 의미가 대립되면 반의어로 인정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 근거하여 '있다/없다'의 중심 의미에서 '존재/비존재의 대상'이 사람, 동물, 물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Heine, et.al(1991)의 의미 확장의 방향과도 일치하다. 요컨대 '있다/없다'는 '구체적 대상-사람, 동물, 물체의 존재/비존재'로부터 시작하여 그 의미가 더 정교화, 더 추상화된다.

본 장에서는 '있다/없다'의 중심 의미를 '구체 대상의 존재/비존재'로 하여 그와 가족담음의 관계에 있는 확장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존재'는 객관적 존재로 '객관성'의 의미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인지는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사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3.2 고정반의어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

여기서는 고정반의어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 양상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겠다. 사전에 등재되고, 대부분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고, 전형적이고 논리적인 일반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앞에서 논의하다시피 고정반의어 '있다/없다'는 의미의 정도성 존재 여부에 따라 상보반의어와 정도반의어로 나뉘는데 여기서는 유형별 확장 양상을 인지의미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거기에 작용하는 기제를 찾아볼 것이다. 인지의미론의 방법론은 구조의미론의 체계성과 화용적 접근법의 유연성을 받아들인 방법론이다. 따라서 의미의 확장 양상을 보다 다양하게 접근하여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3.2.1 상보반의어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

'있다/없다'의 연구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반의어 쌍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상보반의어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그만큼 상보반의어로 널리 알려졌다. '있다/없다'의 중심 의미인 '구체 대상의 존재/비존재'에서 미루어 볼 때 상보반의어로 작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우선 '있다/없다'의 상보성을 분석하여 상보반의어로서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 다음 상보반의어 '있다/없다'가 중심 의미인 '존재/비존재'로부터 어떤 확장 의미를 획득하고 의미구조가 어떻게 개념화되었는지를 알아보고 '있다/없다'의 확장 방향이 어떻게

달리지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인지의미론적 이론과 관점으로 설명해보겠다. 마지막으로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 망을 구축하여 의미 확장 방향을 구체적으로 체계화하고, '있다/없다'의 의미 정보를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세워 보겠다.

3.2.1.1 '있다/없다'의 상보성

상보반의어는 상보적인 개념을 가지고 상호 배타적인 영역을 구성한다. 상보반의어는 연구자에 따라 절대반의어, 모순어 등 용어로도 쓰인다.

윤평현(2008:141-142)에서는 상보반의어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상보반의어는 한 쪽 단어의 단언과 다른 쪽 단어의 부정 사이에 상호 합의 관계가 성립한다.

- (3) ㄱ. 동생이 있다.
- ㄴ. 동생이 없는 것이 아니다.
- ㄷ. 동생이 없다.
- ㄹ. 동생이 있는 것이 아니다.

(3ㄱ)의 '있다'의 단언과 (3ㄴ)의 '있다'의 다른 한 쪽인 '없다'의 부정은 의미적 일치성을 이룬다. 마찬가지로 (3ㄷ)의 '없다'의 단언과 (3ㄹ)의 '없다'의 다른 한 쪽인 '있다'의 부정도 의미적 등가성이 얻어진다. 즉 '있다'를 부정하면 '없다'가 되고, '없다'를 부정하면 '있다'가 되어 의미적 분포에서 겹침, 잉여가 나타나지 않고 이원적 반의 관계를 이룬다.

둘째, 상보반의어는 두 단어를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하면 모순이 된다.

- (4) *ㄱ. 그에게 핸드폰이 있으면서 없다.
- *ㄴ. 동생이 없으면서 있다.

(4)의 예문에서 '핸드폰의 유무'와 '동생의 유무'에서 그 답은 '유' 혹은 '무' 두 가지 경우로만 나타난다. 따라서 '긍정도 되고 부정도 되는 답'을 얻으려 하는

문장은 비문이 된다.

셋째, 상보반의어는 정도어의 수식을 받을 수 없으며, 비교 표현에서도 쓰일 수 없다.

- (5) ㄱ. *그에게 두 손이 매우/아주/대단히 있다.
- ㄴ. *그에게 두 손이 매우/아주/대단히 없다.
- ㄷ. *그는 나보다 두 손이 있다.
- ㄹ. *그는 나보다 두 손이 없다.

‘있다/없다’의 중심 의미는 ‘구체 대상의 존재 상태’이다. (5ㄱ-ㄴ)는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은 예로 예문에 정도성을 부여하면 비문이 된다. (5ㄷ-ㄹ)는 비교 표현의 예로 비교적 표현으로 기술되면 비문이다. 이는 존재의 상태의 ‘값’은 정도성을 나타내지 않을 뿐더러 비교할 수도 없는 고정적이고 변함없는 값임을 시사한다.

넷째, 상보반의어는 절대적 개념으로 사용된다. ‘있다/없다’는 양립적이고 절대적인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작용한다.

- (6) ㄱ. 신은 있다.
- ㄴ. 신은 없다.

예문 (6)에서와 같이 개개인의 해답은 모두 다르겠지만 누구나 그 중 한 가지만 절대적이라고 생각한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 신’은 논리성을 갖춘 타당한 대답이 아니다.

위의 검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있다/없다’는 상보반의어로 나타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즉 의미적 교차를 이루지 않는다. 이는 다음의 공존 양상에서 더 뚜렷이 나타난다.

- (7) ㄱ. 평소엔 조용해서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정도인데 가끔씩 사람들을 자지러지게 웃기곤 한다.
- ㄴ.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방송의 질적인 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

오는 것이다.

예문 (7)과 같이 ‘있다/없다’의 공존 상태에서 ‘대상의 존재 여부’를 이원적으로 표현 가능한 경우로만 보아도 문맥에서 상보성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의 ‘있다/없다’의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그 상보성을 분석해 보자. <표1-1>의 사전적 의미의 기술에서 절대적 대립을 이루는 의미를 찾아 그 번호와 의미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표3-2> ‘있다/없다’의 대립되는 사전적 의미

	있다	없다
사 전 적 의 미	1. 사람, 동물, 물체 따위가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이다.	1. 사람, 동물, 물체 따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2. 어떤 사실이나 현상이 현실로 존재하는 상태이다	2. 어떤 사실이나 현상이 현실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7. 사람이나 사물 또는 어떤 사실이나 현상 따위가 어떤 곳에 자리나 공간을 차지하고 존재하는 상태이다.	7. 사람이나 사물 또는 어떤 사실이나 현상 따위가 어떤 곳에 자리나 공간을 차지하고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8.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 머무르거나 사는 상태이다.	8.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 머무르거나 살지 않는 상태이다.
	11. 개인이나 물체의 일부분이 일정한 범위나 전체에 포함된 상태이다.	10. 일정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상태이다.

위 표에서 ‘있다/없다’는 ‘존재하는 상태/존재하지 않는 상태’, ‘머무르거나 사는 상태/머무르거나 살지 않는 상태’, ‘포함된 상태/포함되지 않는 상태’로 의미적 대립을 형성한다. 이는 ‘있다/없다’의 결합 대상에 따라 그 의미는 상보적 대립을 구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한 문맥에서 ‘있다/없다’는 상보반의어를 이루어 한 단어를 부정하게 되면 다른 단어는 긍정하게 되는 관계를 갖는다. 상보반의어는 담화 영역을 두 개의 상보적인 집합으로 양분하기 때문에 중간 단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원적 분류를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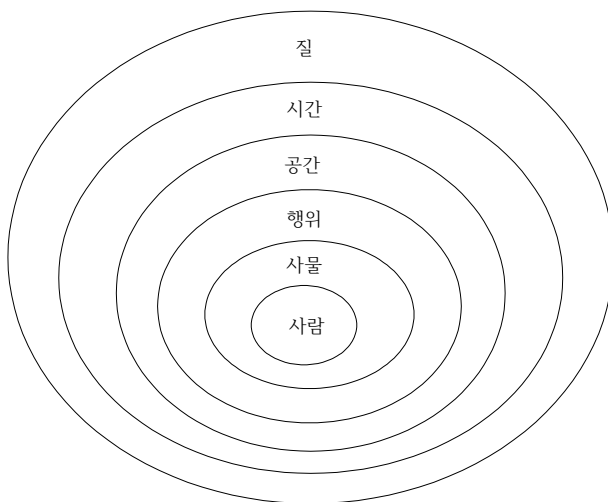
상보반의어로서의 ‘있다/없다’는 의미의 보편성, 고정성을 바탕으로 설정한 것이다. 어휘 자체의 속성만으로 판단한 일반적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으로 중간 단계가 없는 이분법을 적용한 결과이다.

3.2.1.2 상보반의어 ‘있다/없다’의 확장 의미

‘있다/없다’의 상보성은 위의 논의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중심 의미가 확장됨에 따라 다의어의 범주가 구성되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아래 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의미가 확장됨에 따라 그 상보성이 계속 유지되는지 아니면 파괴되는지도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앞 장에서 Heine et al.(1991)와 임지룡(1996)의 의미 확장 방향을 구체적인 실례와 함께 검토해 보았다. Heine et al.(1991)의 의미 확장 방향을 위계적으로 보여주면 다음과 같다.

〈그림3-1〉 Heine et al(1991)의 개념의 위계



이런 개념들 간의 관계는 본질상 은유적이다. 즉, 한 개념은 다른 개념을 개념화하는 데 사용된다. 이와 같은 개념의 배열은 ‘공간은 사물이다’나 ‘시간은 공

간이다'와 같은 개념적 은유⁴²⁾를 구성할 수 있다. 'A는 B이다'와 같은 유형의 개념적 은유에서 A는 범주화의 목표구조를 말하고, B는 근원구조를 말한다. (김동환 2013:388)

임지룡(1996)에서는 Heine et al(1991)의 확장 원리를 적용하여 한국어의 의미 확장 양상을 다음과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임지룡(1996)의 의미 확장 양상

- (가) 사람-->동물 -->식물-->무생물
- (나) 공간-->시간 -->추상
- (다) 물리적 위치 --> 사회적 위치 -->심리적 위치
- (라) 문자성--> 비유성 --> 관용성
- (마) 내용어-->기능어

Heine et al(1991)와 임지룡(1996)의 확장 원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 (가) 인간이 우선이다. (사람-->동물 -->식물-->무생물)
- (나) 가시적인 것이 우선이다. (공간-->시간 -->추상, 물리적 --> 사회적 -->심리적)
- (다) 구체적 의미가 우선이다. (문자성-->비유성-->관용성, 내용어-->기능어)

위에서 '가시적인 것'과 '구체적 의미'는 인간의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인간과 인간의 체험을 떠나서는 어휘의 의미가 형성되지 않는 것이다. 즉, 체험을 통하여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의 개념적 은유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사고와 이해의 뿌리가 구체적인 우리의 신체적 활동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더욱 복잡하고 추상적인 사고는 이를 토대로 하는 은유적 전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노양진·나익주 1995:4-5).

Heine et al(1991)와 임지룡(1996)의 의미 확장 원리는 체험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인지언어학의 중심 원리와 맞물린다. 오늘날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와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의 신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도출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모든 언어는 신체적 경험의 흔적을 지니고 있음에 틀림없다.

42) Heine et al(1991:49)은 이것을 '범주적 은유'라 부른다.

즉 신체적 경험을 떠나서는 언어와 그 의미를 운운할 수 없다. 신체적 경험은 개개인, 민족, 문화적 배경, 나라, 지역 차이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단어의 의미 확장의 방향을 논할 때 언어마다 차이가 나타날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신체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Heine et al(1991)의 의미 확장 방향이 범언어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이 이를 충분히 증명해준다.

임지룡(1996)의 의미 확장 방향도 대부분 한국어 어휘의 의미 확장에 전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어휘는 어느 경우에도 똑같은 틀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며, 위에서 제시한 것만으로 부족할 때도 많다. 특히 의미 확장은 인간의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있다/없다’의 중심 의미로 통하는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인간의 체험과 인지는 같을 수가 없다. 일단 ‘있다’는 가시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고, ‘없다’는 비가시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의 의미 확장의 비대칭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럼 상보반의어 ‘있다/없다’는 의미 확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문을 통해 아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3.2.1.2.1 대상 개념(중심 의미)

〈표 3-3〉 대상 개념의 ‘있다/없다’

단어	구성	사전적 의미	예문	확장 경로	반의어
있다	N가 있다	사람, 동물, 물체 따위가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이다.	ㄱ. <u>신은 있다.</u> ㄴ. 이 물건의 <u>주인은 따로 있다.</u>	중심 의미	없다
없다	N가 없다	사람, 동물, 물체 따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ㄱ. <u>귀신은 없다.</u> ㄴ. 각이 진 <u>원은 없다.</u>	중심 의미	있다

위의 표에서 밝힌 사전적 의미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첫 번째 의미이고 이는 ‘있다/없다’의 중심 의미이다. ‘있다/없다’는 ‘N가 있다/없다’⁴³⁾의

43) 구체적으로 ‘N가/이 있다’와 ‘N은/는 있다’의 구성을 이룬다. 하지만 내용의 간략성을 위하여 ‘N가 있다’ 구성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뒷부분에서도 마찬가지다.

구성으로 ‘어떤 대상이 실제로 존재/비존재함’을 나타낸다. 다의어는 중심 의미로부터 의미 확장을 이룩하여 그 범주적 체계를 형성하는 바, ‘있다/없다’의 기타 의미들은 모두 이로부터 확장된 의미로 중심 의미와 가족ähn의 관계를 이룬다. 이런 중심 의미의 문맥에서 ‘있다/없다’는 서로 대체 가능하고 의미가 상보적이다. 하여 그 분포는 대칭적이다. 구체적으로 실례를 들어 보자.

(8) ㄱ. 태권도를 좋아하는 긍정적인 아이가 있다. <--> 없다.

ㄴ. 첫 눈에 반한 사람이 있다. <--> 없다.

ㄷ. 20일 만에 토익 800점 찍는 책이 있다. <--> 없다.

ㄹ. 주머니에 들어가는 노트북이 있다. <--> 없다.

ㅁ. 등산하는 강아지가 있다. <--> 없다.

ㅂ. 뉴욕에만 사는 특별한 고양이가 있다. <--> 없다.

ㅅ. 나는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믿는다. <--> 없다.

ㅇ. 옛날에는 왕이 있었다. <--> 없다.

ㅈ. 신령님이 있긴 어디 있어? <--> 없다.

(9) ㄱ. 나쁜 아이는 없다. <--> 있다.

ㄴ. 영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잘하는 사람이 없다. <--> 있다.

ㄷ. 예전에는 핸드폰이 없었다. <--> 있다.

ㄹ. 글을 쓰려고 보니 종이와 펜이 없다. <--> 있다.

ㅁ. 사연 없는 고양이가 없다. <--> 있다.

ㅂ. 푹푹하고 쿨한 강아지는 없다. <--> 있다.

ㅅ. 눈이 셋인 사람은 없다. <--> 있다.

ㅇ. 공룡은 이제 없고 상상의 동물로 남을 것이다. <--> 있다.

ㅈ. 외계인은 없을 것 같다. <--> 있다.

위의 예문에서 ‘아이’, ‘사람’, ‘책’, ‘노트북’, ‘핸드폰’, ‘종이와 펜’, ‘고양이’, ‘강아지’, ‘산타클로스’, ‘왕’, ‘신령님’, ‘공룡’, ‘외계인’ 등은 현실 속 혹은 상상 속에서 구체적인 실체를 가진 대상으로서 ‘있다/없다’와 결합하여 그 대상의 ‘존재/비존재’를 나타낸다. 이는 Heine et al(1991)의 의미 확장 경로에서 출발점인 ‘사람, 사물-대상 개념’과도 일치한다. 이런 대상 개념이 신체적 경험(44)

44) ‘신체적 경험’이란 인간의 신체를 통해 직접적으로 중재되고 구조화되는 세계에 대한

의 작용 하에 다른 개념으로의 확장을 이룬다. ‘신체화’란 우리의 경험이 어떤 대상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기초가 된다는 것으로, 의미 확장의 근원이며 새롭고 추상적인 대상을 이해하는 준거이다(임지룡 2008:40). ‘신체화된 의미’는 개념적인 것이며 다의어 여러 의미도 개념적 의미에 따라 새로이 구분될 수 있다. 아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3.2.1.2.2 행위 개념

〈표3-4〉 행위 개념의 ‘있다/없다’

단어	구성	사전적 의미	예문	확장 경로	반의어
있다	N가 있다	일이 이루어지거나 벌어질 계획이다.	ㄱ. <u>모임이 있다.</u> ㄴ. <u>좋은 일이 있다.</u>	대상 ↓ 행위	없다
없다	N가 없다	일이나 현상이나 증상 따위가 생겨 나타나지 않는다.	ㄱ. <u>범죄 없는</u> 사회 ㄴ. <u>사고 없는</u> 공사가 되도록 안전에 유의하십시오.	대상 ↓ 행위	있다

위의 표는 ‘있다/없다’의 행위 개념의 구성,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속의 의미와 예문, 확장 경로 및 반의 관계에 관하여 보여준 것이다. 구체적으로 ‘있다’는 ‘N가 있다’의 구성으로 어떤 행위가 나타남을 뜻한다. 사전명사 ‘N’이 ‘있다’와 결합하여 ‘있다’는 중심 의미로부터 확장되어 ‘이루어지다’, ‘생겨나다’의 의미를 부여받게 된 것이다. 사람, 사물 등 대상이 존재한다는 뜻으로부터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생겨난다는 뜻으로 쓰인 것은 사물 개념이 행위 개념으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없다’와 의미가 반대되어 서로 상반되는 상황에도 쓰일 수 있다. 이는 ‘있다’와 ‘없다’가 똑같은 방향으로 의미가 확장됨을 말한다. 구체적인 실례로 보여주면 다음과 같다.

- (10) ㄱ. “아니 집에 가 보아야 될 일이 있다.” 라고 대답하였다. <--> 없다.
ㄴ. 3 월에는 ‘분노’가 있다. 3 월에는 ‘움직임’이 있다. <--> 없다.

체험을 말하는 것은 (임지룡 외 옮김 2008:49), 여타 동물들과 다른 인간이 가진 종 특유의 특성을 말한다.

- ㄷ. 이 두 가지 능력과 잠재능력을 넘어서 '초능력'이 있다. <--> 없다.
- ㄹ. 내조(內助)가 있다면 외조(外助)도 있는 법, 가사를 분담하라. <--> 없다.
- ㅁ. '세계 7대 불가사의'란 것이 있다지만 한국에도 그에 못지않은 '3대 불가사의'가 있다. <--> 없다.
- ㅂ.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가 있다. <--> 없다.
- ㅅ. 오늘 회식이 있으니 모두 참석하세요. <--> 없다.
- ㅇ. 나는 그와 만난 적이 있다. <--> 없다.
- ㅈ. 큰 화재가 있는 후로 그곳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 <--> 없다.

- (11) ㄱ. 가가거거로 시작하는 초보적인 한글도 귀뽀해준 일이 없다. <--> 있다.
- ㄴ. 안주가 마련이 없다 하면 내가 걱정할 일이지 자네가 안달할 까닭이 무엇가?
<--> 있다.
 - ㄷ. 죽은 자는 말이 없다. <--> 있다.
 - ㄹ. 그러서는 석연찮았으나 너무 마음 쓸 것 없다 싶었다. <--> 있다.
 - ㅁ. 몸을 털면서 주인아저씨를 즐겁게 했으니 속상할 것 없다. <--> 있다.
 - ㅂ. 앓은 심해지기까지 아무런 증세도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다. <--> 있다.
 - ㅅ. 어머니는 감기 증상이 없다고 하셨지만, 계속 기침을 하셨다. <--> 있다.
 - ㅇ. 나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 <--> 있다.
 - ㅈ. 머리에 열은 없지만 한 며칠 폭 쉬도록 하십시오. <--> 있다.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간에 발생하는 일이거나 그에 수반되는 현상이나 증상을 모두 행위 개념으로 본다. 예문 (10)에서 '일', '분노', '움직임', '초능력', '내조', '외조', '불가사의', '중간고사', '회식', '만난 적', '화재'는 모두 구체적 실체를 가진 대상이 아닌, 행위를 필요로 하는 단어로서 '있다'와 결합하여 '행위가 벌어질 계획이 있음', '심리적 분노 행위와 움직임의 행위가 생김', '초능력 현상이 이루어짐', '외조, 내조의 행위가 나타남', '불가사의 현상이 나타남', '중간고사를 곧 치름', '회식이 곧 벌어짐', '만난 사실이 있음', '화재 사연이 존재함'을 뜻하고 있다. 예문 (11)에서도 '일', '안주가 마련', '말', '마음 쓸 것', '속상할 것', '증세', '증상', '사실', '열'과 '없다'가 결합하여 '행위가 나타나지 않음', '안주가 마련되지 않음', '말을 하지 않음', '마음 쓸 행위까지는 필요 없음', '속상할 마음속 증상은 이루어지지 않음', '증세가 안 나타냄', '증상이 나타나지 않음',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 '열이 생기지 않음'으로 의미 해

석할 수 있다.

위의 예문은 ‘있다/없다’는 ‘어떤 대상의 존재/비존재’의 의미로부터 ‘어떤 행위, 현상이 이루어지거나 나타남/이루어지지 않거나 나타나지 않음’의 의미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중심 의미인 ‘존재/비존재’와 사뭇 다른 뜻이고, 대상 개념에서 행위 개념으로 확장하는 Heine et al(1991)의 의미 확장 경로와 일치한다.

3.2.1.2.3 공간 개념

본 장에서는 공간 개념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진행하겠다. 대상 개념에서의 확장으로 이루어진 공간 개념, 행위개념에서의 확장으로 이루어진 공간 개념, 물리적 공간에서의 확장으로 이루어진 추상적 공간 개념 등 3가지로 분류하여 공간 개념을 설명하고자 한다.

3.2.1.2.3.1 대상 개념에서 공간 개념으로

〈표3-5〉 공간 개념의 ‘있다/없다’ 1

단어	구성	의미	예문	확장 경로	반의어
있다	N1 이 N2 에 있다	소재 머무름, 포함, 소유	ㄱ. 방 안에 사람이 있다. ㄴ. 그는 서울에 있다. ㄷ. 합격자 명단에는 내 이름도 있었다. ㄹ. 나에게 1000원이 있다.	대상 ↓ 공간	없다
없다	N1 이 N2 에 없다	부재, 미머무름 비포함, 비소유	ㄱ. 방 안에는 아무도 없다. ㄴ. 그 사람은 지금 이 집에 없습니다. ㄷ.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물건을 훔칠 만한 사람이 없다. ㄹ. 나에게 지금 단돈 100원도 없다.	대상 ↓ 공간	있다

공간 개념은 ‘어디’로 뜻풀이 되며 공간적 관계를 의미 유형으로 갖는다. 위의 표 속의 ‘있다/없다’는 ‘소재/부재, 머무름/미 머무름, 포함/비포함, 소유/비소유’의 뜻을 나타내는 바, ‘N1이 N2에(에게, 에는, 에게는) 있다/없다’ 구성

으로 실체가 구체적으로 어느 공간에 존재 혹은 존재하지 않는 의미를 나타낸다. 대상 영역에서 쓰이던 ‘있다/없다’가 공간 영역에서도 쓰이는 것은 대상 개념이 공간 개념으로 확장되었음을 말해준다. 또한 이 공간 영역에는 대상도 존재하는 바, 주로 대상과 공간의 관계를 기술한다. 공간 영역은 대상의 존재를 바탕으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의미 영역의 일부가 대상 영역과 겹치고 교차한다. 즉 ‘있다/없다’의 중심 의미와 가족 닮음의 구조를 형성한다. 또한 반의어 ‘없다/있다’와 교체 가능하다. ‘있다/없다’가 공간 개념으로 똑같이 의미가 확장됨을 말해주고 있다. 공간 개념의 다양한 예문은 다음과 같다.

〈소유〉

- (12) ㄱ. 그에게는 1억 원 상당의 집이 있다. <->없다
 ㄴ. 주인이 있는 물건에 손을 대면 안 된다. <->없다
 ㄷ.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으로 어머니에게 약간의 부동산이 있다.
 <->없다
 ㄹ. 동생에게는 오래된 자동차가 있다.<->없다

〈비소유〉

- (13) ㄱ. 내게는 10원도 없다. <->있다
 ㄴ. 요즘 핸드폰이 없는 젊은이는 없다고 생각한다. <->있다
 ㄷ. 할아버지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책이 없다고 지적하셨다. <->있다
 ㄹ. 동생에게는 요즘 날씨에 맞는 옷이 없었다.<->있다

〈소재 및 머무름〉

- (14) ㄱ. 그녀의 동생은 미국에 있다. <->없다
 ㄴ. 우리 가족은 모두 고향에 있다. <->없다
 ㄷ. 부산에 있는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었다. <->없다
 ㄹ. 동물원에 코뿔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직접 보자꾸나. <->없다

〈부재 및 미머무름〉

- (15) ㄱ. 방안에는 가구가 하나도 없다. <->있다
 ㄴ. 집에 돌아와 보니 동생은 없고 잠시 나갔다 오겠다는 편지만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있다
 ㄷ. 아들 녀석이 밥상 위에 고기반찬은 하나도 없고 풀만 있다며 투덜거렸다.

<->있다

ㄹ. 그는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있다

<포함>

(16) ㄱ. 과일에는 사과, 배, 감, 오렌지 따위가 있다. <->없다

ㄴ. 커리큘럼 가운데 기호학에 관한 것도 있습니까? <->없다

ㄷ. 지원자 중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없다

ㄹ. 이 차에는 각종 첨단 장비들이 있다. <->없다

<미포함>

(17) ㄱ. 출석부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제게 말씀해 주세요. <->있다

ㄴ. 이 모임에서는 내가 설 자리가 없다. <->있다

ㄷ.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물건을 훔칠 만한 사람이 없다. <->있다

ㄹ. 이 가방에는 손잡이가 없다. <->있다

위의 예문들은 대상 개념이 어떤 공간에 머무름으로써 '있다/없다'가 공간 속의 '존재/비존재'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단지 사람, 동물, 사람의 존재하는 것과 비존재하는 것만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공간 속에 자리를 잡거나 그 자리가 비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사물개념에서 인간의 인지적 체험의 작용 하에 공간개념으로 확장되어 표현됨을 보여준다.

3.2.1.2.3.2 행위 개념에서 공간 개념으로

<표3-6> 공간 개념의 '있다/없다' 2

단어	구성	의미	예문	확장 경로	반의어
있다	N1 가 ~N2 에 있다	행위가 공간에 머무름	<u>생명체의 움직임이 이곳에 있다.</u>	행위 ↓ 공간	없다
없다	N1 가 ~N2 에 없다	행위가 공간에 안 머무름	<u>'촛불 혁명'이 그 곳에 없다.</u>	행위 ↓ 공간	있다

위의 표에서 ‘있다/없다’는 행위의 공간적 관계를 의미한다. 즉 실체가 없는 어떤 행위가 어떤 공간에 머물러 있음/머물러 있지 않음을 뜻한다. ‘실체가 공간에 존재하는 공간 개념이 있는가 하면 행위가 공간에 존재하는 공간 개념도 있다. 즉 대상 개념이 공간 개념으로 확장하는가 하면 행위 개념도 공간 개념으로 확장할 수 있다. 위의 표의 예문에서 ‘움직임이 있다’는 ‘움직이다’, ‘촛불 혁명이 없다’는 ‘촛불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으로 발생됨과 발생되지 않음을 의미하기에 모두 행위 개념에 속한다. 이런 ‘행위’를 표현한 문장 ‘생명체의 움직임이 이곳에 있다.’와 ‘촛불 혁명이 그 곳에 없다’에서 중심이 되는 의미는 공간이다. 즉 ‘생명체가 이곳에서 움직인다.’, ‘촛불 혁명이 그 곳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곳에서’, ‘그 곳에서’라는 공간 개념을 강조하여 표현한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있다/없다’는 서로 교체 가능하다. 이는 ‘있다’와 ‘없다’의 확장 양상이 같음을 의미한다.

- (18) ㄱ. 참다운 휴식은 부지런히 일하는 가운데 있다. <--> 가운데 없다.
 ㄴ. 구원은 나의 계명들을 실천하는 데 있다. <--> 실천하는 데 없다.
 ㄷ. 산과 바다, 강으로 둘러싸여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경남은 봄 꽃 축제만큼이나 다양한 특색을 가진 축제의 장이 많이 있다. <--> 없다.
 ㄹ.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동명대는 세계선센터라는 소중한 인성 교육의 장이 있다. <--> 없다.
 ㅁ. 이번 주 우리 호텔에 동창회 모임이 있다. <-> 호텔에 동창회 모임이 없다.
 ㅂ. 오늘 저녁 교회에 무료 진료가 있으니까 꼭 오세요. <-> 교회에 무료 진료가 없다.
 ㅅ. 그날은 학교에 한국어능력시험이 있어서 쓸 수 있는 교실이 없다.
 <-> 오늘 학교에 한국어능력시험이 없다.
 ㅇ.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태기가 있다고 무척 기뻐하셨다. <-> 며느리에게 태기가 없다.
 ㅈ. 만일 너에게 무슨 일이 있게 되면 바로 연락해라. <-> 너에게 무슨 일이 없을 거야.

- (19) ㄱ. 공주 사면에 모두 지뢰포를 묻어 가히 한 걸음도 밟을 곳이 없다.
 <--> 밟을 곳 있다.
 ㄴ. 생각하니 분한 마음 둘 데 없다. <--> 마음 둘 데 있다.

- ㄷ. 스윙재즈부터 펑키, 포크와 발라드를 넘나드는 풍성한 밴드 편곡과 이 문세의 힘 있는 가창은 흡잡을 데 없었다. <--> 흡잡을 데 있다.
- ㄹ. 탐방객의 눈높이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곳은 아직까지 한 군데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한 군데 있다.
- ㅁ. 오늘은 바다에 파도가 없어서 수영하기가 좋다. <-> 바다에 파도가 있다.
- ㅂ. 집안에 싸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 집안에 싸움이 있다.
- ㅅ. 매우 걱정을 했지만 그 뒤에 나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
<-> 나에게 무슨 일이 있다.
- ㅇ. 아직 며느리에게 태기가 없어서 걱정이다. <-> 며느리에게 태기가 있다.
- ㅈ. 오늘 학교에 수업이 없어서 간단에 쇼핑을 나갔다. <-> 학교에 수업이 있다.

예문 (18ㄱ-ㄴ)에서 ‘가운데’, ‘...데 있다’, ‘장’, ‘호텔에’, ‘교회에’, ‘학교에’, ‘며느리에게’, ‘너에게’⁴⁵⁾는 공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다. 언어의 의미적 구조는 개념적 구조이다. 물론 그 개념적 구조에 모든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즉, 담화론적으로 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결국, 개념적 언어로 부호화된다. 그리고 의미는 언어를 꾸릴 수 있는 사물이 아닌 과정이다. 즉 위의 (18ㄱ-ㄴ)에서 ‘있다’는 공간 개념으로 부호화되어 있고 그 의미에는 행위 개념이 공간 개념으로 확장되는 개념화의 과정이 담겨 있다. ‘일하다’, ‘실천하다’, ‘축제하다’, ‘교육하다’, ‘모임하다’, ‘진료하다’, ‘시험을 치다’, ‘태기 반응’, ‘일이 벌어지다’의 행위가 일정한 공간에 머물러 행위와 공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문 (19ㄱ-ㄴ)에서 ‘났다’, ‘마음을 두다’, ‘흡잡다’, ‘운영되다’, ‘파도치다’, ‘싸움하다’, ‘일이 벌어지다’, ‘태기 반응’, ‘수업하다’의 행위는 구체적인 공간에서의 미발생으로 그 의미를 구조화하였다. 즉 행위 개념이 공간 개념으로 확장되는 구조적 관계를 보여주고 그 의미는 공간 개념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공간 개념에서 ‘있다/없다’는 교체 가능하다. 이는 ‘있다’와 ‘없다’가 똑같이 공간 개념으로의 확장 경로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45) 여기서 ‘에게’의 『표준국어대사전』의 의미는 일정하게 제한된 범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에’와 마찬가지로 공간 개념이다.

3.2.1.2.3.3 물리적 위치에서 사회·심리적 위치로

〈표3-7〉 공간 개념의 '있다' 3

단어	구성	의미	예문	확장 경로	반의어
있다	N1가 ~ N2로 있다	지위나 역할이 공간에 머무름	ㄱ. 그는 그 대학의 <u>교수로 있다.</u> ㄴ. 나의 시아버지는 현재 고 등학교 <u>교장으로 있다.</u>	물리적 공간 ↓ 추상적 공간	
	N1가 ~ N2에 있다	어떤 처지나 상 황, 수준, 단계 를 공간화	ㄱ. 순희가 지금 <u>어려운 상황 에 있으니</u> 우리 모두 도와주 도록 하자. ㄴ. 그 일은 현재 <u>진행 중에 있다.</u>		

위의 표에서 '있다' 문맥은 'N1가 ~N2로 있다'와 'N1가 ~N2에 있다'의 구성으로 각각 지위나 역할이 공간에 머무른 상황과 어떤 처지나 상황, 수준, 단계를 공간화하여 표현한 결과이다. 실체가 공간에 머무르는가 하면 행위도 공간에 머무르고, 지위와 역할도 공간에 머무를 수 있다. 또한 처지, 상황, 수준, 단계 등 추상적 개념도 공간화하여 표현 가능하다. 이는 물리적 공간으로부터 추상적 공간으로의 확장을 이룩하였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있다'와 '없다'는 서로 반의 관계를 이루지 않는다. 이는 '없다'는 공간성이 '있다'보다 약한바, 추상적 공간으로의 인지가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예문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0)

〈사회적 위치〉

- ㄱ. 그는 시청에서 행정직 공무원으로 있다. <--> *없다
- ㄴ. 그는 지금 대기업의 과장으로 있다. <--> *없다
- ㄷ. 그 친구는 국방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이다. <--> *없다
- ㄹ. 지금 있는 곳은 전에 있던 곳보다 보수가 제법 괜찮다. <--> *없다
- ㅁ. 그는 철도청에 있다. <--> *없다
- ㅎ. 나는 지금 그 연구소에 있어. <--> *없다

- . 영미는 남편이 계약 회사에 있어서 약 걱정은 하지 않았다. <--> *없다
- ㅈ. 친구가 은행에 있으니 대출 상담은 수월할거야. <--> *없다

(21)

<심리적 위치>

- ㄱ. 난처한 처지에 있다. <--> *없다
- ㄴ.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공감에 있다. <--> *없다⁴⁶⁾
- ㄷ. 도로 정비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 *없다
- ㄹ. 안개 정국 속에 있는 국회가 이번 회기에 무사히 진행이 될지 걱정입니다.
<--> *없다
- ㅁ. 진정한 용서는 마음에 있다. <--> *없다
- ㅂ. 위험한 상황에 있는 그의 병은 가족 내 걱정거리 1위였다. <--> *없다
- ㅅ. 그는 그 일을 단독으로 처리할 만한 처지에 있지 못합니다. <--> *없다
- ㅇ. 그 회사는 이미 경쟁사와 대응할 만한 위치에 있다. <--> *없다
- ㅊ. 사람마다 마음속에 벽이 있다. <--> *없다

예문(20ㄱ-ㅈ)의 ‘있다’는 사람이 어떤 지위나 역할로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런 지위와 역할은 ‘시청’, ‘대기업’, ‘국방부’, ‘직장’, ‘철도청’, ‘연구소’, ‘제약회사’, ‘은행’이라는 사회적 위치의 하위적 집합이다. 넓은 의미에서 지위와 역할은 사회적 위치이다. 이런 사회적 위치는 공간이고, 의미적 구조는 공간 개념적 구조이다. 또한 의미 구성은 공간화 과정이다. (21ㄱ-ㅈ)는 어떤 처지나 상황, 수준, 단계에 놓이거나 처한 상태를 의미한다. ‘처지’, ‘공감’, ‘마무리 단계’, ‘안개 정국 속’, ‘마음’, ‘위험한 상황’, ‘위치’, ‘마음속’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공간화하였다. 사회적 위치의 공간화 경험에서 비롯된 이 구조는 실체가 없는 마음 속 공간이라는 심리적 공간 개념을 구조화하여 의미적 구조를 표현하였다. 즉, 예문(20-21)은 실존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물리적 위치’의 ‘있다’가 사회적 지위나 역할을 나타내는 ‘사회적 위치’로, 또한 ‘물리적 위치’에서 다시 실체가 없는 마음속 상태의 ‘심리적 위치’로 의미가 확장되었음을 의미

46) 예문(21ㄴ) 대립 가능으로 보려면 ‘공감이 없다’로 표현해야 한다. 이는 추상개념으로의 확장이지 공간 개념의 일종인 심리적 위치로의 확장으로 볼 수 없다. 즉 ‘N에 없다’로 대치 불가능한 것은 심리적 위치의 공간 개념으로 확장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한다. 예문(20-21)에서 ‘있다’는 ‘없다’와 교체 불가능하다. 이는 ‘없다’는 여전히 물리적 위치에만 머물고 결코 사회적 위치나 심리적 위치로 확장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있다’는 중심 의미가 ‘존재’로 물리적으로 인지 가능하나 ‘없다’는 중심 의미가 ‘비존재’로 물리적으로 인지할 수 없어 결코 더 구체적 확장인 사회·심리의 위치로 확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3.2.1.2.4 추상 개념

추상 개념으로의 확장을 설명함에 있어서 시간성과 비시간성으로 나누어 설명하겠다. 왜냐하면 시간성은 ‘있다/없다’의 품사와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즉, ‘있다’와 결합하여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면 ‘있다’는 동사로 파생된다.

3.2.1.2.4.1 시간성

〈표3-8〉 ‘있다/없다’의 시간 명사와의 결합

단어	구성	의미	예문	확장 경로	반의어
있다	N가 있다	시간 존재	ㄱ. 모든 것은 <u>때가 있다.</u> ㄴ. 우리는 모두 울고 있는 아이를 <u>본 적이 있다.</u> ㄷ. 영화 같은 <u>순간은 있다.</u>	구체성 ↓ 추상성	없다
없다	N가 없다	시간 부재	ㄱ. 공부는 <u>때가 없다.</u> ㄴ. 내측은 <u>틀린 적이 없다.</u> ㄷ. 중요하지 않은 <u>순간은 없다.</u>	구체성 ↓ 추상성	있다

표 안의 예문의 ‘때, -적, 순간’⁴⁷⁾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계속되는 시간상의 어떤 점이나 부분을 가리킨다. 이러한 시간에 ‘있다/없다’가 결합

47) 문맥에서 ‘때, 적, 순간’의 사전적 의미:

때: 알맞은 시기

적: 그 동작이 진행되거나 그 상태가 나타나 있는 때, 또는 지나간 어떤 때.

순간: 아주 짧은 동안

하여 짧거나 긴 시간의 ‘존재/부재’를 나타낸다. 즉, 일시적 혹은 영구적인 상태를 나타낸다. ‘있다’는 위의 예문과 같이 시간 명사와 결합하여 ‘존재’를 나타내는가 하면 다음 예문에서처럼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22) ㄱ. 한 이틀쯤 있다 올라갈까 봐. 내 한 번 들리게. 저녁이라도 함께 하자.

〈--〉 *없다

ㄴ. 경화 아빠가 미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가서 2년 있다 온대. 〈--〉 *없다

ㄷ. 아내는 피식 웃더니 한참 있다 입을 열었다. 〈--〉 *없다

ㄹ. 맛있는 음식은 남겨 두었다가 좀 있다 먹곤 하는 것을 예사로 하였다.

〈--〉 *없다

ㅁ. 아우는 잠자코 한참 있다가 겨우 대답하였다. 〈--〉 *없다

ㅂ. 조금 있다가 어머니가 바느질에 정신이 팔려서 골몰하고 있을 때 몰래 가만히 일어나서 나오지요. 〈--〉 *없다

ㅅ. 앞으로 사흘만 있으면 추석이다. 〈--〉 *없다

ㅇ. 일주일만 있으면 방학이다. 〈--〉 *없다

ㅈ. 조금 있으니까 비가 그쳤다. 〈--〉 *없다

ㅊ.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10분쯤 있다가 다시 전화를 주십시오.

〈--〉 *없다

예문 (22)의 ‘있다’의 사전적 의미는 ‘얼마간의 시간이 경과하다.’이다. ‘있다’는 ‘이틀쯤, 2년, 한참, 좀, 조금, 사흘, 일주일, 10분’과 결합하여 시간의 흐름을 거쳐 상태의 변화를 일으켰다. 즉,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경과’를 나타낸다. 이는 또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로서의 ‘있다’가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로 파생되었음을 말해준다. 예문 (22)의 ‘있다’는 ‘없다’로 교체할 수 없다. 그것은 ‘없다’는 시간의 흐름을 가질 수 없고 불변하는 상태로 존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없다’는 항상 형용사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간의 흐름을 거치는 데 적용하면 동사로 파생될 수 있다⁴⁸⁾. 한마디로 ‘있다’

48)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동사 ‘있다’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1」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다.

「2」 사람이 어떤 직장에 계속 다니다.

「3」 얼마의 시간이 경과하다.

위의 의미 중의 동작들은 모두 시간의 흐름을 전제로 진행된다.

는 상태에서 동작으로의 확장을 이루었지만 ‘없다’는 그렇지 않다. 여기서 추상 개념에서 ‘있다’와 ‘없다’는 확장방향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2.1.2.4.2 비시간성

〈표3-9〉 ‘있다/없다’의 추상 명사와의 결합

단어	구성	의미	예문	확장 경로	반의어
있다	N가 있다	존재	이 주택은 깔끔한 <u>밋이 있다</u> .	구체성 ↓ 추상성	없다
없다	N가 없다	부재	밋은 있는데 <u>맞은 없다</u> .	구체성 ↓ 추상성	있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추상 개념의 ‘있다/없다’는 사물의 특성이나 속성을 나타내는 추상 단어와 결합하여 그 존재 여부를 나타낸다. 이런 추상 단어는 실존하는 대상이 아닌 비물질적인 존재로서 관찰자의 인지적 추론과정과 사고체계를 거쳐 물질적인 대상으로부터 속성이나 특성을 뽑아낸 것이다. 좁은 개념에서 넓은 개념으로 분석하여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는 그 추상적 속성을 뽑아내는 것이 추상화 과정이다. [-시간성], [-실체성] 단어와 결합한 예문은 다음과 같다.

- (23) ㄱ. 자녀에게 출발에서 도착지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게끔 하면 더욱 보람 있다. <--> 보람 없다.
 ㄴ. “잠깐 여가를 즐기기에선 다른 어떤 오락보다도 실속 있다”고 말했다.
 <--> 실속 없다.
 ㄷ. 롯데백화점 롯데화랑에서 열리는 이 전시는 프로기사가 팬서비스차원에서 마련한 도화전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 의의가 없다.
 ㄹ. 나는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다. <--> 잘할 수 없다.
 ㅁ. 그 남자는 다소 바람기가 있는 것 같다⁴⁹⁾. <-> 바람기가 없다.

49) 이와 같은 예문에서는 정도성이 나타난다. 의미가 확장됨에 따라 정도성이 부여된

- ㄴ. 형은 실력이 있으니까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할 거야. <-> 실력이 없다.
- ㄷ. 그녀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매력이 있었다. <-> 매력이 없다.
- ㄹ. 너는 손재주가 있어서 공업계로 진학하면 좋을 것 같다. <-> 손재주가 없다.
- ㅈ. 짧은 일곱 번의 큰 기회가 있다. <-> 기회가 없다.

(24) ㄱ. 지금껏 20여년의 인생이 묻어있는 내 얼굴은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성장할 것인데 그것을 억지로 바꾸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 * 추호도 있다.

- ㄴ. 이 삶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 이유가 있다.
- ㄷ. 사진처럼 회색 상하의 정장을 입고, 핑크색 셔츠로 포인트를 주면 화사하면 서도 부담 없다. <--> 부담이 있다.
- ㄹ.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 생각할 수 있다
- ㄹ. 하기야 사안 상으로 보면 현대 측이 꼬리를 분명하게 잡힌 것 같고 국민의 입장에서선 재벌의 그런 비리와 탈법에 주저 없는 비판을 가하는 것이 정상이다. <-> *주저 있다.
- ㄴ. 지금 잔뜩 그들을 괴롭혀 놓고 보상할 기회가 없게 되면 이 일을 어떻게 하 지요? <-> 기회가 있다.
- ㄷ. 세계 최상급인 성취동기와 사명감도 체력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쓸모가 없다. <-> 쓸모가 있다.
- ㄹ. 제2차 페놀 누출 사고를 낸 경북 구미시 (주) 두산 전자는 24일 페놀 원유 송유관 주변에 옹벽을 쌓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여념이 없다. <->*여념이 있다
- ㅈ. 두환은 그런 일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는 표정으로 텅 빈 분식 센터 안을 휩 둘러 보았다. <-> 관심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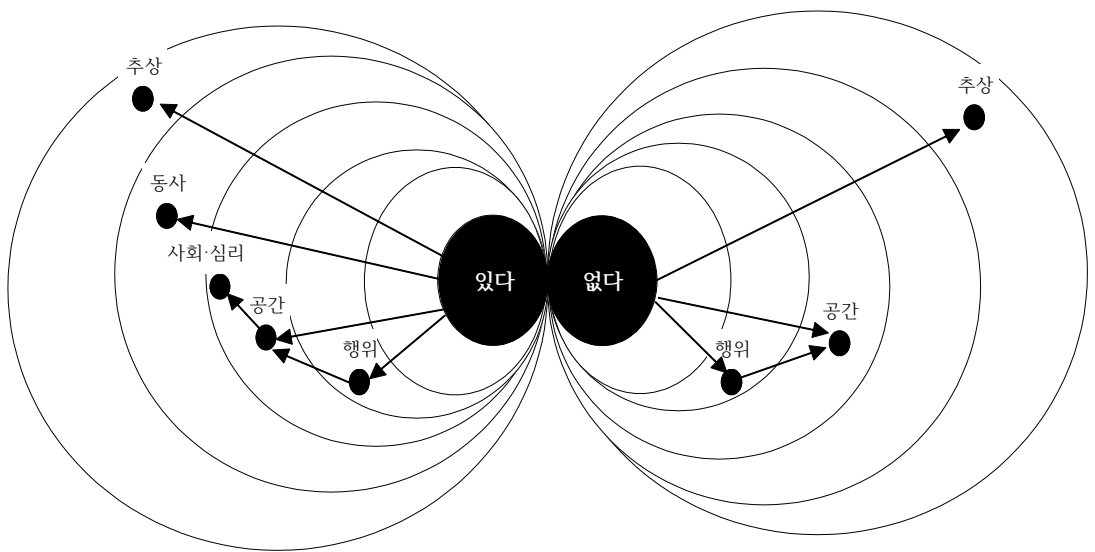
인간의 추상적인 사고체계는 비물질적 존재의 인지와 창의 중심적인 시스템이다. 예문 (23)에서 '보람, 실속, 의의, -수, 바람기, 실력, 매력, 재주, 기회'와 예문 (24)에서 '추호, 이유, 부담, -수, 주저, 기회, 쓸모, 여념, 관심'은 모두 구체적인 실체와 시간성이 없는 비물질적 존재의 추상적인 단어들이다. 이는 중심 의미를 기준으로 인지의 측면에서 볼 때 단어의 의미가 구체적인 데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추상 단어와의 결합 여부가 중점이므로 정도성에 대한 고찰은 3.2.2의 정도반의어'있다/없다'의 의미 확장을 논할 때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한다.

로부터 추상적인 데로, 또한 신체적인 데로부터 신체와 먼 질적인 데로의 방향 경로로 확장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의미적 구조가 만질 수 없는 단어로 부호화되는 추상 개념의 '있다/없다'의 의미 구성은 언어 단위의 개념적 작용과 배경 지식의 융합으로 형성된 동적인 과정이다.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추상 개념의 '-있다/없다'는 언제나 반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다/없다'의 비대칭성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위에서 기술한 상보반의어 '있다/없다'의 중심 의미, 확장 의미로부터 그 반의어 쌍의 의미 확장 방향과 범주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3-2〉 상보반의어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 망



위의 그림에서 '있다/없다'의 각 개별 의미들은 절점을 나타내는 검은 원으로 보이고 있다. 중심 의미는 '있다/없다' 전체적 범주의 중앙 위치를 차지하는데 큰 검은 원으로 표시하여 중심 의미의 절대적 위상을 나타냈다. 화살표의 방향은 확장 가능한 경로는 나타낸다. 그리고 중심 의미로부터의 위치는 Heine et al(1991)의 위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있다/없다'의 중심 의미는 '구체 대상의 존재/비존재'이다. 상보반의어 '있다/없다'는 중심 의미의 구체성에서

추상적 대상으로의 확장을 이룩하였다. 대부분 단어들의 의미 확장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Heine et al.(1991: 48-49)와 임지룡(1996)의 의미 확장 경로와도 일부분 일치성을 보인다.

위의 그림에서 볼 때, '있다'의 확장의 면이 '없다'에 비하여 다양하고 넓음을 직관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없다'는 '사회적 위치', '심리적 위치', '동사'로의 확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심 의미에서 멀어질수록 '있다/없다'는 의미적 반의 관계가 비대칭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있다'는 형용사에서 시간의 흐름을 거쳐 동사로 파생되어 상태에서 동작으로의 확장을 이룩하였지만 '없다'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Heine et al.(1991: 48-49)와 임지룡(1996)의 의미 확장 경로에서 확인되지 않은 현상이다. 그림<3-2>처럼 '있다/없다'는 복잡한 의미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의미들은 모두 개념화되어 있다. 상보반의어 '있다/없다' 언어 표현의 의미 구조는 개념적 내용과 그 내용을 개념화하는 특정한 방식을 포함한다.

지금까지 살핀 상보반의어 '있다/없다' 의미 확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상보반의어 '있다/없다'는 그 의미 확장 양상에 있어서 대상(사람, 사물)→공간, 대상(사람, 사물)→행위, 행위→공간, 물리적 위치→사회적 위치, 물리적 위치→심리적 위치, 구체성→추상성, 상태→동작 등 방향으로 확장하였는데 중심 의미에서는 의미가 대칭적이지만 확장 의미에서는 확장이 진행될수록 의미적 비대칭을 이루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10〉 '있다/없다'의 확장 의미 균형 여부

균형 여부	의미적 대립 여부	확장 방향
균형	있다 <= > 없다	대상(사람, 사물)→공간 대상(사람, 사물)→행위 행위→공간
불균형	있다 <≠ > 없다	물리적 위치→사회적 위치 물리적 위치→심리적 위치
	있다 <≠ > 없다(일부 상황) 있다 <≠ > 없다	구체성→추상성(시간성), 상태→동작
	있다 <≠ > 없다(일부 상황)	구체성→추상성(비시간성)

반의어 쌍에 대하여 보통 구조적·의미적으로 대칭된다고 간주하지만, 위의

표와 같은 차이점으로 '있다/없다'는 여러 확장 의미에서 의미적 비대칭성을 이룬다. 대상 개념, 공간 개념, 행위 개념에서 '있다'와 '없다'는 절대적 대립을 유지하고 있지만 공간개념의 하위 개념인 사회·심리적 위치에서의 확장에서는 '있다'만 존재하고 '없다'는 아예 확장을 이루지 못했다. 이는 '없다'는 중심 의미가 '비존재'인바, 공간성의 인지가 어렵기 때문인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다. 추상개념으로의 확장에서는 시간성과 비시간성으로 나누어 확인한 결과 일부 상황에서는 대립을 이루지 못했다. 특히 '형용사'의 '있다'는 시간의 흐름을 거쳐 동사로 파생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없다'는 시간의 흐름을 인지할 수 없어 동사로의 파생이 불가능했다. 여기서 '없다'는 '있다'보다 형용사성이 강하고 그 상태와 성질이 불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낼 수 있다. 또한 '있다/없다'는 절대적 대립의 중심 의미에서 의미적 확장을 시작하지만 확장이 진행될수록 그 대립성은 약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의미가 확장된 '있다'의 외연의 양상이 '없다'의 외연의 양상보다 훨씬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있다'와 '없다'는 의심할 바 없는 대립 관계로 널리 알려졌지만 본장에서 살펴본 결과 많은 경우에 대립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인지의미론에서 의미 확장은 체험주의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있다'의 '가시적 존재'의 특성이 체험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의미의 형성에 많은 기여를 했다. '없다'는 비가시적이기에 신체적 체험을 '있다'에 비해 적게 거쳤을 것이다. '심리적 위치'나 '사회적 위치'는 인간의 물리적 위치의 경험으로부터 의미적 전이가 되어 형성된 의미이다. 하지만 '없다'는 '비존재'이기에 신체적 체험을 거치기 어렵다. '없다'의 물리적 위치는 '있다'에서 유추된 것으로 보인다. '동사'적 특성의 '있다'의 의미는 시간을 흐름을 거쳐서 형성된 것이다. 이것도 체험주의를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다. '없다'의 경우 시간의 흐름을 체험할 수 없다. 따라서 '동사' 파생 의미가 형성되지 않는다.

3.2.2 정도반의어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

일부 학자들은 상보반의어의 전형적인 실례로 '있다/없다'를 들었다.⁵⁰⁾ 상보

50) 이승명(1978), 이석주(1989), 김주보(1989), 유재복(1992) 등이 있다.

반의어는 어휘 간 의미관계의 양립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이런 상보적 의미관계도 우리의 감각, 경험, 직관과 더불어 그 양립성이 약화되어 새로운 의미 영역으로 개념화되기도 한다. 어휘의 의미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있다/없다'는 '책상에 책이 있다/없다'나, '경복궁은 서울에 있다/없다'처럼 상보 반의어의 관계에 있기도 하지만 '돈이 좀 있다/없다', '돈 있는/없는 사람들'처럼 정도반의어의 특징도 갖는다. 여기서는 '있다/없다'의 다양한 의미 양상을 상보 반의어가 아닌 정도반의어의 측면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우선 '있다/없다'의 정도성을 분석하고, 정도반의어로서의 타당성을 검증해보겠다. 다음 정도반의어 '있다/없다'로 확장하는 데 작용하는 기제를 여러 이론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다. 마지막으로 정도반의어로서의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 양상을 전경-배경 이론을 결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겠다.

3.2.2.1 '있다/없다'의 정도성

원형이론에 따르면 어휘의 의미는 '더 좋은 보기', '보통의 보기', '더 나쁜 보기'로 나뉜다. 이처럼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 어휘의 의미는 정도성이 내재되어 있다. 2장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있다/없다'는 상보반의어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 학자들이 '있다/없다'를 상보반의어로만 보는 것은 구조의미론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언어 내적⁵¹⁾인 체계 속에서만 의미를 고찰했기 때문이다. 반의어 쌍 '있다/없다'의 전반적 의미 확장의 고찰을 위해서는 다각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 중 정도성의 검증은 본고에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과제 중 하나이다.

정도반의어는 한 단어의 긍정이 다른 단어의 부정을 함의하는 것이 아닌 두 반의어 사이에 등급이 있는 반의어이다. 정도반의어는 정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상보반의어와 대립된다. 이러한 정도성은 화자와의 상대적 관계를 형성시킨다. '있다/없다'도 정도성이 부여됨으로써 화자와 관련 있음을 나타내는 주관성의 속성을 얻게 된다. 중심 의미인 '객관적 존재'에서 확장 의미의 '주관적 존재'에로의 전이도 아울러 실현된다. 따라서 정도반의어의 '있다/없다'는 사실

51) 의미 외연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어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말한다.

중심 의미를 바탕으로 한 상보반의어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 결과이고 여기에 관여하는 기제는 화자의 주관적 해석이다. 즉, 중심 의미인 객관적 실재에 화자의 직관이 결합된 결과물로 그 정도성에 주관성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있다/없다’의 정도성은 정도 부사와의 결합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예문을 맥락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25) ㄱ.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만 기재하면 간단히 실명전환을 할 수 있는데다 곧 이민이나 해외유학을 떠나는 사람들의 경우 돈을 때일 위험도가 적어 브로커들이 매우 선호한다. 이민 준비자의 경우 실명전환해 준 뒤 고액의 수수료를 챙겨 외국으로 떠나버리면 그만이라- 이 사람들을 일일이 국내로 불러들여 자금추적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 이들을 이용해 거액을 실명 인출하는 큰손들도 꽤 있다.

ㄴ. 내가 2회 졸업생이니까 그때는 서강대학교가 문을 연 지 1년밖에 안된 학교였는데, 영어과목뿐 아니라 대부분의 강의를 미국인들이 영어로 직접 가르친 데다가, 고등학교에서 한국인들이 가르친 영어를 아예 무시하다시피해서 be동사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으므로 반발을 한 학생들도 줄 있었으나 기초가 워낙 없었던 나로서는 영어를 배우기에 아주 좋은 기회였다.

ㄷ. 남경필 대변인은 “다선 의원을 중심으로 인준에 찬성하는 게 좋다는 당내 여론이 상당히 있었고 원내총무단도 통과시키려는 분위기였다”며 의도된 집단적 반대는 없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당내에는 이런 결과가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대선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걱정도 있다.

(26) ㄱ. “아저씨, 미술하는 사람 맞아? 눈썰미도 되게 없어. 먼저 알 때까지 기다려구 했더니. 이거, 어제 새로 산 청바지잖아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허리에서 골반까지는 연한 하늘빛이고, 밑단으로 내려갈수록 짙어지는 남색으로 염색된 진 바지였다.

ㄴ. 정부가 집권당 득표를 돕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우리나라만의 일도 아니다. 그리고 그 재주가 세계(稅計) 잉여금 사용 정도로 그치지도 않는다. 그런 벨트를 풀고, 금융 소득 종합과세 재개를 미루는 따위의 옛날 옛적 소행을 다시 들출 마음은 조금도 없다. 그러나 정부가 주가와 금리를 장밋빛 희망으로 부풀리고, 전세 자금 대출과 비과세 저축 연장 등 근로자

복지 대책을 연달아 내놓으며, 흑자 기업에 세금 혜택까지 약속하며 빈곤층 지원에 나서도록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ㄷ. 이 영화의 재미는 피터의 동생 잭이 등장하면서부터이다. 그다지 미남도 아니고 피터처럼 범대를 나온 수재도 아닌 한마디로 루시가 꿈꾸던 이상형은 아닌 잭이지만 루시는 그와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순수한 그를 사랑하게 된다. 루시는 이상형이라고 믿었던 피터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도 없었다. 그저 겉보기에 근사하고 자신이 정해 놓은 이상형이라는 틀에 잘 맞춰진 남자일 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루시. 마지막 장면은 인상적이다.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있다/없다’는 ‘꽤, 좀, 상당히, 되게, 조금, 너무’ 등 정도부사와의 결합이 가능하며 맥락과 더불어 정도성의 의미를 형성하여 정도반의어로서의 특징을 갖게 된다⁵²⁾. 이는 ‘있다/없다’의 비상보성을 대변하고 등급과 중간 단어들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정도반의어⁵³⁾의 특징에 대해서 윤평현(2008:142-145)은 다음과 같이 기술

52) Lyons(1968:463-4)의 논리학 모순관계와 반대관계를 판별하는 원리에 따른 상보반의어와 정도반의어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상보반의어	정도반의어
판단 기준	중간자/중간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중간자/중간 영역이 존재한다.
검증 방법	1) 한 쪽을 긍정(부정)했을 때 다른 쪽의 부정(긍정)이 함의되어야 한다. 2) 두 반의어를 동시에 진술하면 모순이 된다. 3) 정도어로 수식이 불가능하며, 비교 표현으로 쓰일 수 없다.	1) 한 쪽을 긍정(부정)했을 때 다른 쪽의 부정(긍정)이 함의될 필요가 없다. 2) 두 반의어를 동시에 진술해도 모순이 되지 않는다. 3) 정도부사로 수식될 수 있으며, 비교 표현이 가능하다.

윤평현(2008:142-145)의 정도반의어 판단기준은 위의 기준에 비하여 더 구체적이고 한국어의 특징에 더 부합된다 판단하였기에 본고는 윤평현(2008)의 기준에 따르겠다.

53) 윤평현(2008)에서는 정도반의어를 등급반의어로 하고 그 정의를 두 단어 사이에 중간 상태가 있는 것으로 하였다. 연구자에 따라 용어 사용을 달리하였을 뿐 정의는 본고의 정도반의어와 일치하므로 본고에서는 용어의 비밀치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다.

하였다.

첫째, 정도반의어는 한 쪽 단어의 단언과 다른 쪽 단어의 부정 사이에 일방 함의 관계가 성립한다.

(27) ㄱ. 그는 돈이 있다. \Rightarrow 그는 돈이 없지는 않다.

ㄴ. 그는 돈이 없지는 않다. \nRightarrow 그는 돈이 있다.

‘돈이 있다/없다’의 의미는 ‘재산의 많고 적음’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의 예문에서 보면 ‘돈이 있다’와 ‘돈이 없지는 않다’를 함의하지만 ‘돈이 없지는 않다’는 ‘돈이 있다’를 함의하지 않는다. 이는 ‘돈이 있다’와 ‘돈이 없다’의 의미는 상보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둘째, 정도반의어로 구성하는 두 단어를 동시에 부정할 수 있다. 정도반의어는 동시에 부정해도 무방하다.

(28) 맛은 있지도 없지도 않은데 사람은 엄청 많다.

위의 예문에서 ‘있다/없다’의 의미 영역에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중간 영역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정도반의어는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비교문에서도 쓸 수 있다.

(29) ㄱ. 그는 겁이 너무 없다.

ㄴ. 그는 나보다 겁이 더 없다.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비교문에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있다/없다’가 정도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정보반의어는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된다.

(30) A사람: 두리안은 맛이 있다.

B사람: 두리안은 맛이 없다.

똑같은 과일이라도 누군가에게는 맛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맛이 없을 수 있

으므로 ‘있다/없다’는 상대적 개념인 것이다.

다섯째, 정도반의어로 구성하는 두 단어 가운데 한 단어가 더 기본적이고 일반적으로 쓰인다.

(31) ㄱ.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가?

ㄴ. 재산이 어느 정도 없는가?

‘있다/없다’ 의문문에서 부정 의문문보다는 긍정 의문문이 더 널리 포괄적으로 사용된다.

‘있다/없다’는 이상의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바, 정도반의어로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에 아래 ‘있다/없다’가 일부 문맥에서 정도반의어를 이룬 점을 중심으로 그 원인과 양상을 인지의미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있다/없다’에 대한 연구는 늘 상보반의어의 측면에서 전개되었고, 정도반의어로 분화하여 그 확장 양상을 고찰한 논문은 없는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는 ‘있다/없다’의 복잡한 의미 형성 원인의 한 측면을 새롭게 규명하는 면에서 다소 의의가 있을 것이다.

3.2.2.2 정도반의어 ‘있다/없다’의 주관화 분석

‘있다/없다’의 의미 정도성은 인지의미론의 주관화이론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조의미론에서는 언어에 초점을 두고 있어 언어와 화자의 관계를 밝혀내지 못했다. 인지의미론에서 언어는 자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지각하는 인지하는 언어로 화자와 분가분리적인 관계를 구현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화자에 따라 인지의 정도성이 다르게 나타나기에 그 정도성이 부여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에 ‘있다/없다’의 정도성을 고찰함에 있어서 화자와 관련되는 주관화의 이론을 결부하여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주관화는 “화자가 어떤 사태를 심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이며, 또한 어떤 사태를 비교의 관점에서 과정적으로 또는 누적적으로 파악할 때 관여하는 기제”(이수련 2010:34)이다. 즉 “주관화는 발화 행위자가 언어 행위에 참여함으로써 언어의 형태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에 관한 것”(김동환, 2013:304)이며 “주관화는 다의성을 가진 언어 요소의 의미 간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인지 언어

가제 중 하나이고 말하는 사람의 언어 해석 참여 여부에 따라 "(함계임 2017:198) 일어난다. 이 주관화에 의해 화자는 자신의 관점을 발화 속에 투사시켜 어휘의 의미 변화가 유발되며, 따라서 객관적 의미에서 주관적인 의미로의 전이가 실현된다. 화자의 참여는 화자가 공간과 시간적으로 사태와 가까워졌음을 의미한다. 즉 사태와 멀어질수록 객관적 시각에서의 발화가 이루어지고 사태와 가까워질수록 주관적 시각에서의 발화가 이루어진다. 객관화와 주관화는 화자의 원근화법의 부호화과정이기도 하다. 그런데 사태와의 원근이 이루어지는 원인은 청자와 관련이 있다. 청자를 염두에 두지 않은 표현은 주관화 실현이 어렵다. 주어 중심적 명제 발언이 화자 중심적 담화 발언으로 바뀌는 것은 그 속에 청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관화는 인간의 동일한 장면이나 상황을 화자에 따라 서로 다르게 바라보고 해석하는 여러 표현방식 중 하나인데 이것은 청자를 향한 화자의 관점 전달이기도 하다. 화자는 명제와 가까워져 객관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것에 자신의 주관적 관점을 개입시켜 표현함으로써 청자에게 본인의 생각을 전달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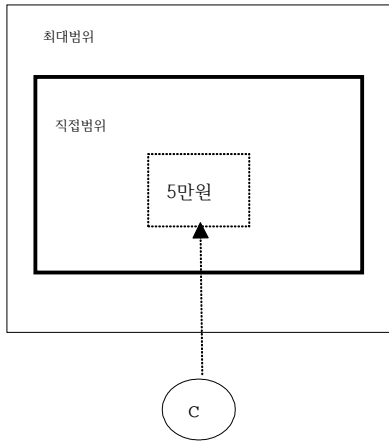
(32) ㄱ. 여기에 돈이 5만원이 있다. (구체적 물리적 존재로서의 돈의 존재, 중심의 미로서의 '있다')

ㄴ. 그는 좀 돈이 있다. (추상적 사회적 존재로서의 돈, 재산의 소유, 확장 의미로서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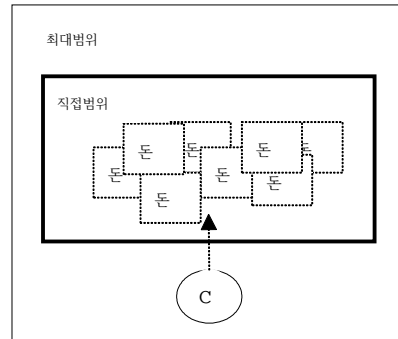
ㄷ. 그는 평생 놀고먹을 만큼 돈이 있어. (추상적 사회적 존재로서의 돈, 재산의 소유, 확장 의미로서의 '있다')

위의 예문 (32ㄱ)의 물리적 존재인 돈은 (32ㄴ-ㄷ)의 추상적 사회적 존재로서의 돈과 구별된다. 예문 (32ㄱ)은 '있다' 구성이 '돈이 5만원이 있다'로 돈의 액수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어 화자의 주관적 관점의 개입이 어렵다. 하지만 (32ㄴ-ㄷ)은 '있다' 구성이 '돈이 있다'로 액수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아 화자 개입이 용이하다. 특히 (32ㄷ)의 '그는 평생 놀고먹을 만큼 돈이 있어'에서 문장의 초점이 '돈이 있어'에서 '평생 놀고먹을 만큼'으로 옮겨가 화자의 주관화 인지 과정이 잘 드러난다. 이를 그림으로 보여주면 다음과 같다.

〈그림 3-3〉 예문 (4ㄱ)



〈그림 3-4〉 예문 (4ㄴ-ㄷ)



인지언어학에서는 똑같은 상황이라도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작용을 시각적 은유에 따라서 ‘초점 조정’이라고 하고, 이를 Langacker(1987:116-37, 김동환, 2013:316)에서는 ‘선택’, ‘원근법’, ‘추상화’ 세 가지로 하위분류하였다. ‘선택’은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특정 국면에 관한 것이고, ‘원근법’은 상황을 관찰하는 위치와 관계된다. 따라서 위치에 따른 상대적인 결론이 도출된다. ‘추상’은 상황의 상제성 수준이고, ‘범위’는 ‘선택’과 관련되는데 초점을 뒷받침해주는 필요한 문맥을 말하는 것으로 배경에 해당된다. 이 ‘범위’는 ‘최대 범위’와 ‘직접 범위’로 나눌 수 있다. 최대 범위는 초점과 그와 관련된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주변부를 말하고, 직접 범위는 초점화에 가장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부분적 주변부를 말한다.

〈그림 3-3〉와 〈그림 3-4〉의 최대 구별은 개념화자의 위치이다. Langacker(1985:121, 2004:15)는 ‘주관성’을 시점(해석)의 문제라고 여겼다. 이는 즉 지각의 주체(지각하는 개인)와 대상(지각되는 객체)사이의 비대칭 관계로서, 해석하는 사태를 자신과는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객관화하는 방식과, 의식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그 사태에 관련된 모습으로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이 있다고 하였다⁵⁴⁾. 〈그림 3-3〉는 개념화자가 해석하는 사태를 자신과는 완전히 분리

54) 예를 들면 165cm의 아들(15세)과 170cm의 아버지를 비교하여 “아들이 아버지보다 작네!” 하면 객관적 사실에만 근거한 발화로 개념화자와 사태가 완전히 분리된 무대 밖의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아들이 아버지보다 크네!”라고 발화하면

되는 발화를 진행하여 최대범위의 밖에 있으며 사태와 시·공간적으로 멀기 때문에 명제에 대한 객관적 서술을 하게 되어 ‘5 만원이 있다’ 진술은 구체성, 객관성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있다’의 범주는 모든 사람의 인지 공간 속 범주이며 본 명제에 대한 언어 발화는 누구나 같은 의미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림 3-4>의 ‘있다’는 정도성, 주관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Lyons(1982:102)는 “주관성은 자연 언어가 그 구조나 보통의 작용방식으로 발화 행위자 자신 및 그의 태도나 신념에 대한 표현을 공급하는 방법”이라 하였고, 이후 (1995:337)에는 “언어 용법에서의 자아 표현”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개념화자는 사태에 관련된 모습으로 최대범위 안에 있으며 본 사태에 자아 표현을 결부하여 발화하고 있다. 여기서 ‘있다’의 범주는 화자의 인지 공간 속의 범주이며 서로 다른 화자의 인지 과정에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게 된다. 하여 ‘있다’의 의미범주는 서로 다를 수 있다. 화자가 최대 범위 안에서 사태를 서술하여 사태에 있어서의 ‘화자 개입’을 의미하는 주관화가 일어났다. 즉 사태에 대한 발화는 화자의 관점과 시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이수련(2010:39)은 “화자가 서 있는 위치가 사태가 일어나는 무대 밖이면 객관적이지만, 무대의 범위 안으로 들어갈수록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관점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화자의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음 예문으로 보기로 한다.

(33) ㄱ. 그는 돈이 있다.

 ㄴ. 그는 돈이 있지는 않다.

(34) ㄱ. 그는 돈이 없다.

 ㄴ. 그는 돈이 없지는 않다.

(33-34ㄱ)에서 ‘있다’의 중심 의미인 ‘존재’ 의미를 배제하고 확장 의미로 볼 때 다음과 같은 의미적 집합을 형성한다.

(33) ‘재물이 충분하게 있다/있지는 않다.’

개념화자가 아들의 미래를 그려 사태의 관련된 모습으로 발화한 것으로 최대범위 속에 포함되게 된다.

재물이 어느 정도 있다/있지는 않다.
 재물이 조금 있다/있지는 않다.
 재물이 아주 조금 있다/있지는 않다.

(34) '재물이 많이 없다/없지는 않다.'
 재물이 거의 없다/없지는 않다.

위의 의미적 집합에서 '있다'와 '있지는 않다'는 상보적 관계를 이루지만 '없다'와는 대칭적인 집합을 이루지 않아 상보적 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상보적이지 않는 것은 영역 내에 중간항⁵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있다'는 중간항이 다양하게 형성되지만 '없다'는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그 정도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없다'는 의미영역 범위가 '있다'에 비해서는 한정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그림으로 보여주면 다음과 같다.

〈그림3-5〉 '있다/없다'의 정도적 집합

충분하게 있다	
어느 정도 있다	
조금 있다	많이 없다
아주 조금 있다	거의 없다

위의 〈그림3-5〉에서 이런 정도성을 측정하려면 기준이 필요하다. 물론 그 기준은 심리적이고 주관적이며 동시에 측정대상에 따라 비교정적일 수밖에 없다.

55) '중간항'이란 두 단어가 상보적으로 양립되지 않음으로써 그 두 단어 사이에 존재하는 새로운 값어치를 나타내는 항목을 말한다. 즉, '높다'와 '낮다'의 사이에 '알맞다, 적당하다'와 같은 중단 단어들이 존재하는 외에 또 '높지도 낮지도 않는' 항목들을 발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두 단어 사이에 정도의 차이에 따른 항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의 개입이 용이하게 되고 그 기준에 따라 ‘있다/없다’의 영역의 크기가 달라진다. 기준을 낮게 잡으면 ‘있다’의 영역이 커져 사태에 대하여 긍정하는 담화를 많이 진행하고, 높게 잡으면 ‘없다’의 영역이 커져 부정적인 담화가 많이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화자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림3-5>에서 ‘있다’의 영역은 ‘없다’에 비해서 큰데⁵⁶⁾ 이것이 바로 화자의 느낌과 직관을 실재와 접맥시켜 주관화가 실현된 결과이다.

3.2.2.3 정도반의어 ‘있다/없다’의 확장 의미

2장에서 Heine.et.al(1991)와 임지룡(1996)에 의미 확장 방향을 기술한 바 있다. Heine.et.al(1991)의 의미 확장은 중심 의미로부터의 전반적인 확장 방향을 가리킨다. 상보반의어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은 중심 의미로부터의 확장이기에 Heine.et.al(1991)의 의미 확장 방향과 함께 검토하였다. 정도반의어 ‘있다/없다’는 그 확장 의미의 세부적인 확장이다. 따라서 임지룡(1996)의 확장 방향과 함께 비교·검토할 것이다. 그 확장 방향을 다시 한 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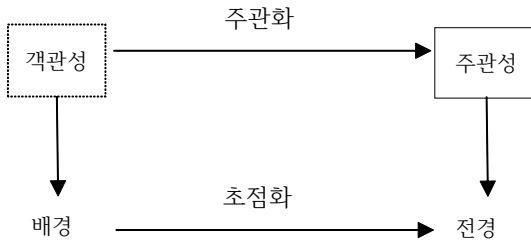
- 사람 → 짐승 → 생물 → 무생물
- 구체성 → 추상성
- 공간 → 시간 → 추상
- 물리적 → 사회적 → 심리적
- 일반성 → 비유성 → 관용성
- 내용성 → 기능성

이는 주관화와 연관되는 정도반의어 ‘있다/없다’의 확장 방향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하여 새로운 확장 원리를 제시하면 ‘객관성→주관성’의 확장이다. 앞에서 설명한 ‘주관화’는 주관성이 강화되는 과정이다. 또한 ‘전경-배경’의 정렬이 정도반의어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에 관여된다. 이 확장의 틀을 그림으로 보여

56) 김미영·김진수(2018:65)에서 ‘있다’의 의미 확장 외연의 폭이 ‘없다’의 외연의 폭보다 크다고 기술하였다. 정도반의어에서도 화자의 주관화 개입과 더불어 이런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면 다음과 같다.

〈그림3-6〉 정도반의어 ‘있다/없다’의 확장의 틀



위의 확장의 틀에 따른 정도반의어 ‘있다/없다’가 보이는 의미 확장 양상은 매우 다양한데 그 중 양적 대립·위계적 대립·평가적 대립으로의 확장이 제일 두드러진다. 그것은 정도반의어로서의 ‘있다/없다’의 주관화에서 양(量)·위계(位階)·평가(評價)⁵⁷⁾는 인간의 관념, 신념, 지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이로써 화자의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가장 잘 대변하여 화자의 사회적 존재를 부각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 그 의미 확장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2.2.3.1 양적 대립으로의 확장

‘있다/없다’는 ‘존재’의 영역에서 주관화의 인지 과정을 거쳐 ‘양적 존재’ 영역으로 의미가 확장되는데 의미 해석에서 화자의 입장이 주관적으로 반영되지만 그 표현 형태와 언어적 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다. 다음 예문들을 보자.

57) 양인 ‘많고 적음’, 위계인 ‘높고 낮음’, 평가인 ‘좋고 나쁨’은 우리의 경험적 인지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바, 어휘 사용에서 높은 빈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관심사와 이어진다. 특히 긍정의 단어 ‘많다’, ‘좋다’, ‘높다’는 김한샘(2005),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에서 전체 65535개 어휘 중 43위, 51위, 225위를 자랑하고 있다.

- (35) ㄱ. 배운 사람과 돈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
 ㄴ. 최근에는 손님이 좀 있는 '비가 오지 않는 토요일'에만 영업을 한다고 했다.
 ㄷ. 희생자들은 주로 나이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이었습니다.
- (36) ㄱ. 이력도 없고 뺨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입니다.
 ㄴ. 제가 아는 것이 별로 없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ㄷ. 찬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위의 예문의 '있다/없다'는 모두 정도성을 가졌고, 그 정도성은 모두 화자의 개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해서 도출한 주관적 관점으로 상대적인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양적 정도성을 공통점으로 갖고 있어서 '많다/적다'와 호환된다. 이는 '있다/없다'는 문장이나 발화 구조가 변한 것이 없음에도 객관적인 존재로부터 주관적인 양적 존재로 의미가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있다/없다'의 의미에 원근법적 본질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전경-배경 원리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3-11〉 '있다/없다'의 양적 대립에서의 전경과 배경

전경		배경	
구성	의미 특성	구성	의미 특성
(재산)+많-	상대성 주관성	(재산)+존재	절대성 객관성
손님+많-		손님+존재	
나이+많-		나이+존재	
돈+적-		돈+존재	
아는 것+적-		아는 것+존재	
찬+적-		찬+존재	

우리는 대상을 인식할 때 인식 대상들을 동등한 관심으로 혹은 주의력으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 따라 관심을 갖는 부분과 정도가 다 다르다.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인식 대상의 부분 중 어떤 것은 지각의 초점 부분으로 윤곽 부여되어 전경이 되고 어떤 것은 부가적인 부분의 배경이 된다⁵⁸⁾.

문장 의미를 파악할 때에도 배경인 전체 의미에서 상황에 맞는 전경을 인지

58) 김진수(2017:42)에서는 “윤곽부여 된 부분은 바로 본질적으로 프레임 속의 어떤 요소를 전경화 하는 것이고 초점화가 되는 것이다.”고 했다.

체계가 선택한다. 따라서 위의 예문들의 ‘있다/없다’에서는 ‘존재’⁵⁹⁾의 의미가 배경이고 ‘많다/적다’의 의미가 전경이다. 즉 예문(7-8)의 ‘있다/없다’의 대상인 ‘돈, 손님, 나이, 뺨, 돈, 아는 것, 찬’에 대해서는 그 존재보다는 ‘많고/적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더 커 그것에 인지체계가 반응한다. 하여 ‘대상+있다/없다’로 배경 의미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지만 화자의 주관적 태도인 ‘많고/적음’이 전경으로 두드러진다.

언어는 사물이나 현상을 객관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개인이 그것을 바라보는 주관적 심리와 함께 의미를 재구성하여 반영한다. 사람마다 동일한 상황을 서로 다르게 바라볼 수 있어 그 의미는 사적이고 상대적이다. 배경인 객관적 존재는 개인적 편견을 초월하여 보편성을 갖는다. 전경인 주관적 정도성은 객관성을 초월하여 화자의 태도와 신념이 반영되므로 배경에 비해 보편성이 적다.⁶⁰⁾

3.2.2.3.2 위계적 대립으로의 확장

다의어란 동일한 단어가 관련이 있는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것이지만 그 의미 전이는 동일한 의미가 다른 상황에 직면하여 서로 다른 내용물로 개념화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동일한 의미 단어를 사용할지라도 우리의 인지 체계는 상황에 부합하는 의미를 새로 부각시켜 개념화하여 받아들인다. ‘있다/없다’는 양적 정도성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위계적으로도 그 정도성이 활성화 되었다. 이는 ‘있다/없다’가 위계적으로도 부호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객관적 존재보다는 위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두드러져 그것이 전경으로 부각되어 나타난 것이다. 그 예문은 다음과 같다.

(37) ㄱ. 요즘 지위 있는 사람끼리 결혼할 때 건강보험내역 등을 서로 떼어 교환한다.

59) 정도반의어 ‘있다/없다’는 모두 정도성을 갖고 있는바, 모두 ‘존재’를 바탕으로 그 정도성이 반영된다.

60) 대부분 배경은 문장 주어가 중심이고 명제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전경은 문장 주어보다는 화자주어가 두드러지고 명제 기능보다는 담화기능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 ㄴ. 남편은 재차 학벌 있고 권위 있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절대 신뢰하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 ㄷ. 2군 선수들 중에서도 수준 있는 선수들이 몇 명 없었다.

(38) ㄱ. 고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2년, 국제자유도시로 가기 위한 기틀을 다지고 있지만 여전히 냉소적인 반응이 더 크다”며 헌법적 지위가 없는 제주도의 한계를 되짚었다.

- ㄴ. 반면에 학벌 없는 사람은 배우자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결혼 자체가 힘들다.
- ㄷ. 그런 자들을 보면 자존감 없는 덜 떨어진 사람들 같아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위의 예문에서 ‘있다/없다’는 ‘높다/낮다’와의 호환성이 성립한다. 즉 사물에 대한 객관적 존재가 아닌 위계에 대한 주관적 정도성을 표현하는데 그 정도성은 화자의 주관적 심리의 노출이다. 즉, 위계의 정도성은 화자의 경험적 인지를 바탕으로 한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인식이다. 또한 화자는 중요하고 관심 가지는 부분과 보다 덜 중요하고 덜 관심 가지는 부분을 분리하여 인지하는데 그것이 바로 ‘있다/없다’의 전경 의미와 배경 의미이다. 예문(26-27)의 ‘있다/없다’의 전경 의미와 배경 의미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3-12〉 ‘있다/없다’의 위계적 대립에서의 전경과 배경

전경		배경	
구성	의미 특성	구성	의미 특성
지위+높-	상대성, 주관성	지위+존재	절대성 객관성
학벌+높-		학벌+존재	
수준+높-		수준+존재	
지위+낮-		지위+존재	
학벌+낮-		학벌+존재	
자존감+낮-		자존감+존재	

예문 (37-38)에서 ‘지위, 학벌, 수준, 자존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사는 ‘존재’보다는 그 위계로 화자는 그 위계에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도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초점화하여 발화한다. 즉, 위 문장에서 화자의 주관적 관점이 개입

된 ‘높다/낮다’가 화자가 말하려는 본질이고, 객관성을 띤 ‘존재’는 배경에 불과하다. 화자의 주관적 관점은 단어의 고정된 의미를 기초로 하는 것은 부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객관적 실재의 범주는 개인의 마음의 범주와의 사이에 일치성을 이루지 않게 되어 중간 단어나 중간항이 존재하는 정도성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⁶¹⁾

인간의 인지 체계는 관심사에 대하여 고정불변한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느낌과 신념을 결부하여 표현하려 한다. 이런 전경 의미는 개인에 따라 달리 표현되므로 주관적이고 상대적이지만 그 전경의 바탕적 의미로 작용하는 배경 의미는 상대적으로 고정불변한 것이므로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3.2.2.3.3 평가적 대립으로의 확장

양적 대립, 위계적 대립 외 정도반의어 ‘있다/없다’는 평가적 대립으로도 사용된다. 어떤 현상이나 대상에 대한 양, 위계, 평가 등은 모두 언중의 관심 대상들이다. 화자는 이러한 언중들의 관심 기호에 맞추어 일부 대상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드러낸다. 하지만 단어 선택에 있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거나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의 존재의 의미를 바탕으로 그것을 새롭게 평가한다. 이는 눈에 보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대상의 존재지만 언중들의 관심사는 평가적 잣대로서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미는 우리의 경험과 지각에 기초하여 새로운 개념으로 뜻을 부여받게 된다.

(39) ㄱ. 머리 있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다.

ㄴ. 술도 껌 겸 산책에 나선 두 사람은 감미로운 분위기가 있는 라이브 카페에

61) 이런 인지 작용은 ‘심적주사’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수련(2010:35)에서는 “우리가 외부의 세계를 인지하는 경우, 사태의 대상과 다른 대상을 비교하는 인지 과정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이 비교의 인지에 의해서 사물의 범주화나 경험의 구조화, 또는 지식의 구조화가 가능하다. 이 비교 행위는 어떤 인지 사태를 기준으로 하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다른 인지 사태를 상대적으로 파악해서 행위로 규정한다. 이 비교 행위에서 두 가지의 인지 사태를 관련시키는 과정이 주사(scanning)이다. 이를 심적 주사(mental scanning)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우리가 어떤 사태를 인지하는 두 가지 인지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도착하였다.

ㄷ. 우승도 운이 있어야 한다.

(40) ㄱ. 머리가 없으면 꾸준히 노력하는 성실함이라도 있더라.

ㄴ. 분위기가 없는 데서 술을 마실 수는 없잖아.

ㄷ. 주변에서 나오는 작품마다 왜 흥행하지 못하냐고 운이 없는 배우라고 한다.

위의 예문 중의 ‘있다/없다’는 ‘좋다/나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객관적 존재에 화자의 주관적 평가를 삽입하여 표현하였다. 화자의 ‘평가’에 있어서 좋은 것은 긍정적인 ‘있다’로 개념화되고 나쁜 것은 부정적인 ‘없다’로 개념화되었다. 담화에서 언어는 객관적 명제에 대한 구조주의적인 의미보다는 화자의 존재가 승인되고 화자가 지각하고 인지하는 언어로서의 구현과 표현이다. 이는 ‘있다/없다’의 의미적 범주가 객관적 체계에서 주관적 체계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하고 인간의 주관적 경험이 여기에 능동적으로 기능함으로써 어휘의 개념적 구조를 변화시켰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다음과 같다.

〈표3-13〉 ‘있다/없다’의 평가적 대립에서의 전경과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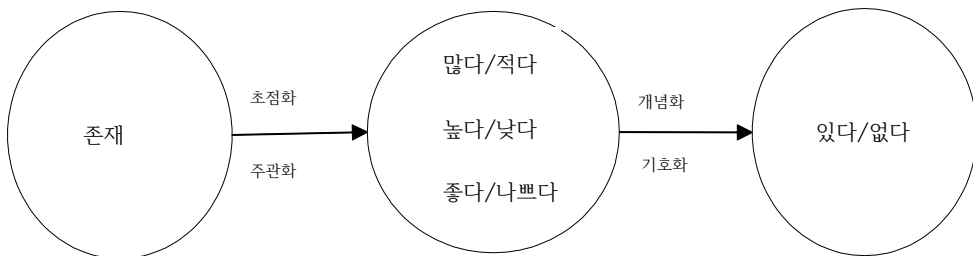
전경		배경	
구성	의미 특성	구성	의미 특성
머리+좋-	상대성 주관성	머리+존재	절대성 객관성
분위기+좋-		분위기+존재	
운+좋-		운+존재	
머리+나쁜-		머리+존재	
분위기+나쁜-		분위기+존재	
운+나쁜-		운+존재	

예문(39-40)에서 ‘있다/없다’는 ‘머리, 분위기, 운’등과 결합하여 대상의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화자의 평가를 나타낸다. 이러한 대상은 그 자체가 가시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여 화자의 주관적 인식이 쉽게 개입된다. 주관화의 본질은 화자의 심적주사이다. 화자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 구조화 방식이 전경으로 두드러지는데 이는 단지 화자의 특정한 관점에서 지각하여 이루어진 발화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객관적 명제에 대한 단언이 아니고 사람마다 동일한 장면이나 상황을 서로 다르게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다. 대상의 존재는 배경적 역할에 불과하지만 화자의 주관적 인식은 배경의 객관적 명제의 의미에 기초하여 새로운 의미로 파생되며 전체 의미에서 그것이 윤곽부여되어 초점화·전경화된다. ‘있다/없다’의 의미 영역에는 ‘존재’라는 배경 의미 외에 의사소통 참여량이 높은, 배경 의미보다 더 부각되어 표현되는 전경 의미가 존재한다. 이는 화자가 객관적 명제에 자신의 경험을 접목시켜 개념화한 결과물이다.

궁극적으로 정도반의어 ‘있다/없다’는 존재⁶²⁾의 의미를 바탕으로 형성된, 화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한 자신의 세계 주관화·초점화 반영으로 ‘많다/적다’, ‘높다/낮다’, ‘좋다/나쁘다’의 의미로 나타나는데 ‘있다/없다’는 이런 의미들의 기호화, 개념화 표현에 불과하다. 일단 단어는 변하지 않았고 의미만 달라진 것으로 해석의 차원이 다름을 설명하고 객관적 해석에서 주관적 해석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로 획득하는데 여기에 참여되는 기제는 행위 발화자의 주관화의 인지과정이다.

〈그림3-7〉 정도반의어 ‘있다/없다’의 주관화 양상



정도반의어 ‘있다/없다’와 상보반의어 ‘있다/없다’의 근본적인 구별은 그 정도성에 있다. 이 정도성은 화자의 판단에 의거하고 비교의 관점에서 사태를 파악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즉 정도반의어로서의 ‘있다/없다’는 일차적으로 화자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여 ‘많은 것/적은 것, 높은 것/낮은 것, 좋은 것/나쁜 것’으로 판단되며 최종적으로 ‘많은 것, 높은 것, 좋은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있다’로 개념화되고, ‘적은 것, 낮은 것, 나쁜 것’은 부정적인 것으로 ‘없다’로 개념

62) ‘있다/없다’는 ‘존재/비존재’가 중심 의미지만 정도반의어에서 ‘비존재’는 정도성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없다’는 ‘있다’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정도반의어를 통해 증명한 셈이다.

화된다. 여기에 참여하는 기제는 해석의 주관화로 이는 화자의 심적주사가 담화에 참여하는 인지과정이다. 즉 ‘있다/없다’는 사태에 화자의 관점이 투사됨으로써 객관적 의미에서 주관적 의미의 확장을 이룩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도반의어 ‘있다/없다’의 정도성에 근거하여 정도반의어로서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정도반의어로서의 확장에 작용하는 기제를 분석하였으며, 그 의미 확장 양상을 전경-배경 이론을 결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도반의어 ‘있다/없다’의 확장 원리는 임지룡(1996:250-251)에 제시된 일반적 확장 원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여기에 관여되는 새로운 확장 원리를 제시하면 ‘객관성→주관성’의 확장이다. 주관성이 점차적으로 강화되는 과정이 주관화이다. 주관화는 화자가 사태 속에 개입하여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는 데 참여하는 인지과정이다. 주관화는 객관적 축에서 주관적 축으로 재정렬 혹은 대치되는 불연속적인 과정이 아니라, 객관적 해석에서부터 주관적 해석으로 전이하는 연속적인 과정이다. 화자가 자신의 관점을 사태 속에 투사하여 어휘의 의미가 확장됨으로써 객관적 의미에서 주관적인 의미로의 전이가 실현된다. 화자의 관점 투사는 정도반의어 ‘있다/없다’의 중간항의 존재로 말미암아 쉽게 이루어지고, 이런 중간항은 화자의 주관적 관점과 신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고정적이지 않다. 그로 인해 화자에 따라 서로 다른 주관적 해석이 뒤따를 수 있다.

화자의 주관적 해석의 작용 하에 정도반의어 ‘있다/없다’는 양적·위계적·평가적 대립으로의 확장이 실현되는데 이는 전경-배경 원리로 해석할 수 있다. 객관적 존재는 정도반의어 ‘있다/없다’의 배경의미로, 개인적 편견을 초월하여 객관적이며 절대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양적·위계적·평가적의 정도성은 화자의 주관적 태도와 신념의 반영으로, 전경으로 초점화된다.

3.3 상황반의어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

‘있다’와 ‘없다’는 동일한 범주 내에서 그 뜻이 서로 반대되어 전형적인 반의어로 인지된다.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 한 단어의 의미는 고착화된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 끊임없이 변하고 확장하고 활성화된다. 맥락 또한 역동적이다. 맥락에 참여하는 주체의 구성 또한 맥락에 따라 끊임없이 재생산될 수 있다. 이는 반의어 짝도 고정적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⁶³⁾. 반의 관계에 대한 준칙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데 ‘있다’의 반의어도 언제나 ‘없다’만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구성되는 반의어도 있다. 이런 상황을 전수태(1995:254)에서는 비교정반의어 곧 상황반의어로 명명하였다.

전수태(1997)에서는 “자극어와 반의어의 관계에서 언제나 고정 불변의 ‘고정 반의어’가 있는 반면에, 반의관계에 대한 준칙이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상황반의어’도 있다.”고 했다. 심재기(1982)에서는 “‘산/바다’, ‘산/들’, ‘바다/강’, ‘들/강’, ‘산/강’, ‘들/바다’의 6개 단어 쌍은 맥락에 따라 상황적인 반의어의 쌍을 형성한다.”고 했다. 이광호(2009)에서도 ‘상황성’과 ‘맥락 의존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맥락, 상황은 언어 사용을 전제해야만 성립하는 개념인데 언어 사용의 관점에서 반의어를 관찰하면 ‘길고 짧은 것은 대박야 안다/죽든 살든 최선을 다해라.’처럼 반의 관계의 두 단어는 표현적 필요에 의해서 한 문장에서 함께 출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⁶⁴⁾. 전문규(2017)에서도 “반의어는

63) 임지룡(1989:24), 김슬옹(1998:12)에서도 지적인 바와 같이 반의어는 그 유형을 ‘바르고 정밀하게 설정하기’란 쉽지 않다. 대부분의 반의어는 그 분류에서 각 어휘 관계의 고정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김슬옹(1998:13)에서는 어휘 관계는 맥락에 따라 결정되는 유동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정적인 관계로 파악해 어휘 관계가 우리 삶속에서 일으키는 다양한 의미작용을 놓치게 된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고정적인 어휘 유형 설정은 대부분 개념적 의미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개념적 의미는 의미작용의 구체성을 소거시킨 주류 담론에 의한 보편적 일반화라고 지적했다. 즉 어떤 어휘가 어떤 유형에 속하느냐는 맥락에 따르는 바, 한 어휘를 무조건적으로 무슨 반의어라고 확정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는 것이다.

64) 구체적인 사례로 ‘일반인’의 반의어를 사례로 들었다.

① 베이징 때 엄청난 수영실력을 보여주었던 마이클 펠프스, 여자친구 있다고 했었잖아요. 일반인인가요? 아님 연예인인가요? 사진도 보여주세요~! (일반인 ↔ 연예인)

② 한국근대문학 100년 기념총서: 이는 지난해 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안에서 한국근대문학 100년을 맞아 다양한 관점을 포괄해 연구자와 일반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제기되면서 출발했다. (일반인 ↔ 연구자) ③ 기업인과 일반인이 함께 뛰면서 경제 살리자: 42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마라톤 대회는 기업인과 일반인이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200여 개 기업의 임직원 2000여 명과 2200여 명의 일반인이 참여, 기업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경제 살리기의 주역

사전 속에 정적으로 고착된 것이 아니라 담화 상황 속에서 수시로 활성화되는데, 이를 ‘상황적 반의어’ 또는 ‘맥락 의존적 반의어’라 한다.”고 했다. 또한 단어에 대해 해석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규범적 반의어와 달리 새로운 반의어가 형성된다고 했다.⁶⁵⁾ 상황반의어는 상황에 따라서만 활성화되는 비교정

인 기업을 격려하는 화합의 장으로 꾸며졌다.(일반인 ↔ 기업인) ④ 부자의 뇌는 일반인의 뇌와 과연 다른가? 다르다. 배외측 전전두엽이 많이 발달해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리고 뇌 전체를 효율이고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자가 학력이나 지능지수와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부자 ↔ 일반인) ⑤ 일반인 약국 개설 땐 건물주가 약국 주인: ‘일반인 약국개설이라는 유행’의 수시 출몰로 인해 전국 약국들이 집단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약사들은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투자 확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 “한마디로 현장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일축하고 있다. (일반인 ↔ 약사) ⑥ LPG 겸용차를 일반인이 몰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LPG차량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인들이 탈 수 있는 차량과 장애인 혹은 국가 유공자가 탈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일반인 ↔ 장애인, 국가 유공자) ⑦ 일반인이 선수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반인이 10년 넘게 운동한 선수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훈련밖에 답이 없다는 것이다.(일반인 ↔ 운동선수) ⑧ 국내 최대 규모 일반인 스타리그 총상 100만원 규모의 다승전 개최 스타리그는 프로게이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내 최대 일반인 참가 (일반인 ↔ 프로게이머) ⑨ 저는 일반인입니다. 아마도요. 아마도라고 생각하게 된지는 오래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저는 제가 바이섹슈얼인지, 일반인인지, 이반인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 양성애자, 동성애자) ⑩ 대부업자 외에 일반인도 채권추심을 하면서 전화, 이메일 등 통신으로 괴롭히거나 폭행, 협박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 ↔ 대부업자) ⑪ 영재와 일반인의 차이는? 영재는 생각하는 것도 일반인과 다를까요? 암기나 이해실력만 높은 것 같은데, 사고력이나 응용력은 일반인을 능가할까요? (일반인 ↔ 영재) ⑫ 아토피 환자, 삶의 질 일반인보다 7배 낮아, 하늘마음한의원, 환자 260 명 설문조사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심각한 수준이다. (일반인 ↔ 아토피 환자) (이광호 2009: 285-286)

65)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ㄱ. 행복의 반대말은 ‘없음’이다. (이원락, 경북매일 2012. 6.8.)
- ㄴ.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불만’이다. (윤경 네이버카페 2013. 8.24)
- ㄷ. 나에게 ‘행복’의 반대말은 ‘무감각’이다. (다음 블로그 2013. 9.23.)
- ㄹ.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행복 없음’이다. (김의도, 경상일보 2013. 11.2)
- ㅁ.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분별심입니다. (다음 블로그 2013. 12. 2.)
- ㅂ.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 아니라 ‘불평’일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드네요 (정지환 “작은 소리 큰 울림” 94호. 2013. 12. 15)

반의어이므로 임시 반의어라고도 부르며, 반의어 사전에 수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강한 대조적 효과가 있으므로 화용론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적인 반의어는 필요에 따라, 맥락에 따라 쓰이지만 실제 언어 상황에서 고정반의어 못지않게 반의어의 역할을 담당한다. 반대 표현에 대한 기여도가 고정반의어가 더 강하고 상황반의어가 그만 못하다고 할 수도 없다. 양자가 같은 정도로 반대 표현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잠정적인 반의어 즉, 상황반의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반의어의 위상에서 일정한 위치를 차지해야 마땅하다.

‘있다’도 많은 반의어와 마찬가지로 상황반의어 쌍을 이룬다. 그 예문은 다음과 같다.

(41) ㄱ. 내일은 시간이 있다. <-> 내일은 시간이 빈다.

ㄴ. 아궁이에 불이 있다. <-> 아궁이에 불이 죽다.

ㄷ. 소리(무표성 ‘있다’)<-> 헛소리

위의 예문에서 ‘있다’는 각각 ‘빈다, 죽다, 헛’과 반의 관계를 이룬다. 이는 ‘있다’는 늘 ‘없다’와만 반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상황, 맥락에 따라 새롭게 반의관계를 구성할 수 있다. 아래 이러한 반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기제를 살펴보고 그 양상을 분석해보겠다.

3.3.1 상황반의어 ‘있다/없다’에 작용하는 기제

인지언어학에서는 신체적 경험에 근거하여 개념이 구조화된다고 본다. 이러한 과정을 신체화라고 하는데, 신체화는 인지 과정에서 사람의 신체의 작용 양상을 가리키는 말로, 체험주의에 기반한 인지언어학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 신체화의 상당한 부분이 일상 언어의 구조와 의미 속에 내재되어 있고 신체화가 개념화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영상도식 역시 신체적

ㅅ. 이런 과정을 겪다보면 ‘행복’의 반대말이 ‘다이어트’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황규림, 다이어트 2014. 8. 11)

ㅇ.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를 읽으면서 느낀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불안’이었다. (오연호, 오마이뉴스 2014. 9. 17.)

경험에 의해 구조화된 인지 모형이다.

Lakoff & Johnson(1987:266-268)에서 “경험은 개념적 구조를 발생시키며 비유적 확장을 통하여 추상적 개념을 발생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체험주의에서 의미의 인지는 신체에서 비롯되는 개념 형성 이전의 경험에 의하여 구체화된다.”고 하였다. 체험주의는 사고란 근본적으로 신체화된 경험에서부터 유래한다는 생각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때 ‘경험’이란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개별적 유기체나 유기체 집단의 실질적 혹은 잠재적 경험을 구성하는 모든 것, 지각, 근육운동뿐만 아니라, 내부 유전적으로 획득된 유기체의 구성 요소 및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서 유기체 상호작용의 본질 등을 포함한다(Lakoff 1987:xv 참조). 66)

신체적 경험은 영상도식과 같은 개념 구조를 형성하는 데 바탕이 되는 한편, 우리의 개념은 몸의 경험에 의해 구조화되었으며, 우리의 몸은 지속적으로 세계를 경험하면서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개념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영상도식은 하나의 공동체에 의해 공유될 수 있는 상상적 작용의 구조들이다. 그래서 영상도식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것을 포함해서 다수의 상이한 물리적 운동들과 지각적 상호 작용들을 구조화할 수 있다. 또한 그 영상도식이 은유적으로 확장될 때 수많은 비물리적·추상적 영역들을 구조화할 수 있다. 은유적 투사는 우리가 구조를 투사하고 새로운 연결들을 만들고, 우리의 경험을 재구성하는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영상도식들을 확장하고 전개하는 중심적인 수단이다. 은유는 종합적이고 질서정연한 경험을 가능하게 해 주는 중요한 인지 구조들 중 하나이다. 우리는 은유를 통해 우리의 물리적 경험에서 얻어지는 패턴들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더 추상적인 이해를 구성한다.

임지룡(1997a:190)에서 “신체적 경험은 의미의 이해에 필수불가결하다.”고 했다. 사람은 항상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생존하여 번성하려고 노력하는 존재이다. 이를 위하여, 사람은 고도로 구조화된 ‘감각 운동’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 예컨대, 우리는 대상물과 사건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되풀이되는 구조를 유의미하게 인식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우리의 신체적 경험과 활동은 사람다운 존재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Johnson(1989:109)에서는 “의미란 우리의 구체화된 개념적

66) 임지룡(1997a:17) 재인용.

상호작용 및 운동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현재와 같은 신체를 갖고 있지 않다가, 그 구조가 다르다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의미를 만들고 이해하며 의사소통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요컨대, 인지언어학은 의미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경험적으로 접근한다. 곧 객관주의에서는 의미란 사람의 본질과 경험에서부터 분리된 것으로 정의하지만, 체험주의에서는 의미란 사람의 생물학적 능력 및 사람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신체적, 사회적 경험에 의해서 특징 짓는다(Lakoff & Johnson 1980:197ff, Lakoff 1987:12ff).

영상도식은 우리의 계속적인 신체적 기능에서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인 구조이다. 즉, 영상도식은 우리의 일상 경험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영상도식은 잘 구조화되어 있고 간단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인지적 구성물이다. 영상도식은 공통된 인간 경험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사실 언어 이전의 인지적 구조를 구성한다. 영상도식은 인식적인 명제적 구조보다 인지적으로 더 원시적인 구조이며, 우리의 경험, 표현, 이해를 해석하고 그 틀을 제공하는 게슈탈트 구조이다. 새로운 경험과 상황은 이미 이용 가능한 신체화된 도식에 의해 은유적으로 이해되고 표현된다. 따라서 신체는 신체적이지 않은 경험에 그 자체의 체험적인 지각적 구조를 부여한다. 구체적인 대상과 상황의 신체화된 도식은 추상적인 실체와 사건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데 사용된다.(김동환 2013:122)

3.3.2. 상황에 기반한 ‘있다/없다’의 확장 도식

‘있다’는 우선 ‘없다’와 반의 관계를 이룰 수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 양상을 사장성어로 다시 한 번 살펴보자. 다음은 한자어에서 ‘있다(유)/없다(무)’로 구성된 사자성어들이다.

표 <3-14> 사자성어에서의 ‘있다/없다’의 대립성

有害無益	有實無實
유해무익	유실무실
有難無難	有酒無量

유난무난	유주무량
有始無終	無中生有
유시무중	무중생유
有家無家	有不如無
유가무가	유불여무
有備無患	有口無言
유비무환	유구무언
有名無實	有頭無尾
유명무실	유두무미
有酒無量	有不如無
유주무량	유불여무
有始無終	有耶無耶
유시무중	유야무야
有象無象	非有非無
유상무상	비유비무
事之有無	有家無家
사지유무	유가무가
有敎無類	有無相通
유교무류	유무상통
有實無實	有進無退
유실무실	유진무퇴
有害無益	有形無跡
유해무익	유형무적
稱家有無	罪之有無
칭가유무	죄지유무

위의 사자성어에서 보시다시피 많은 사장성어에서는 ‘유’의 반의어로 ‘무’를 택하고 있다. 또한 다음의 성구에서도 ‘유/무’의 대립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3-15> 성구에서 확인되는 ‘있다/없다’의 대립성

<p>춘의무분별인정유천심 (春意無分別人情有淺深)</p> <p>봄의 뜻은 분별(分別)이 <u>없으나</u>(따스한 기운(氣運)으로 만물(萬物)을 생장(生長)시킴), 사람의 정은 깊고 얕음이 <u>있음</u></p>	<p>유치인무치법(有治人無治法)</p> <p>‘다스리는 사람은 <u>있지만</u> 다스리는 법(法)은 <u>없다</u>’라는 뜻으로, 세상(世上)을 잘 다스리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지 법(法)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p>
--	---

유약무실약허(有若無實若虛) 꺾 차 있어도 텅 빈 것처럼 보인다 는 말	화유중개일인문경소년 (花有重開日人無更少年) 꽃은 다시 피는 날이 있으나, 사람은 다시 젊은 날은 없음
--	---

하지만 ‘유/무’의 대립 외에 ‘유’는 화용론적으로 ‘공’, ‘허’, 그리고 ‘죽음’과도 각각 서로 다른 문맥 상황에서 대립 쌍으로 출현될 수도 있다. 다음 그 현상을 대립 쌍 공존 예문으로 살펴보자.

- (42) ㄱ. 莫逐有緣 막추유연 있음에도 쫓아가지 말며 物住空忍 물주공인 공함에도 머물지 말지어다.
- ㄴ. 이들은 범부와 이승은 유와 공, 생사와 열반 양변에 엇매이지만 자신은 중도에서 노닌다고 여긴다.
- ㄷ. 장교(藏敎)의 네 가지 문(門)에 대해서 설하기를, 모든 법은 있다고 하는 유문(有門)이 있고, 모든 법(法)은 공(空)이라고 하는 공문(空門)이 있고, 또 모든 법은 있다고 하면서 공(空)이라고 하는 역유역공문(亦有亦空門)이 있고, 또 유와 공을 떠나야 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비유비공문(非有非空門)이 있다고 설하신 것이 있다.
- ㄹ. 사회적이든 아니든 자칭타칭으로 유명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유명이 허멸이 되는 경우 또한 비일비재한 것이다.
- ㅁ. 기존의 기업들이 유망한 창업지원자들에게 자본과 성공 노하우를 제공하고, 그들이 허망하게 쓰러지지 않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 ㅂ. 출연하는 작품마다 개성만점 캐릭터로 사랑받는 중견배우 박준금은 검사 아들 둔 유세에, 고상한 척 허세 가득한 알미운 시어머니 ‘박여사’ 역을 맡는다.
- ㅅ. 소매상은 있으나 도매상은 거의 죽었다.
- ㅇ. 입은 있으나 행동은 죽었다.
- ㅈ. 정신은 있으나 영혼은 죽었다.

위의 예문과 같이 ‘있다’의 대립 쌍으로 항상 ‘없다’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상황과 문맥에 따라 새로운 대립 쌍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여기에 작용하는 기제는 체험주의에 기반한 영상도식 이론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 몸의 신체적

경험을 기본으로 하는 '선개념적 경험'에 근거한 영상 도식의 작용 하에 '있다'라는 '존재'의 그 대립 항으로 '비다'와 '허상', '죽다'가 선택되는데 이는 신체화에 기반을 둔 은유적 개념이 뒷받침해 준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영상도식은 '은유적 사상'을 통해 구체적 층위의 경험이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층위의 경험으로 확장한다. 우리 경험에 적합한 구조화를 형성하는 영상도식의 추론 패턴은 은유적 사고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은유는 단순히 수사적 기술이나 비유적인 표현의 방식이 아니다. Lakoff & Johnson(1980)에 따르면 "은유에 관한 전통적인 이론들은 은유가 본래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 일탈적인 언어이고 단어들 사이의 유사성을 표현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논점을 효과적으로 설득시키려는 수사적 시도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체험주의에서 제시하는 은유는 우리의 사고와 언어 속에서 편재적으로 작용하는 본성적인 사고 능력이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이 추상적으로 개념화될 수 있는 구조화는 '개념적 은유 이론'에 의해 해명되고 있다. '은유적 사상'은 은유적인 언어 표현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우리 사고의 본성적인 사유 방식이다. 그것은 "우리의 사유 작용, 경험, 일상적 언어를 구조화하는 개념 영역들에 걸친 사상들"이며 '원천영역'을 통해 '표적영역'을 이해하는 영역 간의 사상이다. Lakoff & Johnson(1980)의 분석에 따르면 "원천영역을 통해 표적영역을 이해하는 방식은 물리적 경험에서 얻어지는 패턴들을 사용해 추상적인 이해로 구조화"되는 것이다. 그것은 은유의 본질이 한 종류의 사물을 다른 종류의 사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미가 확장될 때 다양한 인지 기제가 작용하게 되며, 어떤 인지 기제에 의해서 의미가 확장되었느냐에 따라 반의어 쌍 사이에 의미 관계 또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은유와 영상도식에 의해 의미가 확장됨에 따라 각 반의어 쌍의 대립성의 양상이 달라진다. 즉 어떤 인지 기제에 의해 의미가 확장되었느냐에 따라 대립성이 달라진다. 영상도식은 개념적 은유의 기반으로 작용한다. Lakoff & Johnson(1980), Johnson(1987), Kövecses(2000), Peña(2003), Ungerer & Schmid(2006), Oakley(2007) 등도 인간의 신체적 경험을 추상적 층위에서 구조화한 영상 도식이 은유 개념 구조의 기반이 된다고 하였다. '영상 도식'은 우리가 세계와 일상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파생되는 간단하고 기본적인 인지구조로서 신체나 반복되는 신체적 경험에 바탕을 둔 '영상'이라는 추상적 도식이다(임지룡 2008:79-80). '영상도식'의 대표적인 보기

에는 ‘그릇, 경로, 연결, 힘, 균형’ 도식, 그리고 방향과 관련된 ‘위-아래, 앞-뒤, 부분-전체, 중심-주변’ 도식 등이 있다. 그럼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에 기반이 되는 영상도식이론으로 그 구체적인 대립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3.2.1 그릇도식

[‘있다’는 찬 것이고], [‘없다’는 빈 것이다]

‘그릇 영상 도식’은 ‘그릇’의 영상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그림을 부여한 것이다. 즉 ‘그릇’은 ‘용기’를 말하는 바, ‘내부, 경계, 외부’의 구조를 가졌다. 인간에게는 실체가 없는 개념이나 사건 개념을 구체화시키고 경계를 부과하여 영역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있다. 추상적인 대상에 경계를 부과하게 되면 경계 안과 밖을 자연스럽게 구분할 수 있으며 이렇게 경계를 부과한 대상을 우리는 그릇으로 인지하기도 한다. 우리는 사건, 행위, 활동, 상태, 현상 그 자체를 그릇으로 인지하고, 그 속의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 그릇의 양적 상태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릇 속 내용물이 찼는지 비었는지도 그릇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릇 영상도식에 의해 그릇 은유의 목표 영역과 근원영역 간에 상관성이 부여되어 그 추상적 영역을 가시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있다’의 대립 쌍으로 작용하는 ‘공+단어’가 바로 그 예이다.

〈표3-16〉 무표성의 ‘있다’와 대립되는 ‘공+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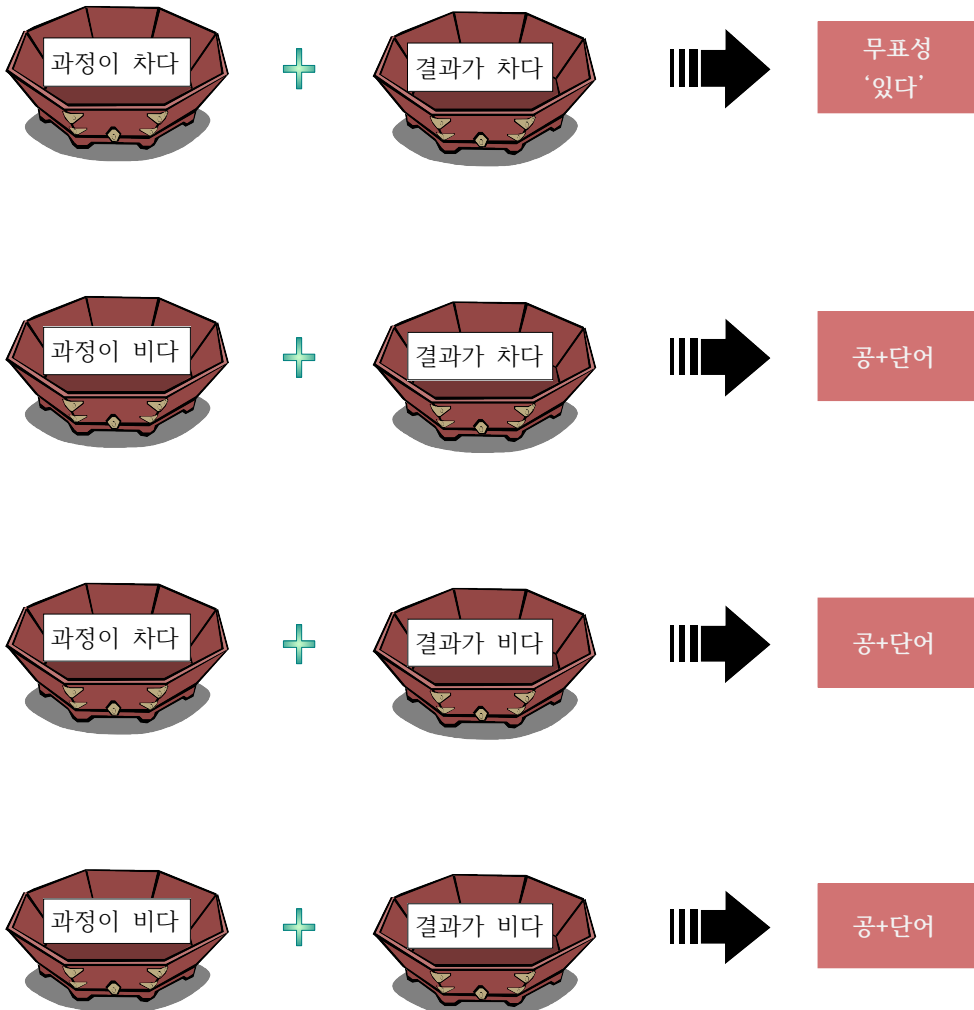
무표성 ‘있다’	대립 쌍	『표준국어대사전』 속 의미	개념적 은유	기타 대립 쌍
거래	공거래	매매할 물건의 시가 변동을 짐작하고 그 차액을 이득으로 하기 위한 매매 거래.	거래는 그릇이다. (과정이 빔)	무거래, *헛거래, *사거래
돈	공돈	노력의 대가가 아닌 거저 얻거나 생긴 돈.	돈은 그릇이다. (과정이 빔)	* 무 돈 , 헛돈, *사돈
걸음	공걸음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헛수고만 하고 가거나 옴.	걸음은 그릇이다. (결과가 빔)	*무걸음, 헛걸음, *사걸음
		① 보수 없이 거저 하는 일.	일은 그릇이다.	*무일,

일	공일	② 쓸데없는 일.	(결과가 빔)	헛일, *사일
가설	공가설	버려질 가능성이 큰 통계적 가설.	가설은 그릇이다. (결과가 빔)	*무가설, *헛가설, *사가설
매매	공매매	매매할 물건의 시가 변동을 짐작하고 그 차액을 이득으로 하기 위한 매매 거래.	매매는 그릇이다. (과정이 빔)	*무매매, *헛매매, *사매매
노자	공노자	오고 가면서 노자를 들이지 않는 것.	노자는 그릇이다. (과정이 빔)	*무노자, *헛노자, *사노자
실험	공실험	시료를 넣지 않고, 다른 조건은 수행하고자 하는 실험에서와 똑같이 하여 하는 실험 조작.	실험은 그릇이다. (과정이 빔)	*무실험, *헛실험, *사실험
사건	공사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하여 이르는 말.	사건은 그릇이다. (결과가 빔)	*무사건, *헛사건, *사사건
치사	공치사	빈말로 칭찬함. 또는 그렇게 하는 칭찬의 말.	치사는 그릇이다. (결과가 빔)	*무치사, *헛치다, *사치사
염불	공염불	①신심(信心)이 없이 입으로만 외는 헛된 염불. ②실천이나 내용이 따르지 않는 주장이나 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염불은 그릇이다. (결과가 빔)	*무염불, *헛염불, *사염불
터	공터	빈터	터는 그릇이다. (과정, 결과가 빔)	*무터, *헛터, *사터

위의 표와 같이 무표성의 ‘있다’ 단어는 ‘공+단어’와 대립 쌍을 형성한다. 그 중 ‘거래’는 ‘무거래’, ‘공거래’와 모두 대립 쌍을 이루고, ‘돈’, ‘걸음’, ‘일’은 ‘공+’외에 ‘헛+’와도 대립 쌍을 이룬다. 나머지 단어들은 모두 ‘공+’와만 대립 쌍을 이루는데 이는 ‘-가 그릇이다’라는 그릇 도식으로 은유화된 것으로 보아진다. 여기서 그 행위 혹은 현상의 ‘과정’과 ‘결과’가 그 ‘그릇’의 내용물로 인지된다. 이것이 은유화되어 ‘과정의 그릇’과 ‘결과의 그릇’으로 두 그릇이 차면 ‘있다’로

실현된다. 하지만 그 중 한 그릇이 비게 되면 ‘공+단어’의 유표성의 대립 쌍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면 다음과 같다.

〈그림 3-8〉 그릇도식의 작용 하에 형성된 무표성의 ‘있다’와 유표성의 ‘없다’



위의 그림과 같이 ‘과정’과 ‘결과’의 그릇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비면 ‘공+단어’로 개념화된다. ‘헛+단어’는 ‘비다’의 의미가 아닌 ‘보람없는’ 의미로 작용한

다. 즉 ‘공+단어’는 결과 혹은 과정이 완전히 없다는 의미이고 ‘헛+단어’는 결과가 있기는 한데, 그 결과가 보람이 없다는 뜻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무+단어’는 ‘비존재’의 의미로서 그릇도식이 아예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돈, 걸음, 일’이 ‘헛’과 ‘공’과 모두 가능하지만 언중들이 인지되는 뜻이 다르다. ‘공돈’은 ‘노력 과정이 빈 돈’이고 ‘헛돈’은 ‘보람이 없는 돈’이다. ‘공걸음’은 ‘성과적 결과가 없는 걸음’이고, ‘헛걸음’은 ‘보람이 없는 걸음’이며, ‘공일’도 마찬가지로 ‘성과적 결과가 없는 일’이고, ‘헛일’은 ‘보람이 없는 일’이다. 물론 문맥에 따라 ‘결과가 없는 일’이 ‘보람 없는 일’로 인지되어 통용될 수도 있다. ‘공+단어’ 합성되는 현상은 명사적 단어에서 뿐만 아니라 동사적 단어에서도 발생한다. 그 예문은 다음과 같다.

〈표3-17〉 ‘공+용언’의 개념적 은유

객관적 개념	유효성 의 대립쌍	『표준국어대사전』 속 의미	개념적 은유	기타 대립쌍
먹다	공먹다	힘을 들이지 아니하고 일을 해내거나 어떤 것을 차지하 다	먹는 것은 그릇이다. (과정이 빔)	*무먹다, 헛먹다, *사먹다
돌다	공돌다	①쓰지 아니하고 남아서 이 리저리 굴러다닌다. ②성과 없이 헛돌다.	도는 것은 그릇이다. (결과가 빔)	*무돌다, 헛돌다, *사돌다
놀다	공놀다	①하는 일 없이 놀다. ②기계나 설비 따위가 효율 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거 나 멈춘 상태로 있다.	노는 것은 그릇이다. (과정과 결과가 빔)	*무놀다, *헛놀다, *사놀다
뜨다	공뜨다	① 임자 없이 남아 돌다. ②소문 따위가 근거 없이 떠돌다. ③까닭 없이 마음이 들뜨 다.	뜨는 것은 그릇이다. (과정이 빔)	*무뜨다, *헛뜨다, *사뜨다
얻다	공얻다	거저 얻다	얻는 것은 그릇이다. (과정이 빔)	*무얻다, *헛얻다, *사얻다
때리다	공때리	무슨 일을 하려다가 목적을	때리는 것은 그릇이	*무때리다,

	다	이루지 못하고 허탕 치다	다. (결과가 빔)	*헛때리다. *사때리다
득하다	공득하다	힘을 들이거나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거저 얻다.	득하는 것은 그릇이다. (과정이 빔)	*무득하다, *헛득하다, *사득하다

위 표에서처럼 추상적 현상과 행위를 그 과정과 결과를 내용물로 담은 그릇으로 인지한다. 무표성 단어는 ‘그릇의 참’이고 유표성의 ‘공+단어’는 ‘그릇의 빔’이다. 위와 같이 그릇도식에 의하여 은유화된 단어가 상황에 따라서 무표성 단어의 대립 쌍으로 나타난다. Johnson(1987)은 가득함-텅빔 도식은 그릇 영상도식에 의존하는 개념적 구조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과정과 결과의 추상적 영역을 가시적인 공간 영역인 그릇에 견주어 나타내었다. 하여 ‘존재’의 ‘있다’의 대립 쌍으로 ‘비다’의 공간적 영역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그릇 영상도식을 이용하여 추상적 영역이 구조화된다. 위의 표에서 일부 단어가 어떻게 그릇도식으로 인지되어 표현되는지 그 구체적 양상을 다음 예문으로 살펴보자.

〈돈(추상-재부)은 그릇이다〉

(43) ㄱ. 노력을 담은 돈을 별자.

ㄴ. 돈 속에 빠져버려라.

ㄷ. 삼 년은 건달 줄 예산한 집 잡힌 돈이 일 년이 못 다 되어 바닥이 났다.

ㄹ. 유학을 가면 돈이 엄청 깨집니다.

위의 예문에서 추상표현의 돈은 하나의 그릇으로 ‘노력을 담다’, ‘돈 속에 빠지다’, ‘돈이 바닥이 났다’, ‘돈이 깨지다’로 표현하였다. (43ㄱ)의 ‘노력을 담은 그릇’, (43ㄴ)의 ‘그릇 속에 빠지라’, (43ㄷ)의 ‘그릇이 바닥이 나다’, (43ㄹ)의 ‘그릇이 깨지다’로부터 ‘추상적 영역의 돈이 그릇’으로 인지되어 은유화됨으로써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여진다. (43ㄱ-ㄴ)는 그릇이 찬 상태로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43ㄷ-ㄹ)는 그릇이 비거나 파괴된 상태로 부정적 의미를 드러낸다. 이처럼 ‘돈’은 그릇으로 인지가 가능하기에 ‘공돈’의 개념이 생겨나는 것이다.

〈거래는 그릇이다〉

(44) ㄱ. 기업의 구매담당자 및 유통상들이 전자상거래를 꺼리는 것은 전자상거래를 도입할 경우 거래가 투명해지고 거래과정이 그대로 노출돼 뒷거래나 탈세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ㄴ. 이번 거래에 총명과 지혜가 넘친다.

ㄷ. 이번 거래는 깨졌다.

위의 예문은 ‘거래’를 하나의 그릇으로 보고 ‘투명해지다’, ‘총명과 지혜가 넘친다’, ‘깨지다’ 등으로 은유화하여 표현하였다. 그릇이 찬 상태면 긍정적 의미로, 파괴된 상태면 부정적 의미를 나타낸다. 또한 (44ㄴ)와 같이 내용물이 긍정적 의미의 ‘총명’과 ‘지혜’일 때 더욱이 긍정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Pena(2006:100)은 한정 지역 안에 있는 실체는 그릇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내용물이 긍정적 의미이므로 그 그릇도 전체적으로 긍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공거래’의 개념도 ‘거래’의 그릇화 표현이다.

〈걸음은 그릇이다〉

(45) ㄱ. 모든 걸음에 유럽의 예술을 담아 보자.

ㄴ. 느린 걸음 속에 삶은 깊어진다.

ㄷ. 서로가 서로의 의지가 되어주며 내딛는 그 걸음 걸음들이 밝은 희망으로 가득 차있다.

위의 예문은 걸음을 그릇으로 은유화하여 표현한 것들이다. 구체적으로 ‘담다’, ‘깊다’, ‘가득 차 있다’로,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하고 비가시적인 것에서 가시적인 것으로 나타냈다. ‘걸음’이 ‘그릇’으로 인지 가능한 데 비추어 ‘공걸음’의 개념도 바로 유추된다.

〈사건은 그릇이다〉

(46) ㄱ. 제주 4.3사건을 망 보는 아이의 시선으로 답다.

ㄴ. 사건 속에 남아 있는 의문들을 하나하나 풀고 싶다.

ㄷ. 한걸음 한걸음마다 후회만이 가득 찼다.

위의 예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사건’이 그릇으로 은유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답다, 속에 남아 있다, 차다’들로 추상적 영역에서 구체적 영역으로, 비가시적인 것에서 가시적인 것으로 우리의 체험으로부터 영상도식으로 구조화하여 표현하였다. ‘공사건’도 사건의 그릇화 결과이다.

위의 그릇도식의 성립으로부터 볼 때, ‘있다’는 ‘없다’외에 ‘비다’와도 반의관계를 이룸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작용하는 기제는 그릇도식 이론으로 체험적인 지각적 구조를 잘 보여주었다. 그릇 도식의 구조는 물리적인 경험을 어떻게 패턴화하였는지를 명확하게 잘 보여준다. 영상도식 이론은 구체적인 대상과 상황으로 추상적인 실체와 사건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데 사용된다.

3.3.2.2 실체-허상 도식

체험주의에 따르면 의미는 선개념적 경험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구체화된다. 여기서 ‘선개념적’ 경험이란 신체적 경험에서 비롯되는 개념 형성 이전의 경험을 말한다. 이 경험은 그 자체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개념적 구조를 발생시킨다. 곧 신체화에 바탕을 둔 선개념적 경험은 한편으로는 직접적으로 경험되는 물리적 개념을 발생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은유적 확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형성되는 추상적 개념을 발생시키는데, 후자의 추상적 개념도 궁극적으로는 신체적 경험에 근거하여 동기화된 것이다(임지룡, 1997a:191).

‘실체-허상’ 도식은 실체와 그 그림자 구조로 이루어진 영상도식으로서, 실체는 긍정적(+)이며, 그 허상은 부정적(-)이다. 이 도식의 인지는 사람의 신체와 그 신체로부터 생기는 허상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곧 신체는 실체이고 그 그림자는 허상에 불과하여 실체 신체가 아니다. 사람이나 사물을 놓고 볼 때, 그 그림자나 거울에 비쳐진 모습이 바로 허상이다. 실체 영상도식에서 실체는 허상보다 중요하다. 이를테면, 사람의 신체에 상처를 입으면 아프지만 그 그림

자에 해당하는 허상에 상처를 입으면 아프지 않을뿐더러 실체에 아무런 손상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또한, 신체의 허상은 실체에 의존하고 있으나 그 역은 성립되지 않는데, 예컨대,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지만 그림자만 있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실체의 변화에 따라 그림자는 변화되므로 그 생존 여부는 실체에 의존한다. 따라서 실체는 긍정적 가치로, 허상은 부정적 가치로 인지된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일상사나 사회, 문화적 제도에서 흔히 발견된다. 그림자는 빛이 지나가는 경로 위에 물체가 있을 때, 물체 뒤쪽으로 빛이 통과하지 못해 생기는 어두운 부분이다. 그림자는 인생의 어두운 특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마음의 무계획적이고 원시적인 측면이다. 성격의 부정적인 부분-개인이 숨기고 싶은 모든 불유쾌한 요소들의 총합, 인간 특성 중 열등하고, 가치 없고, 원시적인 부분, 개인 자신의 “어두운” 부분이다. 또한 모든 사람, 사물에는 그림자가 있다. 실재하는 모든 것은 그림자를 드리우는데, 자아와 그림자의 관계는 빛과 그늘의 관계와 같으며, 바로 이 그림자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 준다. 죽은 사람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 영정(影幀)이므로 실상에 반대되는 허상이다. 최희준은 ‘그대는 나의 천국 그대는 나의 지옥, 사랑하는 내 마음은 빛과 그리고 그림자’라고 노래했다. 이것은 천국과 지옥의 상반된 세계를 빛과 그림자로 비유한 형이상학적 내용이 되고 있다. (임지룡 1997a:198)

또한 실상은 만질 수 있는, 광원의 방향에 따른 앞의 것이고 그림자는 만질 수 없는, 실상의 뒤의 것이다. 따라서 실체-허상 영상도식은 앞-뒤 영상도식의 하위 구조로 구조화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도식은 단어 ‘있다’에도 적용된다. ‘있다’는 은유적 확장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대립 쌍을 가질 수 있다. ‘있다’는 앞의 것으로 실체로 구조화되고, ‘없다’는 뒤의 것으로 허상으로 구조화된다.

〈표3-18〉 [‘있다’는 실체이고], [‘없다’는 허상이다]

무표성의 ‘있다’	‘있다’의 반의어	『표준대사전』 속의 의미	개념적 은유	기타 대립쌍
점	허점	허술한 구석. 불충분한 점. 약점.	구석/점은 허상이다	*무점, *공점, *사점

몽	허몽	불충분하거나 허술한 점. 또는 주의가 미치지 못하 거나 틈이 생긴 구석.	꿈은 허상이다	*무몽, *공몽, *사몽
행	허행	헛걸음.	걸음은 허상이다	*무행, *공행 *사행
병	허병	피병	병은 허상이다	무병, *공병, *사병
길	헛길	목적하는 바를 이루지 못 하고 걷는 길	길은 허상이다	*무길, *공길, *사길
김	헛김	딴 데로 새는 김	김은 허상이다	*무김, *공김, *사김
꿈	헛꿈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어 보려고 하거나 희망을 거 는 생각	이상은 허상이다	*무꿈, *공꿈, *사꿈
돈	헛돈	보람 없이 헛되게 쓰는 돈	돈은 허상이다	*무돈, 공돈, *사돈
맹세	헛맹세	지키지 못할 것을 거짓으 로 맹세함. 또는 그런 맹세	맹세가 허상이다	*무맹세, *공맹세, *사맹세
바람	헛바람	① 쓸데없이 부는 바람. ② 허황된 일에 공연히 들뜬 마음의 비유.	바람이 허상이다	*무바람, *공바람, *사바람
바퀴	헛바퀴	(주로 '돌다'와 함께 쓰여) 헛도는 바퀴.	돈 바퀴가 허상이다	*무바퀴, *공바퀴, *사바퀴
발	헛발	① 잘못 디디거나 내딛 발. ② 위족(僞足).	디딘 발이 허상이다	*무발, *공발, *사발
소리	헛소리	① 앓는 사람이 정신을 잃 고 중얼거리는 소리. ② 미덥지 않은 말.	내 뱉은 소리가 허상 이다	*무소리, *공소리, *사소리
소문	헛소문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	소문이 허상이다	*무소문,

				*공소문, *사소문
수고	헛수고	아무 보람이 없는 수고.	수고가 허상이다	*무수고, *공수고, *사수고
웃음	헛웃음	마음에 없이 겉으로만 웃는 웃음.	웃음이 허상이다	*무웃음, *공웃음, *사웃음
일	헛일	쓸모없는 일. 쓸데없이 한 노력.	한 일이 허상이다	*무일, 공일, *사일
힘	헛힘	보람 없이 쓰는 힘	들임 힘이 허상이다	*무힘, *공힘, *사힘
충	헛충	탄알을 재지 아니하고 놓는 충.	쓴 충이 허상이다	*무충, *헛충, *사충
노릇	헛노릇	아무 보람이 없는 헛된 일.	한 일이 허상이다	*무노릇, *공노릇, *사노릇
헛것	헛것	헛일	한 일이 허상이다	*무것, 공것, *사것
허사	허사	헛일	한 일이 허상이다	*무사, *공사, *사사

위의 표에서 무표성의 ‘있다’로 표현된 단어는 실존하는 사물 혹은 현상으로서 ‘실체’로 볼 수 있다. ‘허/헛+명사’는 결과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것 또는 이루었다 하더라도 실제적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실체’의 뒤에 자리잡고 있는 허상에 불과하다. 하여 앞의 것은 긍정적인 것이고, 뒤의 것은 부정적인 것으로 개념화된다. 이러한 양상은 모두 우리의 경험에 의해 구축된다. ‘허/헛+단어는 허상이다’는 추상적 개념을 가시적이고 물리적으로 은유화한 결과물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체험한 패턴을 추상적인 개념에 적용시켜 동일한 영상도식으로 추상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게 된다. 물리적 세

계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경험은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것은 다음과 같은 용언에도 적용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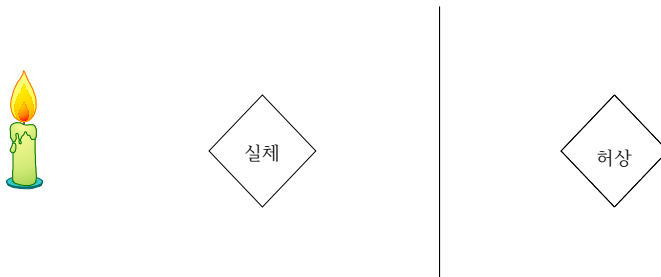
〈표3-19〉 ‘헛+용언’의 개념적 은유

객관적 개념	대립 쌍	『표준대사전』 속 의미	개념적 은유	기타 대립쌍
돌다	헛돌다	바퀴 따위가 헛되이 돌다	도는 것이 허상이다	*무돌다, 공돌다, *사돌다
듣다	헛듣다	① 잘못 듣다. ② 기억에 남지 않게 예사로 들어 넘기다.	듣는 것이 허상이다	*무듣다, *공듣다, *사듣다
디디다	헛디디다	발을 잘못 디디다	디딘 것이 허상이다	*무디디다, *공디디다, *사디디다
배우다	헛배우다	실속 있게 배우지 않아 잘 써먹지 못하다	배운 것이 허상이다	*무배우다, *공배우다, *사배우다
보다	헛보다	무엇을 잘못 보다. 실상과 어긋나게 보다.	본 것이 허상이다	*무보다, *공보다, *사보다
살다	헛살다	①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지내다. ②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거나 누리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다.	산 것이 허상이다	*무살다, *공살다, *사살다
짚다	헛짚다	① 팔이나 다리가 바닥을 바로 짚지 못하다. ② 일이나 대상을 잘못 짐작하다.	짚은 것이 허상이다	*무짚다, *공짚다, *사짚다

위의 표에서 ‘헛+용언’은 허상에 불과하므로 부정적인 것으로 긍정적 의미의 무표성의 용언과 대응관계를 이룬다. ‘허상’은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므로 ‘비존재’의 ‘없다’와 서로 닮은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있다’는 상황에 따

라 ‘헛+단어’의 반의어를 가지게 된다. 또한 추상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구조화하는데 이는 신체적·물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으로 보여주면 다음과 같다.

〈그림3-9〉 실체-허상 도식



그림자는 항상 광원의 반대쪽, 즉 물체가 광원을 향하고 있을 때 물체의 뒤쪽으로 생긴다. 사람들은 이런 경험에 근거하여 ‘뒤에 존재하고, 성공 못한 결과’에 대하여 ‘허상’이라는 개념적 은유를 부여한다. 실체는 긍정적인 것이고, 허상은 부정적인 것임은 이런 경험적 사실로부터 이루어진다. 즉 개념적 은유에서는 추상적인 개념을 목표영역으로 채택하고,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개념을 근원영역으로 채택한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개념 그 자체를 독자적으로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이고 실체가 있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다(김동환 2013: 144).

위의 표 속 단어의 쓰임을 구체적인 실례로 살펴보자.

(47) ㄱ. 혹은 오늘의 대중은 고도성장의 헛꽃 속에서 너무 식성이 사치스러워진 것 인지는 모른다.

ㄴ. 아는 게 힘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터무니없는 헛소리는 결코 아니다.

ㄷ. 안동 유씨 문중의 한 과부가 잉태하였다는 헛소문에 괴로워하다가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ㄹ. “저로서는 행운이지요.” 그는 피식 헛웃음을 뺐었다.

ㅁ. 밖에서의 사업도 실패를 본 아버지가 그해 가을, 돼지농사가 헛일이 되어버

리고 그만 집으로 돌아왔다.

ㅂ. 일을 하여도 헛수고였으니, 부역 나온 사람들은 위험하더라도 다시 산 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위의 예문에서 보다시피 ‘허/헛+’ 단어들은 ‘사치스럽다’, ‘터무니없다’, ‘괴롭다’, ‘빨다’, ‘되어버리다’, ‘-수밖에 없다’ 등 부정적 단어와과 결합하여 모두 부정적인 뜻을 담고 있다. 실상은 긍정적이고 허상은 부정적인 개념적 은유를 나타낸다. 그림 <3-9>에서 보다시피 실상은 허상의 앞에 있다. 따라서 앞은 긍정적이고 뒤는 부정적이라는 개념적 은유도 담고 있다. 실상과 허상은 인간의 경험적인 도식에 의하여 긍정적인 가치와 부정적인 가치로 개념화된 것이다. 영상도식은 하나의 구체적인 영상이 아니라 각각의 경험들을 도식적으로 구조화한 패턴으로 우리의 지각과 개념을 구성하는 데 질서를 부여하며 그들을 연결하는 하나의 수단이다(노양진 2000:105)

체험적 경험을 전제로 한 영상도식은 은유적 확장에서 기본적인 역할로 작용한다.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층위의 경험으로부터 발생하여 은유적 사상을 거쳐 정신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확장된 결과이다.

3.3.2.3 생-죽음 도식

[‘있다’는 산 것이고], [‘없다’는 죽은 것이다]

Schilder(1978)에서 “인간의 신체는 정신이 배제된 기계론적 신체가 아니라 정신과 본질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생기로운 신체임을 밝히기 위하여 신체도식을 강조한다.”라고 했다. 신체적 경험은 의미의 이해에 필수불가결하다. 사람은 항상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생존하여 번성하려고 노력하는 존재이다. 이를 위하여 사람은 항상 구조화된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 즉 객관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경험적으로 접근한다. 사람의 생물학적 능력 속에서 신체적, 사회적 경험에 따라서 구조화하여 언어의 의미를 개념화한다.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영역에서 추상적인 영역으로의 은유적 투사를 거쳐 추상적인 개념을 발생시킨다.

죽음은 생명활동이 정지되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생물의 상태로 생(生)의 종말을 말한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결국에는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한다. 이러한 것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죽음은 일

종의 상상에 맡겨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타자, 동물, 식물 등 생명의 죽음은 목격하고 관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과 죽음의 신체적 경험이 은유화되어 추상적 영역의 극과 극으로 구조화되는데 이는 언어에서도 개념화되어 나타난다. 그 예문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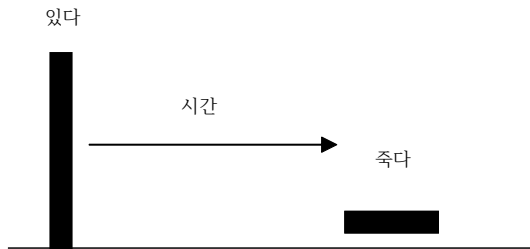
〈표3-20〉 ‘있다-죽다’의 상황적 대립

‘있다’와의 단어 결합			‘있다’와의 상황적 대립		기타 대립
단어 유형	단어 결합	‘있다’의 개념적 은유	단어 결합	‘죽다’의 개념적 은유	‘없다’와의 대립 여부
구체적 단어	불이 있다	기능 작동/행위는 사물이다	불이 죽다	멈춤/행위는 생명이다.	불이 없다
	카메라가 있다		카메라가 죽다		카메라가 없다
추상적 단어	기억이 있다	~는 사물이다. ~는 존재한다.	기억이 죽다	~는 생명이 다.	기억이 없다
	성질이 있다		성질이 죽다		성질이 없다
	맛이 있다		맛이 죽다		맛이 없다
	패기가 있다		패기가 죽다		패기가 없다
	울음이 있다		울음이 죽다		울음이 없다
	신념이 있다		신념이 죽다		신념이 없다
	생각이 있다		생각이 죽다		생각이 없다
	권세가 있다		권세가 죽다		권세가 없다
	사랑이 있다		사랑이 죽다		사랑이 없다
	분위기가 있다		분위기가 죽다		분위기가 없다
	실력이 있다		실력이 죽다		실력이 없다
	마음이 있다		마음이 죽다		마음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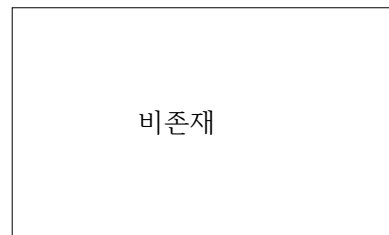
죽음이란 “한 생명체의 모든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원형대로 회복될 수 없는 상태”이다. 사람들은 무척 죽음을 외면하려 든다. 그래서 “개똥 밟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가난에 찌들어도 천대를 받아도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좋다.”, “죽음은 싫다.”, “삶에 강렬한 애착을 지닌다.” 또한 “죽음을 재난으로 생각한다.”, “죽음은 휴식이 아니라 새로운 공포이고 재앙이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오복 가운데 ‘오래 사는 것[壽]’을 으뜸으로 친다.”, “그저 오래 살고 싶어 한다.” 등의 말들이 문학 작품에 많이 등장한다. 즉, 사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죽음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경험적 사유에 근거하여 ‘있는 것은 삶이고, 없는 것은 죽음’이라는 개념적 은유가 발생되었다. 이는 ‘무’와 다르다고 생각한다. ‘무’는 처음부터 없는 것을 가리키지만, ‘죽다’는 ‘있던 것이 그 생

명이 종말을 맞이하게 됨'을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표에서 대립 구절은 '없다'와도 대립 관계를 형성하지만 '죽다'와도 대립 관계를 이룬다. 이를 그림으로 보여주면 다음과 같다.

〈그림3-10〉 '죽다' 인지 모형



〈그림3-11〉 '없다' 인지 모형



위의 그림처럼 '죽다'는 '비존재'의 '없다'와 인지 모형이 다르다. '없다'는 비존재의 의미가 중심 의미로 작용하고 있지만 '죽다'는 본래 있던 것이 시간의 흐름을 거쳐 '멸망하게 됨'을 말해준다. 따라서 위의 그림과 같은 과정을 경유하게 된다. 여기는 '있다'는 '생명의 지속'으로 수면 위 의식을 말하고 '없다'는 '생명의 멈춤'으로 수면 아래 의식을 말한다. 따라서 위-아래 도식에 하위 영역에 속하기도 한다. 그 구체적인 쓰임을 다음 예문으로 살펴보자.

(48)

- ㄱ. 죽은 기억들로 가득한 관을 메고 다니지 마십시오.
- ㄴ. 그 후로 우리 애는 성질이 반 쯤 죽은 것 같았어요.
- ㄷ. 그의 마음은 점점 죽어갔다.
- ㄹ. 설탕 때문에 매운 맛이 다 죽었다.
- ㅁ. 내 사랑은 그 집에서 죽었다.
- ㅂ. 며칠 안했다고 실력이 이렇게 죽어버리네.

위의 예문은 '기억, 성질, 마음, 맛, 사랑, 실력' 등과 '죽다'가 결합되어 사용되는 양상들이다. 위의 맥락을 살펴보면 '죽다'는 '존재'의 '있다'와 상황적으로 반의 관계를 구성한다. 하여 '기억은 생명이다', '성질은 생명이다', '마음은 생명이다', '맛은 생명이다', '사랑은 생명이다', '실력은 생명이다'라는 개념적

은유를 발생시킨다. 이런 은유는 신체적 경험에서 도출된 것으로 추상적 사물 혹은 현상에 생명을 부여함으로써 '없어짐'의 상황을 가시적이고 형상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이 은유는 위-아래 도식의 하위 개념이기도 하다. 즉 '있다'는 삶의 형태로 '위'이고 '없다'는 죽음의 형태로 '아래'로 구조화된 것이다. '사랑'을 예로 '사랑은 생명이다'의 은유를 보여준 예문은 다음과 같다.

(49) 〈사랑은 생명이다.〉

- ㄱ. 사랑이 싹을 틔우다.
- ㄴ. 사랑이 조금씩 커가고 있다.
- ㄷ. 우리의 사랑에 거름을 주었다.
- ㄹ. 새해 첫날부터 가요계에 사랑 꽃이 피었다.
- ㅁ. 사랑이 시들어 가고 있다.
- ㅂ. 사랑이 죽어 가고 있다.

위의 예문은 생명의 초창기, 성장기, 성숙기, 종말기를 잘 보여준다. '싹'은 생명의 초창기이고, '커가다', '거름을 주다'로 생명의 성장기를 잘 보여주고, '꽃이 피다'로 그 성숙기를 가시적으로 나타냈다. 또한 '시들다', '죽다'로 생명의 종말기를 표현하였다. '사랑은 생명이다'라는 개념적 은유를 통해 '생명의 초창기로부터 종말기'까지의 삶의 전체를 가시적이고 구체적으로 구조화하여 보여주었다.

(50) 〈실력은 생명이다.〉

- ㄱ. 내 실력을 놓고 말하면 이제 걸음마를 댄 수준에 불과하다.
- ㄴ. 학원에서 영어 실력을 키웠다.
- ㄷ. 이렇게 해야만 실력이 자랄 수 있다.
- ㄹ. 실력에 날개를 달아주는 엄마의 역할이 필요하다.
- ㅁ. 실력이 급속도로 성장했다.
- ㅂ. 실력이 많이 죽었다.

위의 예문은 '실력은 생명이다'라는 개념적 은유의 구체적인 표현 형태들이다. '걸음마를 댄다'로 생명의 초창기를, '키우다, 자라다, 날개를 달아주다, 성장하다'로 성장기를, '죽다'로 종말기를 보여줌으로써 실력의 추상적 개념을 생

명을 통해 가시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냈다. 이는 실력이 생-죽음 도식에 의해 구조화 된 표현으로써 구체적인 개념에 의해 이해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추상적 영역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있다-죽다’는 상황과 맥락에 의존적인 상황적 반의관계를 이루어 ‘생-죽음’의 영상도식을 형성한다. 이는 인간의 체험주의로부터 출발된 경험적 패턴에 속하는 바, 사건이나 현상 등의 추상적 과정을 영상도식 패턴에 따라 가시적이고 형상적으로 생명을 부여하여 보여줌으로써 이해의 과정을 용이하게 하여 언어의 다양한 표현 방식에 기여하고 의미의 구조적 관계와 연결을 실현하였다.

궁극적으로 ‘있다’는 상황에 따라 ‘비다, 허상이다, 죽다’와도 대립관계를 이루는데 이는 신체적 경험에 의하여 은유화된 것으로 보아진다. 구체적으로 ‘그릇도식’, ‘실체-허상 도식’, ‘생-죽음 도식’인 바, 추상적 사물을 이런 기본적인 영상도식에 근거하여 구체적 사물로 구조화하였다. 따라서 영상도식은 개념적 은유의 틀 부여 역할을 하는 것이고 추상적 개념들이 어떻게 구체적 경험의 차원에 의해 구조화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지금까지 상황반의어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상황반의어로 확장됨에 있어서 거기에 작용하는 기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인간의 신체적 경험의 작용 하에 ‘있다/없다’는 새로운 도식적 확장을 이룩하였음을 고찰하였다.

‘있다’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인간의 체험적 인지를 바탕으로 ‘비다, 허상, 죽다’와 반의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는 ‘없다’의 확장 의미로 작용하기도 한다. 역으로 ‘있다’의 확장 의미를 ‘차다, 실상, 살다’로 추측해 볼 수도 있다. 하여 ‘있다/없다’는 ‘그릇도식’, ‘실체-허상 도식’, ‘생-죽음 도식’의 도식적 확장이 실현되고 새로운 확장 의미를 형성하였다.

‘있다/없다’의 그릇도식은 인간의 체험적 지각 구조를 그릇화하여 추상적인 영역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우리의 경험, 표현, 이해를 해석하고 거기에 틀이 제공한 게슈탈트 구조이다. 구체적인 대상과 상황의 그릇도식은 추상적인 실체와 사건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데 사용된다. 이는 공통된 인간의 체험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경험적 인지 구조를 언어 사용에 적용시켰다. ‘있다/없다’의 그릇도식은 ‘있는’ 것은 ‘찬’ 것이고, ‘없는’ 것은 ‘빈’ 것으로 ‘그릇이 찬’ 것과 ‘그릇이 빈’ 것 혹은 기타 파괴적 ‘그릇 형태’의 경험적 패턴이 추상적인 언어영역으로 확장되어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의 관계를 형성시켰다.

‘있다/없다’의 실체-허상 도식도 그릇도식과 마찬가지로 체험적 게슈탈트를 구성한다. 이 영상도식은 사물과 광원에 의한 허상과의 체험적 구조를 언어영역에 확장시켜 실상은 긍정적 가치로 허상은 부정적 가치로 개념화되었다. 이는 ‘앞-뒤’ 도식과도 관련되는 바, 앞의 것은 ‘실상’이고 뒤의 것은 ‘허상’으로 ‘앞-뒤’ 도식의 긍정-부정 대립과 개념적 가치가 일치하다. 영상도식은 추상적 사물에 대한 구체적인 영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체험에 따라 도식적인 패턴을 부여함으로써 우리의 지각과 개념을 구성하는데 질서와 구조를 세워 주고 연결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생-죽음 도식은 사물의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에 대한 체험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체험적 구조를 다른 경험에 접속시켜 산 것과 죽은 것에 대한 패턴의 연속으로 의미의 역동성과 유연성, 단어의 다의성을 자연스럽게 설명하였다. 이 도식은 ‘있다-없다’에도 적용됨으로써 ‘있다/없다’의 다의성이 실현되고 물리적 영역으로부터 추상적인 영역으로 은유적 확장을 이룩하였다. 하여 ‘있는’ 것은 ‘산’ 것으로 긍정적 가치를 부여받게 되고, ‘없는’ 것은 ‘죽은’ 것으로 부정적 가치를 부여 받아 추상적 사물을 구조화하고 은유적으로 정교화하여 긍정과 부정의 대립을 이룩하였다.

영상도식은 공간적 구조를 개념적 구조로 사상하기 위한 지각적 경험의 압축된 재기술이다. 인지언어학은 의미에 대해 체험주의 입장을 취한다. 체험주의에서는 의미란 사람의 생물학적 능력 및 사람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신체적·사회적 경험에 기초해서 묘사된다. 이처럼 의미 연구에 신체의 모습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인지 모형이 바로 영상도식이다. ‘실체-허상 도식’, ‘생-죽음 도식’도 체험주의 인지에서 시작된 신체화 도식으로서 ‘있다/없다’에도 적용이 된다. ‘그릇도식’은 신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세계와 상호작용하고 세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오는 감각·지각 경험에서 도출된 결과이다. 체험의 반복되는 인지로부터 발생하는 패턴으로 추상적 개념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개념화하는 데 이런 도식들이 응용된다. ‘있다/없다’는 이런 원초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험과 상황에 부딪칠 때 이용 가능한 영상도식을 토대로 은유적으로 이해되고 표현된다. 따라서 신체적이지 않은 경험에 그 자체에 어울리는 체험적인 지각적 구조를 부여한다. 구체적인 대상과 상황의 영상도식의 패턴을 추상적인 실체와 사건을 경험하고 이해하는데 사용한다. 그리고 거기에 긍정과 부정의 가치를 추가시킨다. ‘그릇도식’에서

‘찬 것은 긍정적인 것이고’, ‘빈 것은 부정적인 것이며’, ‘실체-허상 도식’에서 ‘실체는 긍정적인 것이고’, ‘허상은 부정적인 것이며’, ‘생-죽음 도식’에서 ‘산 것은 긍정적인 것이고’, ‘죽은 것은 부정적인 것이다’라는 가치는 우리의 지각과 갈라놓을 수 없다.

이상으로 고정반의어, 상황반의어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 방향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 양상

가. 대상-->공간

나. 대상-->행위

다. 행위-->공간

라. 물리적 위치--> 사회적 위치 (‘있다’에만 적용)

마. 물리적 위치--> 심리적 위치 (‘있다’에만 적용)

바. 구체성-->추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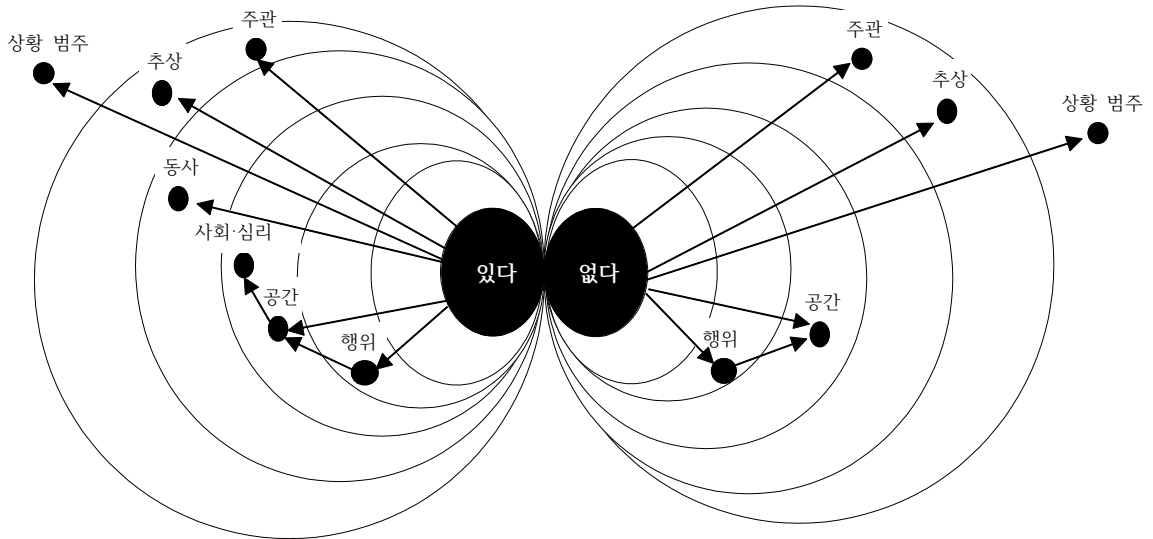
사. 상태-->동작 (‘있다’에만 적용)

아. 객관성-->주관성

자. 범주 내-->범주 밖

위의 의미 확장 방향은 Heine et al.(1991: 48-49)와 임지룡(1996)과 일치된 부분도 있지만 일부 다른 점을 보이기도 했다. ‘상태-->동작’, ‘객관성-->주관성’, ‘범주 내-->범주 외’가 새로 추가된 내용이다. ‘있다/없다’의 이런 의미 확장 방향을 바탕으로 그 의미망을 구축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2〉 ‘있다/없다’의 의미망



위의 ‘있다/없다’의 의미망은 Heine et al.(1991: 48-49)의 의미 확장의 방향과 위계에 따라 구축된 것이다.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있다/없다’는 높은 빈도를 보이는 만큼 의미 확장의 폭이 넓고 그 양상도 다양하다. 또한 ‘있다/없다’의 다의어의 의미는 인지미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등가적이지 않고 등급적이며, 의미 확장이 진행될수록 그 외연이 넓어진다. 특히 ‘있다’는 ‘없다’에 비하여 더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있다’는 중심 의미가 ‘구체 대상의 존재’로 인지적 현저성이 중심 의미가 ‘구체 대상의 비존재’인 ‘없다’에 비하여 높다. 또한 ‘있다’는 최초의 의미가 ‘존재론적 존재’로 ‘없다’에 비해서는 더 원형적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물, 사태, 현상은 모두 ‘존재’가 바탕이 되어 통찰되기 때문이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없다’는 존재인 ‘있다’를 바탕으로 확장된 의미이다. 따라서 ‘있다’는 ‘없다’에 비하여 더 원형적이다. 현재까지는 ‘상태-->동작’, ‘물리적 위치-->사회/심리적 위치’에로의 확장만 비대칭성이 확인됐지만, 원형에서의 차이성, 인지의 현저성 등 원인으로 기타 비대칭성이 더 초래될 것으로 짐작된다. 이로써 정적이고 의미의 대칭성을 바탕으로 하는 구조의미론의 의미관과 동적이고, 의미의 비대칭성을 바탕으로 하는 인지미론의 의미관의

차이점이 극명히 드러났다. 하지만 위에서는 의미 확장과 거기에 작용하는 기제를 중심으로 논의한 것으로 기타 의미와 구조적 측면에서의 비대칭성이 다 확인되지 않았다. 아래 '있다/없다'의 여러 측면에서의 비대칭성을 종합하여 의미 개념의 형성과 해석 과정에 인간의 체험주의 관점과 지각의 현저성 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확인해 보겠다.

4. '있다/없다'의 비대칭성

구조의미론에서는 의미 구조의 대칭성을 포착하고 기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그 의미 구조의 체계성을 밝히는 데 주력을 다 해왔다. 하지만 인지의미론에서는 의미 구조가 언어 외적 요소인 인간의 인지적, 경험적, 문화적 맥락에 의해 동기화되어 있다고 봄으로써 의미 구조의 비대칭성에 주목해 왔다. 한마디로 구조의미론은 '언어 중심적 관점'으로 해석을 가하는가 하면, 인지의미론은 '인간 중심적 관점'으로 해석을 부여한다. 따라서 인지의미론 관점으로는 반의어 쌍에 대한 인간의 지각의 현저성, 선호도 및 경험의 친숙성 등 차이로 여러 측면에서 비대칭적인 분포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앞에서 '있다/없다'의 의미가 구체적이고, 물리적이고, 공간적인데서 출발하여 추상적이고, 심리적이고, 비공간적인 데로 확장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확장의 불일치로 생긴 의미적 비대칭성도 이미 확인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비대칭성은 '있다/없다'가 의미·통사·형태·화용적 층위에서 같은 분포로 짝을 이루지 않는 것을 말한다. 기존 연구에서 반의어 쌍의 비대칭성이 초래되는 원인은 중화현상, 유표성 등을 들고 있다(이사고 2014:190). 이 외에도 많은 복합적 요인으로 반의어 쌍의 비대칭성이 초래된다. 이런 원인을 찾아내어 그 현상에 인지의미론적 해석을 가하는 것으로 언어의 의미론, 통사론, 화용론 분야에서 구조의미론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언어적 규칙과 불규칙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본 장에서 '있다/없다'의 모든 표현의 비대칭성에 대하여 다양한 용례를 들어 살펴볼 것이다. 형태적, 통사적, 화용적, 의미적 층위에서 이런 표현의 비대칭성을 찾아 인지의미론적 관점으로 검토해볼 것이다. 이로써 언어가 본질적으로 그 자체의 자율적인 산물이 아니라 인간의 체험, 경향성에 바탕을 둔 인간의 인지적 해석의 산물임을 밝힐 것이다.

4.1 형태 층위

본 장에서는 유표성, 합성법, 파생법을 중심으로 어떤 비대칭성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있다/없다’에서 유표성을 갖는 쪽을 살펴 그 원인을 찾아보고, 합성과 파생을 통한 새로운 단어 형성에 ‘있다/없다’의 기여도가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른지 아래에서 분석해보겠다.

4.1.1 유표성

언어체계에서 모든 구성 요소들은 모두 논리적으로 상반되는 두 개 대립에 의하여 존재한다. 즉, 하나는 어떤 속성의 존재이고 다른 하나는 그 속성의 부재이다. 인간의 인지체계는 세계를 범주화하여 거기에 언어형식을 붙일 때, 일반적인 것과 덜 일반적인 것의 차이를 덜 일반적인 것에 뭔가 표지를 더 달아 나타내었다⁶⁷⁾. 더 일반적인 것과 덜 일반적인 것을 알아보는 것도 어휘 의미 차이를 파악함에 있어서 중요하다.

〈표4-1〉 ‘있다/없다’의 유표성

	방식	있다(유)	없다(무)
유표성 68)	유/무 +	유신론, 유산계급, 유료, 유능, 유익, 유심, 유상, 유명, 유사, 유관, 유죄, 유병, 유기물, 유의미, 유표적	무신론, 무산계급, 무료, 무능, 무익, 무심, 무상, 무명, 무사, 무관, 무죄, 무병, 무기물, 무의미, 무표적, 무시, 무지, 무법자, 무학
	무		무자비, 무감각, 무기력, 무관계, 무시

67) A. Lehrer(1985:398~401)에서는 유표성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여덟 가지로 들고 있다.

1. 의문문에서 대립이 중화되는 쪽이 무표항이다.
2. 명사화에서 대립이 중화되는 쪽이 무표항이다.
3. 무표항만이 “three feet tall”에서처럼 양을 측정하는 구문에 사용될 수 있다.
4. 대립쌍의 한쪽에 반의 접사가 붙을 경우, 접사가 첨가된 쪽이 유표항이다.
5. 무표항만이 “Twice as old”에서처럼 비율을 나타내는 구문에 사용될 수 있다.
6. 무표항은 평가상 긍정적이며 유표항은 부정적이다.
7. 무표항은 크기, 신장, 무게 등에 대해서 더 많은 특질을 내포하며, 유표항은 소극적인 특질을 내포한다.
8. 비대칭 함의가 존재할 때, 무표항은 보다 덜 편파적이며, 보다 덜 단정적이다.

	+		협, 무계획, 무저항, 무가치, 무취미, 무감동, 무갈등, 무허가, 무자본, 무계급, 무책임, 무시, 무지, 무법자, 무조건, 무의식, 무한정, 무성의, 무도덕, 무질서, 무비판, 무사상, 무보수, 무협의, 무대책, 무원칙
무표성	0+	자비, 감각, 기력, 관계, 시험, 계획, 저항, 가치, 취미, 감동, 갈등, 허가, 자본, 계급, 책임, 조건, 의식, 한정, 성의, 도덕, 질서, 비판, 사상, 보수, 혐의, 대책, 원칙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다시피 ‘없다’의 ‘무’는 ‘있다’의 ‘유’보다 훨씬 유표적이다. 그것은 ‘무’는 ‘무’라고 밝혀야 그 뜻이 전달되지만 ‘유’는 굳이 밝히지 않아도 ‘유’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즉 자비, 감각, 기력, 관계, 시험, 계획 … 등으로만 표현해도 ‘있다’의 뜻으로 전달되어 굳어 불필요한 언어적 군더더기를 만들 필요가 없다. 하지만 ‘없다’의 뜻은 반드시 앞에 ‘무’를 붙여야 그 뜻이 정확히 전달된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다시피 ‘있다’가 유표적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있다’의 특별한 강조가 필요할 때, 혹은 무표적일 때 그 의미가 희미하여 전달이 안 될 경우이다. ‘유의미’, ‘유표적’ 등과 같이 강조가 필요했을 때는 전자의 경우이고, 표적을 떼면 한 음절 글자로 남아 ‘있다’의 의미를 완전히 담지 못하는 ‘유료’, ‘유능’, ‘유산계급’⁶⁹⁾ 등은 후자의 경우이다. 의미론적으로 설명하면, 유표성은 구체성과 관련이 있다. 두 대립 의미가 균형을 이루지 않는바 더 일반적인 것과 덜 일반적인 것의 위계를 형성한다. 무표적인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유표적인 것은 파생적이고, 보완적인 것이다. 기본적인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일반적인 것이고, 파생적이고, 보완적인 것은 부수적이고 특별한 것이다. ‘있다’가 무표성인 것은 ‘있다’가 ‘없다’보다 더 일반적이고 더 구체적인 뜻을 담

68) *유시/무시, *유지/무지(無知), *유법자/무법자, *유학/무학(無學)는 ‘없다’는 유표성을 띄지만 ‘있다’는 무표성도 유표성도 불가능하다. 본고는 ‘있다’와 ‘없다’ 중 유표성이 어디에 붙는지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했기에 여기에 관한 해명은 추후의 과제로 삼겠다.

69) ‘유산계급’, ‘유신론’은 ‘유산+계급’, ‘유신+론’ 구성이다. ‘유산’, ‘유신’에서 ‘유’를 떼면 한 음절만 남는다.

고 있고, ‘없다’는 덜 일반적이고 덜 구체적인 뜻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휘의 한 속성으로서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된 항은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항에 부정접사를 동반하는 것이 그 역의 경우보다 일반적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Greenberg 1966:52; Boucher and Osgood 1969:1-8). 이는 ‘있다/없다’의 유표성 원리에도 부합된다. 김동환(2013:353)에서도 “부정은 긍정보다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범언어적으로 부정은 긍정의 형태에 부정 접사가 붙는 것이 일반적이고, 부정의 형태는 긍정의 형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긍정의 형태보다 복잡하다.”고 했다. Lakoff & Johnson(1980:127)에서는 “형태의 많음은 내용의 많음이라는 개념적 은유를 통해 형태와 의미의 도상성 관계를 설명한다.”고 했고, 임지룡(1987:163)에서도 “사고의 복잡성은 표현의 복잡성을 반영하고, 일반적으로 사고과정에 있어서 부정이 긍정보다 복잡하므로 형태상으로도 부정의 평가를 받는 쪽이 복잡한 꼴을 취하게 됨은 당연한 일이다”고 했다. 이와 같은 유표성의 특성에 따른 “단어/무+단어”의 대립은 이런 일반적 특성에 잘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유표성의 ‘없다’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있다’에 비해 특별하고 복잡한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4.1.2 합성법

조어 능력에서 ‘있다/없다’는 비대칭을 이룬다. ‘있다/없다’는 추상 명사⁷⁰⁾ 혹은 부사와 결합하여 다양한 합성어를 형성한다. 합성어를 이루었다는 것은 원래의 의미가 탈색되어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였음을 의미하고 있다. 합성어는 두 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되는 바, 제일 마지막 단어가 핵어로 계승된다. ‘있다/없다’는 서술어 기능에 의해 합성어의 핵어로 작용하게 된다.

〈표4-2〉 ‘X+있다/없다’구성 합성어

구성	품사		합성어
‘없다’	형	명	낮없다 ⁷¹⁾ , 중없다, 종작없다, 대증없다, 버릇없다, 아랑곳없다.

70) 이승명(2003), 우형식(2008)에서도 ‘없다’와 결합하는 단어는 대부분 추상적인 의미를 띄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다.

구성	용사	사 +	보잘것없다, 열없다, 채신없다, 어처구니없다, 쓸데없다, 변함없다, 어이없다, 염치없다, 힘없다, 맥없다, 유감없다, 유례없다, 의지가지없다, 턱없다, 그지없다, 끊임없다, 난데없다, 무람없다, 문제없다, 변함없다, 볼품없다, 세상없다, 소용없다, 쓸모없다, 어림없다, 변함없다, 싹수없다, 쓸데없다, 형편없다, 가없다, 가량없다, 맛없다, 꾸김없다, 구성없다, 간곳없다, 구성없다, 기신없다, 기탄없다, 꾸김없다, 끝없다, 두말없다, 두미없다, 두서없다, 허물없다, 한없다, 하잘것없다, 피차없다, 태없다, 치신없다, 치신머리없다, 찼없다, 꺾말없다, 지각없다, 주책없다, 자발없다, 자발머리없다, 일없다, 인정사정없다, 위불없다, 위불위없다, 유감없다, 윤척없다, 외수없다, 외상없다, 온데간데없다, 예제없다, 영락없다, 염의없다, 여지없다, 여부없다, 엉터리없다, 일췌없다, 어김없다, 아낌없다, 얹치없다, 아랑곳없다, 실없다, 스스럼없다, 세월없다, 성명없다, 속없다, 속없다, 수없다, 분수없다, 분별없다, 빈틈없다, 빠짐없다, 볼품없다, 본데없다, 볼썽없다, 올테갈데없다, 간단없다, 갈데없다, 간데없다, 막힘없다, 끊임없다, 다름없다, 다함없다, 골없다, 거침없다
		부사 +	꼼짝없다, 까딱없다, 끄떡없다, 다시없다, 가뭇없다, 더없다
		불명 +	느닷없다, 부질없다, 하릴없다, 개단없다, 거추없다, 귀성없다, 뜬금없다, 하릴없다, 하염없다, 오줄없다, 여들없다, 서슴없다,
‘있/없’다 구성	형용사	명사 +	값없다/값있다, 멋없다/멋있다, 재미없다/재미있다, 맛없다/맛있다, 관계없다/관계있다, 상관없다/상관있다
‘있다’ 구성	형용사	불명 +	지멸있다
	동사	부사 +	가만있다

위의 표는 ‘없다’와만 합성관계를 이루는 합성어, ‘있다’와 ‘없다’ 모두와 합성관계를 이루는 합성어, ‘있다’와만 합성관계를 이루는 합성어 실례들이다. 위의 실례들로부터 ‘없다’ 구성의 합성어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즉, 실체가 없는 추성단어와의 결합에서 ‘없다’는 ‘있다’보다 훨씬 생산적이다. ‘없다’ 구성의 합성어가 많다는 것은 ‘없다’ 구성의 용어가 의미적 변화를 많이 일으켰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진정한 합성어는 단순 의미의 합이 아닌 단일적이든 다의적이든 의미적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에 주로 해당하기 때문이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있다/없다’ 구성의 합성어는 ‘가만있다’를 제외하고 모두 형용사이고, ‘명사+있다/없다’의 구성이 가장 많다. ‘없다’와 결합하는 어기들은 대부분 인간의 정신공간에 존재하는 실체 비존재 사물 또는 현상들이다. 하여 ‘없다’ 구성 합성어의 의미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ㄱ.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존재한다(긍정) → 의미 변화 일으키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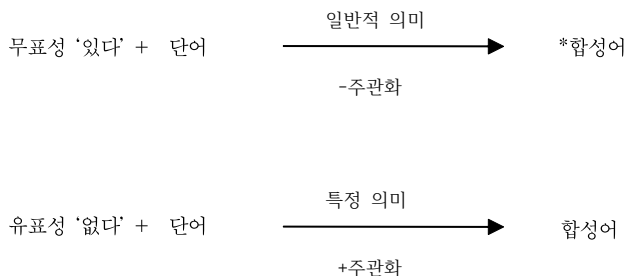
ㄴ.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존재하지 않는다(부정) → 의미 변화 일으킴

즉, 실체 비존재 사물 또는 현상들이 비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없다’와 결합하는 것은 실체 비존재의 사물이 없다 또는 실체 비존재 사물에 대하여 부정하는 뜻으로 작용하므로 ‘비존재’로부터 ‘존재’로 되기 위해 의미변화를 쉽게 일으킨다. ‘있다’는 실체 비존재 사물 또는 현상과 결합하더라도 ‘존재’의 뜻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물 또는 현상 존재라는 단일적인 의미를 표현하므로 의미 변화를 가져오지 않아 합성어를 형성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⁷²⁾

71) ‘낮없다’에서 ‘낮’은 ‘체면’이라는 뜻이므로 역시 추상명사에 속한다.

72) 이승명(2013:135)에서는 추상명사나 비자립명사가 내용에 구체성이 없고, 그 질이 불확정 상태이면 질량 측정에 객관성이 없어 ‘없다’를 지향하는 것이 ‘N’의 본질 유지에 더 알맞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때의 ‘N’을 부정 지향어라하고 이런 의미 구조를 부정 지향 의미구조라고 한다 하였다. 우형식(2008:196)에서도 ‘없다’가 다른 형태와 결합하여 복합어와 같은 더 큰 구성체를 이룰 때, 선행 형태가 ‘있다’와의 결합에서 배타적인 특징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 선행 형태는 어휘적으로 추상적이며 부정적인 의미를 띠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였다. 이 두 논의는 ‘없다’ 구성 합성어가 생산성이 높은 원인을 모두 의미 변화에 초점을 두지 않고 선행 단어의 의미적 특성에서 찾았다. 송혜란(2011:41)에서는 선행 단어와 ‘있다/없다’의 의미자질에 초점을 두고, ‘없다’의 선행 어기는 대부분 명사류로 [+존재]라는 의미 자질이 있고 이 단어가 [+존재]의 ‘있다’와 결합하면 둘 다 무표적이어서 합성어를 형성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존재]의 무표적

또한 합성어를 이룬 단어들의 공통된 특징은 모두 정도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있다’는 많은 경우에 무표적인데, 이는 ‘있다’는 특별히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굳이 유표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유표적인 ‘없다’와 달리 조어력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있다/없다’의 합성관계 형성 과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위의 설명에서 ‘있다’는 무표적이기 때문에 초점화 되지 않아 새로운 의미적 구조의 형성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와 반면에 유표성의 ‘없다’의 특정 의미는 보완적이고 부수적인 의미로 특정의미와 전체의미 사이에 비교의 인지과정이 발생하여 주관화가 쉽게 일어난다. 따라서 전경 의미와 배경 의미가 구분되고 특정의미가 초점화되어 합성과정에서 새로운 의미구조가 형성되어 합성어가 발생하게 된다.⁷³⁾ 왜냐하면 합성어라고 함은 주로 의미적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이다.

위의 표에서 ‘있다/없다’가 모두 합성어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있다/없다’가 일부 제한된 상황에서 모두 유표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합성어에서 ‘없다’와의 결합이 어려운 것은 이 상황에서는 ‘있다’가 유표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가만있다’는 ‘조용히 있다’는 뜻으로 일반적인 경우가 ‘조용히 있지 않는’ 경우이므로 ‘있다’ 구성이 유표성을 가진다. 또한 ‘지멸있다’

선행 단어와 [-존재]의 유표적 ‘없다’가 결합하면 의미 변화가 일어나 새로운 합성어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73) ‘돈이 있다/돈이 없다, 지위가 있다/지위가 없다’ 등이 합성어를 이루지 못하는 원인은 ‘있다/없다’의 ‘많다/적다’, ‘높다/낮다’의 의미는 이미 널리 알려진 의미로서 비교의 심적 주사가 일어난다하더라도 누구나 유추 가능한 의미에 속하므로 새로운 의미가 필요되는 ‘합성어’ 형성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의 사전적 의미는 ‘꾸준하고 성실하다. 또는 직심스럽고 참을성이 있다.’로 일반적으로 이런 성질을 가진 사람은 현실적으로는 매우 보기 드문 일에 속한다. 따라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유표성을 지닌 ‘있다’가 사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조어능력 면에서 볼 때 ‘있다/없다’는 비대칭적이다.

‘있다/없다’는 서술어로도 사용되지만 부사어로도 많이 사용된다. 다음은 ‘있이/없이’의 『표준국어대사전』 속 의미와 그 예문이다.

〈표4-3〉 ‘있이/없이’의 의미 및 예문

단어	『표준국어대사전』 속 의미	예문	반의어
있이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있이 산다고 너무 자랑하지 마라.	없이
없이	「1」 어떤 일이나 현상이나 증상 따위가 생겨 나타나지 않게.	사고 없이 공사를 끝내게 되어 다행이다.	
	「2」 어떤 것이 많지 않은 상태로.	초대를 해 놓고 찬 없이 밥상을 차려 정말 죄송합니다.	
	「3」 재물이 넉넉하지 못하여 가난하게.	없이 사는 설움은 겪어 보지 않으면 모른다.	있이
	「4」 어떤 일이 가능하지 않게.	설움이 견잡을 수 없이 밀려왔다.	
	「5」 사람이나 사물 또는 어떤 사실이나 현상 따위가 어떤 곳에 자리나 공간을 차지하고 존재하지 않게.	나는 너 없이 못 살겠다.	
	「6」 어떤 물체를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자격이나 능력 따위를 갖추고 있지 않게.	그는 실력도 없이 자기 자랑만 한다.	
	「7」 일정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존재하지 않게.	그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부모 없이 자랐다.	
	「8」 어떤 사람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게.	아무 일도 없이 그저 세월만 흘러가고 있었다.	
	「9」 이유, 근거, 구실, 가능성 따위가 성립되지 않게.	아무 근거도 없이 남을 모함하지 마십시오.	
	「10」 상하, 좌우, 위계 따위가	그는 위아래도 없이 아무에게나 반	

	구별되지 않게.	말을 한다.	
--	----------	--------	--

위의 표에서 부사어로 사용될 때는 의미가 대칭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없이’는 ‘있이’에 비해 많은 의미로 확장되었다⁷⁴⁾. ‘없이’와 ‘있이’는 추상적 재물을 나타내는 의미에서만 대립이 실현된다.

‘없이’는 ‘없다’와 마찬가지로 추상 단어와의 결합이 자유로워 합성어로도 많이 사용된다. 그 예문은 다음과 같다.

- (1) ㄱ. 처음에는 상대가 양반이어서 반말 쓰기에 저항을 느꼈던 홍이도 이제는 스럼없이/*있이 동생 대하듯 했다.
 ㄴ. 어둠이 나를 바짝 에워쌌어도 주위는 가없이/*있이 널브러진 느낌이었다.
 ㄷ. 주인여자의 인사를 뒤로 하고 그는 힘없이/*있이 걸음을 옮겼다.
 ㄹ. 그 바다가 있는 곳이 내 고향이고 지금 눈앞에 한없이/*있이 뻗어 간 양천의 가로수에는 가을이 있었다.
 ㅁ. 아내는 하루 종일 끊임없이/*있이 잔소리를 했다.
 ㅂ. 모습은 달라졌어도 주갑의 한 맺힌 목소리는 변함없이/*있이 청아하고 보잘것없는 한 인간이 홀연 고귀한 모습으로 주변을 압도한다.

‘있이’는 합성어로의 실현이 어렵지만 문학작품에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외에 ‘추상적 사물이나 현상의 존재’의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 그 예문은 다음과 같다.

- (2) ㄱ. 웃음이 나오니 장하다, 장해! 이 자석아, 사람이 모자라도 푼수 있이 모자라야 뽕신 소리도 듣는 기라. (푼수 없이)
 ㄴ. 좀 있이 산다고 너무 거들먹거리지 마라. (좀 없이 산다)
 ㄷ. 이윽고 초장이 끝을 홍 있이 몰아치는 바람에, 윤 직원 영감은 담뱃대를 물고 모로 따악 드러누워서 듣고 있었다. (홍 없이)
 ㄹ. 그 웁음 없이 사는 것이 웁음 있이 죽는 것보다 못하다. (웁음 없이)
 ㅁ. 발전을 최소한 삼십년은 앞땡겼단 말이 공공연허니 나올 정도니깐 만약에

74) ‘없이/있이’는 접미사 ‘-이’에 의한 파생과 앞 단어와의 합성을 다 겪었지만 ‘-없다’형 합성어는 이미 형태적 측면에서 논의되었고, 여기서는 부사어로서 ‘-게’형 부사어와 함께 다루어 ‘있다/없다’의 비대칭성을 알아보겠다.

음모설이 사실이라면 그 음모는 아주 본때 있이 성공을 거둔 심이지
 나. 그녀는 자신이 자식을 학교에 보낼 만한 형세가 있이 된 것을 무엇보다 기
 뻔하였다

송혜란(2011:31)에서는 “‘없다’의 합성어에 대부분 부사형 어미 ‘-이’에 의
 한 부사화가 가능하고, ‘X+없다’ 구조의 용언들이 서술어로서의 기능보다는 관
 형형이나 ‘-이’에 의한 부사어로서 문장에 나타나는 경향성이 강하다.”고 지적
 하였다. 우형식(2008:200)에서도 “‘없다’ 구성은 합성된 형태에 따라서는 종
 결형을 쓰이는 것이 극히 제약되어 있다.”고 했다⁷⁵⁾. 따라서 ‘없이’형 부사어
 는 합성어의 쓰임에서 매우 생산적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예문에서와 같이 ‘있이’ 구성은 합성어를 이루지 않는다. 예문에서 ‘있
 이’와 ‘없이’ 구성은 대립 불가능이다. ‘있이’형 합성어가 형성이 안 되는 것은 ‘
 있다’형 합성어와 마찬가지로 ‘존재’의 객관적 의미로만 전달되어 의미적 변화
 가 일어나지 않고 또한 ‘있이’는 무표적인 것으로 굳이 안 써도 그 존재가 인식
 되는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술어의 내용을 한정하
 는 역할을 하는 부사어로는 크게 작용 안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없다’는 대체할
 뜻을 지닌 판말이 발달되지 않은 반면, ‘있다’는 움직씨·그림씨 두루 쓰여 ‘멋지

75) 우형식 (2008:200)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를 실례로 들고 설명하였다.

- 가. 오냐, 죽은 사람은 하릴없다.
- 나. 주위를 살피던 그는 하릴없다는 듯 운전기사에게 물었다.
- 다. 노인은 하릴없는 질문을 하고 있었다.
- 라. 동물들은 어쩌면 이 세상의 하릴없는 욕망을 비웃고 있는지도 모른다.
- 마. 나는 하릴없이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 바. 그는 하릴없이 건들거리며 복덕방 주위를 맴돌았다.

위 (가)에서처럼 ‘하릴없다’는 의고적이거나 내포된 종결형으로 한정되고, 실제로는
 주로 (다-라)의 관형사형 ‘하릴없는’이나 (마-바)의 부사형 ‘하릴없이’로 나타난다. 이
 것은 ‘없다’는 결합된 합성어가 문장 안에서 주로 수식어로 나타남을 뜻한다. 즉 ‘없
 다’가 결합된 합성어는 성상형용사와 같은 특성을 지니면서 의미적으로는 부정의 뜻
 을 지니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체언과 용언에 대해 부정적 성상성(性狀性)을
 더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맛나다'처럼 '나다·지다·좋다·차다' 따위 주변 말로 대체되어 상태나 움직임을 강조할 때가 많다.

'없다/있다'가 부사적으로 쓰일 때, '-게'형과 '-이'형이 모두 나타나지만 비대칭적이다.

(3) ㄱ.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맛없게/맛있게 먹으면 안 된다.

ㄴ. 그는 식은 홍차를 맛없이/*맛있이 마시고 있는 성호를 건너다보며 생각했다.

(4) ㄱ. 지난 원주 대회에서 멋없게/멋있게 너무 빨리 저서 식음을 전폐했다.

ㄴ. 투박한 실내에 멋없이/*멋있이 길게 배치된 탁자와 의자는 그 옛날 도서관이나 학교의 구내식당을 떠올리게 한다.

(5) ㄱ. 꼼꼼히 정독하시고 어김없게/*어김있게 진행해야 원하는 목표 이상의 것을 얻으실 수 있다.

ㄴ. 매일같이 쏟아지는 사회뉴스에 어김없이/*어김있이 나오는 뉴스 중 하나가 목사의 성추행, 성폭력, 횡령, 세습이다.

(6) ㄱ. 실제 사건과 통계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이유는 검찰통계 시스템의 목적이 통계에 있지 않고 사건의 접수와 처리를 빠짐없게/*빠짐있게 하도록 하는 업무처리에 있다.

ㄴ. 지역 종류 막론하고 아파트 매매가 되었다면 하나도 빠짐없이/*빠짐있이 최소 60일 후에는 국토부에서 실거래가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없이'형 부사어는 성상부사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문장에서 주로 동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있이'형 부사어는 형용사적 특징이 약하기에 성상부사의 역할을 하기 힘든 것이 생산성이 낮은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게'형 부사어와 '-이'형 부사어의 차이점으로, '-게'형은 문장 또는 구절이 표현하는 사태의 결과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고, '-이'형은 용언이 표현하는 상태나 동작을 직접적으로 한정한다는 면에서 구별된다(우형식 2008:201). 이러한 차이점은 '있게'형 부사어와 '있이'형 부사어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있다'의 '가득함'은 사태의 결과에 대한 화자의 태도로 나타날 수

있지만 찾기 때문에 상태나 동작을 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없다’의 합성어가 발달된 영향으로 그 부사형도 ‘있다’에 비해 훨씬 생산적이다. 또한 ‘없다’는 형용사적이어서 부사화가 훨씬 생산적인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다른 하나는 ‘없다’는 ‘비다’의 의미가 있어 ‘차다’의 의미로부터 서술어의 상태와 동작을 제한, 부정할 수 있기에 훨씬 유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의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4.1.3 파생법

4.1.3.1 -애다

‘있다/없다’는 사동 표현에서 비대칭성을 이룬다. 사동표현으로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있다.

〈표4-4〉 ‘있다/없다’의 사동표현

사동형1	사동형2	사동 표현의 의미
*있애다	있게 하다	없는 것을 있게 하다.
없애다	없게 하다	있는 것을 없게 하다.

‘없애다’는 형용사 ‘없다’에 사동 접미사 ‘애’가 결합되어 동사가 된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의 구체적인 뜻은 다음과 같다.

〈표4-5〉 ‘없애다’의 『표준국어대사전』 속 의미

	『표준국어대사전』 속 의미	예문
없애다	‘없다-어떤 일이나 현상이나 증상 따위가 생겨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다’의 사동사.	가.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노력해야 한다. 나. 음주 운전을 없애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
	‘없다-사람이나 사물 또는 어떤 사실이나 증상 따위가 어떤 곳에 자리나 공간을 차지하고 존재하지	가. 남녀 차별을 없애다 나. 방에서 침대를 없애고 책상을 들여놓았다.

	않는 상태이다'의 사동사.	
	'없다-어떤 물체를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자격이나 능력 따위를 갖추지 않은 상태이다'의 사동사.	그는 사업을 한다고 재산을 몽땅 없앴다.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죽이다.	가. 해충을 없애다. 나. 모기를 완전히 없애려면 살충제를 뿌려야 한다. 다. 당장 그자를 없애 버려라.

‘없애다’는 ‘없다’의 사동형으로 일상생활과 문학에서 널리 쓰이는 말이다. 하지만 ‘*있애다’ 단어는 형성이 되지 않았다. ‘없애다’는 위의 표와 같이 여러 뜻이 있는데 하나로 종합하면 ‘존재, 소유하던 사물, 현상을 비존재 되게 하는’ 뜻으로 많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초래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있애다’의 경우는 ‘없애다’와 반대로 ‘비존재 사물, 현상을 존재되게 하는’ 뜻으로, 인위적인 행위가 관여되는 사동의 표현 방식에서 인간의 능력 제한이라는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신적 존재가 아닌 이상 ‘비존재’에서 ‘존재’를 실현하기 힘든 원인으로 ‘있애다’의 단어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없애는 것은 인위적으로 가능하고, 있게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있애다’는 중심 의미에 바탕을 둔 사동형이다. 따라서 인위적인 행위가 필요되는 사동형 ‘*있애다’는 형성이 되지 않는 것이다. 반면 ‘없애다’는 중심 의미와 확장 의미 모두에 적용된다.

- (7) ㄱ. 저런 똥똥하기만 하고 뒤룩거리기만 하는 욕심쟁이는 세상에서 없애 버려야 우리들이 잘살 수 있는 것이다.
- ㄴ. 기다림과 정실(情實)이 없는 사회 컴퓨터는 또한 인간에게 기다리는 괴로움을 없애준다.
- ㄷ. 자네들 청년들은 스모그를 깨끗하게 없애 조국의 창공을 영원히 맑게 간직하겠다는 기개를 갖기 바라네.
- ㄹ. 미국에선 TV중독증이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해 많은 사람들이 ‘TV 끄기 운동’에서부터 심지어 ‘TV 없애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ㅁ. 암을 치료하기 위해선 암의 가장 큰 원인인 일산화탄소 정체와 괴혈병, 불포화된 지방, 단백질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
- ㅂ.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 후춧가루가 냉을 없애 주는 사랑의 묘약이듯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 고춧가루는 소주에 타 마심으로써 감기를 떼는 묘약이었다.

위의 예문(7ㄱ-ㄴ)에서 '없애다'와 맞물리는 대상은 '욕심쟁이, 괴로움, 스모그, TV, 일산화탄소 정체와 괴혈병, 불포화된 지방, 단백질, 냉'이다. 이러한 것들은 인위적인 제거가 가능한 것으로 부정적인 요소를 없애서 긍정적으로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긍정적인 것을 선호하는 인지 경향과 일치한다. 따라서 '없애다'는 의미상 적극적이고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있애다'는 비존재에서 존재로의 의미적 전환이고, '없애다'의 역의미로 작용하려면 긍정적인 요소를 있게 하여 부정적으로 만들어준다는 의미로 작용해야 하므로 우리의 인지적 선호 경향과 어긋나는 등 불가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아래 '있다/없다'의 통사적 사동 '-있게/없게-'와 비교해서 형태적 사동의 의미를 명확히 해 보도록 하자.

(8) ㄱ. 장자여! 설사 몸에는 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병이 없게 하라.

(병을 없애라.)

ㄴ. 은혜와 원한을 모두 없게 하라. (없애라)

ㄷ. 사방 100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없애라.)

ㄹ.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서 한 사람이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없애라)

(9) ㄱ. 마땅히 그 말을 고치되 일인이 각 통상 경계에서만 물화를 제조한다 하여 권리에 한정이 있게 하라.

ㄴ. 황정을 오랫동안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젊은 사람의 얼굴빛과 같이 얼굴을 늙지 않고 그대로 있게 하며, 수명을 연장하여 늙지 않게 하고 배고픔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고 전해집니다.

ㄷ. 문화, 사회, 종교, 윤리의 제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들이 제각기 자기의 본연의 참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장소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믿어진다.

ㄹ. 방언을 하되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위의 예문 (8-9)에서는 '있다/없다'의 어근에 사동 표지 '-게 하다'가 결합

되어 사동 구문을 형성한다. ‘-게 하다’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서 ‘-게 하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의 행동을 시키거나 앞말이 뜻하는 상태가 되도록 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우선 ‘없게 하다’와 ‘없애다’의 사동 구문을 놓고 볼 때 의미에 차이가 없지 않다. 기본적으로 ‘없게 하다’는 간접 사동을 나타내고 ‘없애다’는 직접 사동을 나타낸다⁷⁶⁾. 하여 예문 (8ㄱ-ㄴ)에서처럼 사동주가 직접적으로 행위에 참여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는 상황은 ‘없애다’와 ‘없게 하다’가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8ㄷ-ㄹ)에서처럼 사동주가 직접적으로 행위에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하면 의미가 변화하는 경우에는 ‘-게 하다’의 사동 표현만 가능하다. 아무튼 ‘없애다’는 ‘없게 하다’에 비하여 비슷한 의미로 해석될지라도 사동주의 행위가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사역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원리는 ‘*있애다’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있애다’가 ‘없애다’의 대립 쌍으로 놓고 볼 때 의미적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다’는 뜻이므로 이는 사동주의 힘이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작용하여 실현할 수 없는 것이다.

예문 (9)에서 ‘있게 하-’가 가능한 것은 의미적으로 똑같은 사동이지만 이는 사동주가 직접 행위에 참여하지 않고 어떤 행위를 하도록 야기만 하는 사동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예문 (9ㄱ)에서 ‘권리의 한정’에, 예문 (9ㄴ)에서 ‘얼굴이 늙지 않고 그대로 있게 하는 데’, (9ㄷ)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데’, 예문 (9ㄹ)에서 ‘품위와 질서’에 사동주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뜻하는 결과만 이루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여 결과적으로 똑같은 사동이지만 그 과정에 사동주의 참여 여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에 ‘-게 있-’은 많은 구문에서 가능하고 ‘*있애다’는 사동주의 직접적인 참여로 실현될 수 없는 의미이기에 단어로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6) 간접 사동이란 사동주는 피사동주가 어떤 행위를 하도록 야기하기만 할 뿐 사동주 자신이 그 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사동이고, 직접 사동이란 사동주 자신이 행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어머니가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를 직접 사동으로 해석한다면, 어머니가 숟가락을 쥐고 직접 밥을 먹였다는 뜻이 된다. 반면에 ‘어머니가 아이에게 밥을 먹게 했다’를 간접 사동으로 해석한다면, 어머니가 직접 밥을 떠먹여 준 것은 아니고 밥을 먹을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는 뜻이 된다. (이익섭·채완 1999:313)

〈표4-6〉 ‘있다/없다’ 사동표현의 구체적 의미

사동 표현		구체적 의미
직접 사동	* 있애다	사동주가 행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없으므로 불가능
	없애다	사동주가 행위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결과를 실현
간접 사동	있게 하다	사동주가 행위에 참여하지 않고 간접 참여하여 결과를 실현
	없게 하다	사동주가 행위에 참여하지 않고 간접 참여하여 결과를 실현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있다/없다’는 형태적 사동에서는 비대칭을 이루지만 통사적 사동에서 대칭적이다. 형태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의 구체적 의미의 차이점을 분석하면 전자는 ‘사동주의 직접 참여’이고 후자는 ‘사동주의 간접 참여’이다. 인지의미론의 관점에서 의미 구조는 체험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체험주의는 신체적 인지가 중심이 되는 바, 신체의 직접적인 참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있애다’의 경우 의미상 체험이 불가능하기에 형성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없애다’는 ‘없다’에서 파생된 것으로 의미상으로는 ‘있다’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하여 ‘있는’ 것을 ‘비존재’ 상태로 되게 하는 것은 전제 의미를 바탕으로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있다’는 원형 단어로서 중심 의미가 바탕 의미인 바, ‘없다’라는 전제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없다’로부터 ‘있다’의 의미 실현이 어렵다. 여기서 원형 단어는 확고부동한 성질을 갖추어 변형을 이루어 새로운 단어 생성이 어렵지 않을까 추측해 본다(합성어에서도 마찬가지임).

4.1.3.2 - 어 지다.

‘있다/없다’는 일상생활에서나 문학작품에서나 형용사적 표현으로 많이 사용된다⁷⁷⁾. 앞에서 기술하다시피 형용사 ‘있다’는 시간의 흐름이 적용되면 동사로 파생된다. ‘없다’는 불변의 상태의 성질만 간직하고 있어 동사로 파생되지 않는다. 하지만 ‘없다’는 형태적 파생을 많이 일으킨다. ‘없어지다’가 그 예이다. ‘없

77) 『표준국어대사전』 속 ‘있다’는 형용사로서의 의미가 가장 많고, ‘없다’는 형용사로만 적혀있다. 그리고 김한샘(2005)에서의 어휘 빈도 조사에서 ‘있다’는 품사적으로 볼 때, 보조동사, 형용사, 동사 순으로 활성화되었다.

어지다’는 ‘없다+어 지다’의 구성으로서 동사에 속한다. 그에 대응되는 ‘*있어 지다’는 형성되지 않았다.

〈표 4-7〉 ‘없어지다’의 『표준국어대사전』 속 의미

단어	『표준국어대사전』 속 의미
없어지다	1. 어떤 일이나 현상이나 증상 따위가 나타나지 않게 되다. 2. 사람이나 사물 또는 어떤 사실이나 현상 따위가 어떤 곳에 자리나 공간을 차지하고 존재하지 않게 되다. 3. (이유, 근거, 구실, 가능성 따위와 같은 단어와 함께 쓰여) 성립되지 않다. 4. (주로 명령형으로 쓰여) 그 자리를 떠서 보이지 않게 되다.
*있어지다	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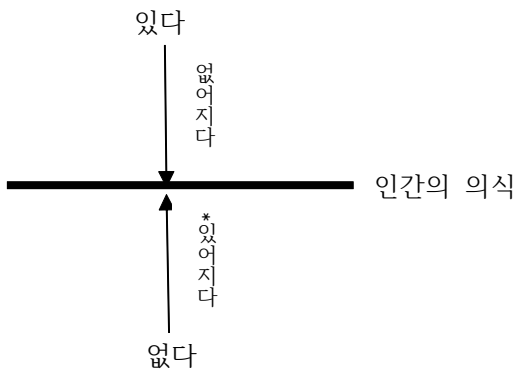
위의 뜻에 해당하는 예문은 다음과 같다.

- (10) ㄱ. 백성들은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먼 곳까지 나르는 노역이 없어져, 조 부사의 선정을 높이 치하했다지 않습니까? (의미1에 해당)
- ㄴ. 언제면 이런 나쁜 관행이 없어질 것인지, 정말 개탄스럽다. (의미1에 해당)
- ㄷ. 입학 첫해에 나의 대학이 없어지다니? 도대체 그것은 잘 되는 일인가 잘못 되는 일인가? (의미2에 해당)
- ㄹ. 전설은 누가 만들어 주고? 산에는 사람이 없어져 가는데. (의미2에 해당)
- ㅁ. 노조의 요구가 수용되어서 파업을 할 이유가 없어졌다. (의미3에 해당)
- ㅂ. 이제 더 붙들어 둘 구실도 염치도 없어져 내일이면 모녀가 개성으로 내려가기로 한 날 밤이었다. (의미3에 해당)
- ㅅ. 가거라, 이놈아. 내 앞에서 썩 없어져! (의미4에 해당)
- ㅇ. 라디오가 어디로 없어졌지? (의미4에 해당)

형용사에 ‘-어지다’가 붙으면 동사적 성격을 가진다. ‘없어지다’는 있던 물건이 사라짐을 나타낸다. 위의 예문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노역, 관행, 대학, 사람, 이유, 염치, 이놈, 라디오’ 등은 이미 그 존재가 인정된 것으로서 이것은 어떤 외적 혹은 내적인 힘에 의하여 존재로부터 비존재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없어지다’로 표현하였다. 여기에 관여되는 역량은 인간의 능력 혹은 힘이다. 즉 인위적인 요소가 작용된 결과이다.

그러면 ‘*있어지다’는 ‘없어지다’의 반대로 없던 물건이 나타남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비존재로부터 존재의 방향으로 변화하는 의미를 가질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비존재’는 우리의 의식 아래 있는 사물로서 그것의 변화는 우리의 눈과 감각으로 감지할 수 없는 것들이다. 만약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사물이라면 그것은 우리 의식 위에 있는 사물로서 ‘비존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나타난다. 즉, 우리의 언어 표현으로 가능한 것은 모두 의식 위의 사물 혹은 현상으로서 ‘존재’를 전제로 하여 말이나 글로 표현된다. ‘비존재’를 전제로 하는 한 그에 관한 언어 표현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보여주면 다음과 같다.

〈그림4-1〉 ‘있어지다’와 ‘없어지다’ 인지 모형



위의 그림에서 보다시피 ‘없어지다’는 ‘있다’에서 ‘없다’로의 전환을 나타내는 바, 인간의 의식 위의 활동으로 인지된다. 하지만 ‘있어지다’는 ‘없다’에서 ‘있다’에로의 전환을 나타내는 바, ‘없다’ 자체가 인간의 의식 아래의 활동이므로 ‘있어지다’ 자체를 인지할 수 없다. 따라서 언어적으로 부호화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단어의 의미는 인간의 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있어지다’는 인간의 체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에 창조되거나 개념화되기 힘든 것이다.

‘없어지다’와 ‘*있어지다’의 형성에서 우리는 ‘없다’는 인위적인 요소의 영향을 쉽게 받고 ‘있다’는 인위적인 요소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고 있음을 도출할

수 있다. 인위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은 ‘있다’의 확장 영역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있다’는 ‘없다’에 비하여 더 원형적이고 고정적이고 안정적이어서 형태의 변이를 겪지 않고, 또한 그 원형적 의미가 원초적인 사물, 현상, 사실의 창조주의적 존재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4.2 통사 층위

아래 통사 층위에서 ‘있다/없다’가 어떤 비대칭성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주로 기능어, 의문문, 높임법에서 그 비대칭성을 설명할 것인데 이를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 그 형성 원인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4.2.1 기능어

언어는 끊임없이 변한다. 본래의 범주와 의미가 탈색되어 새로운 범주와 의미가 생겨나게 된다. 내용어의 문법화가 바로 그 예이다. 문법화란 어휘에서 문법적인 지위로 혹은 문법에서 더 문법적인 지위로 발전하는 현상을 말한다. Croft(2003:253)에 따르면, 문법화는 단일 방향적이고 순환적이다. 문법화의 일방향성은 그 방향이 어휘적인 것에서 문법적인 것, 즉 내용어에서 기능어로 이루어지며 그 역은 아니라는 점이다. 문법화의 순환성은 언어 단위가 내용어로 언어에 들어가서 문법화의 과정을 통해 기능어로 진화하고, 결국은 소실 과정을 통해 언어를 떠나며 새로운 내용어로 대체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있다’는 전자에 속한다. 문법화의 과정은 단어의 의미와 기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의미의 소실, 약화, 추가와 상관되기 때문이다. ‘있다’의 기능어로 자리매김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것으로는 ‘-어 있다’, ‘-고 있다’가 있다.

4.2.1.1 -어 있다

(11) ㄱ. 편지나 책이 책상 위에 놓여 있다 해도 금세 손이 가고 그것을 뜯어보고

싫은 충동이 생겨나지 않는다.

ㄴ. 우리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대학문을 확립하지 못해 뒤떨어지고 혼란에 빠져 있다.

ㄷ. 교장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학부형으로부터 별의별 내용의 항의 전화가 다 걸려옵니다.

ㄹ. 오긴 어딜 와, 이 새까! 3일 동안 문 앞에 서 있다 나가!

ㅁ.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어 있다’의 의미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변화가 끝난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말’로 되어 있다. 예문 (11)는 ‘-에...-어 있다’의 구성으로 행위나 현상이 어떤 공간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즉 ‘책상 위에 편지나 책이 놓여 있는 상태’, ‘혼란에 빠진 상태’, ‘교장 직책에 오른 상태’, ‘문 앞에 서있는 상태’, ‘도착해 있는 상태’가 예문 (11) ‘-어 있다’ 구문의 구체적 의미이다. 어떤 행위나 현상이 어떤 공간에 머문다는 것은 행위 개념이 공간 개념으로 의미가 확장되었음을 의미하고, 그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은 ‘존재’나 ‘사건 발생’의 의미와는 구분되는 또 다른 새로운 영역의 의미적 범주로 확장되었음을 말한다. ‘-어 있다’ 구문은 많은 동사와 결합하여 일반적이고 규칙적인 파생을 많이 일으킨다. 이는 어휘적 의미가 탈색되어 본용언의 보충적의미로 작용하는 기능어로 되었음을 시사한다. 기능어로서의 ‘있다’는 ‘없다’와 반의 관계를 이루지 못한다. 이는 ‘없다’는 기능어로 확장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4.2.1.2 - 고 있다

(12) ㄱ. 이제 올해 년의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다. 한 해를 담담히 되돌아보는 좌선을 해보자.

ㄴ. 정부와 현대 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타협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ㄷ. 유교적 여성관은 소멸되지 않고 금기담을 통해서 오늘날 여성의 삶을 자연스럽게 규제하고 있다.

ㄹ. 한동안 공사가 지연됐던 서울지하철공사와 부산지하철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3) ㄱ. 그는 신문을 본다.

ㄴ. 그는 신문을 보고 있다.

(14) ㄱ. 그는 신문을 안 본다.

ㄴ. 그는 신문을 안 보고 있다.

(12ㄱ-ㄴ)는 행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나 그 행동의 결과가 지속됨을 나타낸다. 즉 ‘해가 저무는 것’, ‘어려움의 결과’, ‘규제의 결과’, ‘공사 행위’가 진행되거나 지속됨을 나타낸다. ‘어떤 행위의 진행 중 혹은 지속 중’은 시간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위 예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 규제하고 있고’, ‘현재 근무하고 있고’,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 있다’ 구문은 사건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황이 아닌 제한된 시간 내의 상황을 가리키고 있다. 이는 예문 (13)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다. (13ㄱ)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행위’ 혹은 ‘현재 행위’를 가리키는 중의성을 가지고 있고 (13ㄴ)는 단지 ‘현재의 행위’를 나타낸다. (14ㄱ)는 단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행위를 가리킬 수 있는 반면 (14ㄴ)는 ‘현재의 행위’를 가리킨다. (14ㄴ)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14ㄴ)는 사건의 진행상이나 결과의 지속상⁷⁸⁾을 나타내지 않고 ‘현재’라는 제한된 시간 내의 한 부분에 대한 서술에 의미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⁷⁹⁾. 여기서 ‘-고 있다’는 사실상 행동의 진행, 결과의 지속보다는 제한된 시간 내의 어느 한 점 혹은 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고 있다’는 많은 동사와 결합하여 일반적이고 범언어적이고 규칙적인 파생을 일으키며 아울러 본 용언의 보충적의미로 작용하고 있다. 시간성을 나타내는 추상개념의 ‘있다’가 기능어로 확장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고 있다’ 보조동사는 ‘없다’로 대체 불가능하다. ‘없다’는 기능어로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있다’의 ‘-어 있다’와 ‘-고 있다’로의 문법화는 ‘없다’에서는 이루지지 않았다.

78) ‘신문을 안 보는 것’을 결과라고 할 수 없다.

79) 김상대(1991:21)에서는 동작의 진행은 기준시를 중심으로 제한된 기간에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의미할 뿐, 그것이 시간의 폭이 확장될 때 거기서 어떠한 것이란 암시나 보장은 전연 없다. 그러므로 동작의 진행형은 보편적 사실을 나타낼 근거는 없으며, 어쩔 수 없이 일시적 잠정적 사실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있다’는 공간과 시간을 떠나서는 표현하기 어렵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어 있다’는 어떤 결과적 상태가 어떤 공간에 머문 것에 의미가 윤곽부여되어 ‘공간성’을 주로 나타내고, ‘-고 있다’는 진행상에서 시간에 윤곽이 부여되어 ‘시간성’을 주로 나타낸다. ‘없다’의 중심 의미는 ‘비존재’이므로 물리적 공간과 구체적 시간의 인지가 불가능하다. ‘비공간성’과 ‘비시간성’에 대한 인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바, 이것이 ‘없다’가 기능어로 확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보인다.

4.2.2 의문문

‘있다/없다’의 대립쌍도 다른 반의어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정도의 중요성과 비율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서로 대립되는 항 중 한쪽이 널리 사용되고, 다른 한쪽은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되거나 아예 쓰이지 않아 대칭적인 분포를 이루지 않고 있다. ‘있다/없다’의 의문문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주로 발견된다. 다음 예문을 보자.

(15) ㄱ. 재산이 있는가?

ㄴ. 재산이 없는가?

(16) ㄱ. 지위가 있는가?

ㄴ. 지위가 없는가?

(17) ㄱ. 맛이 있는가?

ㄴ. 맛이 없는가?

위의 예문에서 ‘있다/없다’는 정도반의어에 속한다. 상보반의어보다는 정도반의어의 ‘있다/없다’에서 주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⁸⁰⁾. 이런 현상을 중화

80)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상보반의어의 ‘있다/없다’로 연구하였기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과정보다는 결론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예를 들면 ‘있다/없다’ 반의어쌍의 중화현상과 조어능력에서 나타나는 비대칭적 현상을 상보반의어가 아니라 정도반의어로 해석하면 쉽게 풀릴 것으로 생각한다.

현상이라고도 한다. 중화⁸¹⁾란 특정된 상황에서 대립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위 예문에서 보면, 양적·위계적·평가적 정도성을 나타내는 의문문에서 ‘있다’ 구문은 사태에 대한 선입견이 없는⁸²⁾ 상태로 ‘없다’ 구문보다 더 많이 사용된다⁸³⁾. ‘없다’ 구문은 ‘재산이 없다’, ‘지위가 없다’, ‘맛이 없다’가 전제되어 있는 조건 하에서만 사용된다. 즉 정도반의어 ‘있다/없다’ 의문문에서 긍정적인 쪽에서 중화가 실현되어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물음의 속성을 새로운 정보의 획득과 암시된 정보의 확인에 있다고 할 때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중화된 상태의 의문문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임지룡, 1987:164)”. 이런 중화현상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을 정도반의어에서 찾을 수 있다.

앞에서 ‘있다’의 의미 영역은 상대적으로 ‘없다’에 비하여 넓다고 기술한 바 있다(<그림3-5>). 다음의 예문을 보기로 하자.

(18) ㄱ. 돈이 어느 정도 있는가?

ㄴ. 돈이 100만원이나 있어요. (주관적 긍정)

ㄷ. 돈이 100만원밖에 없어요. (주관적 부정)

ㄹ. 돈이 100만원 있어요. (객관적 해답)

(19) ㄱ. 돈이 어느 정도 없는가?

ㄴ. *돈이 100만원이나 있어요.

ㄷ. 돈이 100만원밖에 없어요. (주관적 부정)

81) 중화현상은 처음부터 구조 언어학의 음운분석에서 시작되고, 그 후에 어휘론의 의미 연구의 기초개념으로 도입되었다. 언어 단위에서 대립은 두 개의 항 사이에 닮은 점과 다른 점이 공존할 때 성립된다. 이 경우 닮은 자질을 많이 지니고 있으면서 하나의 변별자질에 의하여 양자가 구별될 때는 대립의 강도는 강화되기 마련이다. (임지룡, 1987:84)

82) 선입견이 없다는 것은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사용됨을 의미하므로 ‘있다’의 무표성을 드러내고 있다.

83) 임지룡(1987:164)에서도 의문문에서 정도그림씨는 긍정적인 쪽에서 중화가 일어난다고 했다. 결국 의문문에서 정도그림씨는 긍정적인 특성을 지닌 쪽이 중화되므로 이 쪽이 무표향이 된다. 또한 이러한 편향성은 사람들이 인생의 밝은 면을 보고 말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폴리어나 가설(임지룡 1985:110-11)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했다.

ㄹ. 100만원만 있어요/밥먹을 돈만 있어요/버스비만 있어요.(주관적 부정)

예문(18)의 긍정의문문에서는 주관적 긍정과 부정, 객관적 해답 모두 가능하지만 예문 (19)은 주관적 부정밖에 가능성이 없다. (19ㄴ)에서 보조사는 ‘-나’는 수량이 크거나 많음을 강조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 (19ㄱ)의 수량이 적음을 전제하는 질문의 해답으로는 적합하지 않다.⁸⁴⁾ (19ㄷ)는 100만원 말고는 없다는 뜻으로 수량의 적음을 주관적으로 나타냈고 (19ㄹ)는 비록 ‘있다’를 써서 해답하였지만 보조사 ‘-만’은 ‘한정’의 뜻을 나타내므로 역시 ‘적음’의 강조된 말로 부정적인 해답에 속한다. 앞서도 논의하다시피 ‘있다’의 의문문은 선입견이 없는 상태이기에 긍정적, 부정적, 객관적 해답 모두 가능하지만 ‘없다’의 의문문은 ‘없다’는 전제 하에서 나온 발화이기에 부정적인 응답만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보조사 ‘-나’와 ‘-밖에’의 의미가 더해져 ‘있다’는 의미와 ‘없다’는 의미가 더 두드러지게 된다. 예문 (18)은 ‘많음/적음’의 강조가 모두 가능한데 비해 예문 (19)은 ‘적음’의 의미만 강조된다. 이는 ‘없다’의 정도의 영역이 ‘있다’에 비해 작음을 드러내고 따라서 이 둘은 비대칭적임을 말해준다.

또한 ‘있다’는 전체적인 영역에서 두루 쓰이지만 ‘없다’는 부정적 영역에서만 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있다’의 의미자질에는 [+긍정적 존재], [+부정적 존재], [+중간적 존재]가 있고, ‘없다’의 의미자질에는 [+부정적 존재]만 있는 것이다. 즉, ‘있다’는 곧 척도이고, 그 척도 안에 긍정적 의미의 ‘있다’, 부정적 의미의 ‘없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간적인 의미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정도반의어 ‘있다/없다’로의 확장은 ‘있다’로부터 이루어졌고 일부 사태에서 그것이 주관적 긍정과 주관적 부정의 대립으로 개념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중화현상의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궁극적으로 ‘있다/없다’는 의문문에서 긍정적 측면인 ‘있다’에 중화현상이 발생하여 비대칭적인데 이는 ‘있다’의 의미 영역에 ‘없다’가 포괄되는 것이 주된 원인이고, ‘없다’는 ‘있다’를 전제로 한 [+부정적 존재]의 의미만 지녀 ‘있다/없다’의 포괄적 의미로 사용되지 못하기에 중화현상이 실현되지 않고 부정적 의미가 전제된 특정 사항에서의 의문문에서만 사용된다.

84) 물론 화용론적으로 “돈이 100만원이나 있어요.”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건 ‘돈이 없음’을 부정하는 의미 즉 ‘돈이 있음’을 강조하는 의미로 ‘없다’의 정도성을 나타내지는 못하므로 ‘없다’의 의미 영역 고찰에서는 배제하겠다.

4.2.3 높임법

‘있다’의 높임 표현에는 ‘계시다’와 ‘있으시다’가 있지만 ‘없다’의 높임 표현에는 ‘없으시다’만 있다. 따라서 높임말로의 확장에서 ‘있다/없다’는 비대칭성을 이룬다. ‘있다’의 다른 형태인 ‘계시다’가 존재함으로써 특정된 대상에 대한 존중을 나타냄에 있어서 ‘없다’와 서로 다른 확장을 보이고 있다.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8〉 ‘있다/없다’의 높임 표현 체계

단어	높임 표현	의미
있다	계시다	‘있다’의 높임말
	있으시다	주체 존칭 표현
없다	없으시다	주체 존칭 표현

위 표의 체계를 예문으로 보여주면 다음과 같다.

(20) ㄱ. 부모님은 시골에 계십니다.

ㄴ. 홍 선생님, 혹시 아직 그 학교에 계십니까?

ㄷ. 시술 중 움직이시면 다칠 수 있으니, 잠시만 가만히 계십시오.

ㄹ. 대통령님은 저희들을 깨어 있는 시민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ㅁ.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신 후 계속 주무시고 계십니다.

(21) ㄱ. 어쨌든 큰아주머니만 불평이 없으시다면 잘 되었습니다그러.

ㄴ. 병원에 다니신지 며칠이 지나도 별 효험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ㄷ. 집에 들어가도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으시다.

ㄹ. 그동안 통 연락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 조금 놀랐어요.

ㅁ. 다른 약속이 없으시다면 저와 잠시 차 한 잔을 하시겠습니까?

(22) ㄱ. 유 관장은 “문 대통령이 ‘직원들의 예정된 하계휴가에 영향이 없도록 하라’는 당부 말씀이 있으셨다”고 설명했다.

ㄴ. 그전에 어머니가 일 쉬는 중이라 무리하게 움직인 일도 없고 부항 뜨고 난

후에 통증이 계속 있으셨다 했습니다.

- ㄷ. 경자년 간에 집에서 죽을 만들어 따뜻하게 담아 임금에게 올렸더니 맛이 매우 좋다는 하교가 있으셨다.
- ㄹ. 예능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셔서 여러 번 고사하셨는데 직접 만나 뵙고는 취지에 대해 만족하셨다”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하기도 했다.
- ㅁ. 캐스팅이 되지 않아도 감독님과 오디션을 보는 것만으로도 값진 경험이 되었다 싶었는데 실제로 보니 아우라가 있으셨다.

예문(20)은 동사적 용법으로 그 ‘있다’의 높임말로 ‘계시다’가 쓰이지만 예문(21)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없다+시’가 주체 높임법으로 사용된다.⁸⁵⁾ 또한 예문(22)에서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있다+시’가 주체 높임법으로 사용된다. 예문(20)에서 ‘계시다’의 직접적인 주체는 ‘부모님, 홍선생님, 청자, 대통령님, 아버지’로 모두 유정물이다. 예문(21)에서 ‘없으시다’의 직접적인 주체는 ‘불평, 효험, 말씀, 연락, 약속’으로 모두 무정물이다. 예문(22)에서 ‘있으시다’의 직접적인 주체는 ‘말씀, 통증, 하교, 부담감, 아우라’로 모두 무정물이다. ‘계시다’와 ‘있으시다/없으시다’의 구별에서 ‘계시다’는 화자가 주어를 직접 높일 때 사용하고, ‘있으시다/없으시다’는 주어와 관련된 대상을 통하여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일 때 사용함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럼 존경의 대상이 [+인간]이고 그 존경 대상의 비존재를 존중하여 나타낼 때 어떻게 사용할까? 다음 예문으로 살펴 보자.

(23) ㄱ. * 너는 부모님이 없으시냐?

ㄱ ‘너는 부모님이 안 계시냐?’

ㄴ. * 오늘은 선생님이 없으셔서 내가 팀을 이끌었다.

ㄴ ‘오늘은 선생님이 안 계셔서 내가 팀을 이끌었다.’

ㄷ. * 조리사 선생님이 없으셔서 빵으로 점심을 먹어야 했지만, 아이들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ㄷ ‘조리사 선생님이 안 계셔서 내가 팀을 이끌었다.’

ㄹ. *내게 좋은 지적 자극을 주던 노 전 대통령이 곁에 없어서 아쉽지 않은

85) 물론 일부 학자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시다’의 활용형이 형용사적 형태로부터 형용사, 동사의 이중적인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본고의 중점이 아니므로 『표준국어대사전』 속 ‘계시다’의 품사 분류에만 따르겠다.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ㄹ' 내게 좋은 지적 자극을 주던 노 전 대통령이 곁에 안 계셔서 아쉽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 (24) ㄱ. "선생님은 아직 애가 없으셔서..." 부모라고 해서 아이를 다 아는 건 아니다.
 ㄱ' *"'선생님은 아직 애가 안 계셔서..." 부모라고 해서 아이를 다 아는 건 아닙니다.
 ㄴ. 최근에 혼자 살고 계신 제 외가 쪽 친척 분께서 자식이 없으셔서 저에게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를 상속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ㄴ'. *최근에 혼자 살고 계신 제 외가 쪽 친척 분께서 자식이 안 계셔서 저에게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를 상속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ㄷ.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하시고 저희 엄마가 재혼을 하셔서 또 자식이 있으세요.
 ㄷ'.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하시고 저희 엄마가 재혼을 하셔서 또 자식이 계세요.
 ㄹ. 이것을 배우기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으세요.
 ㄹ'. 이것을 배우기 좋아하는 학생들도 계세요.

위의 예문(23)에서 '없으시다/계시다'의 직접 대응 대상은 '부모님, 선생님, 조리사, 대통령'으로 [+존중], [+유정물]의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다. '없으시다'로 나타낸 (23ㄱ'-ㄹ')는 비문이고 '안 계시다'로 나타낸 (23ㄱ-ㄹ)은 정문인 것에서 미루어 볼 때, 직접 대응되는 대상이 [+유정물], [+존중]이면 무조건 '계시다'를 사용해야 한다. 그 부정 표현으로는 '안 계시다' 혹은 '계시지 않는다'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예문(24)에서 직접 대응되는 주어가 [+유정물]이어도 [-존중]의 대상이면 '없으시다'를 사용해야 정문이 된다. 예문(24)에서 '없으시다/계시다'의 직접 대응 대상은 '애, 자식, 학생'으로 [-존중]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계시다'는 사용할 수 없다.

여기서 '계시다'와 '있으시다/없으시다'의 차이점은 직접 대응 주어에 관련이 있고, 직접 대응 주어의 의미자질이 [±유정물]인가를 1차로 판단하고, 2차로 그 유정물이 [±존중]의 대상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물론 이때 '존중의 대상'에 대한 판단은 화자의 주관적 관점에 달려있다. 따라서 예문 (24ㄹ)와 (24ㄹ')

가 모두 정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계시다’는 주체 존중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기 때문에 직접 존중의 역할을 하여 직접적인 존재를 나타내고, ‘있으시다/없으시다’는 그와 직접 대응 대상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체를 존중하는 역할을 하기에 존재보다는 소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계시다’와 ‘있으시다/없으시다’의 차이점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9〉 ‘계시다’, ‘있으시다/없으시다’의 차이점

높임 표현	제한	역할	의미
계시다	직접 대응 주어 [+유정성]과 [+존중] 모두 만족	직접 존중	존재
있으시다/ 없으시다	직접 대응 주어 [-유정성] 혹은 [+유정성][-존중]	간접 존중	소유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상위자의 행위나 상태를 ‘있다/없다’로 표현할 때 서술어에 직접 대응하는 대상이 ‘존경의 대상’인가 아니면 ‘존경의 대상의 부속물’인가를 구별하여, 그에 상응하는 높임법으로 표현한다. 즉 ‘존경의 대상’과 직접 대응할 때는 극존칭인 ‘계시다’로 표현하고, ‘존경의 대상의 부속물’과 직접 대응할 때는 극존칭의 아래 등급인 ‘있으시다/없으시다’로 표현한다. ‘있다’의 존칭은 ‘계시다’와 ‘있으시다’로 등급화하여 표현되고 ‘없다’는 ‘있다’의 반대 표현인 ‘안 계시다’와 ‘없으시다’로 표현되는데 이는 모든 사물을 존경의 대상, 존경의 대상의 부속물, 비존경의 대상으로 등급화, 차별화하려는 화자의 의도와 상관된다. ‘있다’와 ‘계시다’는 비존칭과 존칭의 관계로 서로 별개의 단어이다. ‘없다’의 높임말로 새로운 단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없다’는 비존재의 상태이므로 인지적으로 존경 여부를 논하기 어려운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4.3 화용 층위

‘있다/없다’는 형태적, 통사적 층위에서 짝을 이루지 않고 비대칭적임은 이미

앞에서 확인되었다. 그럼 화자와 맥락을 고려한 화용적 층위에서는 어떤 비대칭성을 갖고 있는지 아래에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4.3.1 관용구

보통, 한국어 관용어에서 구형 관용어가 제일 일반적인 형태이다. 이는 연구 결과로도 명확히 알려진 사실로서, 박진수(1985:48)에서는 용언형 관용어가 전체의 56.2%를 차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혜숙(1993)에서도 ‘명사(+조사)+용언’의 형태인 관용어를 분석 대상으로 한 결과 관용어 1259개 중 주술 관계가 36.60%, 객술 관계가 52.50%, 부용 관계가 8.90%를 차지한다고 지적하였다. ‘있다/없다’의 관용구에도 용언형 관용구가 대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구성을 이루는지 분석해 보자,

우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있다/없다’에 관한 관용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4-10〉 ‘있다/없다’의 비대칭 관용구

‘있다’ 관용구	인지 개념	‘없다’ 관용구	인지 개념
과거가 있다	추상 개념 의 사물화	간도 쓸개도 없다	추상 개념 의 사물화
낮이 있다		개똥도 없다	
내심이 있다		국물도 없다	
말이 있다		개뿔도 없다	
모양이 있다		거칠 것이 없다	
보는 눈이 있다		긴말할 것 없다	
분위기 있다		꽁지대가리 없다	
분한이 있다		끝이 가도 없다	
뼈대가 있다		낮과 밤이 따로 없다	
문필이 있다		넋이 없다	
전망이 있다		꿈에도 없다	
귀뿔이나 있어야지		끝 간 데 없다	
될 수 있는 대로	단어의 문법화	눈물이 없다	
될 수 있으면		눈살을 펴 새 없다	
무슨 뽀족한 수 있나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얼굴에 씌어 있다		누구 할 것 없다(없어)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다		눈코 뜰 사이 없다	
둥둥 떠 있다		물보 셀 틈 없다	
목이 붙어 있다		달다 쓰다 말이 없다	

숨이 붙어 있다		두말할 나위가 없다
얼굴에 찌어 있다		둘도 없다
책상머리에만 앉아 있다		들숨 날숨 없다
하나로 잇닿아 있다		맺힌 데가 없이
숨이 붙어 있다		못 하는 소리가 없다(없이)
꼭 잡고 있다		밑도 끝도 없다
하품만 하고 있다		발을 들여놓을 자리 하나 없다(없이)
입을 열 자나 빼고 있다		발을 디딜 틈이 없다/ 발을 붙일 곳이 없다
		밤낮이 따로 없다
		볼썽이 없다
		사색이 없다
		설 땅이(자리가) 없다
		숨 돌릴 사이도 없다(없이)
		숨 쉴 사이(새)가 없다(없이)
		시도 때도 없다(없이)
		썩도 없다
		씨알머리가 없다
		어림 반 푼어치도 없다
		어제 오늘 할 것 없다(없이)
		없는 것이 없다
		여느 때 없다(없이)
		오갈 데가 없다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다(없이)
		이를 데 없다(없이)
		이면이 없다
		전망이 없다
		풀끝 한 점 없다
		피도 눈물도 없다
		흥풍이 따로 없다(없이)
		흥허물이 없다
		너 나 할 것 없이
		말 없는 말
		머리 꼬리 없이
		범 없이 살다
		소리 소문도 없이
		씨도 없이
		아비 없는 후례자식
		어디라 없이
		온다 간다 말없이
		철창 없는 감옥
		취뽕도 없다
		그림자도 없다

		비할 바 없다(없이)	
		남에 없는	추상 개념 의 공간화
		전에 없다(없이)	
		짝에 없다	
		팔자에 없다	
		속에 없는 말	
		하는 수 없이	단어의 문법화
		코끝도 볼 수 없다	
		개미 새끼 하나 볼 수 없다	
		굽도 젖도 할 수 없다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눈을 씻고 보려야 볼 수 없다	
		눈 뜨고 볼 수 없다	
		셀 수 없다(없이)/셀 수 없을 만 큼	
		아닐 수 없다	
		움치고 땔 수 없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다시피 ‘있다/없다’는 관용구에서 비대칭을 이룬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관용구란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 단어들의 의미만으로는 전체의 의미를 알 수 없는,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구”라고 해석하였다. 즉, 관용구는 여러 낱말들이 합쳐서 직설 의미가 아닌 새로운 뜻으로 굳어진 표현임을 말한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관용구의 의미는 이를 구성하는 단어의 의미에서 합성할 수 없는 ‘제3의 의미’이므로 이를 구성하는 단어들의 의미를 합성해서 이 ‘제3의 의미’를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므로 관용어의 의미는 머릿속 사전의 한 부분으로 학습되어 습득된다고 보았다. 인지의미론적 관점의 연구에서도 관용 의미에는 관용어를 구성하는 단어의 의미에서 전혀 합성할 수 없는 ‘제3의 의미’도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용어의 관용 의미는 구성하는 단어의 의미가 동기를 부여하여 관용 의미를 합성해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심지연 2009:86-87). 왜냐하면 관용어의 의미 구성도 개념적 구조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있다/없다’ 관용구는 위의 표와 같이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기 쉬운 구체적 사물에 기탁하여 사물화, 공간화, 문법화하여 ‘제3의 새로운 의미’를 실현하였다. ‘있다’의 경우 추상적 사물의 사물화와 단어의 문법화 두 가지 구성의 관용구가 위주인데 그 중 문법화가 많이 진행되어 전체 관용구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앞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있다’는 일반적인 뜻을 담고 있는 무표성의 단어로 많이 작용하여 제3의 의미 구성이 어렵지만 문법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다. 이는 문법화는 관용구를 형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없다’ 구성의 관용구에서는 추상 개념의 사물화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추상적 개념을 눈에 보이는 구체적 사물로 표현하고 부정하여 특정된 뜻에 윤곽부여하여 의미를 새로이 구성하였다. 또한 그것이 공간화 되어 표현된 것도 ‘있다’ 구성의 관용구와 구별되는 점이다. 즉 구체적 사물, 구체적 공간으로 개념화되고, 기존 형태에 새로운 뜻을 부여하여 가시적으로 그려냈다. 왜냐하면 추상적 사물보다는 구체적 사물이 더 잘 인지되고, 새로운 형태보다는 기존 형태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기 때문이다. ‘없다’ 구성 관용구에서 ‘-수 없다’의 문법화가 발견되는데 ‘능력 혹은 가능성이 없음’ 즉, 무능력과 불가능의 부정적 가치가 부여되고 ‘없다’의 형태가 ‘-수 없다’의 형태로 되어 어휘적 기능에서 문법적 기능으로 변이되어 탈범주화⁸⁶⁾를 이룬다.

‘없다’ 구성의 관용구가 ‘있다’ 구성의 관용구에 비하여 훨씬 많은 것은 ‘없다’가 추상적이어서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쉽게 생기게 함을 의미한다. 또한 그만큼 ‘없다’의 의미는 불안정적이고 역동적이어서 언중들이 삶에서 마주치는 새로운 경험에 직면하여 특정의미에 윤곽부여되어 제3의 의미가 쉽게 형성됨을 알 수 있다. 반면 ‘있다’는 더 원형적이고 안정적이어서 의미의 특수화가 실현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대중 속에서 널리 알려진 의미로 작용하여 제3의 의미 형성이 어려움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있다’ 관용구와 ‘없다’ 관용구는 대칭적으로 반의적 관계를 이루는 경우도 있다.

〈표 4-11〉 ‘있다/없다’의 대칭 관용구

	‘있다’ 관용구	『표준국어대사전』 의미	‘없다’ 관용구	『표준국어대사전』 의미
‘있다/ 없다’	마음에 있다	무엇을 하거나 가 지고 싶은 생각이	마음에 없다	무엇을 하거나 가 지고 싶은 생각이

86) “문법화의 과정에서 한 문법소는 대개 명사나 동사 같은 일차적 범주에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형태통사적으로 그것의 특성을 상실하고 이차적 범주의 특성을 띠게 된다. 이처럼 이차적 범주로의 변화를 탈범주화”라고 한다(김동환 2013:385).

대립		있다.		없다.
	맺힌 데가 있다	사람 됨됨이가 꼭 짜인 데가 있다.	맺힌 데가 없다	사람 됨됨이가 꼭 짜인 데가 없다.
	이름이 있다	세상에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름이 없다	세상에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없다.
	표리가 있다	말과 행동이 속마음과 다르다.	표리가 없다	말과 행동이 속마음과 똑같다.
'있다/없다' 비대립	면목이 있다	서로 만나면 인사나 할 정도로 알고 있다.	면목이 없다	부끄러워 남을 대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별 볼 일 있다	보통과 구별되게 다르다.	별 볼 일 없다	대단하지 않고 하찮다.

위의 관용구는 '있다/없다' 구성에서 서로 대립관계를 이룬 것들이다. '마음에 있다/없다'는 '무엇을 하거나 가지고 싶은 생각이 있다/없다'로, '맺힌 데가 있다/없다'는 '사람 됨됨이가 꼭 짜인 데가 있다/없다'로, '이름이 있다/없다'는 '세상에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있지 않다'로, '표리가 있다/없다'는 '말과 행동이 속마음과 다르다/똑같다'로 의미적으로 완전한 대립관계를 이룬다. 이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윤곽부여되는 의미가 서로 대립되어 관용어의 의미도 대립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하지만 '면목이 있다/없다'는 각각 '서로 만나면 인사나 할 정도로 알고 있다'와 '부끄러워 남을 대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로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 원인은 '면목'의 다의성⁸⁷⁾으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지정하여 내세울 필요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형성된 것으로 보아진다. '별 볼 일 있다/없다'는 '보통과 구별되게 다르다'와 '대단하지 않고 하찮다'로 사실상 '특별하다'와 '평범하다'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여기서 '있다' 구성 관용구는 부정의 단어 '별'과 결합되어 부정과 긍정의 결합으로 전체적으로 부정적 의미로, '없다' 구성 관용구는 부정과 부정의 결합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있다/없다'의 의미가 언중들의 새로운 경험에 의하여 구체적 단어와 결합함으

87) 『표준국어대사전』 속 '면목'의 의미:

「1」 얼굴의 생김새.

「2」 남을 대할 만한 체면. =낯.

「3」 사람이나 사물의 겉모습.

로써 새로운 의미적 구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궁극적으로 ‘없다’ 구성의 관용구는 ‘비존재’거나 ‘부정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의미상 많은 이변을 낳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즉 비고정적이어서 ‘존재’거나 ‘긍정적 내용’을 반영하는 ‘있다’의 경우보다는 새로운 의미의 생성이 용이하여 관용구로 더 많이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4.3.2 담화 표지

앞에서 논의하다시피 ‘있다’와 ‘없다’는 서로 대립되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나름의 용법과 특징, 의미를 실현한다. 문어에서 다양한 의미를 구성하여 서로 다른 확장을 나타내는가 하면 구어에서도 화자들이 삶에서 마주치는 새로운 경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나름의 방식으로 서로 다르게 확장하였다. 그 예문은 다음과 같다.

(25) ㄱ. 그 사람 있잖아. 재수를 다섯 번이나 했다.

나. 응응, 자기 있잖아. 오늘은 우리 뭘 먹지?

다. 그 인터뷰 있잖아. 첫 번째 걸로 그냥 넣었어. 위에다가는 얘기 안 하고….

르. 그거 왜 있잖아? 무슨 병이든지 먹으면 낫는다는 천도(天桃) 복숭아 있잖아!

ㅁ. 지난번 우리 집에 왔던 그 친구 있지? 그 친구 전화번호 좀 알려줘.

ㅂ. 너무 복잡하니? 그럼 있지, 우리 그림으로 그려 보자.

ㅅ. 아빠, 아빠, 아빠도 그럴까, 나는 있지, 말을 하려면 있지, 생각도 똑같이 된다, 배고프다고 말하면 정말 배고프구, 빵 먹고 싶다고 말하면 정말 빵 먹고 싶단 말이야.

ㅇ. 이 손수건 있지, 우리 애기가 작년 어버이날에 사온 놈인데, 어때? 제법 쓸 만해 보이지? 잘난 것 하나 없는 애비한테 어디 좋은 구석이 있는지. 고놈 참…

ㅈ. 그 사람 있죠, 올가을에 결혼한대요.

ㅊ. 래서 까레이스키가 드라마뿐만 아니라 다큐멘타리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직접 가보셨으니까 거기서 직접 뵈 한인들 있죠, 많이 기억

에 남는 분들이 있으실거 같아요.

ㄱ. 우리 수연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그 친구들 간의 약속 있죠, 예. 그거를 죽어도 범벅을 안 해요.

ㄷ. 아 글썄 털 많은 여자가 팔자가 세다는데 텔레비전에서 털 뽑는 기술을 가르쳐준다 길래 꼭 보려고 했는데 전기가 나간 거 있죠, 아유 왕짜증.

위의 예문 중 '있잖아/있지/있죠'는 담화 문맥에서 주로 사용된다. 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특정한 역할을 드러내는 언어적 담화표지에 속한다. 하여 담화사라고도 하는데,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담화 상황을 원활하게 하는 언어적 요소이다. 의사소통은 화자와 청자가 의식하고 있는 세계가 같을 때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화자는 청자의 의식세계를 미리 판단하여 대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맞추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 화자가 청자를 자신의 의식세계에 끌어들이 담화 참여자 간에 공동의 의식세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여기에 기여하는 단어가 담화표지이다. 담화표지는 대개 집중, 내용의 예고, 강조 등 역할을 한다.

이때 원형인 '있다'의 어휘적, 문법적인 뜻을 완전히 상실하고 담화 전개를 위하여 일정한 역할만 실행할 뿐 명제의 의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화자가 책상 상 청자를 고려하여 말하려는 내용의 주제를 강조, 확인하는 역할로 사용된다. 즉 '있잖아/있지/있죠'는 화자가 청자의 의식세계를 자신의 의식세계로 끌어들이 담화 참여자 간에 공동의 정서를 유발시키기 위하여 습관적,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화용적 기능을 담당하는 단어들이다. 이런 담화표지는 필수 성분이나 보충 성분이 아닌 잉여적인 성분으로서 생략되어도 담화, 명제의 의미에 변화를 가져다주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담화표지에도 그 중심 의미의 흔적이 남아 있다. 즉, 어떤 사람, 사물, 현상의 존재를 각인시킴으로써 청자를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데 집중시키고, 내용 예고 등 역할을 실현한다. (25ㄱ-ㄷ)는 '재수를 다섯 번한 사람', '오늘 먹걸이', '인터뷰', '천도복숭아'의 존재를 강조하고 (25ㄴ-ㅇ)는 '친구', '그림 그리기', '말과 생각의 똑같음', '손수건'의 존재를, (25ㅈ-ㅊ)는 '사람', '한인', '약속', '전기나간 것'의 존재를 강조하여 확인시켜 청자에게 명확히 전달한다.

'*없잖아/없지/없죠'가 이러한 역할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은 원형적 의미가

‘비존재’이기에 담화를 이끌어 가는 중에 상관된 화제의 존재에 관해서는 참여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사의 인과관계는 모두 그것의 존재로부터 시작된다. 인간은 본인이 인지되는 사물과 현상에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담아낼 수 있지만 인지되지 않는 것은 담화는커녕 상관된 단어나 표현조차도 생각하지 못한다. 따라서 ‘있잖아/있지/있죠’와 같은 담화표지로 어떤 대상에 대한 존재를 강조시킴으로써 화제를 이끌고, 청자를 집중시키고, 말하려는 내용의 존재 전제에 따른 확신과 공유 의지를 명확히 하여 성공적인 담화를 이끈다.

앞 장에서 ‘있다’는 ‘없다’에 비하여 더 안정적이고 더 원형적인 특징을 갖추어 단어의 변형을 쉽게 일으키지 않는다고 기술한 바 있다. 하지만 담화표지에서는 ‘없다’ 표지는 결여되고, ‘있다’에서 [+확인] 의미의 ‘-지’와 결합되어 ‘있잖아/있지/있죠’의 언어적 형태로 말하려는 대상이나 사실, 현상의 존재를 강조하여 담화를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필요한 윤활제 역할을 담당한다. 비록 ‘있다+지+어미’의 변형을 이루었지만 하나의 독립적인 단어로는 작용하지 않는다. 담화와 문맥을 떠나서는 의미를 형성하기 어려운 점을 미루어 볼 때 더욱이 ‘있다’로부터 확장된 독립된 단어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있다’는 여전히 원형단어로 안정성을 갖추어 새로운 형태의 독립된 단어로 확장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추측할 수 있다.

4.3.3 화제 표지

‘있다’는 문어에서 화제를 지정하여 내세울 때 널리 사용된다. 반면에 ‘없다’는 화제 표지에서 쓰이지 않는다. 하여 ‘있다/없다’는 화제 표지에서 비대칭을 이룬다. ‘있다’의 화제 표지의 주요한 형식은 다음과 같다.

〈표4-12〉 ‘있다’의 화제 표지 및 그 의미

화제 표지	『표준국어대사전』 사전 속 의미
-에/에게 있어서	앞에 오는 명사를 화제나 논의 대상으로 삼은 상태를 나타내는 말. 문어적 표현으로, ‘에’, ‘에게’, ‘에서’의 뜻을 나타낸다.
*-에/에게 없어서	비문

위의 단어에 관련된 예문은 다음과 같다.

(26) ㄱ. 한국 문학에 있어서 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에 없어}

ㄴ. 적어도 여행에 있어서 그것은 낭비일지도 모르지 않은가. {*에 없어서}

ㄷ. 기독교에 있어서 원죄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에 없어서}

ㄹ. 논리에 있어서 언어의 역할을 주장할 뿐 아니라 사고의 방식이나 인지의 구조에서 언어가 미치는 역할을 강조한다. {*에 없어서}

ㅁ. 나에게 있어서 금요일이란 개념들 시중을 좀 더 빠시게 들어야 하는 요일이기도 하고, 산책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날이다.
{*에게 없어서}

ㅂ. 사람에게 있어서 정신적인 휴식은 매우 필요하다. {*에게 없어서}

ㅅ. 동물에게 있어서 단백질은 매우 중요하다. {*에게 없어서}

ㅈ. 유치부 교사에게 있어서 아이들은 몇 번 짜인가? {*에게 없어서}

위의 예문에서 ‘-에/에게 있어서’는 어떤 대상을 확인하여 화제나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화제나 논의의 대상은 ‘존재’해야 가능한 것이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으로 지정·한정하여 화제로 내세운다는 것이다. 조사 ‘-에/에게’는 범위를 나타내고 ‘있어서’는 그 범위의 존재를 나타낸다. ‘없다’는 ‘비존재’를 바탕으로 하는 바, ‘없다’는 것은 ‘무’이므로 한정될 수 없고 따라서 ‘비존재’의 사람이나 사물은 화제나 논의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없다. 범위란 모든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한정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당연하며, 존재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사유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보통 존재하는 만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반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사유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언중들이 ‘무’의 범위를 제한하여 표현할 수도 없는 일이다. 질문이 ‘무’에 가 닿는 순간 그것은 있는 것처럼 다루어지며, 무가 어떤 방식으로든—관념이든 현실적 사물이든—있는 것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에/에게 있어서’는 체언과 결합하여 화제 지정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일반적이고 범언어적이고 규칙적인 파생을 일으킨다. 하여 문법화로도 볼 수 있는데 어떤 대상을 주제로 삼는 주제화의 기능을 담당한다. ‘-에/에게 있어서’의 ‘-에/에게’는 ‘있다’의 존재 의미에 이끌려 존재 지점과 존재 대상을 형성하고 여기에서 그 주제가 구체화되어 전체적인 화제를 형성한다. ‘있다’는 이와 같이

개체 상태의 존재함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화제를 어떤 공간이나 대상으로 보존시키려는 양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4.4 의미 층위

원형이론은 범주의 내부 구조가 중심적인 원소인 원형과 그로부터 확장된 주변적인 요소가 비대칭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임지룡 2008:118). 어휘의 의미 범주에도 이 원형이론이 적용된다. 즉 다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중심 의미와 확장 의미 간에 그 비대칭성이 발생된다. 분포의 비대칭성이 초래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바로 의미의 비대칭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3장에서 기술한 의미 확장 양상의 비대칭성을 다시 한 번 종합하여 그 비대칭성을 확인하는 것 외에 ‘있다/없다’의 모든 의미의 빈도적 측면의 비대칭성을 고찰하여 의미 층위의 비대칭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4.4.1 의미 확장 양상

3장에서 기술한 의미 확장을 기반으로 그 확장 양상의 대칭성과 비대칭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표4-13〉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 양상의 대칭성과 비대칭성

단어	대칭적인 확장 중심 의미	비대칭적인 확장
있다 없다	공간성(구체적) 행위성 추상성(일부) 주관성 상황성 기능성(-수 있다/없다)	동작성 공간성(심리·사회적) 기능성(-고 있다, -어 있다) 추상성(일부)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있다/없다’는 그 확장 양상에 있어서 대칭적인

양상을 보이는가 하면 비대칭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중심 의미, 구체적인 공간성, 행위성, 일부 추상성, 주관성, 상황성, 일부 기능어에서 대칭적인 양상을 보이고, 동작성, 추상적 공간성, 일부 기능성과 추상성에서는 그 의미가 대칭적이지 않다.

구체 대상의 존재로부터 공간적, 행위적, 추상적, 주관적, 상황적 인지의 작용 하에 확장이 쉽게 이루어지고, 또한 의미적 인접성으로 대칭적인 양상이 형성되고, 확장이 진행될수록 중심 의미로부터의 인접성이 약화되어 중심 의미로부터 탈리되는데 이로써 ‘있다/없다’는 각자 서로 다른 의미적 범주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더는 대칭적인 분포를 형성하지 않는다. ‘있다’가 상태 서술어에서 동작 서술어로, 본 용언에서 보조 용언으로, 물리적 위치에서 사회·물리적 위치로의 확장에서 ‘존재’라는 의미소가 거의 탈색되었다. ‘없다’는 합성어로의 확장에서도 ‘비존재’라는 의미보다는 새로운 추상 단어와 합성되어 제3의 의미를 얻어 새로운 의미적 범주를 이룩하였다. 인지언어학에서는 어휘의 의미 확장은 사람, 사물로부터 점차적으로 추상적인 영역으로 확장된다고 주장하는데 ‘있다/없다’도 기타 어휘와 마찬가지로 추상적인 영역으로 확장이 진행되어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중심 의미와 인접할수록 대칭적인 양상을 띠고 있고, 인접하지 않을수록 본래의 의미가 각자 탈색이 되어 새로운 영역을 형성하여 비대칭적인 양상을 가진다.

‘있다’는 ‘없다’에 비하여 훨씬 생산적인 분포를 형성한다. 의미 확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있다/없다’의 사전적 의미가 다른 것도 이 이유 때문이다. ‘있다’의 생산성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것은 기능어로서의 확장이다. ‘있다’가 많은 기능어로 확장할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시공간적 인지가 ‘없다’에 비하여 훨씬 높기 때문이다. 이런 시공간적 인지는 다른 어휘와의 결속 능력을 향상시킨다. 어휘가 있다는 것은 그 어휘의 의미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므로 시공간적 존재의 ‘있다’와 하나의 단위로 쉽게 묶인다. 이런 결속력 때문에 일반적이고 규칙적인 파생을 보다 쉽게 형성하게 되고, 또한 시간적 인지의 작용 하에 시간 개념과 관련된 상적 의미가 형성하게 된다. 진행상의 ‘-고 있다’와 지속상의 ‘-어 있다’가 그 예이다. 즉 의미적 결속력이 높을수록 기능어로 작용하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4.4.2 빈도

‘있다/없다’의 빈도별 의미를 계량적으로 밝혀 ‘있다/없다’의 중심 의미와 확장 의미에 대한 우리의 직관과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검토하는 것은 기존의 통사·의미론적 논의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빈도는 다의적 용법의 활성화 정도를 드러내는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빈도를 추출하는 것은 한 단어의 사용 양상을 통찰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말뭉치와 같은 계량언어학적 접근은 인지의미론의 한계를 보완해주고 의미적 특징을 통계적으로 확인하기에 금후 상관된 영역 연구에서 매우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로 작용할 것이다.

여기서는 말뭉치를 통하여 ‘있다/없다’의 의미별 사용 빈도를 밝혀 중심 의미와 확장 의미의 활성화 정도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말뭉치로부터 의미별 빈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미 층위에서의 비대칭성을 밝히고자 한다.

‘Trends 21 코퍼스’와 ‘김한샘(2005)’에서 추출된 ‘있다/없다’의 빈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표4-14〉 ‘있다/없다’의 사용 빈도 차이

	Trends 21 코퍼스	김한샘(2005)
‘있다’ 용례	361208	76319
‘없다’ 용례	99259	19195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적인 말뭉치에서 ‘있다/없다’의 빈도를 추출하면 ‘있다’의 빈도는 ‘없다’에 비하여 4배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앞에서 기술한 ‘있다’의 의미 확장의 외연이 ‘없다’에 비하여 넓다는 결론과 일치한다. 주요하게 ‘있다’는 기능어로 확장되어 규칙적인 파생을 많이 일으켜 생산적인 데서 차이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⁸⁸⁾.

88) Trends 21 코퍼스에서 용례 전체 361208 중 보조동사가 185723로 전체의 51.4%를 차지한다. 김한샘(2005)에서 ‘있다’ 용례 76319 중 보조동사가 39290으로 전체 51.5%를 차지한다. 즉, ‘있다’는 보조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가장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있다/없다’의 의미별 빈도를 계량화하는데 있어서 사용될 연구 대상 말뭉치는 Trends 21 코퍼스⁸⁹⁾에서 추출할 것인데 ‘있다/없다’ 용례는 두 어휘의 생산성 차이를 고려하여 ‘있다’는 3600건, ‘없다’는 1000건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있다/없다’의 사전적 의미에 기반하고⁹⁰⁾ 3

89) Trends 21 코퍼스는 대규모의 신문 자료를 기반으로 한 언어, 사회, 문화적 변화 추이를 밝히고자 시작된 ‘물결 21’ 사업의 일환으로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의 기사를 수집·가공한 총 6억 어절 규모의 언어 자원이다.

90) 1장에서 기술한 사전적 의미와 3장에서 기술한 확장 의미를 바탕으로 ‘있다/없다’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단, 사전적 의미에서 구어적으로 쓰이는 화제 표지를 제외하였다. 왜냐하면 문어적 자료를 바탕으로 의미별 빈도를 추출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사전적 의미		의미
있다	1	사람, 동물, 물체 따위가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이다.	중심 의미
	2	어떤 사실이나 현상이 현실로 존재하는 상태이다.	추상성
	3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벌어질 계획이다.	행위성
	4	(주로 ‘있는’ 꼴로 쓰여)재물이 넉넉하거나 많다.	주관성
	5	(‘-ㄴ 수 있다’ 꼴로 쓰여)어떤 일을 이루거나 어떤 일이 발생 하는 것이 가능함을 나타내는 말.	기능성
	7	사람이나 사물 또는 어떤 사실이나 현상 따위가 어떤 곳에 자리 나 공간을 차지하고 존재하는 상태이다.	공간성
	8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 머무르거나 사는 상태이다.	
	9	사람이 어떤 직장에 다니는 상태이다.	
	10	어떤 처지나 상황, 수준, 단계에 놓이거나 처한 상태이다.	
	11	개인이나 물체의 일부분이 일정한 범위나 전체에 포함된 상태이 다.	
	12	어떤 물체를 소유하거나 자격이나 능력 따위를 가진 상태이다.	
	13	일정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존재하는 상태이다.	
	14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긴 상태이다.	
	15	앞에 오는 명사를 화제나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상태를 나타내는 말. 문어적 표현으로, ‘에’, ‘에게’, ‘에서’의 뜻을 나타낸다.	
	16	사람이 어떤 지위나 역할로 존재하는 상태이다.	
	17	이유나 가능성 따위로 성립된 상태이다.	추상성
	1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 다.	동작성
	2	사람이 어떤 직장에 계속 다니다.	
	3	((‘-게’ 대신에 ‘-이/히’ 부사 따위나 다른 부사어가 쓰이기도 한 다)) 사람이나 동물이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4	얼마의 시간이 경과하다.	

장에서 기술한 확장 의미를 포함시켜 그 의미를 새로이 정리하여 그 빈도와 비율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표 4-15〉 ‘있다/없다’의 의미별 빈도

의미 ⁹¹⁾	있다		없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중심 의미	79	2.19%	61	6.1%
공간성	217	6.03%	17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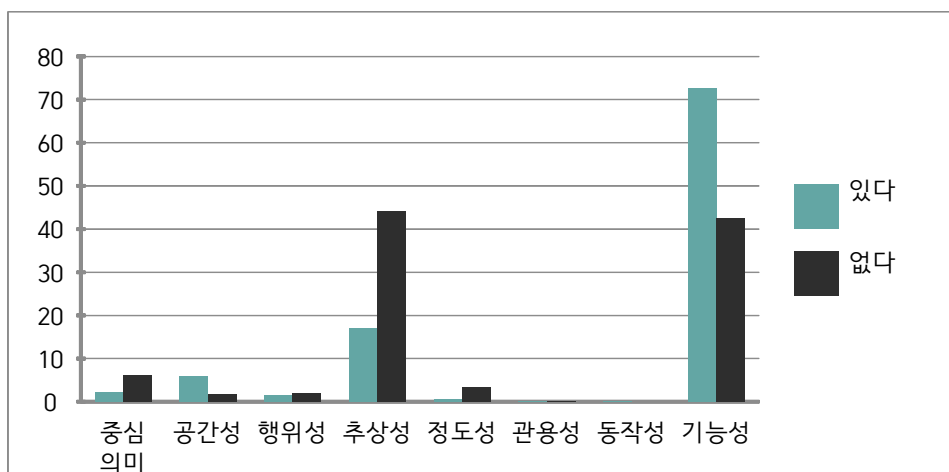
	1	(주로 동사 뒤에서 ‘-어 있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변화가 끝난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말.	기능성
	2	(주로 동사 뒤에서 ‘-고 있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나 그 행동의 결과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말.	
없다	1	사람, 동물, 물체 따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중심 의미
	2	어떤 사실이나 현상이 현실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추상성
	3	어떤 일이나 현상이나 증상 따위가 생겨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다.	행위성
	4	어떤 것이 많지 않은 상태이다.	주관성
	5	(주로 ‘없느’ 꼴로 쓰여)재물이 넉넉하지 못하여 가난하다.	
	6	(주로 ‘-르(을) 수 없다’ 꼴로 쓰여)어떤 일이 가능하지 않다.	기능성
	7	사람이나 사물 또는 어떤 사실이나 현상 따위가 어떤 곳에 자리나 공간을 차지하고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공간성
	8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 머무르거나 살지 않는 상태이다.	
	9	매우 드물다.	
	10	일정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상태이다.	
	11	어떤 물체를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자격이나 능력 따위를 갖추지 않은 상태이다.	
	12	일정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13	어떤 사람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은 상태이다.	
	14	(이유, 근거, 구실, 가능성 따위와 같은 단어와 함께 쓰여)이유나 가능성 따위로 성립될 수 없는 상태이다.	추상성
	15	상하, 좌우, 위계 따위가 구별될 수 없는 상태이다.	주관성

다.

행위성	50	1.39%	21	2.1%
추상성	613	17.03%	442	44.2%
정도성	19	0.53%	33	3.3%
관용성 ⁹²⁾	2	0.05%	1	0.1%
동작성	4	0.11%	0	0.0%
기능성 ⁹³⁾	2616	72.67%	425	42.5%
합계	3600	100%	1000	100%

위의 표를 차트로 보여주면 다음과 같다.

〈그림 4-2〉 ‘있다/없다’의 의미별 빈도 차이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있다/없다’ 모두 중심 의미보다 확장 의미가 더 활성화되었다. ‘있다’의 경우, ‘기능성’의 의미가 가장 활성화되었는데 전체 문장

91) 3장에서 기술한 상황성은 ‘있다/없다’의 범주의 범위를 벗어났기에 빈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외한다.

92) 『표준국어대사전』의 관용구를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93) 기능어에는 ‘-고 있다’, ‘-어 있다’, ‘-수 있다’를 포함시키겠다. ‘-수 있다’는 사전적으로는 보조동사로 되어있지 않지만 김상대(1991), 김기혁(1999), 이수련(2003), 안주호(2004) 모두 ‘-수 있다’를 문법화로 보고 있다. 본고도 이를 받아들인다.

의 72.67%를 차지한다. 그다음으로 '추상성'의 의미가 17.03%로 그 뒤를 이었다. '없다'의 경우 '있다'와 달리, '추상성'의 의미가 가장 활성화되고 다음으로 '기능성'의 의미가 활성화되었는데 비율적 측면에서는 44.2%, 42.5%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있다/없다'가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공간성'의 의미이다. '있다'는 6.03%인 반면 '없다'는 1.7%로, '없다'는 중심 의미가 비존재이기에 공간에 대한 인지 능력이 약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위의 표의 의미에 따른 구체적 실례는 다음과 같다.

〈있다〉의 경우

- (27) ㄱ. 정말로 정권의 타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거리로 나와야겠다고 마음먹은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중심 의미)
- ㄴ. 오전 11시쯤에는 이군이 다니던 구정국민학교 교장과 교감, 지난해 같은 반에 있었던 친구들 10여 명이 다녀갔다. (공간성)
- ㄷ. 11일 오전 9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한국일반여행업협회 주최로 열리는 제 1차 한국 관광 진흥회의 개회식이 있다. (행위성)
- ㄹ. 우리는 이제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도 고도성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추상성)
- ㅁ. 돈 좀 있다고 선생을 매수하거나 그것에 쉽게 매수당하는 선생, 그리고 그것이 버젓이 통해 온 과거가 새삼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관행'으로부터의 우리의 깨어남 때문이다. (정도성)
- ㅂ. 나는 어머니가 신애 누나의 아버지 쪽 족보가 카랑카랑하지 못한 것에 견주어 우리 집안 뻘대 있는 것을 위세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관용성)
- ㅅ. 미세먼지가 높을 때 우리가 보통 야외활동을 제한하고 가만히 있어라. (동작성)
- ㅇ. 요즘 70년대 복고 바람이 불면서, A라인이 일상복에도 많이 쓰여 임부복도 자연스럽게 동화되고 있다. (기능성)

〈없다〉의 경우

- (28) ㄱ. 이 때문에 일행 중 누군가 "이곳은 모래 없는 사막"이라고 외쳤을 때도 누구 하나 반박하지 않았다. (중심 의미)
- ㄴ. 원외치방전을 받은 환자는 약국에 약이 없을 경우 병원으로 되돌아와 다시 원

내처방전을 발급받고 약값을 재지불하는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공간성)

- ㄷ. 노인이 있는 방이나 거실, 부엌 등에 무동작 감지센서를 설치하면 집에서 일정 시간 아무런 움직임이 없을 경우 실버폰이 입력된 전화번호에 스스로 전화를 걸어주는 기능을 더할 수 있다. (행위성)
- ㄹ. 고의든 과실이든 폐놀 방류의 모든 책임은 엄중히 물어져야 하며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 사회의 새로운 환경 인식이 발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변환 없는 생각이다. (추상성)
- ㅁ. 또 하나의 중요 현안인 국제 통화 협상에서도 미국의 이니셔티브가 충분히 반영될 전망은 거의 없어 보인다. (정도성)
- ㅂ. 물론 그 같은 해결방법이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관용성)
- ㅅ. 누가 보더라도 지금의 한계는 단순한 경기 순환 과정의 침체로는 볼 수 없는, 매우 구조적이고 치명적인 난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기능성)

위의 실례에서 보다시피 의미의 판단은 ‘있다/없다’와 1차적으로 결합하는 논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있다/없다’는 문장 속에서 서술어로 작용하고, 이 서술어가 문장의 핵으로 계승될 때 그 핵과 1차적으로 결합하는 논항과의 관계를 그 문장의 주요한 의미로 정한다. ‘있다/없다’는 의미 확장 양상 뿐만 아니라 여러 의미들의 사용 빈도도 비대칭적으로 나타났다. <표 4-15>를 바탕으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6> ‘있다/없다’의 의미별 빈도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차이점
의 미	중심 의미 보다는 확 장 의미가 활성화되었 다.	<p>1. ‘있다’는 ‘기능성>추상성>공간성>중심의미>행위성>정도성>동작성>관용성’ 순으로 의미가 활성화 되고, ‘없다’는 ‘추상성>기능성>중심의미>정도성>행위성>공간성>관용성’의 순으로 의미가 활성화 되었다.</p> <p>2. ‘있다’는 기능적 의미가 기타 의미에 비해 훨씬 활성화된 데 비해, ‘없다’는 기능적 의미와 추상적 의미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p> <p>3. ‘있다’는 공간성의 의미가 비교적 활성화된 데 비해 ‘없다’는</p>

	그렇지 않았다.
--	----------

인지의미론은 구조의미론과 달리 반의어 쌍의 작용 양상이 비대칭적일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있다/없다’의 형태·통사·화용·의미적 층위에서의 비대칭성을 살펴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대칭적일 것으로 간주되던 ‘있다/없다’도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여러 층위에서 비대칭성이 발견된다. 구체적으로 기능어, 의문문, 합성어, 유표성, 합성법, 파생법, 기능어, 의문문, 높임법, 관용구, 담화표지, 화제표지, 의미 확장 양상, 빈도 등 많은 면에서 나타난다. 위 11개 비대칭성에서 ‘있다/없다’의 활성화 정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7〉 비대칭성에서 ‘있다/없다’의 활성화 정도 차이

비대칭성		‘있다’가 더 활성화	‘없다’가 더 활성화
형태	유표성		●
	합성법		●
	파생법		●
통사	기능어	●	
	의문문	●	
	높임법	●	
화용	관용구		●
	담화 표지	●	
	화제 표지	●	
의미	의미 확장 양상	●	
	빈도	●	

이런 활성화 정도 차이로부터 ‘있다/없다’의 형태·통사·화용·의미적 특징을 종합할 수 있는데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18〉 ‘있다/없다’의 형태·통사·화용·의미적 특징

	‘있다’의 특징	‘없다’의 특징
형태적	‘있다’는 원형으로서 창조적 존재를 나타낸다. 따라서 형태의 변화를 별로 겪지 않는다 ⁹⁴⁾ . 새로운 형태로의 파생이 어렵고, 그 의미가 일반적이고 기본적인이어서 무표적이고, 특정 의미가 없기에 새로운 의미의 도출이	‘없다’는 ‘있다’에 비해서 덜 원형적이고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비고정적이기에 형태의 변화를 겪는 파생어로의 전이가 용이하다. 또한 ‘있다’에 비하여 파생적이고 부수적이기에 유표적이고, 그에 따라 특정 의미에 운곽부여가 일어나 새

	필요한 합성어나 파생어의 생성이 '없다'에 비해 어렵다. 그만큼 '있다'는 안정적이고 고정적이고 불변의 원초적 존재를 나타낸다.	로운 의미의 도출이 필요한 합성어를 산생시키는 데 용이하다.
통사적	'있다'는 '없다'에 비해서 문법화가 더 많이 진행되었다. 존재, 시간, 공간에 대한 지각적·인지적 현저성 ⁹⁵⁾ 이 '없다'에 비하여 강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의문문에서의 중화현상은 긍정적 의미인 '있다'에서 나타난다.	'없다'는 '있다'에 비해서 문법화가 덜 진행되었다. '-수 없다'가 유일하다. 존재, 시간, 공간 등에 대한 지각적·인지적 현저성이 약한 것이 원인이다. '없다'는 부정적 의미로 작용하기에 언중들의 선호도에서도 '있다'에 비하여 떨어진다. 따라서 높임법, 의문문 등에서 비생산적으로 나타난다.
화용적	'있다'는 담화 표지나 화제 표지에서 많이 쓰인다. '존재'의 중심 의미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없다'는 관용구에서 많이 사용된다. 왜냐하면 의미의 특수성으로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의미적	'있다'는 '없다'에 비하여 기능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공간성'의 의미가 '없다'에 비해 활성화되었다.	'추상성'과 '기능성'의 의미가 비슷하게 사용된다.

궁극적으로 위의 같은 서로 다른 특징을 초래한 원인은 다음과 같이 개괄할 수 있다.

첫째, '있다'가 원형 단어이다. '없다'는 '있다'로부터 도출된 의미로서 '있다'의 의미 영역 내의 '부정적 존재'로 작용하는 바, 파생적이고 보완적인 것이다. 하여 '있다'가 더 고정적이고 불변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없다'는 부수적이고 특정 의미로 주로 작용한다. 하여 '있다'는 기본적인 범위에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없다'는 특정 영역 내에서 새로운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 이에 형태·통사·의미·화용 영역 내에서 많은 차이점이 초래되고 그 차이점으로 인해 비대칭적인 분포를 이루고 있고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94) 임지룡(2009)은 “중심 의미가 확장 의미에 비해 언어적 맥락에서 구조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사용 빈도가 높고, 인지적으로 더 단순한 특징을 가진다.”고 하였다.

95) '현저성의 개념(general notion of salience)'에 관련해서, Langacker(1993:30)에서 인간이 아닌 것보다는 인간이, 부분보다는 전체가, 비가시적인 것보다는 가시적인 것이,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것이 더 현저하여 우리는 더 특징적이고 현저한 것을 먼저 고려하게 된다고 한 바가 있다.

둘째,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인간의 인지 현저성이 다르다. '존재'는 가시적인바, 구체적 사물에 대한 인지가 용이하고 그 인지적 체험의 작용 하에 추상적 사물에도 쉽게 같은 패턴으로의 구조적 접근이 가능하여 언어적 표현에서 의미 개념화가 '없다'에 비하여 더 잘 실현된다. '없다'는 비가시적이고 부정적이고 비일반적이어서 인간의 인지 선호도 낮다. 따라서 특정 의미, 제3의 변화된 의미에 사용도가 높다.

셋째, 경험의 친숙성과 언중들의 선호도도 비대칭성을 조성하는 데 원인으로 작용한다. 체험주의를 바탕으로 형성된 언어적 구조에서 긍정적인 쪽이 부정적인 쪽에 비해 더 친숙하게 작용하고, 사회·문화적 경험으로 선호도도 항상 긍정적인 쪽이 더 높다.

의미 · 구조적 비대칭성은 범언어적인 것으로 모든 반의어 쌍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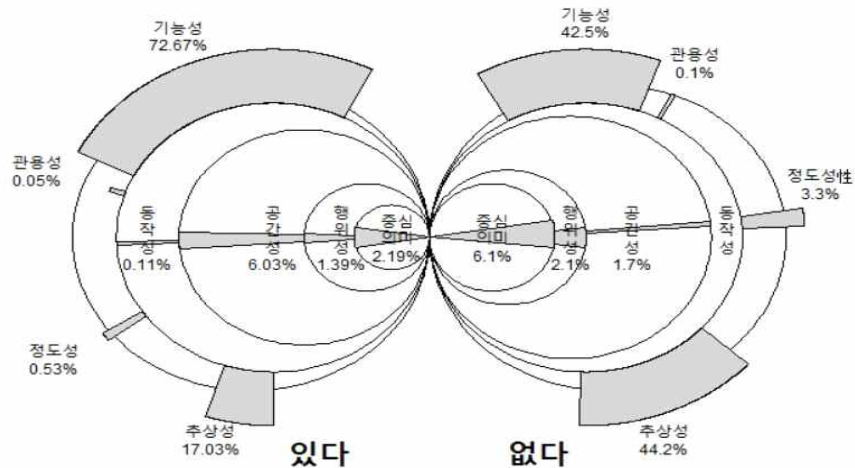
위에서 기술한 비대칭성을 바탕으로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 양상을 새롭게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 양상

- 가. 대상-->공간
- 나. 대상-->행위
- 다. 행위-->공간
- 라. 구체성-->추상성
- 마. 상태-->동작 ('있다'에만 적용)
- 바. 객관성-->주관성(정도성)
- 사. 내용어-->기능어
- 자. 문자성-->관용성
- 차. 범주 내-->범주 밖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 양상과 사용 빈도를 바탕으로 그 의미망을 구축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3〉 ‘있다/없다’의 의미망



위의 ‘있다/없다’의 의미망은 Heine et al.(1991:48-49)의 확장의 방향과 위계에 따라 구축된 것이다. 범주 밖의 확장을 제외한 나머지 8개의 확장을 모두 고려했거니와 의미별 비율도 고려하여 나타낸 것이다. ‘있다’의 경우 중심 의미는 전체 의미의 2.19%이고, 행위성은 1.39%, 공간성은 6.03%, 동작성은 0.11%이며, 나머지는 질 영역으로의 확장이다. 질 영역에서는 추상성과 기능성, 관용성, 정도성으로 나누었는데 그 비율을 각각 17.03%, 72.67%, 0.05%, 0.53%이다. ‘없다’의 경우 중심 의미는 전체 의미의 6.1%, 행위성은 2.1%, 공간성은 1.7%이고, 질 영역에서 추상성은 44.2%, 정도성은 3.3%, 관용성은 0.1%, 기능성은 42.5%이다. 여기에서 ‘있다/없다’는 다양한 확장을 이룩하지만 대부분은 기능성과 추상성으로 사용됨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6. 결론

본고는 현재 반의어 연구에서 말뭉치 언어학, 구조 의미론적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인지의미론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반의어 ‘있다/없다’의 유형별 의미 확장 양상과 그 형태·통사·화용·의미 층위의 비대칭성을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 밝혔다.

인지의미론은 인간의 언어, 마음, 물리적·사회적 체험 간의 관계로부터 패턴을 찾아내어 언어 구조를 연구하는 언어학의 이론이다. 언어는 인간의 다양한 인지 능력의 용법과 동일한 원리로 작용한 결과이다. 체험을 통한 여러 마음의 양상이 언어에서 반영된다. 인간의 사고와 의미도 체험의 틀에 근거하여 구조화된 것이다. 인간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체험이 언어 창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의미의 창조에 우리의 모든 일상 자원이 활용되는 법칙을 파악하여 의미 구성의 방식을 확인하고, 우리의 체험과 체험에서 비롯된 사고, 체험의 패턴으로 창조되는 언어의 법칙을 추론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것이다.

1장에서는 우선 문제 제기와 함께 연구 목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다음 연구방법과 장 별로 진행될 논의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사에 관하여 ‘있다’에 관한 논의, ‘없다’에 관한 논의, ‘있다/없다’에 관한 논의로 나누어 지금까지 연구의 성과에 대하여 연도순으로 정리하고 선행 연구를 토대로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재 진행될 논의의 주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우선 본고의 반의어의 개념과 유형을 새롭게 확정하였다. 그리고 ‘있다/없다’의 반의어 짝의 고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고정반의어와 상황반의어로 나누고, 상보반의어와 정도반의어를 고정반의어에 포함시켰다. 다음 인지의미론의 이론의 필요성과 더불어 본 연구의 토대가 되는 의미 확장의 방향과 기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주로 기존 의미 확장의 방향과 본 연구에 적용된 원형이론, 주관화 이론, 영상도식 이론에 대해 기존 관점을 바탕으로 논의하였다.

3장에서는 원형이론에 기반하여 ‘있다/없다’의 중심 의미를 ‘구체 대상의 존재/비존재’로 정하고, 2장에서 소개한 의미 확장 방향, 원형 이론, 주관화 이

론, 영상도식 이론을 토대로 '있다/없다'의 유형별 확장 양상 및 거기에 작용하는 기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상보반의어 '있다/없다'의 상보성을 여러 학자들의 이론에 결부하여 검증하고 그 반의어 쌍의 의미 확장 양상을 밝혔다. 상보반의어 '있다/없다'는 의미 확장 양상에 있어서 대상(사람, 사물)→공간, 대상(사람, 사물)→행위, 행위→공간, 물리적 위치→사회적 위치, 물리적 위치→심리적 위치, 구체성→추상성, 상태→동작 등 방향으로 확장하였는데 중심 의미에서는 의미적 분포가 균형을 이루었지만 확장 의미에서는 갈수록 의미적 분포가 불균형을 이루었다. 대상 개념, 공간 개념, 행위 개념에서 '있다'와 '없다'는 절대적 대립을 유지하고 있지만 공간개념의 하위 개념인 사회·심리적 위치에서의 확장에서는 '있다'만 존재하고 '없다'는 아예 확장을 이루지 못했다. 이는 '없다'는 중심 의미가 '비존재'인바, 공간성의 인지가 어렵기 때문인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다. 추상개념으로의 확장에서는 시간성과 비시간성으로 나누어 확인한 결과 일부 상황에서는 절대적 대립을 이루지 못했다. 특히 '형용사'의 '있다'는 시간의 흐름을 거쳐 동사로 파생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없다'는 시간의 흐름을 인지할 수 없어 동사로의 파생이 불가능함이 확인되었다. 여기서 '없다'는 '있다'보다 형용사성이 강하고 그 상태와 성질이 불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낼 수 있다. 또한 '있다/없다'는 절대적 대립의 중심 의미에서 의미적 확장을 시작하지만 확장이 진행될수록 그 대립성은 약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의미가 확장된 '있다'의 외연의 폭이 '없다'의 외연의 폭보다 훨씬 넓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정도반의어 '있다/없다'에서 그 정도성을 검증하고 정도반의어로서의 확장에 작용하는 기제를 분석하고, 그 의미 확장 양상을 전경-배경 이론을 결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정도반의어 '있다/없다'의 확장 원리는 임지룡(1996:250-251)에 제시된 일반적 확장 원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여기에 관여되는 새로운 확장 원리를 제시하면 '객관성→주관성'의 확장이다. 주관화는 화자가 문장 맥락 속에 개입하여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는 데 참여하는 인지과정이다. 화자가 자신의 관점을 맥락 속에 투사하여 어휘의 의미가 확장됨으로써 객관적 의미에서 주관적인 의미로의 전이가 실현된다. 화자의 주관적 해석의 작용 하에 정도반의어 '있다/없다'는 양적·위계적·평가적 대립으로의 확장이 실현되었는데 이는 전경-배경 원리로 해석할 수 있었다. 객관적 존재는 정도반의

어 ‘있다/없다’의 배경의미로, 개인적 편견을 초월하여 객관적이며 절대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양적·위계적·평가적의 정도성은 화자의 주관적 태도와 신념의 반영으로, 전경으로 초점화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도반의어로서의 ‘있다/없다’는 일차적으로 화자의 심적 잣대에 근거하여 ‘많은 것/적은 것, 높은 것/낮은 것, 좋은 것/나쁜 것’으로 판단되며 최종적으로 ‘많은 것, 높은 것, 좋은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있다’로 개념화되고, ‘적은 것, 낮은 것, 나쁜 것’은 부정적인 것으로 ‘없다’로 개념화되었다. 여기에 참여하는 기제는 해석의 주관화로 이는 화자의 심적주사가 담화에 참여하는 인지과정이다.

다음 ‘있다/없다’의 상황반의어로서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상황반의어로 확장됨에 있어서 거기에 작용하는 기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인간의 신체적 경험의 작용 하에 ‘있다/없다’는 새로운 도식적 확장을 이룩하였음을 고찰하였다. ‘있다’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인간의 체험적 인지를 바탕으로 ‘비다, 허상, 죽다’와 반의관계를 형성하였는데 이에 기반하여 ‘있다/없다’는 ‘그릇도식’, ‘실체-허상 도식’, ‘생-죽음 도식’을 형성하여 새로운 확장도식을 실현하였다. ‘있다/없다’의 그릇도식은 인간의 체험적 지각 구조를 그릇화하여 추상적인 영역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는데 ‘있는’ 것은 ‘찬’ 것이고, ‘없는’ 것은 ‘빈’ 것으로 ‘그릇이 찬’ 것과 ‘그릇이 빈’ 것 혹은 기타 파괴적 ‘그릇 형태’의 체험적 패턴이 추상적인 언어영역으로 확장되어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의 관계를 형성시켰다. ‘있다/없다’의 실체-허상 도식도 그릇도식과 마찬가지로 체험적 계슈탈트를 구성하였다. 이 영상도식은 사물과 광원에 의한 허상과의 체험적 구조를 언어영역에 확장시켜 실상은 긍정적 가치로 허상은 부정적 가치로 개념화하였다. 생-죽음 도식은 사물의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에 대한 체험으로부터 시작하여 ‘있는’ 것은 ‘산’ 것으로 긍정적 가치를 부여받게 되고, ‘없는’ 것은 ‘죽은’ 것으로 부정적 가치를 부여 받아 추상적 사물을 구조화하고 은유적으로 정교화하여 긍정과 부정의 대립을 이룩하였다. ‘있다/없다’는 원초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험과 상황에 부딪칠 때 이용 가능한 영상도식을 토대로 은유적으로 이해되고 표현된다. 따라서 신체적이지 않은 경험에 그 자체에 어울리는 체험적인 지각적 구조를 부여한다.

4장에서는 ‘있다/없다’ 반의어 쌍의 형태·통사·화용·의미적 층위에서의 비대칭성을 고찰하였다. 그 비대칭성은 구체적으로 유표성, 합성법, 파생법, 기능어, 의문문, 높임법, 화제 표지, 담화 표지, 관용구, 의미 확장 양상, 의미별 빈

도 등 많은 면에서 나타났다.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의 불일치, 인간의 인지 차이, 사회적 의식 차이, 경험의 친숙성 차이, 선호도 차이 등 여러 원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아진다. '있다'는 기능어, 의문문, 화제 표지, 담화 표지, 높임법, 사용 빈도, 의미 확장에서 더 생산적이고, '없다'는 합성어, 유표성, 파생법, 관용구 면에서 '있다'에 비하여 더 활성화되었다. 이런 활성화 정도 차이에서 '있다/없다'의 형태·통사·화용·의미적 특징을 종합할 수 있었다. 형태적인 면에서 '있다'는 '없다'에 비해서 더 원형적이어서 형태의 변화를 별로 겪지 않았다. 하여 사동 표현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단어 생성이 어렵고,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의미로 작용하기에 무표적이고, 제3의 의미의 도출이 '없다'에 비해 어려웠다. '없다'는 '있다'에 비해서 덜 원형적이고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비고정적이기에 형태의 변화를 겪는 사동 표현 같은 새로운 단어의 파생이 용이하다. 또한 '있다'에 비하여 파생적이고 부수적이기에 유표적이고 특정 의미에 윤곽부여가 일어나 새로운 의미의 도출이 필요한 합성어를 산생시키는 데 용이했다. 문법적인 면에서 '있다'는 '없다'에 비해서 문법화가 많이 진행되었다. 반면 '없다'의 문법화는 '-수 없다'가 유일했다. 화용적 측면에서 '있다'는 담화 표지나 화제 표지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여기에는 '있다'의 '존재'의 의미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아진다. 반면 '없다'는 합성어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의미의 도출이 필요한 관용구로의 쓰임이 강했다. 의미적인 측면에서 '있다'의 의미 폭이 '없다'에 비하여 넓었다. 이 같은 비대칭성이 초래된 원인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원인은 '있다'가 더 원형적인 단어이고 '없다'는 '있다'로부터 도출된 의미로서 '있다'의 의미 영역 내의 '부정적 존재'로 작용하는 바, 파생적이고 보완적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원인은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인간의 인지 현저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존재'는 가시적인바, 구체적 사물에 대한 인지가 용이하고 그 인지적 체험의 작용 하에 추상적 사물에도 쉽게 같은 패턴으로 구조적 접근이 가능하여 언어적 표현에서 의미 개념화가 '없다'에 비하여 더 잘 실현된다. 세 번째 원인은 '있다'는 경험의 친숙성과 선호도 면에서 '없다'보다 더 평가가 높기 때문이다. 언어의 구조와 체험의 구조는 같은 패턴으로 진행된다.

본고는 아직 부족점이 많다.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에 작용하는 기제를 더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고, 의미별 빈도에 있어서 여건상 구어적 말뭉치 자료를 포함하여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

다양한 반의어로 작용하는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 양상에서 이용되는 기제를 밝혔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반의어 쌍의 비대칭성을 찾아 '있다/없다'의 형태·의미·화용·의미 층위의 차이를 밝힌 점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부족점은 향후 필자가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단행본〉

- 고석주(1996), 『‘있다’ 구문에 대한 연구』, 남기심 엮음 「국어문법의 탐구
Ⅲ-국어 통사론의 문제와 전망」, 태학사.
- 김근수(1947), 「중학 국문법책」, 문교당출판부.
- 김동환(2013), 「인지언어학과 개념적 혼성이론」, 박이정.
- 김승곤(1978), 「한국어 조사의 통시적 연구」, 대체각.
- 김한샘(2005),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 국립국어원.
- 노양진 역(2000), 「마음 속의 몸: 의미 상상력 이성의 신체적 근거(존슨, 마크)」, 철학과현실사.
- 박승빈(1935), 「조선어학(朝鮮語學)」, 조선어학연구회.
- 박승빈(1931), 「조선어학강의요지(朝鮮語學講義要旨)」, 조선어언조선어연구회구회.
- 서정수(1994), 「국어 문법」, 뿌리 깊은 나무.
- 송철의(1992),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태학사.
- 신선경(2002), 「‘있다’의 어휘 의미와 통사」, 태학사(국어학총서).
- 심의린(1936), 「중등학교조선어문법(中等學校朝鮮語文法)」, 조선어연구회.
- 심재기(1982,2000), 「國語語彙論」, 집문당.
- 양정석(1995), 「국어 동사의 의미 분석과 연결이론」, 박이정.
- 유현경(2017), 「형태 중심 한국어 통사론」, 역락.
- 윤평현(2008), 「국어의미론」, 역락.
- 이광호(2008), 「어휘와 의미」, 제이앤씨.
- 이성하(1998),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 이익섭·채완(1999), 「국어문법론 강의」, 학연사.
- 이익섭(1986), 「국어학개설」, 학연사.
- 이회승(1955), 「국어학개설(國語學概說)」, 민중서관.

- 임지룡(1989), 「국어 대립어의 의미 상관체계」, 형설출판사.
- 임지룡(1992), 「국어 의미론」, 탑출판사.
- 임지룡·윤희수 옮김(1993), 「심리언어학: 머릿속 어휘사전의 신비를 찾아서」, 경북대학교출판부.
- 임지룡(1996),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 임지룡(1997a), 「인지 의미론」, 탑출판사.
- 임지룡(2006), 「말하는 몸: 감정 표현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 임지룡(2008), 「의미의 인지언어학 탐색」, 한국문화사.
- 임지룡, 김동환 역(2010), 「의미론의 이해」, 한국문화사.
- 전수태(1997), 「국어 반의어의 의미 구조」, 박이정.
- 조남호(2002),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을 위한 기초 조사」, 국립국어원.
- 최현배(1971), 「우리말본-1971년판」,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 허웅(1983), 「국어학-우리말의 오늘, 어제」, 샘문화사.
- 허웅(1987), 「국어때때김법의 변천사」, 샘문화사

〈논문〉

- 강사민(1981), 『국어반의어고』,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명균(1989), 『현대 국어의 반의어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석주(2007), 『‘있다’의 의미에 대한 연구-어휘개념구조 표상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제20호.
- 고영근(1980), 『국어 진행상 형태의 처소론적 해석』, 서울대 어학연구소.
- 구연상(2011), 『하이데거의 존재물음과 ‘있다’의 근본의미』, 현대유럽철학연구 26.
- 권순구(2003), 『보조용언 ‘있다’에 관한 연구』, 인문학연구 제30권 제2호.
- 김기혁(1999), 『‘가능’ 범주의 형성과 확장』, 「어원연구」 제2호, 51-64.
- 김미영·김진수(2018), 『한국어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 연구』, 「한국언어문학」, 105기.
- 김미영·김진수(2019), 『정도반의어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 연구』, 「어문

학」 144.

- 김상대(1991), 『있다'의 의미에 대하여』, 『인문논총』 2, 5-31.
- 김석득(1987), 『'완료'와 '정태지속'에 대한 역사적 정보』, 「한글」 196, 한글학회.
- 김성곤(1991), 『현대 중국어 반의어 소고 - 의미와 어법을 중심으로 -』, 「중국인문과학」 10, 중국인문학회.
- 김선영(2012), 『한국어 '마음' 표현의 인지의미론적 연구- 영상도식 이론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슬옹(1998), 『상보반의어 설정 맥락 비판- '남/여'가 상보반의어인가』, 「한국어 의미학」 3, 67-94.
- 김억조(2014), 『어휘 외적 대립어 설정에 관한 인지언어학적 접근』, 『국제어문학』 30, 국제어문학회.
- 김영미(1995), 『「있다」의 의미에 대한 고찰』,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선(1986), 『국어 맞섬말의 의미구조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석(1983), 『한국어 보조동사 연구』, 「배달말」 8, 1-33.
- 김정민(1991), 『보조사{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종태(1986), 『「-아 있다」, 「-고 있다」 조동사 구분에 대하여』, 「한민족어문학」 13, 한민족어문학회.
- 김종태(1987), 『15세기 국어의 「-아잇-」 결합어형에 대하여』, 「한민족어문학」 14, 한민족어문학회.
- 김주보(1989), 『국어 의미 대립어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2011), 『중급 학습자를 위한 반의어 어휘 교육 방안』,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수·오금희(2013), 『한·중 공간형용사 '높다'와 '高'의 의미 대조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87집, 한국언어문학회.
- 김진수·오금희(2014), 『한·중 공간형용사 '길다'와 '長'의 의미 대조 연구』, 『인문학연구』 통권 95호.
- 김진수(2017), 『인지이론으로 본 방향대립어의 대립성 약화·중화 현상 연구』, 『국제어문』 제73집.
- 김진해(2006), 『코퍼스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의미의 본질』, 「한국어 의미학」

21. 한국어 의미학회.

- 김차균(1982), 『‘있다’의 의미 연구』, 「언어학」 제5호, 한국언어학회.
- 김차균(1985), 『「있다」의 의미 연구』, 『언어문학연구』.
- 김천학(2009), 『현대 국어 ‘있다’와 관련된 상적 호응에 대하여』, 「語文研究」 37-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김혜숙(1993), 『한국어의 익은말 연구』, 「목멱어문」 5.
- 김혜영(2016), 『체험주의의 영상도식과 신체화된 경험』, 「범한철학」 83, 범한철학회.
- 남기심(1974), 『反對語考』, 「국어학」 2, 국어학회.
- 다카치 토모나리(2014), 『현대 한국어 문법적 언어의 양태체계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명옥(2008), 『보조사 ‘-도, -까지, -조차, -마저’에 대한 고찰』,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선희(1984), 『현대 국어의 상대어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양규(1975), 『소유와 소재』, 「국어학」 3.
- 박재연(2003), 『老乞大. 朴通事 原文 諺解 比較 資料』,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 연구소.
- 박재연(2007), 『문법 형식의 전경 의미와 배경 의미—‘-으면서, -느라고, -고서, -자마자’의 의미 기술을 위하여』, 「한국어 의미학」 22.
- 박진수(1985), 『국어 관용어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호(1994), 『형태론』, 국어학 연감, 국립국어원 40-56.
- 박혜란(2011), 『우리 말 관용표현 “-ㄴ 수 있다”의 의미론적 분석』, 「중국조선어문」 175,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 배도용(2002), 『우리말 ‘귀’의 의미 확장 연구』, 「국어국문학」 132, 국어국문학회 63-87.
- 배주채(2000), 『‘있다’와 ‘계시다’의 품사에 대한 사전 기술』, 「성심어문논집」 22. 223~245.
- 서정수(1991), 『풀이말‘있/계시(다)’에 관하여』, 「국어의 이해와 인식」, 한국문화사 25-37.
- 성광수(1986), 『동의성과 반의성의 한계』, 고려대 사대 논집.
- 성열호(1983), 『國語反意語指導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 송지현(2014), 『韓·中 반의어 대조와 반의어의 교육적 활용』, 『중국어문학논집』, 제87호.
- 송철의(2001), 『용언 ‘있다’의 통시적 발달에 대하여』, 조선어연구회(170회)발표문.
- 송혜란(2011), 『‘X+없다’ 구성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시정곤·김건희(2009), 『‘-을 수 {있다/없다}’ 구문의 통사·의미론』, 국어학0-56, 국어학회.
- 신선경(1996), 『비대격 구문의 처격 도치와 소유 구문의 주격 중출에 관하여』, 서울대학교 어학 연구소, 어학연구회 발표요지.
- 신선경(1998), 『‘있다’의 어휘 의미와 통사 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선경(2002), 『‘있다’ 구문의 의미와 유형』, 국어학회.
- 심재기(1975), 『反意語의 存在樣相』, 「국어학」 3, 국어학회 135-149.
- 심재기(1980), 『명사화의 의미 기능』, 「언어」 5-1, 한국언어학회.
- 심지연(2009), 『국어 관용어의 인지의미론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정아(2005), 『국어학 : 의존 명사 “수”와 “줄”의 의미 연구』, 어문논집 52, 민족어문학회.
- 안주호(2004), 『‘-ㄴ 수 있-’구성의 특징과 문법화』, 「한국 언어 문학」 53, 한국언어문학회.
- 오숙화(1994), 『현대국어 부정문 연구 : 부정극어와 이중 부정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왕남남(2017), 『한중 자기 반의어의 의미 양상과 해석』, 『담화와 인지』, 제24권 2호.
- 왕파(2012), 『반의어 개념의 확장: 원형이론으로 본 반의어의 개념과 유형』,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 염재상(1999), 『한국어 양상표현 ‘-ㄴ 수 있다’의 중의성과 의미해석들』, 불어불문학연구 38-2, 한국불어불문학회.
- 염재상(2003), 『‘-(으)ㄴ 수 있다’의 기저의미: 상보적 전환』, 인문학논총 3.

- 우청민(2014), 『어원에 기반한 다의어의 원형의미와 의미 확장의 원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형식(2008), 『“없다”의 용법과 부정 표현의 양상』, 『배달말』 43, 배달말학회.
- 유재복(1992), 『반의어 ‘오다’ ‘가다’의 의미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현경(1996), 『국어 형용사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기정(1990), 『국어대립어의 연상의미에 대한 조사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수(2012), 『한국어 미각 형용사의 의미와 개념화』,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광호(2009), 『코퍼스를 활용한 반의어의 총체적 목록 확보 방법에 대한 연구』, 『국어학』 56, 국어학회.
- 이기동(1978), 『조동사 ‘있다’의 의미 연구』, 『눈피허웅박사환갑기념논문집』, 서울대 출판부.
- 이기동(1989), 『언어 주관성의 문제』, 『한글』 206, 한글학회.
- 이남순(1987), 『‘에’, ‘에서’와 ‘-어 있(다)’, ‘-고 있(다)’』, 국어학 16, 국어학회.
- 이상희(2017), 『‘있다’ 동사 구문의 통사와 의미 - 존재동사와 소유동사의 구분을 위하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사교(2014), 『한국어 반의어의 불균형성에 대한 연구』, 『한국어 의미학』 4.
- 이사교(2014), 『한국어 한자어 반의어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석주(1975), 『反意語 意識에 關한 一調査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석주(1989), 『반의어에 대한 고찰』, 『이용주박사 회갑기념논문집』, 한샘.
- 이성우(2019), 『중세 한국어의 ‘있다’ 구문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수련(1986), 『‘있다’ 월의 의미 연구』, 『동의어문논집』 2, 137-150.
- 이수련(2003), 『‘있다’의 문법화에 대한 의미·화용적 연구-부산 방언을 중심으로』, 『국어학』, 42, 177-205.
- 이수련(2010), 『주관화와 의미 해석-개념 화자를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27집.

- 이승명(1973), 『國語相對語攷』, 국어국문학 61, 국어국문학회.
- 이승명(1978), 『국어 상대어의 구조적 양상』, 「어문학」 37집 163-173, 한국어문학회.
- 이승명(1978), 『국어 상대어의 구조적 양상-구조의 체계화를 위한 시론』, 『국어학』 37, 한국어문학회.
- 이승명(2003), 『국어 [N+없다]의 구조』, 「한글」.
- 이승명(2013), 『국어 「N+없다」의 구조』, 「한글」 269, 한글학회.
- 이신태(1992), 『國語 對立語에 對한 研究』,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안구(2001), 『‘있다’와 ‘없다’의 활용양상에 대하여』, 「관악 어문 연구」 26.
- 이안구(2002), 『‘있다’와 ‘없다’에 대한 通時的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섭(1996), 『현대 국어 부정문의 통사 구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택(1987), 『‘-고’와 공존하는 도움풀이씨 연구』, 「한글」 200, 한글학회.
- 이현근(1995), 『원형이론과 개념론에 의한 어의 비교 연구』, 「언어연구」 11, 한국현대언어학회.
- 임지룡(1985), 『대등합성어의 의미분석』, 「배달말」 10, 배달말학회.
- 임지룡(1987), 『정도그림씨의 의미대립 특성』, 「언어」 12(1).
- 임지룡(1993), 『원형이론과 의미의 범주화』, 『국어학』 23.
- 임지룡(1996), 『혼성어의 인지적 의미 특성』, 「언어과학연구」 13, 언어과학회.
- 임지룡(1997a), 『영상도식의 인지적 의미 특성』, 「어문학」 60, 한국어문학회.
- 임지룡(1997b), 『21세기 국어어휘 의미의 연구 방향』, 「한국어 의미학」 1, 한국어 의미학회.
- 임지룡(2002), 『시간의 개념화 양상』, 「어문학」 77, 한국어문학회.
- 임지룡(2006), 『의미 구조의 비대칭성』, 『李秉根先生退任紀念 國語學論叢』

- 』, 태학사.
- 임지룡(2009), 『다의어의 판정과 의미 확장의 분류 기준』, 「담화·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담화·인지언어학회.
- 임지룡(2010), 「어휘의미론과 인지언어학」, 「한국어학」 49, 한국어학회.
- 임지룡(2015), 『대립어의 머릿속 작용 양상』, 「한글」 307, 한글학회.
- 임홍빈(1975), 『존재전제와 속격포지{어}와 상태진술의 {고}』, 국민대 논문집8, 국민대.
- 임홍빈(2001), 『국어 품사 분류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 태학사.
- 장석진(1973), 『시상의 양상: 「계속」·「완료」의 생성적 고찰』, 「어학연구」 9-2, 서울대어학연구소.
- 전문규(2014), 『대립성의 의미적 확장을 통한 한국어 반의 표현 교육 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문규(2017), 『중·근세 국어의 반의어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수태(1995), 『반의어의 사전 처리에 대하여』, 「한남어문학」 20, 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225-263.
- 정경재(2018), 『{있다}의 활용 양상 변화 고찰』, 국어학 85, 251-293.
- 정언학(1995), 『{있(다), 없(다)}에 관한 研究: 形態·意味를 中心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언학(2001), 『중세 국어 보조 용언 연구: ‘V-어 V’, ‘V-고 V’ 구성을 대상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인수(1985), 『국어 반의어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자훈(2004), 『‘있다’와 ‘없다’의 의미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태구(1994), 『‘-어 있다’의 意味와 論項構造』, 「국어학」 24.
- 정희자(2002), 『전경 함축과 배경 함축』, 「담화와 인지」 9(1).
- 조경환(2008), 『현대 중국어 ‘把字句’의 객관성·주관성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미희(2013), 『국어 보조동사 의미의 주관화—‘-어 놓다, -어 두다’, ‘-어 버리다, -어 치우다’ 쌍을 중심으로—』, 「형태론」 15권 1호.
- 조미희(2016), 『국어의 주관화 과정과 문법화 범위에 대하여』, 「한민족어

문학」 73.

- 조유진(2017), 『-르/을 수 있다' 구문의 텍스트 장르별 사용 양상』,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재홍(1986), 『현대 국어 어휘의 의미 대립 유형에 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동주(1994), 『國語 接續文에서의 時制現象』, 「국어학」 24, 국어학회.
- 최호정(2013), 『한국어 반의어 교육방법 연구』, 부산대학교 한국어교육학 석사학위논문.
- 한동완(2000), 『-어 있- 구성의 결합제약에 대하여』, 「형태론」 2.
- 한지오(2013), 『한국어 시각형용사에 대한 인지의미론적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함계임(2017), 『주관화 이론을 적용한 연결어미 '-(으)'의 의미 조합 분석과 의미 제시 순서』, 「언어와 문화」 13호 2기.
- 황병순(1982), 『'있다'의 복합구문과 조동사 '있다'』, 「공포조규설교수화갑기념 국어학논총」, 형설출판사.
- 황병순(1986), 『현대 국어 동사의 상 연구』, 「배달말」 11, 배달말학회.
- 홍순성(1990), 『대립어와 부정』, 한국학논집 17, 계명대학교 한국학 연구원.
- 홍종선(1986), 『체언화 어미 '— 어, — 게, — 고'의 의미』, 「어문논집」 26.
- 황화상 (2006), 『'-이'형 부사어의 문법 범주』, 「한국어학」 32, 한국어학회.
- 황화상(2013), 『'있다'의 의미 특성과 품사, 그리고 활용』, 「한말연구」 제33호. 한말연구학회.
- Boucher, J. and C. E. Osgood(1969), The Pollyanna hypothesis,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8, 1-8.
- Croft, W(2003), Typology and Universa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oft, W. & D. A. Cruse(2004), Cognitive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use, D. A(1986), Lexical seman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use, D. A(1990), Prototype theory and lexical semantics, In Meanings and Prototypes: Studies in Linguistic Categorization, Tsohatzidis, S.L.(ed),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Cruse, D.A(1992), Antonymy revisited: Some though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ds and concepts, in A. Lehrer & E. Kittay(eds.), Frames, Fields, and Contrasts, Hillsdal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Cruse, D. A.&P. Togis(1995), Towards a cognitive model of antonymy, Lexicology 1.
- Evans, V. & M. Green(2006), Cognitive Linguistics: An Introduction,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임지룡 · 김동환 옮김 (2008). 《인지언어학 기초》, 한국문화사.
- Geeraerts,D.(1997), Diachronic Prototype Semantics: A Contribution to Historical Lexicology. Oxford: Clarendon Press.
- Greenberg, J. H(1966), Language Universals, The Hague: Mouton.
- Hamawand, Z.(2016). Semantics : A Cognitive Account of Linguistic Meaning Sheffield, U.K.:Equinox.(임지룡·윤희수 옮김(2017), 『의미론: 언어 의미의 인지적 설명』, 한국문화사.)
- Heine et al(1991), Grammaticaliz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eidegger, Martin(1993), Sein und Zeit, Tuebingen.
- Johnson, M(1987), The Body in the Mind: The bodily Basis of Meaning, Imagination, and Reas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Johnson, M(1989), Image-schematic bases of meaning. Semiotic Inquiry vol. 9.
- Kövecses, Z(2002), Metaphor: A Practical Introdu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bow, W(1973), The boundaries of words and their meaning. In C-J. N. Bailey and R. W. Shuy, eds, New Ways of Analyzing Variation in English Washington :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Lakoff & Johnson(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노양진 · 나익주 옮김(1995), 『삶으로서의 은유』, 서광사. 노양진 · 나익주 옮김(2006), 『삶으로서의 은유(수정)』, 박이정.
- Lakoff & Johnson(1987), Philosophy in the Flesh: the embodied mind and its challenge to western thought. Basic Books: A member of the Presus Books Group. 임지룡 외 3 옮김(2002), 『몸의 철학』, 박이정.
- Lakoff & Johnson(1999). Philosophy in the Flesh: The Embodied Mind and Its

- Challenge to Western Thought. New York: Basic Books.
- Lakoff, G(1986).Classifiers as a reflection of mind, In Noun Classes and Categorization, C. Craig, (ed.), 13-51, Amsterdam: Benjamins.
- Lakoff, G(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off, G(1987). Some empirical results about the nature of concepts. Mind and Language4/1-1.
- Langacker, R.W(1985). Observation and Speculation On subjectivity, Iconicity in Syntax, John Benjamin Publishing Co.
- Langaker, R.W(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1, Theoretical Prerequisite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Langacher, R.W(1991),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2, Descriptive Applica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Langacher, R.W(1999), Grammar and Conceptualization. Berlin: Mouton de Gruyter.
- Langacker, R.W(2004), Deixis and Subjectivity, Grounding, Mouton De Gruyter.
- Leech, Geoffrey(1974), Semantics , Penguin Books, Ltd.
- Lehrer, A(1985), markedness and antonymy. Journal of Linguistics, 21.
- Lyons, John(1968),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the University of Cambridge Press.
- Lyons, John(1977), Seman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yons, John(1982), Deixis And Subjectivity, Speech, Place and Action, John Wiley & Sons LTD.
- Lyons, John(1995), The Subjectivity of utterance, Linguistic Semantics, Cambridge Univ. Press.
- Odgen, C. K.(1967), Opposition, Indiana University press(originall published in 1932).
- Oakley, T.(2007), Image schemas, in D. Geeraerts and H. Cuyckens(eds.), The Oxford Handbook of Cognitive Linguis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eña, M. S(2003), Topology and Cognition: What Image-schemas Reveal about the Metaphorical Language of Emotions. Lincom Europa.(임지룡 · 김동환 옮김(2006). 《은유와 영상도식》, 한국문화사.)
- Pulman, S.G(1983), Word meaning and Belif, London: Croom Helm.

- Rosch, E(1973), Natural categories. *Cognitive Psychology* 4.
- Rosch, E(1975),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semantic categorie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04.
- Rosch, E(1976), *Cognition and categorization*. Hillsdal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Ruth M. Kempson(1977), *Semantic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ilder, P.(1978): *The Image and Appearance of the Human Body*,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Talmy, L(2000),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Vol I, Concept Structuring Systems*. Cambridge: The MIT Press.
- Taylor, J. R(1989/1995), *Linguistic Categorization: Prototype in Linguistic Theory*.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Traugott & Dasher(2002), *Regularity in Semantic Change*, Cambridge Univ. Press.
- Ungerer, F. and H-J. Schmid(1996/2006). *An Introduction to Cognitive Linguistics*. London: Longman.
- Wittgenstein, L(1953),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Transl. by G. E. M. Anscombe, 2nd edn. Oxford : Blackwell.

ABSTRACT*

Cognitive Semantics Research on ‘It-da/Up-da’Meaning Extension Aspect

Mei-ying Ji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Jin-soo kim)

This study aims at identifying the meaning extension of Korean antonym ‘it-da(to be)/up-da(not to be)’ and its asymmetry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gnitive

* A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 a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in Korean Language & Literature conferred in February 2020

semantics. Cognitive Linguistics is a branch of linguistics theory studying language structures by discovering the patterns from the relationships between human language, mind and physical and social experiences. Based on that and with the prototype, subjectification and images-schematic theory, this research discusses the meaning extension of 'it-da/up-da' and the asymmetry of the antonym pairs.

'It-da/up-da' antonym type is classified as fixed and situational antonym by fixedness and the fixed antonym again is categorized as complementary and gradable antonym in this paper in discussing meaning extension.

Complementary antonym 'it-da/up-da' extension phase was from a object(human, thing)→space, object(human, thing)→act→space, physical position→social position, physical position→psychological position, concreteness→abstractness, state→motion. And the semantic dispersion is well-balanced in the central meaning but in the extended meaning the more extended has semantic dispersion imbalance. In addition, the meaning extension of 'it-da/up-da' starts from the archetypical meaning of absolute opposition, but, as that process advances the opposition aspect has been confirmed to be weakened. As a result, the range of extended 'it-da' was broader than that of 'up-da'.

Gradable antonym 'it-da/up-da' extension is from objectivity to subjectivity. The subjectification means the process which the subjectivity strengthens. The cognitive process where a narrator expresses his/her own perspective through intervention within the sentence context is called the subjectification. Under the narrator's subjective interpretation functioning, the extension of the gradable antonym 'it-da/up-da' is being realized towards quantative, hierarchical and evaluative opposition. And this can be explained with the figure-ground theory. A objective existence as the background meaning of the gradable antonym 'it-da/up-da' is the result of transcending the individual biases and following objective and absolute judgments. However, because the quantitative, hierarchical and evaluative degree reflects the narrator's subjective attitude and belief, the focalization proceeds towards the figure. Therefore, 'it-da/up-da' as a gradable antonym is considered as many/little, high/low and good/bad based on the narrator's psychological standard primarily and finally 'many, high and good' which are positive is conceptualized as

‘it-da’ and ‘little, low and bad’ which are negative as ‘up-da’.

‘It-da’ in certain situation and context becomes antonymy to ‘empty, illusion, die’ according to the human’s experiential cognition and that functions as an extended meaning of ‘up-da’. In reverse, ‘full, reality, live’ can be assumed as the extended meaning of ‘it-da’. So, ‘container schema’, ‘substance-illusion schema’ and ‘life-death schema’ are the realization of the schematic expansion of ‘it-da/up-da’ and a new meaning extension is formed. ‘Substance-illusion schema’ and ‘life-death schema’ which are the embodiment schema also originated from the empirical cognition and can be applied to ‘it-da/up-da’. ‘Container schema’ does not display the body image however, is the conclusion derived from the sensory and perceptive experience from the world where we interact with and act in. The image schema pattern of the specific object and situation is used to experience and understand the abstract entity and event. And positive and negative value is added to that. The value: ‘The full is positive’, ‘The empty is negative’ in ‘container schema’, ‘Substance is positive’, ‘Illusion is negative’ in ‘substance-illusion schema’ and ‘The alive is positive’, ‘The dead is negative’ in ‘life-death schema’ is inseparable from human perception.

Unlike structural semantics, cognitive semantics considers the function of antonym pair as asymmetrical. ‘It-da/up-da’ which was regarded as symmetric has been identified to have asymmetry in the layers of form, syntax, pragmatics and semantics. To put it concretely, it exists in many areas including markedness, compounding, derivation, function words, interrogative sentence, honorific system, idiom, discourse marker, topic marker, frequency and meaning extension aspect. We can narrow down these causes of asymmetry to three. The first is that ‘it-da’ is more archetypal and ‘up-da’ which exists as ‘negative’ in the meaning scope of ‘it-da’ is derived from ‘it-da’ and is secondary and complementary as well. The second is from the human cognitive salience differences between ‘existence’ and ‘non-existence’. Because of being visible, ‘existence’ is easily recognize the specific objects and under that function of the cognitive experience, its structural approach to an abstract object is possible and lastly, the meaning conceptualization is well realized than that of ‘up-da’ in verbal expression. A third cause is that ‘it-da’ has gotten a higher value than ‘up-da’ has in experience familiarity and preference.

Numerous improvements are still needed in this research. The mechanism for meaning extension of 'it-da/up-da' has not been addressed in a more diverse and detailed manner and the discussion on frequencies according to the meaning should have been done with more corpora. Though, with three cognitive semantics theories the mechanism in meaning extension of 'it-da/up-da' which functions as a diverse antonym has been discovered. Furthermore, asymmetry of antonym pairs has been found and applied in explain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formation, semantics, pragmatics and meaning layers. And I think that there is some significance for that. And what is missed in this research would be my assignment which needs to be made up for.